

국립국어원
2025년 대화 및 텍스트
요약 말뭉치 구축 연구
연구 책임자 | 차 정 원

2025년 대화 및 텍스트 요약 말뭉치 구축 연구

연구 책임자 | 차 정 원



국립국어원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2025년 대화 및 텍스트 요약 말뭉치 구축 연구'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 기간: 2025년 04월 15일 ~ 2025년 12월 12일

2025년 12월 12일

연구책임자: 차정원(데이터리)

연구 기관: 데이터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차정원

공동연구원: 신서인

보조연구원: 최윤진, 이민희, 서민지,

박수연, 유승빈, 전광훈, 김도원,

이한범, 이수현, 박진현, 전상호,

김나현, 윤호진, 정민교

<국문 요약>

2025년 대화 및 텍스트 요약 말뭉치 구축 연구

본 사업은 신문 사설 기사 자료와 협력적 대화 자료를 분석하여 중요 정보를 문장 또는 발화 단위로 선정하고 추상 요약문 정보를 생성하는 과업과 구축된 추상 요약문 데이터에 대한 인간 평가 자료를 생성하는 과업으로 구성되었다. 본 사업의 목표는 언어 연구 및 인공지능 기술 학습 데이터로 사용될 대화 및 텍스트 요약 말뭉치 및 평가 자료를 구축하고, 국어 교육이나 한국어 교육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요약 지침과 평가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구축 대상 말뭉치는 국립국어원 신문 말뭉치, 협력적 대화 말뭉치를 대상으로 주제별 균등 추출 후 완성도 평가 결과 유창성 95% 이상인 문서로만 구성하였다. 신문의 사설을 대상으로 한 논증적 글 요약 말뭉치는 중심 문장 선정의 용이성을 위해 한 문장 단위로 분리하였으며, 두 개 이상의 주제가 포함되거나 제목과 내용이 불일치하는 문서를 사전에 제외하였다. 협력적 대화 말뭉치는 구축 작업 이전 작업 관리자가 발화 구간 분할 및 소주제를 구분한 문서로 배포하여 작업자의 추상 요약문 작성을 지원하였다.

요약문 작성 지침은 기존의 신문 사설 요약문 작성 지침을 보완하고,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 구축을 위한 지침을 신규 수립하였다. 특히 협력적 대화 요약 지침은 화자별 균등성, 객관성, 요약문의 추상화 수준을 고려하여 수립되었다. 이러한 지침을 기반으로 신문 사설 기사 및 협력적 대화 자료를 대상으로 요약문 1건당 2개의 요약문을 작성하여 총 2,016건의 논증적 글 요약 말뭉치와 1,020건의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를 구축하였다. 요약문 작성 시 작업자를 2개의 팀으로 나누고 팀 간 의견 교환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결과물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최종적으로 추상 요약 품질은 BLEU-2와 BERTScore를 활용하여 요약문 구축 결과물과 기계 활용 추출 요약 결과물 간 문장과 의미 유사도를 비교·평가하여 검증하였다. 이 결과 모든 말뭉치가 평가 목표 수치인 BLEU-2 0.3 이상 0.6 이하, BERTScore 0.8 이상을 달성하였다.

논증적 글 요약 평가 지침은 전년도 사업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기존 평가자 간 편차를 해결하고자 평가 기준별 예시를 보완하고 기준을 세분화하여 체계화하였다. 또한, 평가 준거 중 ‘내용’ 항목을 세 가지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 근거 문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협력적 대화 요약 평가 지침의 경우, 금년도 사업에서 기존의 평가

방안을 바탕으로 협력적 대화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 방법론을 마련하고 지침을 신규 수립하였다. 구축된 추상 요약문을 대상으로 요약문 1건당 3인의 인간 평가 결과를 구축하여 총 3,024건의 논증적 글 요약 평가 말뭉치와 1,530건의 협력적 대화 요약 평가 말뭉치를 구축하였다. 평가 인력은 세 팀으로 나누어 철저하게 관리하였으며, 작업 도구에서는 1인당 구축 수량을 미리 분배하여 신속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였다. 인간 평가 결과 총점 및 표현 항목의 평균이 만점의 70% 이하인 요약문은 검수, 수정을 거쳐 품질 기준을 확보한 최종 말뭉치를 생성했다.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된 요약 및 평가 말뭉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으로서 기존의 문자 기반 연구를 넘어 구어 영역까지 확장된 학습 데이터를 제공한다. 특히 이러한 데이터는 한국어 특화 모델의 언어적 다양성과 일반화 성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며, 체계화된 지침과 함께 인공지능 기반 요약 및 평가 서비스 개발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한국어 관련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말뭉치 구축 체계 고도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대화 및 텍스트 요약 말뭉치, 인간 평가 자료, 지침 수립, 논증적 글 요약, 협력적 대화 요약, 정답 말뭉치

<Abstract>

2025 Dialogue & Text Summarization Corpus Research Analysis

This project consists of analyzing newspaper editorial article data and collaborative dialogue data to identify important information at the sentence or utterance level and generate abstractive summary information, as well as generating human evaluation data for the constructed abstractive summaries. The objective of this project is to build dialogue and text summarization corpora and evaluation data that can be used as linguistic research resources and AI training data, and to provide summarization and evaluation guidelines that can be utilized as reference material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or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education.

The target corpora were constructed by evenly sampling topics from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s newspaper and collaborative dialogue corpora, and including only documents that achieved a fluency score of at least 95% in the completeness evaluation. The argumentative text summarization corpus was divided into individual sentences to facilitate the selection of central sentences, and documents containing more than one topic or showing inconsistency between title and content were excluded in advance. For the collaborative dialogue corpus, the task manager distributed documents in which utterance segments and subtopics had been classified prior to annotation, supporting annotators in producing abstractive summaries.

The summarization guidelines were created by supplementing the existing guidelines for newspaper editorial summarization and newly establishing guidelines for the construction of the collaborative dialogue summarization corpus. In particular, the collaborative dialogue summarization guidelines were developed with consideration of speaker balance, objectivity, and the level of abstraction in summaries. Based on these guidelines, two summaries were

produced for each newspaper editorial and collaborative dialogue source, resulting in the construction of an argumentative text summarization corpus and a collaborative dialogue summarization corpus. Annotators were divided into two teams, and communication between teams was strictly managed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the results. The quality of the abstractive summaries was finally verified using BLEU-2 and BERTScore by comparing the sentence-level and semantic similarity between the constructed summaries and machine-generated extractive summaries, and all corpora achieved the target evaluation thresholds.

The evaluation guidelines for argumentative text summarization were systematized by reviewing the previous year's results, supplementing examples for each evaluation criterion, and refining the criteria to resolve discrepancies among evaluators. In addition, the "content" evaluation category was divided into three subcategories, and concrete procedures were developed to guide the writing of evidence sentences. For collaborative dialogue summarization evaluation, new guidelines were establish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collaborative dialogue while referring to the existing evaluation methodology. Human evaluation was carried out by three evaluators per summary, and a corpus of argumentative text summarization evaluation and collaborative dialogue summarization evaluation was constructed. Evaluators were divided into three teams for strict quality control, and the annotation tool pre-distributed the number of items allocated per person to enable efficient work progress. Summaries whose total score and expression score averages were below 70 percent of the full score were reviewed and revised through an inspection process to secure the quality of the final corpus.

The summarization and evaluation corpora constructed through this project provide training data that extend beyond written texts into spoken language as a core resource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se data greatly contribute to improving the linguistic diversity and generalization performance of Korean language-specialized models and, together with the

systematized guidelines, will serve as a key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AI-based summarization and evaluation services. Ultimately, the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Korean language AI technology and the sophistication of corpus construction systems.

Key Words: Abstractive Summarization, Summarization Corpus, Collaborative Dialogue, Argumentative Text, Human Evaluation, Summarization & Evaluation Guidelines

차 례

제1장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3
1.2. 사업 범위	3
1.3. 사업 수행 기관	5
1.4. 사업 추진 경과	6
1.4.1. 말뚝치 구축 방안	7
1.4.2. 말뚝치 평가 방안	8
1.4.3. 지침 수립 방안	9
1.4.4. 일정 수립 방안	10
1.4.5. 사업 관리 방안	11

제2장 말뚝치 구축

2.1. 말뚝치 정제	15
2.1.1. 말뚝치 대상	15
2.1.2. 작업 단위 정제	19
2.2. 말뚝치 구축 내용	21
2.2.1. 구축 작업 내용	22
2.3. 말뚝치 구축 환경	23
2.3.1. 구축 도구	23
2.3.2. 작업자 교육	27
2.3.3. 작업물 검수 및 수정	30
2.3.4. 작업자 관리 지침	31

차 례

2.4. 말뭉치 평가	34
2.4.1. 인간 평가	34
2.4.2. 추상 요약 품질 평가	40
2.4.3. 평가 말뭉치 품질 평가	42
2.5. 말뭉치 구축 결과	44
2.5.1. 논증적 글 요약 말뭉치 구축 결과	44
2.5.2.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 구축 결과	47
2.5.3. 말뭉치 평가 결과	52

제3장 요약 말뭉치 구축 및 평가 지침

3.1. 논증적 글 요약 지침 개선 및 보완	61
3.1.1. 구축 지침 보완 내용 및 결과	61
3.1.2. 평가 지침 보완 내용 및 결과	63
3.2. 협력적 대화 요약 지침 수립	65
3.2.1. 구축 지침 수립 방안	65
3.2.2. 구축 지침 수립 내용	67
3.2.3. 구축 지침 수립 결과	72
3.2.4. 평가 지침 수립 방안	73
3.2.5. 평가 지침 수립 내용	75
3.2.6. 평가 지침 수립 결과	80

차 례

제4장 결론

4.1. 사업 요약	83
4.2. 한계 및 향후 연구	83

참고 문헌

부록

- [붙임1] 소주제 분할 작업 방법
- [붙임2] 신문 사설 요약문 작성 지침
- [붙임3] 협력적 대화 요약문 작성 지침
- [붙임4] 신문 사설 요약문 평가 지침
- [붙임5] 협력적 대화 요약문 평가 지침
- [붙임6] 작업자 관리 지침

표 차례

<표 1> 말뭉치 구축 및 평가 작업별 설명	8
<표 2> 논증적 글 요약 말뭉치 작업 대상 문서 정제	15
<표 3> 논증적 글 요약 말뭉치의 대상 문서 주제(topic) 비율	16
<표 4>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 작업 대상 문서 정제	16
<표 5> 협력적 대화 발화별 평균	17
<표 6> 협력적 대화 270~350개 발화 문서 수	17
<표 7> 2021년 일상 대화 말뭉치 중 270~350개 발화 문서의 주제 분포	17
<표 8> 2022년 일상 대화 말뭉치 중 270~350개 발화 문서의 주제 분포	18
<표 9> 추출된 문서의 관계 분포	18
<표 10>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의 대상 문서 주제(topic) 비율	18
<표 11> 요약문 구축 작업물 예시	20
<표 12> 요약문 구축 작업자 이력 사항	28
<표 13> 구축 작업자 교육 내용	29
<표 14> 평가자 이력 사항	36
<표 15> 평가자 교육 내용	37
<표 16> 추상 요약 품질 평가 결과	41
<표 17> 정답 말뭉치 주제별 문서 수	42
<표 18> F1 평가 결과	43
<표 19> 논증적 글 요약 말뭉치 구축 작업량	44
<표 20>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 구축 작업량	47
<표 21> 평가자 작업량	52
<표 22> 전문가 자문 내용 1	62
<표 23> 전문가 자문 내용 2	64
<표 24>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 구축 지침 작성 회의	65
<표 25> 전문가 자문 내용 3	65
<표 26>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 평가 지침 작성 회의	73
<표 27> 전문가 자문 내용 4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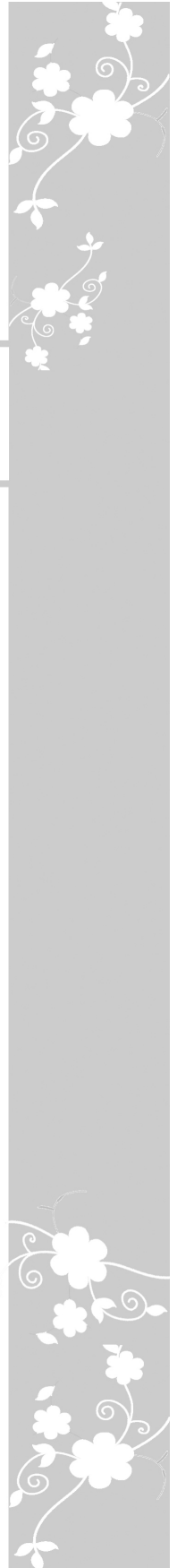
그림 차례

[그림 1] 사업 수행 기관	5
[그림 2] 문장 단위 분할 오류 해결 방안 적용	19
[그림 3] 소주제별 분할 작업 도구	21
[그림 4] 요약 말뭉치 구축 과정	22
[그림 5] 논증적 글 요약 구축 도구 전체 화면	24
[그림 6] 협력적 대화 요약 구축 도구 전체 화면	25
[그림 7] 소주제 구간 확인 및 중심 발화 선정	26
[그림 8] 협력적 대화 요약문 작성	26
[그림 9] 논증적 글 요약 질의응답 화면	30
[그림 10] 논증적 글 요약 피드백 화면	31
[그림 11] 협력적 대화 요약 피드백 화면	31
[그림 12] 요약 말뭉치 1차 검수 과정	31
[그림 13] 요약 말뭉치 인간 평가 작업 절차	35
[그림 14] 협력적 대화 요약 평가 도구 전체 화면	38
[그림 15] 논증적 글 요약 평가 도구 전체 화면	39
[그림 16] 신문 사설 기사 메타 정보 표시 창	40
[그림 17] 논증적 글 요약 말뭉치 추상 요약 품질 평가 결과서	41
[그림 18]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 추상 요약 품질 평가 결과서	41



제 1 장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2025년 대화 및 텍스트 요약 말뭉치 구축 연구’ 사업은 다국어 언어 모델이 한국어 텍스트의 문맥 추론과 정보 축약 과정에서 보이는 한계를 보완하고, 한국어 특화 모델의 추론·맥락 유지·발화 간 관계 파악 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고품질 한국어 추상 요약 말뭉치 구축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본 사업은 논증적 글 자료(신문 사설)를 분석하여 신문 사설 요약 말뭉치를 구축하고 평가 점수와 근거 문장 기반의 고도화된 평가 말뭉치를 구축하며, 협력적 대화 자료를 분석하여 구간을 분할하고, 소주제를 부착한 대상 문서에 대한 소주제 요약문, 전체 요약문 및 이에 대한 평가 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이 과정에서 신문 사설 요약 지침과 평가 지침을 정비하고, 신규 과업인 협력적 대화 자료에 대한 말뭉치 구축 및 평가 방안을 정립하며 추상 요약의 품질을 검증하는 절차를 체계화함으로써 요약문 생산 및 평가 과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된 추상 요약 말뭉치와 요약·평가 지침 및 평가 결과 등은 민간과 학계에 공개되어 국어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내 요약 기술 발전과 평가 기준의 표준화를 촉진하며, 한국어 기반 인공지능·데이터 기술 발전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활용되어 향후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사업 범위

본 사업의 수행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논증적 글 요약 말뭉치 구축

- 국립국어원 ‘신문 말뭉치 2024’에서 기본 조건에 충족하는 신문 사설 기사를 1,000건 이상 선별하여 사설 기사 한 건당 2개의 요약문을 구축한다.
- 작업은 논증적 글 요약문 구축 집단을 2개로 분리하여 같은 집단 내에서만 작업 관련 질의응답과 논의가 가능하게 하고, 집단 간 동일한 기사의 요약 결과물을 확인할 수 없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진행한다.

□ 논증적 글 요약 방법론 및 지침 보완

- 논증적 글 요약문 작성을 위해 요약 방법론과 지침을 보완한다.
- 사설 기사 내 중요 문장 선정 방법론 보완 및 추상 요약문 작성 방안, 요약문 작성 시 주의 사항, 한국어 어문 규범 준수 등의 사항을 기술한다.

□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 구축

-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일상 대화 말뭉치 2021, 2022’에서 기본 조건에 충족하는 협력적 대화를 500건 이상 선별하여 대상 문서 한 건당 2개의 요약문을 구축한다.
- 구축 결과물 10%(50건) 이상은 3~4인 협력적 대화로 구축한다.
- 작업은 협력적 대화 요약문 구축 집단을 2개로 분리하여 같은 집단 내에서만 작업 관련 질의응답과 논의가 가능하게 하고, 집단 간 동일한 기사의 요약 결과물을 확인할 수 없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진행한다.

□ 협력적 대화 요약 방법론 및 지침 수립

- 협력적 대화 요약을 위한 요약 방법론과 지침을 마련한다.
- 대화 내 중심 발화 선정 방법론 수립 및 소주제별 요약문과 전체 요약문 작성 방안, 요약문 작성 시 주의 사항, 한국어 어문 규범 준수 등의 사항을 기술한다.

□ 대화 및 텍스트 요약 인간 평가

- 논증적 글 요약 결과물 2,016건을 대상으로 ‘문제 상황’, ‘주장’, ‘논거 또는 실천 방안’, ‘긴밀성 및 완결성’, ‘문장 및 어휘’의 세부 평가 항목별로 7점 척도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각 평가에 대한 근거 문장을 작성하여 인간 평가 결과를 구축한다.
- 협력적 대화 요약 결과물 1,020건을 대상으로 ‘적절성’, ‘총망라성’, ‘명료성’, ‘긴밀성 및 완결성’, ‘문장 및 어휘’의 세부 평가 항목별로 7점 척도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각 평가에 대한 근거 문장을 작성하여 인간 평가 결과를 구축한다.
- 요약문 1건당 3개의 인간 평가 결과를 산출하며, 3개의 평가 집단으로 구성된 국어학 전공 석·박사급 전문가가 동일한 기사에 대해 구축된 두 개의 요약문을 동시에 검토하고 차등을 두어 평가한다.
- 인간 평가 결과 3인의 총점 평균이 70점 이하, ‘표현’ 항목의 평균이 4.9점 이하인 요약문은 작업 관리자가 일부 오타자와 띄어쓰기 등을 수정한다.

□ 대화 및 텍스트 요약 인간 평가 방법론 및 지침 수립

- 논증적 글 요약, 협력적 대화 요약 결과물을 대상으로 인간 평가를 위한 방법론을 수립 및 보완한다.
- 논증적 글 요약의 3가지 평가 준거(내용, 조직, 표현)와 5개의 세부 평가 항목(문제 상황, 주장, 논거 및 실천 방안, 긴밀성 및 완결성, 문장 및 어휘), 그리고 평가 항목별 근거 문장 작성 방법을 보완한다.
- 협력적 대화 요약의 3가지 평가 준거(내용, 조직, 표현)와 8개의 세부 평가 항목(적절성, 총망라성, 명료성, 긴밀성 및 완결성, 문장 및 어휘), 그리고 평가 항목별 근거 문장 작성 방법을 수립한다.

1.3. 사업 수행 기관



[그림 1] 사업 수행 기관

본 사업의 참여 기관은 데이터리(Data.ly)와 한림대학교 두 기관이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업무를 분담하였고, 그에 따라 데이터리는 전체 사업 관리와 기술적인 부분 업무를 맡았으며 한림대학교는 언어학적 부분인 작업 지침 수립 및 말뭉치 검증과 평가 업무를 맡았다.

데이터리는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과업을 담당하는 ‘기술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사업 범위와 요구사항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공정 관리를 통해 전반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 세부 과업을 확인하고 구축 도구 및 작업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정비하였다. 주기적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국립국어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였으며, 수행 중에 발생하는 이슈는 기관 간 조율을 통해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대화 및 텍스트 요약문 작성 및 평가 작업을 위한 데이터를 정제하였고, 관련 도구를 개발하여 구축 및 평가 결과물의 분배와 수합을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하였다. 구축 완료 이후에는 인간 평가 결과를 점수화하여 평가 데이터를 구축하고, 기준 미달 데이터를 선별하고 수정하는 절차를 통해 말뭉치 성능을 향상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말뭉치의 추상 요약 품질은 BLEU-2와 BERTScore를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검증하였다. 구축된 평가 말뭉치는 국어학 전문가가 구축한 정답 말뭉치와의 일치도를 f1 점수를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한림대학교는 국어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언어적 과업을 수행하는 ‘언어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기존의 신문 사설 요약문 작성 지침을 보완하였으며,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 구축을 위한 지침을 수립하였다. 논증적 글 요약 말뭉치의 인간 평가 방법론을 개선하였고, 협력적 대화 요약에 적합한 평가 체계를 수립하였다. 또한, 말뭉치 평가 작업에 직접 참여하고 정답 말뭉치를 구축하는 등 실제 작업 경험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의 지침 교육을 담당하여 작업자의 지침 이해도를 높였다. 아울러 작업 중 발생하는 질의응답과 피드백을 관리하여 작업물의 품질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1.4. 사업 추진 경과

본 사업의 주요 내용은 논증적 글 요약 및 협력적 대화 요약문 구축 작업과 구축된 요약문 1건에 대한 3건의 인간 평가 결과를 구축하고 논증적 글 요약 구축 및 평가 지침을 수립하는 것이다.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앞서 직접 수행했던 국립국어원의 사업을 분석하여 효율적이고 실제로 구현이 가능한 사업 수행 방안을 구성하였다. 이를 ‘구축 방안, 평가 방안, 지침 방안, 일정 수립 방안, 관리 방안’으로 나누어 각 방안을 기술하고자 한다.

1.4.1. 말뭉치 구축 방안

1.4.1.1. 작업 환경 및 작업 절차 설계

짧은 시간 내에 대화 및 텍스트 요약 말뭉치 구축에 필요한 요약문 작성 지침과 평가 지침을 우선적으로 보완·수립해야 했으며, 요약 말뭉치 구축과 그에 대한 평가 말뭉치 구축이 함께 이뤄져야 했기 때문에 사업 일정의 지연 없이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했다. 먼저, 대상 말뭉치의 경우 국어학 전문가들이 신문 사설과 협력적 대화 말뭉치의 선행 연구를 진행하여 주제별로 균등하게 추출하였다. 여기에 언어 모델을 활용하여 글의 완성도를 평가하는 절차를 추가해 유창성 95% 이상의 문서만을 추출하였다. 논증적 글 요약 말뭉치의 대상 문서는 문장 단위로 분할하는 정제 과정을 거쳐 가독성이 높고 중요 문장 선정에 용이하도록 문서를 생성하였다. 또한, 협력적 대화 말뭉치의 경우, 데이터리 관리자가 대화의 흐름을 고려하여 정제 작업을 수행하였다. 불필요한 발화는 소주제 구간에서 제외하고, 물리적으로 분할된 소주제 구간이더라도 연관된 내용은 동일 번호의 소주제로 지정 후 소주제명을 기입하여 작업자가 의미 있는 요약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한편, 작업 도구에서는 구축 및 평가 작업자 1인당 구축 수량을 미리 분배하여 구축과 평가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였다. 특히 구축 도구 내 ‘우리말샘 검색 기능’과 평가 도구 내 ‘소주제별 요약문 확인 기능’처럼 작업에 유용한 내부 기능들을 작업 도구에 추가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였다.

1.4.1.2. 작업자의 역할

대화 및 텍스트 요약 구축 및 평가 말뭉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작업자 자격 요건을 파악하여 작업자 선정 기준을 명시 후 작업자를 모집하였다. 구축 작업자의 경우 신문 사설과 대화의 맥락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요약문 작성에 필요한 국어학적 지식이 있는 자를 선정하였으며, 평가 작업자의 경우 국립국어원 말뭉치 요약 평가 사업에 참여 경험이 있거나, 국어학 관련 전공 석사 수료 이상 전문가를 선정하여 고품질의 평가 말뭉치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업자 모집 이후 이들을 대상으로 작업자 교육을 실시하고, 구축 및 평가 작업을 진행하였다. 작업자와 작업 내용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구분	요약문 구축	요약문 평가
작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국어원 말뭉치 요약 사업 참여 경험자 국어학 관련 전공 학사 이상 사전 테스트 결과가 우수한 자 교육 담당자로부터 교육을 이수하고 지침 전체 내용을 숙지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국어원 말뭉치 요약 평가 사업 참여 경험자 국어학 관련 전공 석사 수료 이상 전문가 국어 글쓰기 및 고급 작문 관련 강의 및 사업 경험자 교육 담당자로부터 교육을 이수하고 지침 전체 내용을 숙지한 자
작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국어원 신문 말뭉치 2024’ 중 추출된 1,018 문서를 기준으로 중요 문장 선정 후 300자 이내의 추상 요약문을 작성함 ‘국립국어원 일상 대화 말뭉치 2021, 2022’ 중 추출된 510 문서를 기준으로 700자 이내의 추상 요약문을 작성함 작업자는 두 팀으로 나뉘어 동일한 문서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결과물을 작성하며, 각 팀 간 의견 교환은 허용되지 않음 주차 별 작업으로 요약문 작성과 함께 관리자의 피드백에 따라 요약문 수정 작업을 병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축된 두 개의 논증적 글 요약문을 읽고 문제 상황, 주장, 논거 또는 실천 방안, 긴밀성 및 완결성, 문장 및 어휘 총 5개의 세부 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준거별로 평가 근거 문장을 작성함 구축된 두 개의 협력적 대화 요약문을 읽고 적절성, 총망라성, 명료성, 긴밀성 및 완결성, 문장 및 어휘 총 5개의 세부 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준거별로 평가 근거 문장을 작성함 평가자는 세 팀으로 나뉘어 동일한 요약 결과물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평가 결과물을 생성하며, 각 팀 간 의견 교환은 허용되지 않음

<표 1> 말뭉치 구축 및 평가 작업별 설명

1.4.2. 말뭉치 평가 방안

대화 및 텍스트 요약 말뭉치의 적절한 성능 평가를 위해 결과물의 특성에 맞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먼저 논증적 글 요약 말뭉치는 신문 사설 기사의 핵심적인 정보를 담은 추상 요약문을 작성하는 과제이며,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는 대화 맥락의 소주제별로 핵심적인 정보를 담은 추상 요약문을 작성하는 과제이다. 구축 말뭉치와 함께 이에 대한 인간 평가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3개의 인간 평가 팀이 평가한 점수의 전체 평균 점수가 4.9점 이상이며 표현 항목의 전체 평균이 70점 이상인 요약문을 정답으로 인정하는 평가 방법을 사용하였다.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세 평가 집단은 국어학

관련 석·박사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각각 철저히 분리된 작업 환경에서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내 작업 오류는 작업 관리자가 수시 확인하여 결과물 내 오류를 최소화하였다.

대화 및 텍스트 요약 말뭉치가 사람이 작성한 추상 요약임을 증명하고자 chatGPT 4o로 생성된 추출 요약과 비교·평가하였다. 먼저, 추출 요약 결과물을 생성하고, 추상 요약 결과물의 형식과 일치시키는 과정을 거쳤다. 두 결과물 간 비교·평가 방법은 추상 요약 문장과 추출 요약 문장 간의 일치도를 측정하여 품질을 평가하는 BLEU-2와 요약문 문장에 사용된 단어 간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문맥을 파악하여 의미 유사도를 평가하는 BERTScore를 활용하였다. 기계 추출을 이용한 요약이 아님을 증명하는 BLEU-2의 성능 목표는 0.3 이상 0.6 이하로, 추상 요약 과정에서 의미가 변질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BERTScore는 0.8 이상을 목표로 작업하였다. 한편, 평가 말뭉치 검증을 위해 요약문 구축 지침을 작성한 언어팀의 전문가가 전체 평가 결과물의 10%에 해당하는 ‘정답 말뭉치’를 구축하였다. 정답 말뭉치는 특정 주제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구축 말뭉치의 전반적인 품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topic)의 문서를 선별하여 다양한 분야와 유형에 대한 요약 품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1.4.3. 지침 수립 방안

대화 및 텍스트 요약문 작성 지침은 국어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침을 작성해 본 경험을 보유한 국어학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문서 유형별 요약문 작성 방법론을 분석하고 이를 신문 사설 기사와 협력적 대화에 적용해 지침을 수립하였다.

먼저 논증적 글 요약문 작성 지침은 기존 지침과 신문 사설의 특징을 분석한 후 특징에 따른 중요 문장 선정 및 요약문 작성 방법론을 보완하고 중요 문장 선정 요령과 요약문 작성 방안, 예시를 중심으로 보완하였다. 여기에 실제 구축 작업자들의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추가 기술 사항을 파악하여 실용적인 지침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논증적 글 요약 평가 지침은 구축된 요약 결과물의 특성을 재확인하여 평가 준거를 정립하고, 평가 근거 문장 작성 방안을 세분화하였다.

협력적 대화 요약문 작성 지침의 경우 기존에 없던 신규 과제였으므로, 협력적 대화 요약 및 평가 지침을 새롭게 수립하는 것에 주력하였다. 협력적 대화의 특징을 분석한 후 특징에 따른 소주제 구간 설정, 소주제별 요약 및 전체 요약문 작성 방법 등 실제 작업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립하였다. 또한 협력적 대화 요약 평가 지침은 다수의 화자가 참여하는 대화 텍스트의 성격과 하나의 대화 내에 다수의 소주제가 포함되거나 특정 소주제가 논의된 후 다른 주제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이전 주제로 회귀하는 등의 비선형적 흐름을 고려하여 수립하였으며, 평가 준거와 세부 항목을 수립하고 평가 근거 문장 작성 방안에 관련된 예시를 추가하여 실제 평가 작업에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3장의 ‘요약 말뭉치 구축 및 평가 지침’을 참고하면 된다.

1.4.4. 일정 수립 방안

대화 및 텍스트 요약 말뭉치는 동시에 두 가지의 구축 작업이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작업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사업 일정을 수립하였다. 사업 착수 후 1개월은 원문 데이터를 정제하고 작업자와 평가자를 모집하여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신규 작업 도구를 구현하고 기존의 프로세스를 점검 및 보완하여 구축 작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였으며, 논증적 글 요약 말뭉치와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 구축 작업을 위한 지침의 초안을 마련했다.

사업 초반 구축 작업에 관련된 준비를 마무리하고 요약문 구축 작업을 실시하였다. 논증적 글 요약 말뭉치 구축 작업의 경우 평균 220어절 미만, 내용과 제목이 같은 문서, 주제가 균등한 문서, 글의 완성도가 높은 문서를 대상으로 1,008건의 신문 사설에 요약문이 2개씩 생성되어야 했으므로 총 2,016건의 요약문을 8주에 걸쳐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 구축 작업의 경우 270~350개 발화 이하, 주제와 관계가 균등한 문서를 대상으로 510건의 협력적 대화에 요약문이 2개씩 생성되어야 했으므로 총 1,020건의 요약문을 7주에 걸쳐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두 가지의 구축 작업에 대한 피드백은 작업 관리자가 구축 작업 기간 동안 매주 제공하여 꾸준히 작업물을 관리하였다. 대화 및 텍스트 요약 평가 작업의 경우, 작업 관리자의 2차 검수를 거친 구축 결과물인 요약문 1개당 평가 결과가 3개씩 생성되도록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순서는 협력적 대화 요약 평가 결과물을 구축한 이후 논증적 글 요약 평가 결과물을 생성하였다. 이에 따라 협력적 대화 요약 평가는 총 1,530건의 평가 데이터를 5주에 걸쳐 구축하고, 논증적 글 요약 평가는 총 3,024건의 평가 데이터를 10주에 걸쳐 구축하는 일정으로 계획했다. 또한 사업 중 지침의 세부적인 내용 수정을 위한 자문 회의를 개최했으며, 최종 수정 내용은 국립국어 원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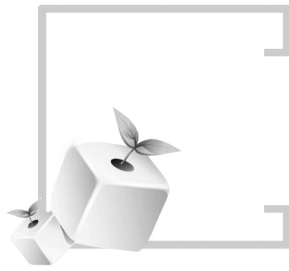
사업 후반 1~2개월은 작업 관리자의 최종 검수 및 수정, 국립국어원과의 협의에 대비하여 말뭉치 구축 기간에서 제외했다.

1.4.5. 사업 관리 방안

대화 및 텍스트 요약 구축 작업의 경우, 국어학 관련 전공자 이상이라는 기준에 적합한 작업자를 구인하여 착수 이후 즉각 작업자 교육을 진행하고 작업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작업 또한 주차 별로 말뭉치 구축과 결과물 검수 및 수정을 병행하여 지연 없이 구축 작업을 마무리하여 평가 작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였다. 지침 초안을 구축 작업 이전에 마련하여 구축 작업자의 교육과 작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간 지침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작업자에게 즉각적으로 안내하여 일관성 있게 최종 결과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작업 관리자는 주차 별로 생성된 구축 결과물의 전수 검수를 진행하여 발견된 오류를 즉시 수정하였고, 수정된 결과물로 평가 결과물을 생성함으로써 구축 결과물의 성능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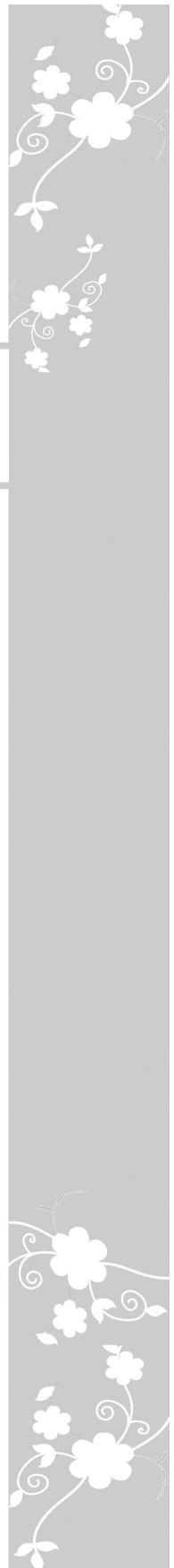
대화 및 텍스트 요약 평가 작업의 경우, 국어학 관련 석·박사 이상 전문가들로 구인하여 평가 과정에서 요약문의 어문 규범 준수 여부와 문장 구조의 오류들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 지침 수립 이후에는 지침 작성자가 평가 지침의 교육과 정답 말뭉치 구축 작업을 병행하였으며 작업 중 발생하는 질의응답에 빠르게 대응하여 오류를 최소화한 결과물이 생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투입된 국어학 전문가 인력들은 평가 지침의 체계적인 평가 기준을 숙지하여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평가 근거 문장 작성을 통해 요약 평가 결과물의 품질 향상에 도모하였다. 평가 작업은 구축 일정상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의 구축이 먼저 완료됨에 따라 해당 평가를 우선 진행하여 작업물 배포의 지연을 방지하였다.

사업에 관련된 진행 상황은 매주 월요일마다 주간 보고로 제출하였으며, 월말에는 월간 보고로 국립국어원에 사업 진행 척도와 주요 이슈 등을 전달하여 성공적이고 원활하게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였다.



제 2 장

말뭉치 구축



2.1. 말뭉치 정제

2.1.1. 말뭉치 대상

2.1.1.1. 논증적 글 요약 말뭉치

논증적 글 요약 말뭉치 정제 대상은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였으며, 문서 추출 및 정제 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 2> 논증적 글 요약 말뭉치 작업 대상 문서 정제

논증적 글 요약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문서를 추출하였다.

□ 대상 문서 추출 기준

- 220어절 미만 기사 제외
- 사설 기사 원문에 두 개 이상의 주제가 포함된 사설 기사 제외
- 내용과 제목이 상이한 사설 기사 제외
- 주제(topic) 균등 추출
- 글의 완성도가 높은 사설 기사 추출

신문 사설 기사의 길이가 너무 짧은 경우 신문사의 의견과 주장이 잘 드러나지 않고, 기사를 관통하는 중요 문장 선정뿐만 아니라 추상 요약문 작성에 사용할 정보가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220어절 미만 기사를 제외하여 총 1,125건의 사설 문서를 추출했고, 추출한 원시 말뭉치의 사설 기사 중 사설 제목과 내용이 연관성이 없거나, 두 개 이상의 주제가 포함된 문서를 제외하였다.

또한 최대한 다양한 주제의 사설 기사를 다루고자 추출된 문서의 ‘topic’ 비율을 조정하여 주제별로 문서가 고르게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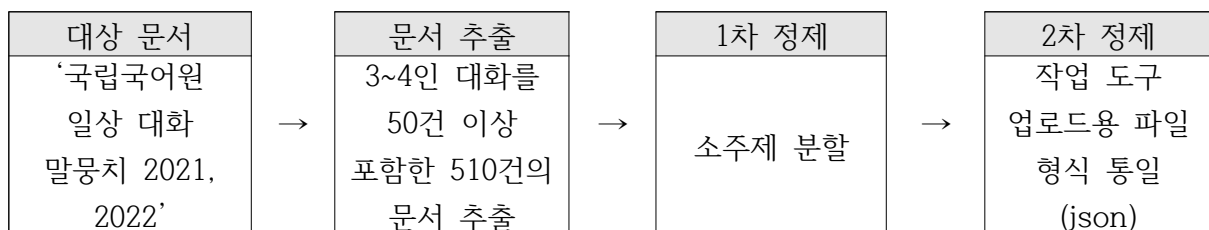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신문 사설 기사 내용을 학습한 언어 모델을 이용한 글 완성도 평가를 진행하여 fluency 95% 이상 문서만을 추출해 총 1,008건의 사설 기사에 대한 요약문을 구축했다.

주제(topic)	수량	비율
경제	250	24.8%
사회	249	24.7%
정치	233	23.11%
생활	134	13.29%
미용/건강	64	6.34%
IT/과학	55	5.5%
스포츠	16	1.58%
문화	6	0.59%
연예	1	0.09%
합계	1,008	100%

<표 3> 논증적 글 요약 말뭉치의 대상 문서 주제(topic) 비율

2.1.1.2.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

협력적 대화 요약 구축 대상 문서는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였으며, 문서 추출 및 정제 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 4>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 작업 대상 문서 정제

협력적 대화 요약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문서를 추출하였다.

□ 대상 문서 추출 기준

- 270개 이상 350개 발화 이하 문서 추출

- 주제 및 관계 균등 추출

협력적 대화의 내용이 너무 짧은 경우 발화자의 중심 주장이 잘 드러나지 않고, 반대로 너무 길 경우 과도하게 소주제가 많아질 우려가 있어 협력적 대화의 평균 발화 수를 계산하여 적절한 분량의 대화를 작업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주제 통계를 기반으로 각 주제가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데이터를 추출하였으며, 다양한 관계의 발화자가 참여한 대화를 요약 대상으로 선정하여 맥락과 상호작용이 반영된 문서를 작업 대상 문서로 추출하였다. 이때 수량이 적은 주제와 관계는 모두 포함하되, 상대적으로 수량이 많은 주제와 관계는 일부 조정하여 총 510건의 대화에 대한 협력적 대화 요약문을 구축했다. 추출한 주제와 발화 수별 문서 수량은 다음과 같다.

협력적 대화 발화 수		
구분	2021	2022
최소	153	225
최대	574	659
평균 발화 수	316.81	318.44

<표 5> 협력적 대화 발화별 평균

270개 이상 350개 이하 발화 수 문서		
구분	2021	2022
개수	499	285
합계	784	

<표 6> 협력적 대화 270~350개 발화 문서 수

2021 협력적 대화 주제 분포(2인)			
구분	주제	개수	추출
1	안락사 존엄사 법제화	66	46
2	비대면 생활이 미치는 영향	60	46
3	청소년에게 인터넷 스마트폰이 미치는 영향	57	46
4	AI의 직업 대체	56	46
5	공공 공간의 CCTV 설치	54	46
6	가짜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46	46
7	지역 내 기피시설 설치	43	43
8	원자력 발전소의 존폐	29	29
9	관혼상제	1	1
10	먹거리	1	1
11	휴가	1	1
	합계	414	351

2021 협력적 대화 주제 분포(3~4인)			
구분	주제	개수	추출
1	AI의 직업 대체	18	8
2	원자력 발전소의 존폐	18	8
3	공공 공간의 CCTV 설치	11	8
4	가짜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11	7
5	지역 내 기피시설 설치	10	8
6	청소년에게 인터넷 스마트폰이 미치는 영향	6	6
7	안락사 존엄사 법제화	5	5
8	비대면 생활이 미치는 영향	4	4
9	음악	1	1
10	쇼핑	1	1
	합계	85	56

<표 7> 2021년 일상 대화 말뭉치 중 270개~350개 발화 문서의 주제 분포

2022 협력적 대화 주제 분포(2인)				2022 협력적 대화 주제 분포(3~4인)			
구분	주제	개수	추출	구분	주제	개수	추출
1	전시회/박물관(전시)	20	20	1	패션/뷰티	24	7
2	책/도서	15	15	2	여행일반	23	7
3	반려동물	13	13	3	영화/드라마/음악(컨텐츠)	19	7
4	스포츠/레저	13	13	4	반려동물	18	7
5	음식/음료	13	13	5	스포츠/레저	17	7
6	영화/드라마/음악(컨텐츠)	13	13	6	음식/음료	15	7
7	연극/뮤지컬/콘서트(공연)	12	12	7	여행계획	14	7
8	여행일반	12	12	8	연극/뮤지컬/콘서트(공연)	13	7
9	패션/뷰티	11	11	9	책/도서	11	7
10	여행계획	8	8	10	전시회/박물관(전시)	1	1
	합계	130	130		합계	155	64

<표 8> 2022년 일상 대화 말뭉치 중 270개~350개 발화 이하 문서의 주제 분포

전체			전체		
구분	구분	개수	구분	구분	개수
1	친구	154	1	친구	61
2	부부	55	2	연인	31
3	부모/자녀	54	3	부부	21
4	모임_동아리 지인	41	4	모임_동아리 지인	19
5	형제/자매	39	5	기타	11
6	연인	29	6	대학 선후배	11
7	직장 동료	13	7	부모/자녀	11
8	기타 가족	7	8	형제/자매	10
9	대학 선후배	6	9	직장 동료	9
10	고향 선후배	4	10	기타 가족	6
11	이웃사촌	2	11	사제 관계	2
12	교회지인	2	12	교회지인	2
13	기타	1	13	기타	1
	합계	407		합계	195

<표 9> 추출된 문서의 관계 분포

주제(topic)	수량
AI의 직업 대체	47
가짜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45
지역 내 기피시설 설치	45
안락사·존엄사 법제화	43
청소년에게 인터넷·스마트폰이 미치는 영향	43
공공 공간의 CCTV 설치	43
비대면 생활이 미치는 영향	39
원자력 발전소의 존폐	36
스포츠/레저	19
여행일반	18
영화/드라마/음악(컨텐츠)	18
전시회/박물관(전시)	18

반려동물	17
책/도서	17
음식/음료	16
패션/뷰티	15
여행계획	13
연극/뮤지컬/콘서트(공연)	13
쇼핑	1
관혼상제	1
먹거리	1
휴가	1
음악	1
합계	510

<표 10>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의 대상 문서 주제(topic) 비율

2.1.2. 작업 단위 정제

2.1.2.1. 논증적 글 요약 말뭉치

논증적 글 요약 말뭉치는 중심 문장 선정의 용이성을 위해 사설 기사를 문장 단위로 분리하고, 각 문장에 고유한 ID를 부여하여 관리했다. 특히, 전년도 사업 결과물 분석을 바탕으로, 원문 사전 검수를 통해 두 개 이상의 주제가 포함된 문서 혹은 사설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문서를 사전에 제외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때 단순히 마침표('.')를 기준으로 문장을 분리할 경우, 인용절이나 소수점 표기 등으로 인해 문장이 비정상적으로 분리될 수 있으므로, '종결어미(-다) + 마침표'를 기준으로 기계적 분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따옴표가 포함된 문장은 시작 따옴표와 끝 따옴표가 동일 문장 내에 포함되도록 처리하였다. 최종적으로는 관리자가 수동으로 검토를 진행하여 분리 오류나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여 데이터의 체계성을 높였다.

<pre>["id": "NLRW2400000001.7.4", "form": "<p>A씨는 지난 9월 4일 새벽 5시에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 중략 ... 중앙분리대와 충돌했다. 이후 순찰자가 도주로를 차단하자 다시 돌아왔다.</p>"], ["id": "NLRW2400000001.7.5", "form": "<p>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이 상태로 약 820m를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p>"]</pre>	
<pre>["id": "NLRW2400000001.7.4", "form": "<p>A씨는 지난 9월 4일 새벽 5시에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 중략 ... 중앙분리대와 충돌했다. 이후 순찰자가 도주로를 차단하자 다시 돌아왔다."], ["id": "NLRW2400000001.7.5", "form":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이 상태로 약 820m를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pre>	<pre>["id": "NLRW2400000001.7.4", "form": "A씨는 지난 9월 4일 새벽 5시에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 중략 ... 중앙분리대와 충돌했다."], ["id": "NLRW2400000001.7.5", "form": "이후 순찰자가 도주로를 차단하자 다시 돌아왔다."], ["id": "NLRW2400000001.7.6", "form":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이 상태로 약 820m를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id": "NLRW2400000001.7.7", "form": "20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이 상태로 약 820m를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pre>

[그림 2] 문장 단위 분할 오류 해결 방안 적용

원문을 문장 단위로 분할하여 정제한 논증적 글 요약 구축 작업물 json 형식은 다음과 같다.

□ 논증적 글 요약 구축 작업물 json 형식

[사설] 수출 악화에 3高 악재까지… ‘잃어버린 30년’ 일본 전철 밟나
2.1: 24일 OECD가 취합해 공개한 자체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한국의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5.5% 줄어들었다.
2.2: 감소 폭은 아직 통계가 집계되지 않은 콜롬비아를 제외한 OECD 37개 회원국 중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에 이어 네 번째로 컸다.
2.3: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인 ‘30-50클럽’ 7개국 중에선 가장 많이 줄었다.
2.4: 수출뿐만이 아니다.
2.5: 수입액은 수출액보다 감소 속도가 더 컸다.
2.6: 한국의 7월 수입은 1년 전보다 25.4% 줄어 OECD 회원국 중 감소 폭이 최대였다.
2.7: 회원국 중 20% 이상 수입이 줄어든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중략)

<표 11> 요약문 구축 작업물 예시

2.1.2.2.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의 경우 구축 작업 이전 추출한 문서들을 대상으로 대화를 확인하고, 소주제 단위로 대화를 분할하는 작업을 선행하였다. 소주제 분할 작업은 관련 지침을 충분히 숙지한 국어학 전공의 사업 관리자가 수동으로 수행하였으며,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소주제 분할 전용 도구를 활용했다. 구현한 소주제 분할 도구의 전체 화면은 [그림 3]과 같다.

문서 ID: SDRW220000007.1

ID	Speaker_id	form	Sentence_set	keyword	Sub_topic
79	S02200016	그렇게 꼭 지금 갈 필요는 없으니까			
80	S02200015	나도 그게 좋다고 생각해.			
81	S02200015	아무래도 여름에			
82	S02200015	여행을 가면은			
83	S02200015	좀 다른 나라에서 많이 고생을 하게 되니까			
84	S02200015	나도 가을쯤에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			
85	S02200014	그러면 겨울로 가는 길로 한번 추진해 보자.			
86	S02200014	지역이 되게 고립되는데 오키나와도 있고 오사카			
87	S02200014	도쿄 아니만큼 삿포로			
88	S02200014	그렇게 뭐 대분류로 나뉘면 거의 내 지역이 있잖아.			
89	S02200014	가장 좋아하거나 가고 싶은 곳 있을까?	8	여름 지역 선정	소주제3
90	S02200016	나는 여행에 있을 때 후쿠오카항 오사카는 다녔고 가지고 여행이었던 곳 일본 도시로 가보고 싶어.			
91	S02200015	나는 도쿄항 후쿠오카 쪽을 가 봤어.			
92	S02200014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모두 만 일본 삿포로나 오키나와는 어떤?			
93	S02200015				
94	S02200016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95	S02200016	근데 겨울에 오키나와 따뜻할까?	9		소주제3
96	S02200015	나도 그쪽을 안 가 봤서 잘 모르겠어.			
97	S02200014	아 그렇구나.			
98	S02200014	내가 들은 정보로는 오키나와는 겨울에도 따뜻하고			
99	S02200015				
100	S02200014	일본의 제주도 같은 느낌이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			
101	S02200016	근데 뭔가 갑자기 제주도라고 하니가 재미있을 거 같아.			
102	S02200015	확실히 제주도라고 하면은 자연에 또 가는 느낌이란 하지.			
103	S02200014	하긴 그렇지만 같은 분위기면은 여행이면 새로운 분위기를 느끼는 게 더 좋으니까			
104	S02200016	그러면 겨울에 그냥 삿포로 가지 우리 주를 딱 다 즐겨.			
105	S02200015	종로 생각이라 그러면 겨울에 삿포로에서 하는 여행이 더 좋아?			

문서 1 / 1

☐ 미완성 문서로 표시 ☐ 미완성 문서만 보기

[JSON 불러오기](#) [저장](#)

[그림 3] 소주제별 분할 작업 도구

‘sentence_set’은 하나의 소주제에 포함되는 문장 집합을 의미하며, 작업 도구에서 마우스 우클릭 드래그를 통해 특정 구간을 선택하여 소주제 단위로 분할을 수행하였다. 이때 대화 1건당 3~6개의 소주제로 나누었으며, 발화자 전환에 상관없이 해당 소주제에 포함되는 모든 발화를 묶어 하나의 ‘sentence_set’으로 지정하였다. 구간 설정을 완료한 후에는 ‘sub_topic’ 항목에서 해당 소주제의 번호(1~6번까지 지정 가능)를 부착하였다. 이 과정에서 소주제 구간이 한 번 이상 분할된 후에도 이전 소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다시 등장할 경우, ‘sub_topic’에 같은 번호를 지정하여 해당 내용을 동일한 소주제로 묶을 수 있도록 하였다. ‘keyword’는 소주제명으로, 해당 소주제의 대화 전체 내용을 포괄하는 명사 또는 명사구 단위로 기입하였다. 소주제 분할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방법은 부록의 ‘소주제 분할 작업 방법’을 참고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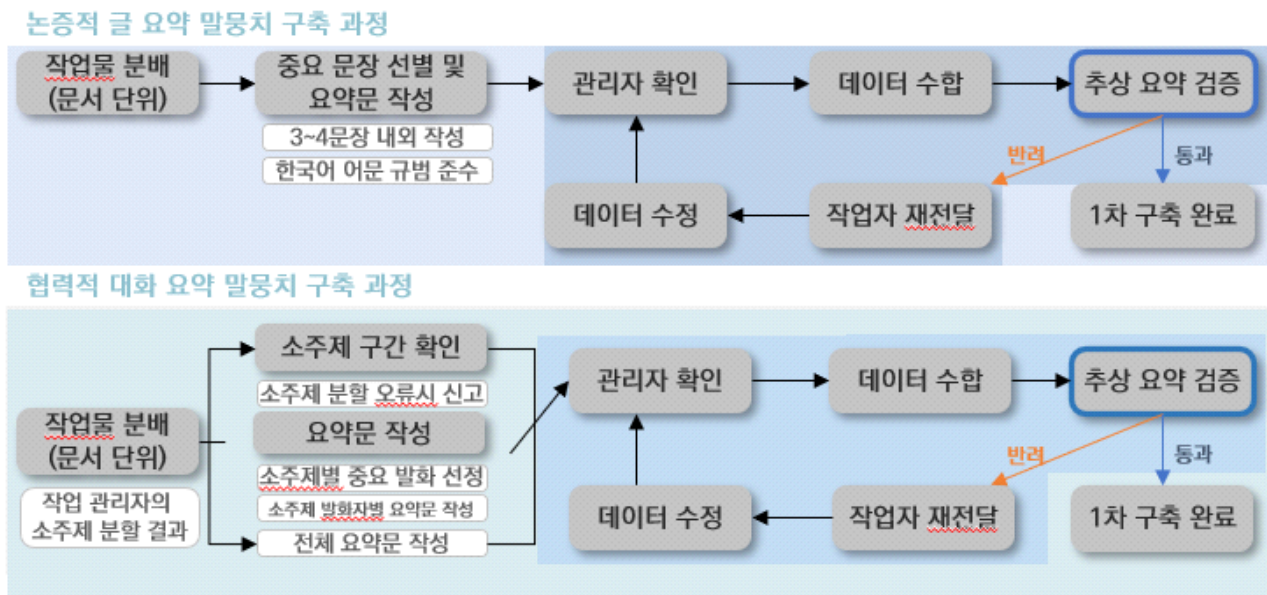
2.2. 말뭉치 구축 내용

본 사업에서 최종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말뭉치는 ‘논증적 글 요약 말뭉치 1,008건’, ‘논증적 글 요약 평가 말뭉치 1,008건’,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 510건’, ‘협력적 대화 요약 평가 말뭉치 510건’이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고품질의 논증적 글 요약 말뭉치와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를 구축하였다. 논증적 글 및 협력적 대화 요약 평가 말뭉치의

구축 절차는 ‘2.4. 말뭉치 평가’에서 설명하였다.

2.2.1. 구축 작업 내용

사업 기간 내에 논증적 글 요약 구축과 협력적 대화 요약 구축, 검수가 모두 이뤄져야 했다. 특히 신규 과제인 협력적 대화 요약 구축 작업의 경우 소주제별 요약문 작성과 전체 요약문 작성 모두 이뤄져야 하는 만큼 구축 기간 내에 수시로 피드백을 받고 수정할 수 있도록 작업 단위는 1주로 설정하였다. 구축 작업은 논증적 글 요약과 협력적 대화 요약을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2주 차부터는 첫 주에 구축한 결과물의 피드백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병행하였다. 아래 [그림 4]는 논증적 글 요약과 협력적 대화 요약 구축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요약 말뭉치 구축 과정

2.2.1.1. 논증적 글 요약 구축

논증적 글 요약 구축 작업자들은 1인이 1주 동안 18건의 작업을 진행했다. 작업자들은 주어진 사설 기사를 분석하고 중요 문장을 3~6개 내외로 선정한 후 추상 요약문을 작성하였다. 선정한 중요 문장을 기반으로 작업자들은 고유명사, 주요 어휘, 논자의 논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다시쓰기를 하여 추상 요약문을 작성하였다. 또한 매주 제공되는 관리자의

피드백 내용을 참고하여 전주 요약 결과물을 수정하는 작업을 병행하였다. 중요 문장 선정과 추상 요약문 작성 방법은 3장에 자세히 기술하였으며, 부록의 ‘신문 사설 요약문 작성 지침’을 참고하면 된다. 제출된 논증적 글 요약 결과물은 인간 평가 및 인공지능 성능 검증을 거치는데, 이는 ‘2.4. 말뭉치 평가’에서 설명한다.

2.2.1.2. 협력적 대화 요약 구축

협력적 대화 요약 구축 작업자들은 1인이 1주 동안 17건의 작업을 진행했다. 작업자들은 주어진 대화를 정독하고 3~6개로 나누어진 소주제 구간과 소주제명을 확인 후 대화 참여자의 발언을 일반화, 추상화하여 소주제 요약문을 작성했다. 이때, 소주제 요약문을 작성하며 참고한 대화 참여자의 발화들을 중심 발화로 선정하였다. 이후 작성한 소주제 요약문을 기반으로 대화 내용 전체를 포괄하는 전체 요약문을 작성하였다. 또한 구축 작업 기간 동안 작업 관리자가 매주 제공하는 피드백 내용을 참고하여 수정하는 작업을 병행하였다. 소주제 요약문과 전체 요약문 작성 방법은 3장에 자세히 기술하였으며, 부록의 ‘협력적 대화 요약문 작성 지침’을 참고하면 된다. 제출된 협력적 대화 요약 결과물은 인간 평가 및 인공지능 성능 검증을 거치는데, 이는 ‘2.4. 말뭉치 평가’에서 설명한다.

2.3. 말뭉치 구축 환경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대화 및 텍스트 요약 말뭉치 구축에 적합한 도구와 프로세스를 설계 및 개발하였다. 작업자는 논증적 글 요약 구축 팀, 협력적 대화 요약 구축팀으로 분리하여 사전에 지침 및 도구 교육과 피드백, 개별 교육을 진행하였다.

2.3.1. 구축 도구

요약문 구축은 데이터리가 보유 중인 로컬 기반 도구 ‘DIANA’를 활용하였다. 논증적 글 요약 구축 도구는 3~6개의 중요 문장을 선정하고 추상 요약문을 작성하는 데 적합한 형태로 개발하였다. 협력적 대화 요약 구축 도구는 발화 수가 많은 대화, 분할된 소주제

구간, 요약문 작성 칸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구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개발하였다. 또한 로컬 기반의 도구로서 언제 어디서든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다운로드 및 제출 외에는 인터넷이 불가한 환경에서도 작업할 수 있게 하였다. 만약 작업 도구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작업 도구를 수정 및 재배포하여 작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했다.

2.3.1.1. 논증적 글 요약 구축 도구

논증적 글 요약 구축 작업은 사실 기사를 정독하고 3~6개의 중요 문장을 선정한 뒤 300자 이내의 추상 요약문을 작성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작업 도구의 세부적인 실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5] 논증적 글 요약 구축 도구 전체 화면

논증적 글 요약 구축 도구로 작업 문서 파일을 열면 [그림 5]와 같은 화면이 표시된다. [그림 5]의 1번 부분은 문서의 사실 기사 본문이 나타나는 곳이며, 작업자는 해당 부분을 통해 사실 기사의 내용을 정독한다. 이때 원문 표시 창은 작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요약문을 작성하지 못하도록 복사나 붙여넣기 기능을 제한하였다. 사실의 내용을 확인 후 문장을 더블클릭하여 중요 문장을 선정한다. 선정된 중요 문장은 오름차순으로 자동 정렬되어 2번 부분인 중요 문장 칸 위에 등장한다. 이후 작업자는 선정한 중요 문장을 기반으로 3번 부분에 300자 이내의 추상 요약문을 작성한다. 추상 요약문은 작성 칸에

직접 입력해야 하며, 작성과 동시에 글자 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작업자는 4번 부분의 문서별로 자동 생성된 추출 요약문 창을 참고할 수 있는데, 추출 요약문과 추상 요약문의 일치도가 60% 이상이라면 결과물 제출이 제한된다. 300자 이하의 추상 요약문 작성 이 완료되면 6번 부분의 문서 넘김 버튼을 통해 다음 문서로 이동한다.

2.3.1.2. 협력적 대화 요약 구축 도구

협력적 대화 요약의 구축 작업은 주어진 대화, 소주제 구간과 소주제명을 정독하고 소주제별 요약문과 700자 이내의 전체 요약문을 작성하는 순서이다. 작업 도구의 세부적인 실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6] 협력적 대화 요약 구축 도구 전체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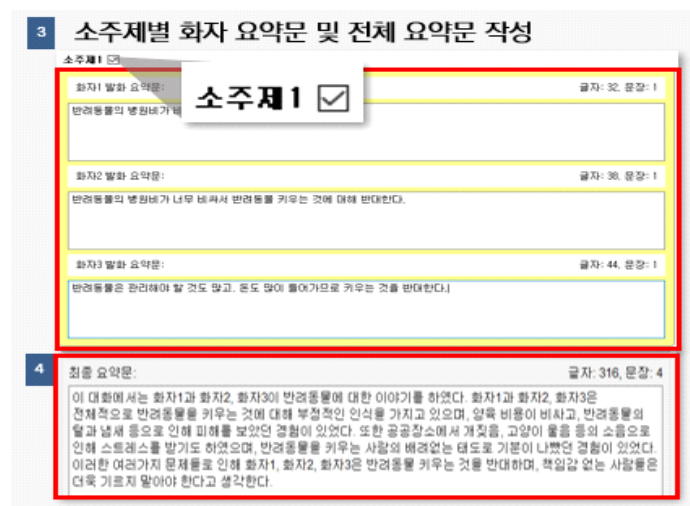
협력적 대화 요약 구축 도구로 작업 문서 파일을 열면 [그림 6]과 같은 화면이 표시된다. 작업자는 작업 도구에서 문서를 연 후 주어진 대화를 정독한다. 이때 작업자가 작업 문서에서 소주제 분할 오류를 발견하거나 해당 문서의 요약문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2번 부분의 버튼을 사용하여 오류 문서로 등록할 수 있다. 작업 관리자는 등록된 오류 문서를 검토하고, 오류 문서로 확인된 경우 대체 문서를 배포하였으며, 오류 문서가 아닌 경우 작업 여부에 따라 수합 혹은 재배포하였다. [그림 6]의 대화 표시 창에서 소주제별로 분리된 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2~4인으로 구성된 화자 정보와 3~6개로 분할된 소주제 구간은 본문 셀의 색깔로 구분된다. 작업자가 미리 분할된 소주

제 구간을 확인했을 때 소주제명이 소주제 분할 구간과 이질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직접 수정이 가능하다.

작업자는 요약문을 작성하며 화자별로 소주제에 대한 화자들의 생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발화를 중심 발화로 선정한다. 해당 문장을 더블클릭하면 중심 발화 선정이 가능하며, 소주제에 대한 중심 생각이 여러 발화에 나누어진 경우 모든 문장을 중심 발화로 선정한다. 선정한 중심 발화는 대화 창에 빨간색 글씨로 표시되며, 문장을 한 번 더 더블클릭하면 선정한 중심 발화를 취소할 수 있다.



[그림 7] 소주제 구간 확인 및 중심 발화 선정



[그림 8] 협력적 대화 요약문 작성

다음으로 소주제별 화자 요약문과 전체 요약문 작성 방법이다. 먼저 작업자는 [그림 8]의

3번 부분에 3~6개로 지정된 소주제 구간별로 각 발화자의 중심 생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이때 대화 참여자 중 소주제에 대해 의견이 없는 화자의 경우 화자별 발화 요약문 창에 '(없음)'이라고 작성한다. 소주제 작성 칸은 구간별로 대화 확인 창의 소주제 구간과 색이 동일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소주제별 요약문 작성 창 왼쪽 상단의 체크박스를 통해 [그림 6]의 1번 창에서 선택한 소주제의 구간만으로 한정하여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8]의 4번 부분은 전체 요약문 작성 칸이다. 협력적 대화 요약 작업자는 대화 내용과 작성한 소주제 요약문을 기반으로 화자별 혹은 소주제별로 대화 전체 내용을 700자 이내로 작성한다. 이때 전체 요약문 작성 창 오른쪽 상단에서 요약문 작성과 동시에 글자 수를 확인할 수 있다. 소주제별 화자 요약문과 700자 이하의 추상 요약문 작성이 완료되면 문서 넘김 버튼을 통해 다음 문서로 이동한다.

2.3.2. 작업자 교육

2.3.2.1. 작업자 선정 기준

본 사업의 논증적 글 요약은 신문 사설 기사의 특징을 파악하여 문제 상황, 주장, 논거 및 실천 방안의 문장들을 중요 문장으로 선정하고 글의 요점이 잘 드러나도록 재구성하여 추상 요약문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협력적 대화 요약은 대화의 소주제 구간별로 발화자의 중심 주장을 함축하고 있는 발화를 찾고 이를 기반으로 소주제별 요약문을 작성하고 대화의 전체 내용을 포괄하는 전체 요약문을 작성해야 하기에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뛰어난 작업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어 관련 전공이거나 요약 말뭉치 사업 경험이 있는 사람, 국어원 관련 사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작업자를 모집했다.

작업자 모집 시에는 각 작업별로 신문 사설 및 대화 분석 능력, 논리적 추론, 작문 능력, 어문 규범 지식을 평가하는 사전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사전 테스트는 대화 및 텍스트 요약 구축 작업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작업자인지를 판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논증적 글 요약 구축 테스트 항목은 신문 사설 기사를 제시하여 중요 문장을 선정 및 요약문 작성 항목과 어문 규범 지식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하였다. 이어서 협력적 대화 요약 구축 테스트 항목은 대화를 제시하여 중심 발화를 선정하고, 화자별 요약문과 전체 요약문을 작성하는 항목과 어문 규범 지식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하였다. 테스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부록의 '작업자 관리 지침'을 참고하면 된다.

작업자는 작업 지원과 동시에 ‘구글 폼’으로 답변을 제출하였고, 데이터리 관리자는 테스트 답변의 산출 점수를 바탕으로 작업에 바로 투입할 인원과 예비 작업자로 구분하였다. 선정된 논증적 글 요약과 협력적 대화 요약 작업자 25인의 이력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작업명	작업자	작업팀	부합 조건
논증적 글 요약 구축	1	A팀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2		한국어문화교육전공 석사과정
	3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4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5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6		국어국문학과 학사졸업
	7		국어국문학과 학사졸업
	8	B팀	교육학과 석사졸업
	9		국어국문학과 학사졸업
	10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11		국어국문학과 학사졸업
	12		국어국문학과 학사수료
	13		국어국문학과 학사
	14		한국철학과 학사졸업, 작가 활동 경력
협력적 대화 요약 구축	15	A팀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17		국어국문학과 졸업
	18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19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20		국어국문학과 학사과정
	21	B팀	국어국문학과 학사수료
	22		국어국문학과 학사졸업
	23		국어국문학과 학사졸업
	24		국어국문학과 학사졸업
	25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표 12> 요약문 구축 작업자 이력 사항

2.3.2.2. 작업자 교육 내용

논증적 글 요약 구축 작업의 경우 중요 문장 선정 방법과 추상 요약문 작성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해야 하고, 협력적 대화 요약 구축 작업 또한 소주제 요약문과 전체 요약문 작성 방법을 숙지해야 하므로 구축 시작 1주 전 지침 교육을 진행하였다. 지침 교육은 지침을 수립한 한림대의 전문가가 담당하였다. 전문가는 지침을 꼼꼼히 설명하고, 실습 문서를 통해 작업자들이 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이후 데이터리 관리자들이 구축 작업 도구 다운로드 방법, 접속과 작업 방법, 기능 사용 방법 등을 담당하여 교육하였다. 구축 작업자 교육 일정과 내용은 아래 <표 13>과 같다.

차수	일시	진행 방식	내용
1차	25. 5. 13. (논증적 글 요약)	비대면 교육 (ZO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증적 글/ 협력적 대화 요약문 구축 지침 교육 • 작업 도구 사용 방법 안내 • 작업 실습 진행 • 작업 일정 및 유의 사항 안내
	25. 5. 14. (협력적 대화 요약)		
2차	25. 6. 10. (논증적 글 요약)	비대면 교육 (ZO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 수정 사항 안내 • 작업 도구 수정 및 유의 사항 안내 • 작업자 작업물 분석 및 피드백 • 자주 발생하는 오류 공유
	25. 6. 11. (협력적 대화 요약)		
상시	-	작업물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리 관리자가 주차 별로 수합되는 작업물 확인 •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이용하여 작업물 오류 내용 공유 • 자체 검수 및 수정 요약문 제출

<표 13> 구축 작업자 교육 내용

논증적 글 요약 및 협력적 대화 구축 작업 1차 교육에서는 구축 지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도구 사용 방법, 주의 사항들을 안내하였다. 또한 작업자들의 지침 이해도를 높이고자 실제 구축 대상 문서를 대상으로 작업 실습을 진행하였다. 교육 이후 작업자는 A 팀과 B 팀에 무작위로 배정되었고, 논증적 글 요약 구축 팀은 7명, 협력적 대화 요약 구축 팀은 5명으로 분리되어 요약문을 구축하였다. 약 3주의 작업 진행 이후 2차 교육에서는 자주 나타나는 구축 오류를 대상으로 지침을 재교육하였으며, 작업 도구의 수정 사항과 유의 사항을 안내하였다. 한편 2차 교육과 별개로 매주 수합된 결과물을 관리자가 검토하여 3주차 작업물 배포부터는 2주 전 작업물의 피드백과 수정이 필요한 작업물을 함께 전달하였고, 작업자들은 2주 전 작업물을 자체 검수하고 수정한 작업물을 함께 제출하였다.

2.3.2.3. 작업자 질의응답

작업 시 발생하는 질의응답은 지침을 작성한 언어팀에서 맡아 관리하였으며, 논증적 글 요약과 협력적 대화 요약 작업별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각각 2개(A, B 팀)로 분리하여 팀 간 의견을 교환할 수 없도록 관리하였다. 사업 초반 논증적 글 요약은 표기와 맞춤법, 띄어쓰기의 통일에 관련된 질의가 많았으며, 협력적 대화 요약의 경우 영문 표기 통일과 전체 요약문 작성 방법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또한 작업 초반 로컬 도구의 저장 기능이 불안정하여 결과물 자동 저장과 결과물 제출 오류 등이 발생하여 관련 질의가 많이 발생

하였으나, 기술팀에서 즉각적으로 조치하여 작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였다.

A	B	C	D	E	F
날짜	질문자	문서 id	신문 사실 제재와 원문	질문	답변
2025.06.16	A		인터넷이란 말 그대로 컴퓨터 통신망을 그물처럼 연결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인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으며, 방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런 인터넷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제대로 알고 정보화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2025.06.25	D		인터넷은 그동안 생각만큼 그친 적잖은 주주의 실현 가능성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아바타, 대리현상 등의 다양한 정체성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의 익명성을 통해 국적이나 신분, 계급, 연령, 남녀 등의 현실사회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자유와 평등의 신장을 가져왔다. 또한 다양한 정보의 공유를 통하여 개개인의 역량이 강화되었으며, 표준화 단계를 거쳐서 소통의 원활,	영어 단어 표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소피니는대로 5G-5X, LCD-엘피디. 성남 FC-성남 엑스세, SK 하이닉스-엑스케이 하이닉스, SOC 투자-엑스오씨 투자, IT 박람회-하이라인 박람회, CES 2030-세이레스 2030 등으로 표기하면 되나요?	언어(문) 외국 문자의 언어인 경우 대응자로 작성하나, <우리말샘>에 등재가 되어 있는 경우 등재어로 작성하여도 됩니다.
2025.06.27	D			담당자님 통화 내용대로 영문 원문 그대로 작성하겠습니다.	
2025.06.30	D		전세 사기로 인한 청년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례는 전청부자로 온 김갑 이 전세 대출 분백을 받은 정부 정책과 악덕 임대인, 중개사, 금융사, 보증 기관, 김과 소울 이 낳은 폐단이다.	왼쪽 요약본 중 김갑 이 띄어쓰기 오류라고 지적하셨는데, 우리말샘에 검색해 본 결과 붙여쓰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최신 바랍니다.	언어(문) '김갑'은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소울'이는 '소울'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07.02	F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위기 종단과 함께 규제 방법과 지원 정책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해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마련하라고 관계 장관에게 지시했다.	소울 이 아니라 소울 이 맞지 않나요?	언어(문) '소울'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07.07	H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더 이상 소울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게 아니군요... 문맥을 잘 읽어 보시면, 관리 감독 소울 이 주어입니다. 부서로서의 소울 이 아니라 소울 이 명시됩니다..	언어(문)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2025.07.07	E		아파트 거래량이 5개월 연속 1,000건 미만에 그치는 초유의 거래 절벽 속에서, 정부는 13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통해 주택 시장 연착륙을 도모하고, 서울시는 아파트 36층 중고 재향 폐지로 재건축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분양가 기준 중도금 대출 제한 해제, 전세 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 해제 등은 1주택자의 갈아타기를 유도하고 분양 시장 위축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김갑 금등의 재향 우리 는 여전히 존재하며, 부동산 규제 완화가 거품 낀 김갑 을 지지하거나 과열을 부추기는 역할을 해선 안된다.	[1. 띄어쓰기 오류 : 거품 낀 김갑 을 지지하거나, 폐선 연 된다 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말샘에 김갑 은 붙여쓰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월 의 6번에서도 같은 의미를 냈고, 그렇게 정정해 주셨습니다.	언어(문) '김갑'은 우리말샘에 '김-갑'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표현입니다. 1차로 표현 관련 오류가 전달되어 올 때, 지침에 따라 올바른 표현이라면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림 9] 논증적 글 요약 질의응답 화면

2.3.3. 작업물 검수 및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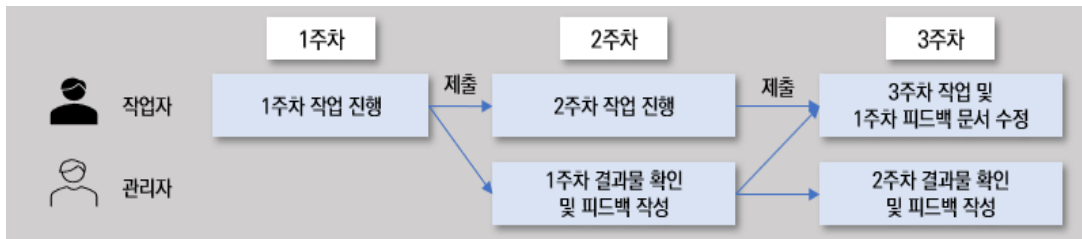
논증적 글 요약 말뭉치와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는 총 2번의 검수 과정을 거쳤으며, 그중 1차 검수는 작업자의 자체 검수로 진행되었다. 1차 검수는 주차 별 결과물을 작업 관리자가 1주 동안 검수한 후, 3주 차부터 작업자에게 피드백을 작성한 구글 시트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작업자는 관리자의 피드백을 받은 3주 차부터 해당 주차의 새로운 작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작업 도구에서 피드백 문서를 확인하고 기존 결과물에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출하였다. 즉, 한 주에 수행된 작업은 3주에 걸쳐 관리자의 검토와 작업자의 수정을 통해 완료되는 것이다. 작업자들은 자체 검수를 통해 자주 발생하는 맞춤법 및 띄어쓰기 오류, 직시 표현 미환원, 문장 성분의 호응 오류 등을 직접 수정하며 추가로 동일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이때 검수 및 피드백 시트의 형식은 아래의 [그림 10], [그림 11]과 같으며, 자세한 1차 검수 진행 과정은 [그림 12]와 같다.

index	step	작업자 id	DATE	문서번호	제목	원문	중요 문장	요약문	요약문 글자수	피드백
1	07	W06	20230414	NWRW24000 00001.13946	[사실] 대통령 지지율 27%에 원인 민심의 경고	2.1: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7%로 급락해 다시 20%대로 내려앉았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2.2: 지난해 11월 30%대를 회복한 지 5개월 만이다. 2.3: 지난해 9월 기록한 최저 지지율 24%에 근접하는 참담한 숫자다. 2.4: 윤 대통령과 여당은 '지지율 27%'에 담긴 민심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3.1: 여론조사에서 눈에 띄는 건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기반인 대구·경북(7K)에서도 부정평가(53%)가 긍정평가(44%)를 웃돌았다는 점이다. 3.2: 여권이 공을 들이는 MZ세대를 포함한 젊은층(20~40대)의 지지율도 모두 10%대에 머물렀다. 3.3: '주 69시간 노동시간' 등 시대착오적인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4.1: 국정수행 부정평가 이유로 '외교'(28%)가 압도적인 것은 미국의 국가안보실 도청에 대한 정부의 납득하기 어려운 대응 탓이다. 4.2: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정부를 도청한 기밀문건이 유출되는 주권 침해가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한·미 동맹'만을 되뇌며 자자세로 일관했다. 4.3: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국이 악의를 가지고 (도청)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 버린을 섰다. 4.4: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양보한 데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도 소극적으로 임하는 등 총체적 부실·무능외교에 대한 불신이 조사결과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4.5: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한편으로 각국이 살리고고 나오고 있는 전환기에 가치고고만 앞세우는 윤석열 정부가 과연 국익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4.6: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외교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 5.1: 다음달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는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5.2: 경제는 수출이 10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부동산·부자 감세로 세수적자도 심화되고 있다. 5.3: 하지만 민생을 최우선으로 돌봐야 할 정치권에서 협치는 실종했고, 그 책임이 여당에 있다. 5.4: 윤 대통령은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고, 최장기간 야당대표를	1.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7%로 급락해 다시 20%대로 내려앉았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2. 윤 대통령과 여당은 '지지율 27%'에 담긴 민심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3. 국정수행 부정평가 이유로 '외교'(28%)가 압도적인 것은 미국의 국가안보실 도청에 대한 정부의 납득하기 어려운 대응 탓이다. 4.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양보한 데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도 소극적으로 임하는 등 총체적 부실·무능외교에 대한 불신이 조사결과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5. 하지만 민생을 최우선으로 돌봐야 할 정치권에서 협치는 실종했고, 그 책임이 여당에 있다. 6.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결연히 민생에 귀를 기울이고, 야당과의 협치에 나서야 한다.	여론의 핵심 지지층인 대구·경북과 젊은 층의 이탈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7%로 추락하며 민심의 심각한 경고가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도청 사태에 대한 지지세 대응과 강제 동원 배상 양보,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등 총체적인 외교 실패가 지지율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경제는 침체되고 세수 적자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당의 협치는 실종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결연히 민생을 수습하고 야당과의 협치로 소용돌이 공전을 열어야 한다.	247	[표현 수정 : 강제 동원 배상 양보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은 일본과의 문제이기에 앞서 '일본'임을 추가하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러울 것임. 경기는 침체하고 있다는 말이 경제와 로 수정하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러울 듯함]

[그림 10] 논증적 글 요약 피드백 화면

인덱스	작업자 id	문서번호	제목	소주제 번호	소주제	화자1 발화 요약	화자2 발화 요약	화자3 발화 요약	화자4 발화 요약	전체 요약문	전체 요약문 글자 수	피드백
4	W17	SDRW2 100004 090.1	지역 내 기피시설 설치	1	경제적, 건강적 피해	적절한 보상을 통해 피해를 견딜 수 있다.	경제적, 건강적 피해를 본 사실을 밝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 대화에서 화자1과 화자2는 기피 시설 설치에 대해 이야기했다. 경제적, 건강적 피해에 대해 화자1은 적절한 보상을 통해 피해를 견딜 수 있다고 했고, 화자2는 경제적, 건강적 피해를 본 사실을 밝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다. 기피 시설 입지 선정 기준으로 화자1은 기피 시설 근처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건강에 해가 되는 시설은 인적이 없는 곳에 설치하면 된다. 기피 시설 입지 선정 기준으로 화자1은 기피 시설 근처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건강에 해가 되는 시설은 인적이 없는 곳에 설치하면 된다고 했고, 화자2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도 자신의 집 앞은 안 된다고 했다. 피해 보상 전문가 집단의 필요성에 대해 화자1은 피해 보상을 처리하기 어렵고, 화자2는	362	[건강과 경제적 피해를 받은 사실을 밝기 때문에 반대한다.(최종 요약문에도 반영) 2. 띄어쓰기 오류]
				2	기피 시설 입지 선정 기준	기피 시설 근처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건강에 해가 되는 시설은 인적이 없는 곳에 설치하면 된다.	꼭 필요한 시설이라도 자신의 집 앞은 안 된다.					
				3	피해 보상 전문가 집단의 필요성	피해 보상을 처리하기 어렵다.	피해 보상 전문가를 발전시켜 집 앞에 기피 시설을 설치해도 반대의 목소리가 없게 해야 한다.					

[그림 11] 협력적 대화 요약 피드백 화면



[그림 12] 요약 말뭉치 1차 검수 과정

2차 검수는 관리자의 전수 검수로, 1차 검수가 완료된 최종 구축 결과물을 대상으로 국립국어원의 요약 사업에 경험이 있는 작업 관리자가 진행하였다. 피드백 미반영 사항, 지침 위반 내용 및 오타자와 띄어쓰기, 어문 규범 위반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수정하였으며, 2차 검수가 완료된 구축 결과물로 평가 작업물을 생성하여 평가 대상 작업물의 오류 및 최종 결과물에 대한 오류를 최소화했다.

2.3.4. 작업자 관리 지침

대화 및 텍스트 요약 말뭉치 연구 분석 사업에 참여하는 작업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작업자들에게 주요 업무 내용과 역할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명확한 작업 방향을 제공하여 작업의 중요성을 상기하고자 작업자 관리 지침을 구축하였다. 지침에는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 선정 기준과 교육 훈련 및 내용, 작업 방법들을 기술하여 구축 및 평가가 요구되는 유사 사업의 초반 작업자 선정에 방향성을 제공했고 전반적인 작업자 관리에 도움을 주었다. 작업자 관리 지침의 목차 및 내용은 아래와 같고, 실제 작업자 관리 지침은 부록을 참고하면 된다.

I. 작업자 관리 지침 개요

1.1. 목적

- 작업자 관리 지침의 목적은 작업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에 둠

1.2. 필요성

- 작업자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작업자들의 동기부여를 도모함

1.3. 용어의 정의

- 작업자 관리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해두어 지침을 활용하는 자의 이해를 도움

II. 작업자 선정

2.1. 작업자 역할

- 작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여 명확한 작업 방향을 설정함
- 작업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함

2.2. 작업자 모집 기준 및 방법

- 작업자 모집 기준과 방법을 명시하여 작업에 적합한 작업자를 모집하였음을 증명함

III. 작업 수행

3.1. 작업자 교육 훈련

- 교육 훈련 예상 일정과 실제 진행된 교육 일정을 기술함
- 교육 훈련 내용과 방법, 교육 지침 자료 내용을 기술함

3.2. 작업 내용

- 진행된 작업에 관한 간략한 작업 설명을 기술함

3.3. 작업 환경

- 작업에 사용된 도구에 관한 상세 설명을 기술함
- 배포, 수합 등 작업 진행 과정을 구조화하여 기술함

3.4. 작업 관리

- 작업 단계별 작업자 관리 담당자의 관리 방안을 체계적으로 기술함

IV. 작업 평가

4.1. 작업자 작업 결과

- 작업자의 작업 기간, 작업 수량 등을 표로 제시하여 실제 작업자가 구축 작업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함

4.2. 성과 평가 방법

- 작업물 성과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작업자들의 작업물 성능을 목록화하여 제시함
-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오류 개선 내역을 목록화하여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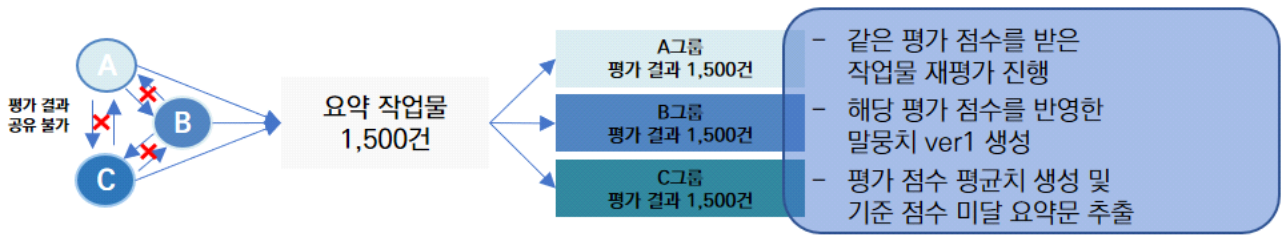
2.4. 말뭉치 평가

대화 및 텍스트 요약 말뭉치를 평가하는 방안은 크게 인간 평가와 추상 요약 품질 평가 두 가지이다. 인간 평가는 국어학 관련 전공 석사 수료 이상의 전문 인력들을 투입하여 3건의 평가 결과를 생성한 후 평가 점수의 평균을 산정하였고, 기준 점수 미달 문서는 작업 관리자가 평가 근거 문장을 참고하여 직접 수정하였으며, 이를 요약 말뭉치의 최종 구축본으로 확정하였다. 수정 기준 점수는 인간 평가 3인의 총점 평균 70점 이하, ‘표현’ 항목 평균 4.9점 이하로 설정하였다.

추상 요약 품질은 요약문 구축 결과물과 기계 활용 추출 요약 결과물 간 비교를 통해 평가하였으며, 평가 방법으로는 BLEU-2와 BERTScore가 사용되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결과물 간 문장 유사도와 의미 유사도를 모두 비교·평가할 수 있어 더욱 세밀하고 명확한 평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별도로 구축된 평가 정답 말뭉치와 최종 평가 말뭉치를 대상으로 F1-score 방법을 사용하여 비교함으로써, 평가 말뭉치의 성능과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2.4.1. 인간 평가

논증적 글 요약 말뭉치와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를 대상으로 인간 평가 자료 및 평가 말뭉치를 구축하고자 평가 작업에 적합한 인력을 고용하고 평가 프로세스를 설계하였다. 평가자는 국립국어원 말뭉치 요약 평가 사업 참여 경험이 있고, 국어학 관련 전공 석사 수료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전문가들로 구인하여 평가 말뭉치의 품질을 향상하고자 했다. 구인된 평가자에게는 지침에 대한 사전 교육과 피드백, 개별 교육을 진행하였고, 논증적 글 요약과 협력적 대화 요약문 한 건당 3인의 인간 평가 점수를 산출하고자 평가자를 A, B, C 세 팀으로 분리하였다. 각 팀 간 의견 교환은 절대 불가하도록 관리하여 평가 결과물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했으며, 평가 작업 도구는 데이터리가 보유 중인 로컬 기반 도구 ‘DIANA’를 활용하였다.



[그림 13] 요약 말뭉치 인간 평가 작업 절차

2.4.1.1. 평가 작업 내용

평가 대상인 논증적 글 요약 및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는 평가 작업에 용이한 형식으로 구성된 작업 도구로 배포하였으며, 작업은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 평가, 논증적 글 요약 말뭉치 평가 순서로 진행되었다. 또한 평가 작업이 하나의 문서에 대한 두 가지의 요약문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까다로운 작업인 만큼, 작업을 1주 단위로 진행하여 평가 말뭉치 구축 과정의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그리고 3개로 분리된 평가팀에 주 차별 작업물을 동일한 문서로 배포하여 3건의 인간 평가 자료를 포함한 평가 말뭉치를 보다 빠르게 구축하였다.

요약 말뭉치 평가자들은 총 15주의 평가 작업 중 5주 동안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 평가를 먼저 진행했다. 1주 동안 협력적 대화와 2건의 협력적 대화 요약 결과물이 포함된 17건의 문서를 평가하였다. 협력적 대화 요약 평가는 5가지의 세부 항목(적절성, 총망라성, 명료성, 긴밀성 및 완결성, 문장 및 어휘)에 대하여 평가 지침 및 기준표를 바탕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해당 점수의 평가 근거를 작성하였다. 협력적 대화 요약 평가는 금년도에 신규로 수립된 평가 지침을 바탕으로 평가 근거를 작성할 때 화자 각각의 입장이 균형 있게 요약문에 작성되었는지, 요약자의 주관이 반영되지는 않았는지, 요약문이 적절한 수준으로 추상화되어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근거 문장을 작성하였다.

평가자들은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 평가 완료 후 10주 동안 논증적 글 요약 말뭉치 평가를 진행했다. 1주 동안 신문 사설과 2건의 논증적 글 요약 결과물이 포함된 18건의 문서를 평가하였고, 논증적 글 요약 평가는 세부 항목 5가지(문제 상황, 주장, 논거 또는 실천 방안, 긴밀성 및 완결성, 문장 및 어휘)에 대하여 평가 지침 및 기준표를 바탕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해당 점수의 평가 근거를 작성하였다. 논증적 글 요약 평가의 경우, 2024년도에 구축된 요약 결과물의 특성을 확인하여 평가 준거를 재정립하였다. 기존 평가

자 간 편차가 컸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가 기준별 예시를 보완하여 평가의 일관성을 높였으며, 평가 기준을 세분화하여 체계화하였다. 또한, 평가 준거 중 ‘내용’ 항목의 근거 문장을 세 가지 준거(문제 상황, 주장, 논거 또는 실천 방안)로 나누어 작성할 수 있도록 근거 문장 작성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작업자는 이를 기준으로 평가 근거 문장을 작성하였으며, 평가 기준표 및 평가 방법은 3장에 자세히 기술하였으며, 부록의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 평가 지침’과 ‘신문 사설 요약문 평가 지침’을 참고하면 된다.

2.4.1.2. 평가자 선정

본 사업의 평가 말뭉치는 논증적 글 요약 말뭉치와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에 주요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한 편의 완결된 추상 요약문으로서 조직되어 있는지에 대한 평가 점수와 구체적인 평가 근거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추상 요약문에 대한 이해가 높은 평가자가 필요했다. 따라서 국어학 관련 전공 석·박사 출신의 전문가 혹은 국립국어원 말뭉치 요약 평가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평가자로 모집했다. 평가자는 언어팀의 참여 연구원이 소속된 국어학 관련 연구실 또는 연구자 모임 등에서 모집하였으며, 지침 구축을 담당한 언어팀 4인도 평가 작업에 투입되었다. 작업자 모집 이후 평가자 전 인원은 지침 교육을 이수한 후 3개의 팀으로 분리되었다. 선정된 평가자 18인의 이력 사항은 아래 <표 14>와 같다.

A팀		B팀		C팀	
ID	학력	ID	학력	ID	학력
A	국어국문학과 박사 졸업	A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A	국어국문학과 박사 졸업
B	국어국문학과 박사 수료	B	국어국문학과 박사 수료	B	국어국문학과 박사 수료
C	국어국문학과 박사 수료	C	국어국문학과 박사 수료, 언어팀	C	국어국문학과 박사 수료, 언어팀
D	국어국문학과 박사 수료, 언어팀	D	국어국문학과 박사 졸업, 언어팀	D	국어국문학과 박사 수료, 언어팀
E	국어국문학과 박사 수료	E	국어국문학과 박사 수료	E	국어국문학과 박사 수료
F	국어국문학과 박사 수료	F	국어국문학과 박사 수료	F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표 14> 평가자 이력 사항

2.4.1.3. 평가자 교육

협력적 대화 요약과 논증적 글 요약 말뭉치 두 가지 평가 작업 시작 1주 전 지침 교육과 도구 사용법 교육을 진행했다. 지침 교육은 지침을 수립한 한림대의 전문가가 담당하여 작업자의 지침 이해를 도왔다. 또한 실습 문서를 통해 작업자들이 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이후 데이터리 관리자들이 구축 작업 도구 다운로드 방법, 접속과 작업 방법, 기능 사용 방법 등을 담당하여 교육하였다. 본 사업의 평가 작업은 협력적 대화 요약 평가가 마무리된 이후 협력적 대화 요약 평가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지침에 대한 숙지도를 높이기 위해 각 작업이 시작되기 1주 전 개별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른 평가 작업자 교육 일정과 내용은 아래 <표 15>와 같다.

일시	차수	진행 방식	내용
25. 7. 3.	1차	비대면 교육 (ZO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적 대화 요약문 평가 지침 교육 • 평가 도구 내 점수 및 근거 문장 작성 방법 안내 • 실습 진행 • 협력적 대화 요약 평가 일정 및 유의 사항 안내
25. 8. 7.	2차	비대면 교육 (ZO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증적 글 요약문 평가 지침 교육 • 평가 도구 내 점수 및 근거 문장 작성 방법 안내 • 실습 진행 • 논증적 글 요약 평가 일정 및 유의 사항 안내 • 자주 발생하는 오류 공유(피동문 작성, 점수 누락 등)
수시	-	작업물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관리자가 주차 별로 수합되는 작업물 확인 • 평가 점수 및 근거 문장 누락 확인 • 매주 발생하는 오류 정리 및 작업자 안내

<표 15> 평가자 교육 내용

2.4.1.4. 협력적 대화 요약 평가 작업 도구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 평가는 데이터리가 보유한 ‘DIANA’로 진행했다. 작업 도구는 평가 대상인 대화와 2건의 전체 요약문, 참고용 소주제별 요약문 등의 다양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화면으로 구성하여 평가자의 작업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로컬 기반의 도구를 사용하여 작업물 다운로드 및 제출 외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작업이 가능하였고, 평가 점수 및 근거 문장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어 평가자 모두 어려움 없이 사용하였다.

1. 대화 및 소주제 구간 확인

ID	speaker	form	distance	keyword	Subtopic
1	화자1	요즘 형소년들이			
2	화자1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데			
3	화자1	제 형소년들이			
4	화자1	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5	화자1	그래서 그 이유는			
6	화자1	우선은 형소년들이			
7	화자1	결정력이 많이 약해져서 때문이			
8	화자1	이			
9	화자1	이런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어오는 많은 뭐 게임이나 뭐 유튜브를			
10	화자1	본인들이 적절하게 시간 분배를 하면서			
11	화자1	결과를 못 하는 거 같아서			
12	화자1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 입장이에요.			
13	화자2		제		
14	화자2	그 형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에			
15	화자2		그 반	1	형소년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전반 논의
16	화자2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17	화자2	물론 아직 대화가 충분히 결정력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			
18	화자2		요즘 많은 정보관용가		
19	화자2		ON라인		
20	화자2		그 친구들의 소용도		
21	화자2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 가지고 어떻게		

2. 소주제별 요약문 확인

입자	주제	1개!	소주제	화자1 발화 요약	화자2 발화 요약	화자3 발화 요약
1	형소년들이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전반 논의	1	형소년들이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전반 논의	형소년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교육 관계를 형성하고 인내심에서 정보를 얻으므로 형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은 찬성한다.		
2	스마트폰이 형소년 신세 발달에 미치는 영향	2	스마트폰의 과다한 사용은 형소년의 시작 발달과 뇌 발달을 저하시킬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시작 저하 문제는 뇌 발달이나 신경 회로로 극복할 수 있다.		
3	스마트폰이 형소년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3	스마트폰 속 유희적인 미디어에 노출된 (합동)			

3. 대화 요약문 확인

4. 평가 점수 부여 및 근거 문장 작성

항목	평가 항목	점수	평가 사유
A 요약문	적절성	5	적절성
	명료성	6	명료성
	간결성	7	간결성
	완결성	7	완결성
B 요약문	적절성	5	적절성
	명료성	5	명료성
	간결성	7	간결성
	완결성	7	완결성

[그림 14] 협력적 대화 요약 평가 도구 전체 화면

[그림 14]는 협력적 대화 요약 평가 도구의 전체 화면이다. 1번 부분은 대상 문서의 대화, 소주제 구간이 나타나는 곳이며, 2번 부분은 협력적 대화 요약 구축 작업자가 작성한 소주제 요약문이 나타나는 곳이다. 소주제 요약문 창은 스크롤 하면 A, B 작업자의 소주제 요약문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3번 부분은 2개의 전체 요약문 정보 확인할 수 있는 창이며, 오른쪽 상단에서 요약문의 글자 수를 확인할 수 있다. 4번 부분은 평가 점수 부여 및 근거 문장 작성 창이다. 5개로 나누어진 평가 항목(적절성, 총망라성, 명료성, 간결성 및 완결성, 문장 및 어휘)을 각각 따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별 칸으로 구성하였으며, 평가자가 2개의 협력적 대화 요약문을 비교·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 점수 부여 시 내용 총점과 전체 총점을 자동 산정하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만약 평가 과정에서 해당 요약문이 생성 AI를 활용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평가 작성 창 오른쪽 상단에 있는 체크박스 기능을 활용하여 관리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2.4.1.5. 논증적 글 요약 평가 작업 도구

1 [사실] '포스트 연구중심의학' 실현 '접근 방법' 확 달라져야

경북도와 포항시가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연구중심 의과대학이 '의대중학과 병행'의 것처럼 포괄적 의료계 실용화 나설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건강' 확립과 '지역균형개발'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국민과 정부에게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등 접근 방법이 확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포항시와 경북도가 지난 9월 이후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포스트 의료계 실용화 포스트 연구중심의학' 설립(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런데는 포항시가 의사과학자 양성 지역으로서 소관한 바에이로 인하여 소관한 지역의료계와 의과대학에 △시대적 과제인 국가균형발전 문제 해결이라는 3대 요건을 갖췄으므로 '포스트 연구중심의학' 설립이 시급하고 당연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북도 포항시 포스트는 '바이오메디칼 산업을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으로 만든다'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이를 실현하는 '포스트 연구중심의학' 설립을 위한 의대중학 확대를 명문화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백신, 치료제 등 바이오메디칼 시장이 확대되고, 관련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의학교육 프로그램과 포스트 의료계 실용화 포스트 연구중심의학'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는 것에 이후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병욱 의원, 김부겸 장관 등 정부차, 이강재 포항시장, 김부겸 포항시청장 등 30여 명이 동의가 있어 합당하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날 '전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현안회의'를 구성해 의료현안(대한 노의)를 해결하면서 의사협회 측이 '교육정책' 의료사고 처벌면제 특례법' 제정과 의료수가 인상을 들고 나온 것으로 미뤄볼 때 의대중학 확대가 결코 의료사고 처벌면제 특례법'을 묻는 법의 대항력을 무너뜨리며,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부의 역할을 제한하는 만큼 민주적 합법성의 거론한 '삼권분립' 논란 소지가 나온다.

'의료수가' 문제는 다수 선진국과 비교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의대중학은 '국민건강' 확립과 결부되어 있고, 의료수가 인상은 의사 수입의 인플레이션과 연결된 만큼 비교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특례법 제정과 의료수가 인상을 의대중학 문제와 무조건 결부시키는 한교한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합리적으로 정부와의 합의에 임해야 한다.

2 **논거 평가 항목**

논거	평가 항목	A 요약문	B 요약문
내용	문제 상황	3	1
	주장	5	1
	논거 및 실현 방안	4	1
내용 총점		12	3
	간접성 및 완결성	1	1
표현	문장 및 어휘	1	1
	총점	30.06	0.00

3 **작성 시 고려사항**

1. 동일 문서에 대한 요약문 2건의 '내용', '조직' 두 영역에서는 반드시 1점 이상의 차를 평가

2. 두 요약문의 '내용' 점수나 '조직' 점수가 동일하다면, 상대적으로 잘 쓴 요약문의 점수를 1점 감점

3. 배점표는 고려하지 않아도 감점하면 되며, '조직' 점수 -17이라는 문어로 작성

4. 177 점(2023년 1월 1일 기준)을 넘는 점수는

평가 결과표

구분	내용
총점	30.06
조직	1
표현	1
간접성 및 완결성	1
문제 상황	3
주장	5
논거 및 실현 방안	4
내용 총점	12
간접성 및 완결성	1
문장 및 어휘	1
총점	30.06

[그림 15] 논증적 글 요약 평가 도구 전체 화면

[그림 15]는 논증적 글 요약 평가 도구의 전체 화면이다. 논증적 글 요약 말문치 평가 도구의 경우 평가 대상인 2개의 요약문과 신문 사설 원문, 작성 일자 및 주제 등의 사설 정보, 평가표 등 다양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형식으로 구현하였다. [그림 15]의 1번 부분은 논증적 글 요약 평가 대상 문서인 신문 사설 기사, 2개의 논증적 글 요약문이 나타나는 곳이며, 2번은 평가 점수 부여 및 근거 문장 작성 창이다. 협력적 대화 요약문 평가와 마찬가지로 평가 과정에서 해당 요약문이 생성 AI를 활용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관리자에게 신고하는 기능을 사용하였다. 3번 부분은 신문 사설 기사의 메타 정보가 나타나는 곳으로 기사 작성자, 작성 일자, 주제 등이 표시되며 평가자는 이를 참고하여 평가를 진행했다. 신문 사설 메타 정보의 예는 [그림 16]과 같다.

title	대경일보 2023년 기사
author	대경일보
publisher	대경일보
date	20230206
topic	미용/건강
original_topic	사설

[그림 16] 신문 사설 기사 메타 정보 표시 창

2.4.2. 추상 요약 품질 평가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와 논증적 글 요약 말뭉치의 추상 요약 품질 평가를 위해 기계를 활용하여 추출 요약한 결과물의 유사도 검사를 진행했다. 추상 요약 증명에는 2가지의 평가 방법을 활용하였는데, 첫 번째 평가 방법으로는 추상 요약문과 추출 요약문 내 문장 간의 일치도를 측정하여 품질을 평가하는 BLEU-2를 활용했다. 특히 2-그램을 사용하여 연속된 두 단어를 하나의 단위로 설정 후 결과물을 비교하여 문장 구성 요소의 유사성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추상 요약문은 단순히 원문의 특정 문장을 추출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변형된 문장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성능 목표는 0.3 이상 0.6 이하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 평가 방법은 추상 요약문과 추출 요약문 내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문맥을 파악하여 의미 유사도를 평가하는 BERTScore이다. 이는 벡터 유사도를 통해 계산되므로 BLEU-2에서 평가하기 어려운 단어 간 의미 관계의 유사도를 비교·평가하였으며, 평가 성능 목표는 0.8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의 성능 평가를 통해 추상 요약문이 기계 추출을 이용한 요약이 아니며, 추상 요약 과정에서 의미가 변질되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논증적 글 요약 추상 요약 품질 평가는 신문 사설을 제공하고 기계가 중요 문장을 추출한 후, 추상 요약문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협력적 대화 요약의 추상 품질 평가는 대화 및 소주제 구간 정보를 제공하고 중심 발화를 추출한 후, 최종 요약문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추상 요약문과 추출 요약문 간의 비교·평가 결과는 사업 결과물로 함께 제출하였으며, 결과지의 형식은 [그림 17], [그림 18]과 같다.

INDEX	doc_id	제목	원문	metadata	중요요점	추상요약문	BLEU-2	BERT
	NLRW2400000003.1 10684	대경일보 2023년 기사	<p>장마 끝 시작된 폭염에 전국 곳곳에서는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주말 사이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 연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를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이미 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p> <p>질병관리청 온열질환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까지 4명이던 온열질환자가 26일에는 46명, 29일에는 73명까지 급증했다. 폭염특보가 내린 주말 사이 무더위로 인해 숨진 사람은 12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p> <p>경북 경산시에서는 발열을 하던 70대 남성이 숨졌고, 문경과 예천에서도 폭염 속 고령자 사망이 잇따랐다. 광주에서는 야구 경기 입장권을 사기 위해 줄을 선 10대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지난 5월 말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누적 1015명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p> <p>온열질환을 피하려면 무엇보다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제일이다. 외출시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볕을 차단해야 한다. 또 어지러움이나 두통을 느낄 경우, 즉시 시원한 그늘로 이동하거나 가까운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p> <p>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에 고령 농업인을 비롯한 폭염 3대 취약분야 대책 추진에 만전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농촌진흥청은 현장 농업인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및 지자체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p> <p>폭염으로 건강관리에 어쩔게 대처해야 할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해가 진 뒤에도 잠처럼 수면수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일부 시민들은 심야에 강변이나 해변을 거니는 등 더위를 이기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p>	<p>title: 대경일보 2023년 기사</p> <p>author: 대경일보</p> <p>publisher: 대경일보</p> <p>date: 20230801</p> <p>topic: 사회</p> <p>original_topic: 사설</p> <p>documentId: NLRW2400000003.10684</p>	<p>본문에서는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과 폭염에 따른 주의사항을 다룬다.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소개하고, 폭염에 따른 주의사항을 소개한다.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소개하고, 폭염에 따른 주의사항을 소개한다.</p>	<p>질병 관리청 온열 질환 감시 체계에 따르면 2023년 7월 23일 4명이던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여 29일에는 73명이 되었으며 누적 1,015명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행정 안전부는 지방자치 단체와 관계 부처에 폭염 3대 취약 분야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고, 이에 지방자치 단체는 폭염 대책을 수립하고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죽거노인 등 폭염취약계층 방문 및 진화를 통한 건강진단, 안부조사 등 건강관리·한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한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를 강화했다. 이처럼 폭염 예방에 있으며 비닐하우스, 영농피해 예방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여 작업(농), 건설현장 등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을 철저, 폭염 대응을 대상으로 마을·가두방송 등을 활용, 현장중심 예방 활동 및 관리로 다.</p>	0.307095	0.899025

[그림 17] 논증적 대화 요약 말뭉치 추상 요약 품질 평가 결과서

INDEX	doc_id	제목	원문	metadata	A팀 중심 발화	추상요약문	BLEU-2	BERT
SDRW210000 1 0922.1		청소년에게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의 호/악영향, 사용 시간 제한 필요	SDRW2100000922.1.1: 요즘 청소년들이 SDRW2100000922.1.2: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데 SDRW2100000922.1.3: 저는 청소년들이 SDRW2100000922.1.4: 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SDRW2100000922.1.5: 그래서 그 이유는 SDRW2100000922.1.6: 우선은 청소년들이 SDRW2100000922.1.7: 결제력이 많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SDRW2100000922.1.8: 어 SDRW2100000922.1.9: 어떤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어오는 많은 뭐 게임이나 뭐 유튜브거리를 SDRW2100000922.1.10: 본인들이 적절하게 시간 배분을 하면서 SDRW2100000922.1.11: 결제할 수 없는 거 같아서 SDRW2100000922.1.12: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 입장이에요. SDRW2100000922.1.13: 저는 SDRW2100000922.1.14: 그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에 SDRW2100000922.1.15: 그 반 SDRW2100000922.1.16: 이제 정 SDRW2100000922.1.17: 물론 아직 어리기 때문에 결제력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 SDRW2100000922.1.18: 요즘 많은 정보라든가 SDRW2100000922.1.19: 아니면은 SDRW2100000922.1.20: 그 친구들과의 소통도 SDRW2100000922.1.21: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SDRW2100000922.1.22: 다	title: 청소년에게 인터넷·스마트폰이 미치는 영향 > 스마트폰 사용의 호/악영향, 사용시간 제한 필요 author: 개인 발화자 publisher: 개인 발화 녹음 date: 20211108 topic: 청소년에게 인터넷·스마트폰이 미치는 영향 > 스마트폰 사용의 호/악영향, 사용시간 제한 필요 original_topic: document_id: SDRW2100000922.1	SDRW2100000922.1.1.8: 어 SDRW2100000922.1.1.9: 어떤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어오는 많은 뭐 게임이나 뭐 유튜브거리를 SDRW2100000922.1.1.10: 본인들이 적절하게 시간 배분을 하면서 SDRW2100000922.1.1.11: 결제할 수 없는 거 같아서 SDRW2100000922.1.1.12: 약간 그 하여 시력이 나뉘 발달이 저하될 수 있고, 유한 부분이 있어서 반대 입장이에요. SDRW2100000922.1.1.13: 저는 SDRW2100000922.1.1.14: 그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거에 SDRW2100000922.1.1.15: 그 반 SDRW2100000922.1.1.16: 이제 정 SDRW2100000922.1.1.17: 물론 아직 어리기 때문에 결제력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 SDRW2100000922.1.1.18: 요즘 많은 정보라든가 SDRW2100000922.1.1.19: 아니면은 SDRW2100000922.1.1.20: 그 친구들과의 소통도 SDRW2100000922.1.1.21: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SDRW2100000922.1.1.22: 다	이 대화에서 화자1과 화자2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이야기했다. 화자1은 청소년들은 아직 결제력이 부족한 나이가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시력이 나뉘 발달이 저하될 수 있고, 유한 부분이 있어서 반대 입장이에요. 화자2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성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말했다. 반면 화자2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교육 관계를 형성하고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며, 시력 저하와 같은 부작용은 의학적인 방법이나 보조 도구로 극복이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접하는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는 능력도 부족하므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제한되어야 하며,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성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말했다.	0.307095203	0.867155556

[그림 18]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 추상 요약 품질 평가 결과서

위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2025년 대화 및 텍스트 요약 말뭉치’를 평가하였고, 아래의 <표 16>은 평가 결과이다. 해당 결과는 전체 구축 결과물 중 평가 목표치 이상을 달성한 문서 수량과 각 평가 방법인 BLEU-2와 BERTScore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비교·평가 결과				
작업 구분	평가 방법	개수(단위:건)	비율 (단위:%)	평균 (단위:점)
논증적 글 요약 말뭉치	BLEU-2	1,008	100	0.34
	BERTScore	1,008	100	0.85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	BLEU-2	510	100	0.34
	BERTScore	510	100	0.87

<표 16> 추상 요약 품질 평가 결과

2.4.3. 평가 말뭉치 품질 평가

먼저, 대화 및 텍스트 요약 평가 말뭉치의 품질 평가를 위해 정답 말뭉치를 구축하였다. 정답 말뭉치는 평가 지침을 작성한 전문가가 ‘논증적 글 요약 말뭉치 10%(100건)’와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 10%(50건)’의 분량을 구축하였다. 이때 정답 말뭉치가 특정 주제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구축 말뭉치의 전반적인 품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topic)의 문서를 선별하여 다양한 분야와 유형에 대한 요약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답 말뭉치 주제별 문서의 수량은 다음 <표 17>과 같다.

논증적 글 요약			협력적 대화 요약		
구분	주제	수량	구분	구분	개수
1	생활	13	1	AI의 직업 대체	2
2	경제	14	2	공공 공간의 CCTV 설치	3
3	사회	14	3	가짜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3
4	정치	14	4	청소년에게 인터넷·스마트폰이 미치는 영향	2
5	문화	5	5	안락사·존엄사 법제화	3
6	IT/과학	13	6	지역 내 기피 시설 설치	3
7	스포츠	12	7	비대면 생활이 미치는 영향	2
8	미용/건강	14	8	원자력 발전소의 존폐	2
9	연예	1	9	관혼상제	0
합계		100	10	먹거리	0
			11	쇼핑	1
			12	음악	0
			13	휴가	1
			14	책/독서	3
			15	전시회/박물관(전시)	2
			16	반려동물	3
			17	스포츠/레저	3
			18	영화/드라마/음악(컨텐츠)	3
			19	음식/음료	3
			20	여행일반	3
			21	연극/뮤지컬/콘서트(공연)	3
			22	패션/뷰티	2
			23	여행계획	3
			합계		50

<표 17> 정답 말뭉치 주제별 문서 수

정답 말뭉치 구축 이후 구축된 평가 말뭉치와의 품질을 비교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F1-score를 활용하였다. F1-score는 정밀도(Precision)와 재현율(Recall)의 조화

평균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평가 말뭉치가 요약의 핵심 내용을 얼마나 빠짐없이(재현율), 그리고 정확하게(정밀도) 담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이다.

제안 단계에서는 평가 문항의 서술 방식과 점수가 일정한 규칙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여 일치·불일치 기반의 F1-score 목표를 0.89로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보니, F1-score의 본질적인 특성과 평가의 주관성으로 인해 목표치 달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평가 점수 부여와 근거 문장 서술 방식의 기준에는 주관성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F1-score의 특성 때문에 단 1점의 편차만 발생해도 F1 점수가 크게 하락하였다. 이는 다음 두 가지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였다. 첫째, F1-score는 부분 일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7점 척도에서 1점 차이는 평가자에게는 미세한 차이지만, F1-score에서는 이를 완전 불일치로 계산한다. 이러한 단일 불일치 처리 방식은 등급형 점수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였고, 실제 품질보다 지표가 더 낮게 나타나게 되었다. 둘째, 1~7점과 같은 중간값이 많은 척도에서는 평가자 간 수렴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언어 평가에서 중간값인 3~5점은 해석의 폭이 넓어 평가자마다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즉, 평가 점수 부여에는 주관성이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F1-score 기반 정답 일치율이 하락하게 되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정답 평가 말뭉치와 평가 말뭉치 간 점수 편차는 크지 않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국어원과 협의를 통해 성능 목표치를 0.6으로 재조정하였고, 평가 말뭉치 품질 검증을 완료하였다.

위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2025년 대화 및 텍스트 요약 평가 말뭉치’를 평가하였고, 정답 말뭉치와 평가 말뭉치 간 비교·평가 결과는 사업 결과물로 함께 제출하였다. <표 18>은 각 작업별 F1-score 결과이다.

작업 구분	정확도(precision)	재현율(recall)	F1-score
논증적 글 요약 평가 말뭉치	0.76	0.65	0.63
협력적 대화 요약 평가 말뭉치	0.76	0.66	0.61

<표 18> F1 평가 결과

2.5. 말뭉치 구축 결과

본 사업의 대화 및 텍스트 요약 말뭉치와 평가 말뭉치의 구축 결과, json 형식, 각 말뭉치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2.5.1. 논증적 글 요약 말뭉치 구축 결과

논증적 글 요약 구축 작업자는 교육 훈련을 이수한 5월부터 약 8주 동안 구축 작업을 진행했다. 논증적 글 요약 구축 작업자 14인의 작업 결과는 아래 <표 19>와 같으며, 작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작업자 ID는 임의로 지정되어 있다.

순번	작업자	작업팀	5월(단위:건)	6월(단위:건)	7월(단위:건)	총합
1	A	A팀	36	72	36	144
2	B		36	72	36	144
3	C		36	72	36	144
4	D		36	72	36	144
5	E		36	72	36	144
6	F		36	72	36	144
7	G		36	72	36	144
8	A	B팀	36	72	36	144
9	B		36	72	36	144
10	C		36	72	36	144
11	D		36	72	36	144
12	E		36	72	36	144
13	F		36	72	36	144
14	G		36	72	36	144
합계			504	1,008	504	2,016

<표 19> 논증적 글 요약 말뭉치 구축 작업량

본 사업의 논증적 글 요약 구축 말뭉치는 json 형식으로 구축되었으며, 말뭉치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 논증적 글 요약 말뭉치 json 구조

```
{
  "id": "NWSC2502511240",
  "metadata": {
```



```

"title": "국립국어원 신문 말뭉치 추출 NWSC2502511240",
"creator": "국립국어원",
"distributor": "국립국어원",
"year": 2025,
"category": "신문 > 전국 종합지",
"annotation_level": "요약 분석",
"sampling": "본문 전체"
},
"document": [
  {
    "id": "NLRW2400000003.10021",
    "metadata": {
      "title": "대경일보 2023년 기사",
      "author": "대경일보",
      "publisher": "대경일보",
      "date": "20230718",
      "topic": "사회",
      "original_topic": "사설"
    },
    "sentence": [
      {
        "id": "NLRW2400000003.10021.1.1",
        "form": "[사설]국지성 폭우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
      {
        "id": "NLRW2400000003.10021.2.1",
        "form": "연일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17일 닥새 동안 경북 북부에 내린 집중호우로 예천 문경 영주 봉화 등에서 산사태와 이로 인한 토석류 유출 등으로 사망 19명(예천9, 영주4, 봉화4, 문경2), 실종 8명(예천8), 부상 17명의 인명 피해가 났다."
      },
      {
        "id": "NLRW2400000003.10021.5.3",

```

```

    "form": "수백 년 동안 살던 마을에 발생한 수해피해가 발생한 만큼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
관리방식을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
  {
    "id": "NLRW2400000003.10021.6.3",
    "form": "지방정부에서는 향후 폭우대비와 피해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
    "id": "NLRW2400000003.10021.8.1",
    "form":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 장병들은 최악의 태풍으로 실의에 빠진 주민들에
게 든든한 힘이 돼 주고 있다."
  },
  {
    "id": "NLRW2400000003.10021.9.2",
    "form": "올여름 평년보다 덥고, 7·8월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리고 국지성 호우도 많이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
    "id": "NLRW2400000003.10021.11.1",
    "form":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올여름 국
지성 폭우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
  "summary": "2023년 7월 13일부터 닥쳐 올랐던 경북 북부 지역에 내린 집중 호우로 인해 사상
자 17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기상 이변으로 인해 경북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초유의 사태를
계기로 중앙과 지방 정부는 재해 관리 방식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군 장병들이 투입되어 현장
을 수습하고 있지만 올여름은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수재
민에 대한 깊은 위로와 함께 향후 폭우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
(생략)

```

‘document’에는 원문 말뭉치의 기본 정보를 담고, ‘sentence’에는 해당 문서의 본문 내용을 문장 단위로 분할하여 표시하였다. 한편 ‘SC1’과 ‘SC2’는 각각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약 정보를 담고 있다. ‘key_sentence’ 항목에는 작업자가 선정한 중요 문장 번호와 내용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summary’ 항목에는 요약문 정보가 부착되어 있다.

2.5.2.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 구축 결과

협력적 대화 요약 구축 작업자는 교육 훈련을 이수한 5월부터 약 7주 동안 구축 작업을 진행했다. 협력적 대화 요약 구축 작업자 10인의 작업 결과는 아래 <표 20>과 같다.

순번	작업자	작업팀	5월(단위:건)	6월(단위:건)	7월(단위:건)	총합
1	A	A팀	34	68	0	102
2	B		34	68	0	102
3	C		34	68	0	102
4	D		34	68	0	102
5	E		34	68	0	102
6	A	B팀	34	68	4	106
7	B		34	68	4	106
8	C		34	68	4	106
9	D		34	68	4	106
10	E		34	47	5	86
합계			340	659	21	1,020

<표 20>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 구축 작업량

본 사업의 협력적 대화 구축 말뭉치는 json 형식으로 구축되었으며, 각 말뭉치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 json 구조

```
{
  "id": "SDSC2502511240",
  "metadata": {
    "title": "국립국어원 일상 대화 말뭉치 추출 SDSC2502511240",
    "creator": "국립국어원",
    "distributor": "국립국어원",
    "year": 2025,
    "category": "구어 > 사적 대화 > 협력적 대화",
    "annotation_level": "요약 분석",
    "sampling": "본문 전체"
  },
  "document": [
    {
      "id": "SDRW2100000773.1",
      "metadata": {
        "title": "2인 일상 대화",
        "author": "개인 발화자",

```

```

"publisher": "개인 발화 녹음",
"date": "20211027",
"topic": "안락사·존엄사 법제화 >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하지 않는 범위내 개인의 선택권 존중",
"speaker": [
  {
    (중략)
"utterance": [
  {
    "id": "SDRW2100000773.1.1.1",
    "form": "몇 년 동안",
    "speaker_id": "SD2100609",
    "sc_speaker_id": "화자1"
  },
  {
    "id": "SDRW2100000773.1.1.2",
    "form": "그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
    "speaker_id": "SD2100609",
    "sc_speaker_id": "화자1"
    (중략)
"sentence": [
  {
    "sentence_set_id": "1",
    "utterance_id": [
      "SDRW2100000773.1.1.1",
      "SDRW2100000773.1.1.2"
    ],
    "sub_topic": "소주제1"
  },
  {
    "sentence_set_id": "",
    "utterance_id": [
      "SDRW2100000773.1.1.3"
    ],
    "sub_topic": ""
  },
  {
    "sentence_set_id": "2",
    "utterance_id": [
      "SDRW2100000773.1.1.4",
      "SDRW2100000773.1.1.5"
    ],
    ],

```

```

    "sub_topic": "소주제1"
        (중략)
"SC1": {
    "sub_topic": [
        {
            "id": "소주제1",
            "keyword": "안락사에 관한 찬반 논의",
            "sentence_set_id":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speaker_summary": [
                {
                    "sc_speaker_id": "화자1",
                    "summary": "안락사는 국가적 차원에서 금지해야 한다."
                },
                {
                    "sc_speaker_id": "화자2",
                    "summary": "안락사를 희망하는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
            ]
        },
        {
            "id": "소주제2",
            "keyword": "안락사와 자살",
            "sentence_set_id": ["14", "15", "16", "17", "18", "19", "20", "21"],
            "speaker_summary": [
                {
                    "sc_speaker_id": "화자1",
                    "summary": "안락사와 자살은 원인만 다를 뿐 같은 범주에 해당한다."
                },
                {
                    "sc_speaker_id": "화자2",
                    "summary": "안락사는 자살의 일종이다."
                }
            ]
        }
    ],
    {
        "id": "소주제3",
        "keyword": "안락사 허용 기준에 관한 논의",
        "sentence_set_id": ["22", "23", "24", "25", "26", "27", "28", "29", "30"],
        "speaker_summary": [
            {

```

```

        "sc_speaker_id": "화자1",
        "summary":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안락사 허용 기준은 확실히 나눌 수 없다."
    },
    {
        "sc_speaker_id": "화자2",
        "summary": "의학의 발달로 인해 신체적인 면에서는 안락사 허용 기준을 명확하게 정
할 수 있다."
    }
]
},
{
    "id": "소주제4",
    "keyword": "투병 환자의 고통을 줄이는 방법",
    "sentence_set_id": ["45", "46", "47", "48", "49"],
    "speaker_summary": [
        {
            "sc_speaker_id": "화자1",
            "summary": "모르핀과 같은 마약 성분이 포함된 진통제를 이용해 투병 환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
        },
        {
            "sc_speaker_id": "화자2",
            "summary": "(없음)."
        }
    ]
}
],
    "main_summary": "이 대화에서 화자1과 화자2는 안락사 허용 여부에 대해 이야기했다. 화자1
은 마약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사용하면 투병 환자의 고통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고, 안락사 허용 기
준을 정확하게 나눌 수 없으며, 안락사는 자살과 다르지 않으므로 국가에서 안락사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화자2는 시한부와 같이 신체적 조건을 기반으로 안락사 허용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안락
사도 자살의 일종이긴 하나 안락사를 선택하는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reference_sentence": [
        "SDRW2100000773.1.1.11",
        "SDRW2100000773.1.1.12",
        "SDRW2100000773.1.1.31",
        "SDRW2100000773.1.1.32",
        "SDRW2100000773.1.1.33",
        "SDRW2100000773.1.1.113",
        "SDRW2100000773.1.1.114",
        "SDRW2100000773.1.1.106",
    ]
}

```

```

"SDRW2100000773.1.1.107",
"SDRW2100000773.1.1.108",
"SDRW2100000773.1.1.109",
"SDRW2100000773.1.1.105",
"SDRW2100000773.1.1.191",
"SDRW2100000773.1.1.192",
"SDRW2100000773.1.1.193",
"SDRW2100000773.1.1.194",
"SDRW2100000773.1.1.178",
"SDRW2100000773.1.1.179",
"SDRW2100000773.1.1.331",
"SDRW2100000773.1.1.330",
"SDRW2100000773.1.1.332",
"SDRW2100000773.1.1.333"
]
},

```

(생략)

‘document’에는 원문 말뭉치의 기본 정보가 담겨있고, ‘sentence’에는 각 소주제별 문서 분할 정보를 부착하였다. 각 문장에는 문장 세트 id인 ‘sentence_set_id’, 발화자 id인 ‘speaker_id’, 해당 세트에 포함된 발화 id인 ‘utterance_id’, 그리고 소주제 분할 정보인 ‘sub_topic’를 포함하였다. ‘keyword’는 중심어 정보이며, ‘sentence_set_id’는 소주제별로 적합한 발화들을 세트로 묶어 부착한 id값이다. 이때 원문의 form이 공란인 경우 즉, 발화가 없는 경우와 소주제의 전반적인 흐름에서 벗어난 발화의 경우, 대화의 첫 부분에 대화의 전체 주제를 언급하는 도입부의 내용에는 id 정보를 부여하지 않았다.

한편 ‘SC1’과 ‘SC2’는 각각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약 정보가 담겨있는 곳이다. ‘sub_topic’ 항목은 소주제별 주제 분할 정보를 나타내며, ‘sentence_set_id’는 해당 소주제에 부착된 문장 세트 id 정보를 나타낸다. ‘speaker_summary’에는 화자별 요약 정보가 담겨있으며, ‘speaker_id’별로 작성된 요약문 내용은 ‘summary’에 나타난다. ‘main_summary’는 전체 문서를 요약한 전체 요약문 내용이며, ‘reference_sentence’에는 구축 작업자가 요약문을 작성할 때 참고한 중심 발화 정보이다.

2.5.3. 말뭉치 평가 결과

대화 및 텍스트 요약 말뭉치 평가자는 교육 훈련을 이수한 7월부터 평가 작업을 시작하여 추석 연휴 1주를 제외하고 총 15주간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자의 작업 결과는 <표 21>과 같으며, 평가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평가자 ID는 임의로 지정하였다.

작업 구분			협력적 대화 평가	논증적 글 요약 평가			
순번	작업자	작업팀	7월 (단위:건)	8월 (단위:건)	9월 (단위:건)	10월 (단위:건)	총합
1	A	A	85	51	85	32	253
2	B		85	51	85	32	253
3	C		85	51	85	32	253
4	D		85	51	85	32	253
5	E		85	51	85	32	253
6	F		85	51	85	32	253
7	G	B	85	51	85	32	253
8	H		85	51	85	32	253
9	I		85	51	85	32	253
10	J		85	51	85	32	253
11	K		85	51	85	32	253
12	L		85	51	85	32	253
13	M	C	85	51	85	32	253
14	N		85	51	85	32	253
15	O		85	51	85	32	253
16	P		85	51	85	32	253
17	Q		85	51	85	32	253
18	R		85	51	85	32	253
총합			1,530	918	1,530	576	4,554

<표 21> 평가자 작업량

본 사업의 대화 및 텍스트 요약 평가 말뭉치는 json 형식으로 구축되었으며, 각 말뭉치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 논증적 글 요약 평가 말뭉치 json 구조

```
{
  "id": "NWSC2512511240",
  "metadata": {
    "title": "국립국어원 신문 말뭉치 추출 NWSC2512511240",
    "creator": "국립국어원",
  }
}
```



```

"distributor": "국립국어원",
"year": 2025,
"category": "신문 > 전국 종합지",
"annotation_level": "요약 평가",
"sampling": "본문 전체"
},
"document": [
{
  "id": "NWRW2400000001.28299",
  "metadata": {
    "title": "경향신문 2023년 기사",
    "author": null,
    "publisher": "경향신문",
    "date": "20230731",
    "topic": "정치",
    "original_topic": "오피니언^사설"
  },
  "sentence": [
    {
      "id": "NWRW2400000001.28299.1.1",
      "form": "[사설] 공영방송 민영화 군불 때는 여당, ‘이동관표 밀그림’인가"
        (중략)
    },
    ],
    "SC1": {
      "key_sentence": [
        {
          "id": "NWRW2400000001.28299.2.1",
          "form":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31일 “세계 각국의 방송은 1공영·다민영 체제
인데 우리는 다공영·1민영 체제”라며 “KBS도 2TV는 민영화해서 선진국 체제에 맞춰야 된다”고 했다.”
        },
        ],
        (중략)
        "summary": "박성중 의원이 2023년 7월 31일 MBC와 KBS 2TV 민영화를 언급했으나, 이는 이동관 내정자가 공영 방송
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과 반대된다. 정부는 이미 TV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을 개정해 KBS 재정을 압박하고 이사장 해임 절
차에 돌입하고 있어 공영 방송을 정권에 순응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 내정자 아들의 학교 폭력과 관련해 내정자의 외압 논
란이 있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내정자를 감싸고 있다. 여권은 이동관 내정자 지명을 철회해야 하며, 여권은 야당의 증
인 채택 요구에도 협조해야 한다.",
        "evaluation": {
          "evaluators": [
            {
              "id": "evaluatorA",
              "content": {
                "description": 7,
                "claims": 7,
                "arguments": 5,
                "comments": {
                  "description": "문제 상황이 적절하다.",
                  "claims": "주장이 적절하다.",
                  "arguments": "논거 및 실천 방안이 적절하나, 주요 정보를 누락하여 완전성이 다소 부족하다."
                }
              }
            },
            ],
            "organization": {

```

```

        "completion": 5,
        "comment": "문장을 적절히 배열하고 하나의 완결된 글로 작성하였으나, 필요한 접속 부사를 적절히 사용하지
않아 긴밀성이 다소 부족하다."
    },
    "expression": {
        "accuracy": 7,
        "comment": "문장, 어휘가 적절하다."
    }
},

```

(생략)

json 구조 상단의 기본 정보는 2.5.1. 에서 설명한 구축 json 형식과 동일하다. ‘evaluation’ 항목부터는 평가와 관련된 정보가 부착되며, 평가자의 기본 정보와 함께 고유 id가 포함된다.

‘content’는 평가 항목 중 ‘내용’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 ‘내용’ 영역은 논증적 글의 핵심인 논자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적 구조가 적절히 추출되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세부 항목으로는 사실의 도입부에서 다루는 사회적 현상이나 논의의 배경이 되는 문제 상황 요약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문제 상황’ 항목의 평가 점수를 나타내는 ‘description’, 논자의 핵심 견해나 주장이 요약문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평가하는 ‘주장’ 항목의 평가 결과인 ‘claims’, 마지막으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구체적인 대안이 핵심 정보 위주로 명료하게 요약되었는지 평가하는 ‘논거 및 실천 방안’ 항목의 평가 점수인 ‘arguments’가 있다. 각 평가 점수에 대한 평가자의 평가 근거 문장은 ‘comments’로 구성하였다.

‘organization’은 ‘조직’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 ‘조직’ 영역은 요약문이 논리적 흐름을 갖춘 하나의 완성된 글로서 구조를 갖추었는지 평가하는 항목이다. 세부 항목으로는 문장 간 접속 부사나 연결 어미 등을 적절히 사용하였는지, 글이 미완의 인상을 주지 않고 유기적으로 조직되었는지 평가하는 ‘긴밀성 및 완결성’ 항목의 평가 점수를 나타내는 ‘completion’이 있다. 이와 관련된 평가자의 평가 근거 문장 역시 ‘comment’에 부착되어 있다.

‘expression’은 ‘표현’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 ‘표현’ 영역은 요약문의 형식적 정확성과 언어적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이다. 세부적으로는 주술 호응 등 문법적 정확성과 사실의 성격에 맞게 적절한 어휘로 다시쓰기가 이루어졌는지, 어문 규범을 준수하였는지 평가하는 ‘문장 및 어휘’ 항목이 있으며 평가 점수는 ‘accuracy’에, 평가자의 평가 근거 문장은 ‘comment’에 부착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average_score’는 상기 항목들의 점수를 기반으로 계산된 평균 점수로, 전체적인 요약문의 완성도를 수치화한 결과를 나타낸다.

□ 협력적 대화 요약 평가 말뭉치 json 구조

```
{
  "id": "SDSC2502511240",
  "metadata": {
    "title": "국립국어원 일상 대화 말뭉치 추출 SDSC2502511240",
    "creator": "국립국어원",
    "distributor": "국립국어원",
    "year": 2025,
    "category": "구어 > 사적 대화 > 협력적 대화",
    "annotation_level": "요약 분석",
    "sampling": "본문 전체"
  },
  "document": [
    {
      "id": "SDRW2100000773.1",
      "metadata": {
        "title": "2인 일상 대화",
        "author": "개인 발화자",
        "publisher": "개인 발화 녹음",
        "date": "20211027",
        "topic": "안락사·존엄사 법제화 >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하지 않는 범위내 개인의 선택권 존중",
        "speaker": [
          {
            (중략)
          }
        ]
      },
      "utterance": [
        {
          "id": "SDRW2100000773.1.1.1",
          "form": "몇 년 동안",
          "speaker_id": "SD2100609",
          "sc_speaker_id": "화자1"
        },
        {
          "id": "SDRW2100000773.1.1.2",
          "form": "그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
          "speaker_id": "SD2100609",
          "sc_speaker_id": "화자1"
        },
        (중략)
      ],
      "sentence": [
        {
          "sentence_set_id": "1",
          "utterance_id": [
            "SDRW2100000773.1.1.1",
            "SDRW2100000773.1.1.2"
          ],
          "sub_topic": "소주제1"
        },
        {
          "sentence_set_id": "",
          "utterance_id": [
            "SDRW2100000773.1.1.3"
          ]
        }
      ]
    }
  ]
}
```

```

    ],
    "sub_topic": "",
  },
  {
    "sentence_set_id": "2",
    "utterance_id": [
      "SDRW2100000773.1.1.4",
      "SDRW2100000773.1.1.5"
    ],
    "sub_topic": "소주제1"
      (중략)
"SC1": {
  "sub_topic": [
    {
      "id": "소주제1",
      "keyword": "안락사에 관한 찬반 논의",
      "sentence_set_id":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speaker_summary": [
        {
          "sc_speaker_id": "화자1",
          "summary": "안락사는 국가적 차원에서 금지해야 한다."
        },
        {
          "sc_speaker_id": "화자2",
          "summary": "안락사를 희망하는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
      ]
    }
  ],
  {
    "id": "소주제2",
    "keyword": "안락사와 자살",
    "sentence_set_id": ["14", "15", "16", "17", "18", "19", "20", "21"],
    "speaker_summary": [
      {
        "sc_speaker_id": "화자1",
        "summary": "안락사와 자살은 원인만 다를 뿐 같은 범주에 해당한다."
      },
      {
        "sc_speaker_id": "화자2",
        "summary": "안락사는 자살의 일종이다."
      }
    ]
  },
  {
    "id": "소주제3",
    "keyword": "안락사 허용 기준에 관한 논의",
    "sentence_set_id": ["22", "23", "24", "25", "26", "27", "28", "29", "30"],
    "speaker_summary": [
      {
        "sc_speaker_id": "화자1",

```

```

    "summary":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안락사 허용 기준은 확실히 나눌 수 없다."
  },
  {
    "sc_speaker_id": "화자2",
    "summary": "의학의 발달로 인해 신체적인 면에서는 안락사 허용 기준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다."
  }
]
},
{
  "id": "소주제4",
  "keyword": "투병 환자의 고통을 줄이는 방법",
  "sentence_set_id": ["45", "46", "47", "48", "49"],
  "speaker_summary": [
    {
      "sc_speaker_id": "화자1",
      "summary": "모르핀과 같은 마약 성분이 포함된 진통제를 이용해 투병 환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
    },
    {
      "sc_speaker_id": "화자2",
      "summary": "(없음)."
    }
  ]
}
],
  "main_summary": "이 대화에서 화자1과 화자2는 안락사 허용 여부에 대해 이야기했다. 화자1은 마약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사용하면 투병 환자의 고통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고, 안락사 허용 기준을 정확하게 나눌 수 없으며, 안락사는 자살과 다르지 않으므로 국가에서 안락사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화자2는 시한부와 같이 신체적 조건을 기반으로 안락사 허용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안락사도 자살의 일종이긴 하나 안락사를 선택하는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valuation": {
    "evaluators": [
      {
        "id": "evaluatorA",
        "content": {
          "relevance": 5,
          "clarity": 6,
          "objectivity": 7,
          "comments": {
            "relevance": "요약문을 객관적으로 작성하였으나, 소주제에 관한 화자1, 2의 중심 생각이 다소 적절하지 않다.",
            "clarity": "소주제를 모두 언급하였으나, 소주제4에 대한 화자2의 중심 생각을 제시하지 않았다.",
            "objectivity": "정보, 표현 등이 명료하다."
          }
        },
        "organization": {
          "completion": 5,
          "comment": "문장을 적절히 배열하고 하나의 완결된 글로 작성하였으나 문장의 긴밀성이 다소 부족하다. (문장 2)"
        },
        "expression": {
          "accuracy": 7,
          "comment": "문장 및 어휘 등이 적절하다."
        }
      }
    ]
  }
}

```

```
}  
},  
(생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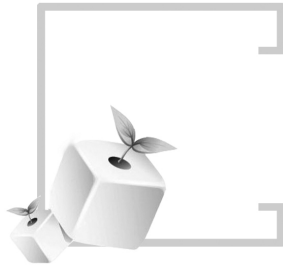
json 구조 상단의 기본 정보는 2.5.2. 에서 설명한 구축 json 형식과 동일하다. ‘evaluation’ 항목부터는 평가와 관련된 정보가 부착되며, 평가자의 기본 정보와 함께 고유 id가 포함된다.

‘content’는 평가 항목 중 ‘내용’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 ‘내용’ 영역은 협력적 대화의 핵심 정보가 적절히 추출되었는지 평가하는 항목이다. 세부 항목으로는 대화의 전체 주제, 소주제, 소주제에 대한 화자의 중심 생각을 명확히 이해하고 추상화했는지 평가하는 ‘적절성’ 항목의 평가 점수를 나타내는 ‘relevance’, 대화에서 언급된 주요 소주제들과 각 화자의 중심 생각이 빠짐없이 포함되었는지 평가하는 ‘총망라성’ 항목의 평가 점수를 나타내는 ‘clarity’, 마지막으로 구어체 대화의 특성상 발생하는 반복이나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고 핵심 위주로 요약했는지 평가하는 ‘명료성’ 항목의 평가 점수를 나타내는 ‘objectivity’가 있다. 각 평가 점수에 대한 평가자의 평가 근거 문장은 ‘comment’에 부착하였다.

‘organization’은 ‘조직’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 ‘조직’ 영역은 요약문이 단순한 문장의 나열이 아닌 구조적 틀을 갖춘 하나의 완성된 글인지 평가하는 항목이다. 세부 항목으로는 요약문을 구성하는 문장들이 접속 부사나 연결 어미 등을 통해 논리적으로 연결되었는지, 대화의 마무리 구간까지 포함하여 완성된 글을 작성하였는지 평가하는 ‘긴밀성 및 완결성’ 항목의 평가 점수를 나타내는 ‘completion’이 있다. 이와 관련된 평가자의 평가 근거 문장 역시 ‘comment’에 부착하였다.

‘expression’은 ‘표현’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 ‘표현’ 영역은 요약문의 형식적 정확성과 언어적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이다. 세부 항목으로는 문법적 정확성과 어문 규범의 준수 외에도 대화 요약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인용 표현과 과거 시제 사용 여부, 구어적 말투를 적절히 수정하였는지 평가하는 ‘문장 및 어휘’ 항목이 있으며, 평가 점수는 ‘accuracy’에, 평가자의 평가 근거 문장은 ‘comment’에 부착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average_score’는 상기 항목들의 점수를 기반으로 계산된 평균 점수로, 전체적인 요약문의 완성도를 수치화한 결과를 나타낸다. 평가 항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3장의 ‘요약 말뭉치 구축 및 평가 지침’을 참고하면 된다.



제 3 장

요약 말뭉치 구축 및 평가 지침



3.1. 논증적 글 요약 지침 개선 및 보완

3.1.1. 구축 지침 보완 내용 및 결과

신문 사설 요약문 작성 지침은 ‘2024년 말뭉치 요약 연구 분석’의 신문 사설 요약문 작성 지침을 수정·보완하였다. ‘2025년 대화 및 텍스트 요약 말뭉치 구축 연구’ 사업에서는 신문 사설 요약문 작성자들이 요약문을 잘 작성할 수 있도록 작업자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고, 작성자들이 질의응답 시트를 통해 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문 사설 요약문의 정확한 표현을 위해 어문 규범 관련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다.

신문 사설 요약문 작성 지침 ver.1.0. (변경 전)	신문 사설 요약문 작성 지침 ver.1.1. (변경 후)
<p>(4) 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문 규범에 맞게 작성한다. 예) 원자재값 → 원자잿값 1000명 → 1,000명 축하 메세지 → 축하 메시지 사설 원문에 띄어쓰기 등의 오류가 있을 때,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어문 규범에 맞게 작성한다. 단, 고유명의 경우 원문의 표기를 따라 작성할 수 있다. 예) 후속조치 → 후속 조치 국민의 힘 → 국민의힘 5년 간 → 5년간 	<p>(4) 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문 규범에 맞게 작성한다. 사설 원문에 어문 규범에 맞게 작성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어문 규범에 맞게 작성한다. 예) 원자재값 → 원자잿값 축하 메세지 → 축하 메시지 띄어쓰기 원칙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예) 5년 간 → 5년간 후속조치 → 후속 조치 (〈우리말샘〉 ‘후속 조치’로 등재) 안전 사고 → 안전사고 (〈우리말샘〉 ‘안전-사고’로 등재) 안전관리 → 안전 관리 (〈우리말샘〉 ‘안전^관리’로 등재) 문장부호 사용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예) 1000명 → 1,000명 고유명의 경우, 어문 규범에 맞게 작성한다. 예) 국민의힘 → 국민의 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한국 해양 과학 기술원 포항국제불빛축제 → 포항 국제 불빛 축제

다음은 신문 사설 요약문 작성을 위한 자문 회의의 내용이다.

날짜	2025. 9. 19.
자문 위원	인천대학교 박보연 교수님
자문 내용	<p>1. 신문 사설의 논지 전개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문 사설을 검토하였을 때, 문제 상황 - 논거 - 주장, 문제 상황 - 주장 - 구체적인 실천 방안, 문제 상황 - 문제 상황의 구체화 - 주장 등 여러 유형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신문 사설 요약문 작성 지침>에서는 이러한 유형을 토대로 신문 사설 요약문 작성 시, 문제 상황과 주장, 논거 또는 실천 방안에 대한 내용을 파악한 후 요약문 작성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에서 사설인데, 일반적인 유형이 아닌 사설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역 신문의 경우, 지역 행사에 대한 홍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사설로 제시합니다. 이러한 사설의 경우, 문제 상황과 주장, 논거로 내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인 신문 사설 요약 말뭉치 구축을 위해 일반적인 유형이 아닌 사설들도 유형화하여 요약문을 작성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p> <p>→ 신문 사설 요약 말뭉치 구축을 위해 일반적인 유형이 아닌 사설들까지 유형화하여 요약문을 작성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해당 신문사에서 사설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예인 ‘일반적 유형이 아닌 사설’은 전형적인 ‘사설(社說)’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설’은 보통 사회적 현안에 대한 신문사의 주장이나 의견을 담고 있는데, 이러한 예는 행사 결과 보고 및 향후 계획 등을 알리는 주최 측 성명의 성격이 강하다. ‘사(社)’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만 ‘사설’과 같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신문사에서 ‘사설’로 구분하고 있지만 ‘사설’의 성격을 온전히 지니고 있지 못하므로 신문 사설 요약 말뭉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p> <p>2. 신문 사설 요약문 이외에 문어를 대상으로 요약 말뭉치를 구축하였을 때 활용도가 높은 글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내용적으로 다양하되 형식적으로 동일한 글, 즉 글의 유형에 따른 전형적인 구조를 갖춘 글이 말뭉치로서 유의미하다고 생각된다. ‘기사문, 제품사용설명서, 보고서, 법률문서, 학술논문’ 등과 같이 비교적 정형화된 구조를 갖추고 있는 글이 말뭉치로 구축하기에 적합하며, 실제 활용 가능성도 높을 듯하다. 그러나 요약 말뭉치의 활용도 관점에서만 생각해 보면, 비정형 구조를 갖는 글이지만 사람들이 주로 소통하는 ‘웹문서’도 요약 말뭉치 구축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블로그, 온라인커뮤니티 게시글, 상품소개글 등의 웹문서는 정형화되지 않은 구조로 인해 글의 핵심 내용 파악이 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댓글, Q&A, 상품리뷰’ 등과 같이 길이가 짧은 글도 요약 말뭉치로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길이가 짧기 때문에 요약이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다수의 짧은 글들을 하나의 주제로 묶어 중심내용을 추출하는 방식의 요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p>

<표 22> 전문가 자문 내용 1

3.1.2. 평가 지침 보완 내용 및 결과

신문 사설 요약문 평가 지침은 ‘2024년 말뚱치 요약 연구 분석’의 신문 사설 요약문 평가 지침을 수정·보완하였다. ‘2025년 대화 및 텍스트 요약 말뚱치 구축 연구’ 사업에서는 신문 사설 요약문 평가 근거 작성 부분을 체계화하였다.

신문 사설 요약문 평가 지침 (2024년) (변경 전)	신문 사설 요약문 평가 지침 ver.1.0. (변경 후)
<p>평가 근거 작성</p> <p>평가자는 요약문에 평가 점수를 부여한 후 ‘내용’, ‘조직’, ‘표현’의 세 가지 영역별로 왜 해당 점수를 부여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근거를 작성한다. 평가 근거는 요약문 작성자가 요약문을 수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감점된 부분이 있다면 감점 요인에 대한 예를 포함하여 기술하도록 한다.</p>	<p>평가 근거 작성</p> <p>평가자는 요약문에 평가 점수를 부여한 후 ‘내용’, ‘조직’, ‘표현’의 세 가지 영역별로 왜 해당 점수를 부여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근거를 작성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항목별로 문제 상황, 주장, 논거 또는 실천 방안, 긴밀성 및 완결성, 문장 및 어휘에 대한 평가 근거를 작성한다. ● 평가 항목별로 각각 한 문장으로 작성한다. ● 평가 점수가 높더라도 잘한 점을 언급한다. 예) 사설 전체의 주장으로 적절한 주장을 완전하고 명료하게 제시하였으며, 원문과 논조 강도가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요약하였다. (7점 평가 근거의 예) ● 평가 근거문은 잘한 점을 먼저 언급하고 부족한 점을 나중에 제시한다. 예) 하나의 완결된 글로 요약문을 작성하였으나, 문제 상황의 조직이 적절하지 않으며, 접속 부사, 연결 어미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아 일부 문장이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는다. ● 특히, ‘표현’ 영역인 ‘문장 및 어휘’에 대한 평가에서 점수가 감점된 부분이 있다면 감점 요인에 해당하는 예를 포함하여 기술한다. 예) 요약문을 구성하는 문장 수와 전체 요약문의 분량이 적절하나,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과 문법적이지 않은 문장이 일부 있다. (정부는~풀었다 → 보사연은 정부가 ~고 지적했다, 단기적 → 단기적으로, 거리두기 → 거리 두기) ● 피동문으로 작성하지 않고 능동문으로 작성한다. 예1) 논자의 주장과 관련되는 적절한 문제 상황이 명료하게 제시되었으나, 주요 정보가 일부 누락되어 완전성이 다소 부족하다. (×) 예2) 논자의 주장과 관련되는 적절한 문제 상황을 명료하게 제시하였으나, 주요 정보를 일부 누락하여 완전성이 다소 부족하다. (○)

다음은 신문 사설 요약문 평가를 위한 자문 회의의 내용이다.

날짜	2025. 9. 19.
자문 위원	인천대학교 박보연 교수님
자문 내용	<p>1. 본 사업에서 평가 근거 작성 방법론의 체계화 및 구체화를 하나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문 사설 요약문 평가 지침>에 평가 근거 작성 방법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지침에 추가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지침에 제시된 <신문 사설 요약문 평가 배점표>에 준거점수별 평가 근거가 문장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평가 점수를 부여한 후 추가적으로 문장형 평가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대부분의 경우 <신문 사설 요약문 평가 배점표>에 제시된 평가 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표현’ 영역인 ‘문장 및 어휘’에 대한 평가에서 감점 요인에 해당하는 예를 포함하여 기술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평가 근거 작성 방법론의 구체화를 목표로 한다면, ‘표현’ 영역인 ‘문장 및 어휘’의 경우처럼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방향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된다.</p> <p>2. 올해는 평가 주석 말뭉치도 수집하는데, 평가 기준에 맞게 작성하다 보니, 평가 근거 문장이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다채로운 평가 근거 문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추가적으로 문장형 평가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이며, 다채로운 평가 근거 문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필요하기보다 구체적인 사례가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효과적일 듯하다.</p>

<표 23> 전문가 자문 내용 2

3.2. 협력적 대화 요약 지침 수립

3.2.1. 구축 지침 수립 방안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 구축 지침에서는 구간 분할 및 소주제 선정, 중심 발화 선정 방법, 소주제에 대한 화자별 발화 요약 방법과 전체 요약문 작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림대 연구팀은 지침을 수립하기 위해 요약문 관련 기존 지침 및 선행 연구를 검토하며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샘플로 실제 요약문을 작성하면서 추상 요약문을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구분	일자	내용	지침
초안 작성	4. 22. 4. 29. 5.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지침 및 논문 분석 및 문제점 논의 • 1차 샘플 작업(4. 28.~5. 2.) - 2인 협력적 대화 요약문 작성 10개, 3·4인 협력적 대화 요약문 작성 20개 마련 • 지침 초안 검토 및 문제점 파악 	협력적 대화 요약 말 뭉치 구축 지침 _1-0_20250509
1차 수정	5. 27. 6. 3. 6.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국어원 지침 검토 결과 분석 및 지침 반영 	협력적 대화 요약 말 뭉치 구축 지침 _1-1_20250616

<표 24>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 구축 지침 작성 회의

다음은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 구축을 위한 자문 회의의 내용이다.

날짜	2025. 9. 19.
자문 위원	인천대학교 박보연 교수님
자문 내용	1.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 구축 지침>에서 요약문 작성을 ‘구간 분할 - 소주제 선정 - 소주제별 중심 발화 선정 - 소주제에 대한 화자별 발화 요약 - 전체 요약

문 작성'과 같은 순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에 대해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주제에 대한 화자별 발화 요약 - 전체 요약문 작성'이라는 순서는 매우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구간 분할 - 소주제 선정 - 소주제별 중심 발화 선정'의 순서는 요약문 작성 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 대화를 다 이해한 후에야 '소주제 선정'이 가능하며, '중심 발화 선정'이 되어야 '소주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약문 작성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중심 발화 선정 - 소주제 선정 - 소주제에 대한 화자별 발화 요약 - 전체 요약문 작성'의 순서가 더 효과적일 것 같다. 대화 원문을 읽어가면서 제안이나 계획이 드러나는 '~자, ~을게' 등의 어미, '자', '근데' '아니', '아무튼' 등의 화제가 전환되거나 해당 화제가 마무리되는 담화 표지를 기준으로 중심 발화 및 소주제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본 사업에서는 하나의 협력적 대화를 2인이 작성하여 이후 요약문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평가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구간 분할의 경우, 사업팀에서 일괄적으로 분할을 한 후에 작업자가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팀에서 일괄적으로 분할을 한 후에 작업자가 요약문을 작성하는 것은 요약문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다만, 소주제를 파악하여 구간을 분할하는 것은 전체 대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팀의 일괄적인 분할은 작업자가 대화 전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전체적인 맥락의 이해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분할된 각 구간이 불완전한 맥락을 갖게 되어 요약문을 작성하는 작업자가 각 구간의 정확한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하나의 주제가 중간에 잘리는 경우, 구간 내 주제가 모호한 경우, 예를 들어 한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제 도입부와 섞이는 등의 경우에는 2인의 작업자가 서로 다른 주요 내용을 추출하여 요약하게 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팀은 구간 분할 기준만 제시해 주고, 작업자에게 분할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3. 협력적 대화 요약문 이외에 구어를 대상으로 요약 말뭉치를 구축하였을 때 활용도가 높은 대화(글)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과 구조가 명확한 구어 자료가 말뭉치로서 유의미하고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구어 자료로는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회의, 미팅',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 '고객상담', 정보 전달에 초점을 맞춘 '강의, 강연' 및 '인터뷰' 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말의 단선적인 특성상 말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는 물리적 시간이 많이 요구되므로,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줄이는 관점에서 어떤 구어를 대상으로 하든 요약 말뭉치는 활용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3.2.2. 구축 지침 수립 내용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 구축 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첫째, 지침의 목적을 밝히고 주요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요약문 작성에 사용되는 주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 제목: 대화에서 화자들이 이야기하는 대화 전체의 주제
- 원문: 요약의 대상이 되는 대화
- 구간: 단일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연속된 대화의 묶음
- 소주제: 구간별로 대화의 중심이 되는 내용
- 중심 발화: 화자별 소주제에 대한 생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발화
- 화자별 발화 요약: 소주제 구간별 각 화자의 중심 생각을 담은 문장
- 요약문: 대화의 요점을 간추려 쓴 글
- 추상 요약문: 대화의 중심 내용을 파악한 후, 원문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표현을 달리하여 요약한 글

둘째, 협력적 대화의 특징과 협력적 대화 요약문 작성의 대표적인 예를 제시하였다. 협력적 대화는 여러 개의 소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하나의 소주제에 대해 화자들이 각각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특징이 있다. 협력적 대화 요약문의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화자	원문	구간	소주제 번호	소주제
화자1	몇 년 동안 그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 이제 고통스럽고 그래서 안락사를 선택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는 나도 알고는 있지만 나는 그래도 안락사는 이제 이거를 허락을 하면 안 된다. 국가적으로 이거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야. 왜냐하면 이게	1	소주제1	안락사 허용 여부-신체적 고통
화자2	나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도 그게 안락사는 안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야?			
화자1	어 나는 그렇 그렇다고 생각해 본인이 안락사를 희망한다고 해도 이게 선뜻 오케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화자2	왜 그렇게 생각해? 본인 의사이고 그러니까 나도 뭐 가			

	<p>가족이 안락사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 뭐 거기까지는 선뜻 동의하고 있는 거는 아니야 근데 본인이 희망하고 있을 때는 본인이 그 고통을 못 견디겠어서 좀 편해지고 싶다는 거잖아. 그런 경우도 존중을 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p>			
화자1	<p>하지만 그 이유가 자기의 고통을 덜고 싶어서만 그게 이유가 된다면 괜찮은데 국가적으로 그게 허용이 돼서 선택지로 하나가 안락사 해도 돼 가 선택지가 되어버린다면 병실에 누워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계속 가족들이 돈이 쓰이고 가족들이 눈치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그게 자꾸 자존감이 깎이면서 내가 살아서 뭐 하나? 안락사 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p>			
화자2	<p>근데 안락사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안락사 해도 할 수 있는 경우 같은 어떤 기준을 정해두면 되는 거 아닌가? 물론 그러니까 막 그냥 뭐 이제 뭐 조금 뭐 그러니까 충분히 치유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의 병인데 이제 단순히 네가 말했던 것처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가족들의 어떤 눈치가 보여서 안락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사실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언젠가는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고통을 덜 위해서 암 같은 안락사를 선택하는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p>			
화자1	<p>안락사를 그렇게 선택하는 게 이제 우리가 구별할 수 없다는 거지. 아무리 고통스럽고 그런 병이라도 본인은 살고 싶어 하는 의지가 있을 수 있는데 단순히 그런 선택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눈치가 보이고 주변에서 또 이제 그런 동정 어린 시선이 있을 거 아니야? 많이 고통스럽지? 안락사 해도 돼. 이것과 많이 고통스럽지 그래도 그래도 살아가야지. 이거는 다르단 말이지.</p>			
화자2	<p>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렇게 막 죽음을 앞두거나 뭔가 그렇게 어떤 죽을 병에 걸리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 그냥 내가 지금 아직 나한테는 우린 아직 젊잖아. 아직 나한테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크게 와 닿지 않아서 그렇게 안락사라는 거에 대한 무게가 다를 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좀 어떤 큰 고통 상태가 좀 어떤 그냥 살아 있는 거 자체만으로도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 때</p>			

	그거를 견디기 힘들 때는 차라리 그냥 편해지고 싶은 이게 사람 마음일 거라고 난 생각하거든.			
...
화자2	네가 지금 육체적으로 힘 거동이 힘든 상태를 어느 정도를 지금 우리가 지금 서로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건지 난 지 금 잘은 모르겠는데 그걸로 이제 우리가 행복을 판단 할 순 없지 저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 거라 고. 당연하지 그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난 지금 계속 계속 어떤 시한부 인생 그 어떤 말기 암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남은 사람 그 사람들 그냥 내 주변에 암으로 죽으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굉장히 그냥 내내 고통스러워만 하다가 가셔서 후회하고 자꾸	6	소주제1	안락사 허용 여부-신체적 고통
화자1	그 고통스러워 하는 거에는 이제 원하지 않는 항암 치료를 계속 했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 하거든 이제 강제로 이거를 병을 낮게 하려고 나을 가능성도 없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방 향을 이거를 계속 퍼센트가 낮은 거를 완치를 하려고 해야 된다고 보다는 지금 있는 고통을 줄여야 되지 않나 줄이면서 선택은 나도 그렇게 이제 치료를 거부하는 거는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지금 죽겠다 이거는 선택 하면 할 하는 선택지로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화자2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그거에 대한 부작용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사례는 나도 접해 봤어 근데 항암 치료를 안 받아도 고통을 받는 거는 마찬가지로일 텐데 그럼 그 고통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			
화자1	방법이 있지. 그 꼭 병원에 그렇게 입원하지 않더라도 이제 주치의이나 이런 걸 두면서 이제 계속 그 진통제 랑 이제 모르핀이나 이런 이런 마약 마약 같은 성분들이 그래서 있는 거거든. 진짜 고통이 많을 때 그거를 줄여 줄 수 있는			
화자2	그러니까 나는 계속 안락사에 초점을 받는 거는 이 사람이 앞으로 살아갈 남이 날들이 정말 고통 뿐이라면 오히려 안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인 거거든. 그래서 내가 자살 얘기도 아까 그런 쪽으로 꺼냈던 거고.			
화자1	그러니까			
화자2	곧			
화자1	이제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는 거지 지금 바로 죽을 필요가 죽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화자2	그 만약에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나도 굳이 안락사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죽음 이라는 걸 안겨 주고 싶진 않아.			

소주제 번호	소주제	화자1 발화 요약	화자2 발화 요약
1	신체적 고통에 따른 안락사 허용 여부	치료 방법이 더 이상 없는 시한부 환자나 불치병 환자들도 남은 기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는 시한부 환자들이 스스로 판단했다면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다.
2	정신적 고통에 따른 안락사 허용 여부	우울증에 걸려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는 선택을 하는 것은 정신적인 문제이므로 치료를 해야 한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선택은 잘못된 것일 수 있으므로 안락사를 선택할 수 없을 수도 있다.
3	안락사와 행복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행복할 것이라는 판단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불편하고 행복을 누리기 힘들어 본인이 스스로 안락사를 선택한다면 안락사를 허용할 수도 있다.

전체 요약문

이 대화에서 화자1과 화자2는 안락사의 허용 여부에 대해 이야기했다. 화자1은 시한부나 불치병 환자들 몸이 불편하다고 하여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은 살고 싶은 의지가 있음에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울증에 걸려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는 선택을 하는 것도 정신적인 문제이므로 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화자2는 시한부 환자들 고통스러운 생활을 계속하여 안락사를 하고자 한다면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본인의 선택 자체가 잘못된 선택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안락사를 희망한다면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셋째, 협력적 대화는 여러 개의 소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므로 소주제별 구간 분할을 하는 요령과 소주제를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구간 분할

- 같은 소주제로 묶을 수 있는 발화들을 하나의 구간으로 묶는다.
- 대화에서 다루고 있는 소주제별로 나누어 소주제 번호를 부여한다.
- 소주제 구간은 3-6개로 분할한다.
- 구어의 특성상 언제나 하나의 소주제에 대한 대화를 마무리한 후에 다른 소주제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즉, 다른 소주제에 대해 대화하다가 다시 앞에서 대화를 나누었던 소주제가 나올 수도 있다.
- 구간 내의 어느 한 발화에서 파생되어 해당 소주제와 무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경우 해당 발화들은 요약 대상 구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앞 구간의 소주제와 전혀 다른 내용의 소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구간은 요약 대상 구간으로 삼지 않는다.
- 대화의 앞부분에 대화 전체의 주제를 언급하는 도입부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이 구간은 소주제별 구간이 아니므로 구간 번호와 소주제 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 대화의 뒷부분에 화자들이 대화를 정리하는 마무리 구간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부분은 구간을 분할하고 구간 번호를 부여한 뒤, 소주제 번호 대신 '마무리'라고 적는다.

□ 소주제 선정

- 분할된 구간별로 명사 또는 명사구 형태의 소주제를 적는다.
- 소주제는 해당 구간의 대화를 아우를 수 있도록 추상화하여 표현한다.
- 대화의 마무리 구간이 존재할 경우, 소주제 내용이 아닌 대화 전체 주제에 대한 내용으므로 소주제 선정을 하지 않는다.

넷째, 협력적 대화의 전체 요약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소주제에 대한 화자별 생각을 파악해야 하므로 중심 발화 선정 요령을 제시하였다.

- 화자별로 소주제에 대한 생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발화를 중심 발화로 선정한다.
- 구어의 특성상 문장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소주제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발화를 절 단위로 선정하여 중심 발화가 길어지지 않도록 한다.
- 같은 내용을 반복할 때에는 화자의 생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발화만을 중심 발화로 선정하며, 소주제에 대한 생각이 여러 개의 발화에 나누어져 있으면 모두 중심 발화로 선정한다.
- 소주제에 대해 화자의 태도가 다양한데, 대화 참여자 중 소극적인 태도로 대화에 참여하는 화자가 있더라도 소주제에 대한 생각을 담은 문장이 있다면 이를 중심 발화로 선정한다.
- 간혹, 다른 소주제 구간에서 해당 소주제와 관련된 화자의 중심 생각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해당 소주제 구간으로 선정되지 않은 부분에서 중심 발화를 선정할 수는 없으나 소주제에 대한 화자별 요약문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으니, 대화 전체를 모두 읽어야 한다.
- 소주제 구간이 짧은 경우 또는 3인 이상의 대화에서 대화 참여자 중 소주제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는 화자가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소주제에 대한 중심 생각을 이야기한 화자의 발화만을 중심 발화로 선정할 수 있다.

다섯째, 전체 요약문은 협력적 대화의 성격에 따라 화자별 또는 소주제별 요약이 가능하다. 전체 요약문 작성 방안은 아래와 같다.

- 전체 요약문의 첫 번째 문장에서는 대화 참여자와 전체 주제를 제시한다.
“이 대화에서 화자1과 화자2는 ~에 대해 이야기했다.”
- 두 번째 문장부터는 화자별 또는 소주제별로 대화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다. 제시된 대화에 따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요약할 수 있다.
- 대화의 흐름에 따라 요약하지 않고 소주제별 흐름에 따라 요약한다.
- 화자별 요약 내용을 참고하되, 화자별 요약을 그대로 옮겨 작성하지 않고 재정리한다.
- 소주제별로 요약할 경우, 소주제에 대한 언급으로 문장을 시작한다.

- 화자별로 요약할 경우, ‘화자1은~’으로 문장을 시작한다.
- 대화에 따라 화자 간 발화의 양이 불균형할 때가 있는데, 이는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특정 화자의 발화량이 많더라도 너무 압축하지 않는다.
- 소주제에 대한 화자별 발화 요약에 기반하여 내용을 작성하되 추상화하여 작성한다.
- 대화를 마무리하는 구간이 없는 경우, 화자별 또는 소주제별 요약으로 전체 요약문을 끝낸다.
대화를 마무리하는 구간이 있는 경우, 마지막 문장에 대화를 마무리하는 내용을 작성한다.

3.2.3. 구축 지침 수립 결과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 구축 지침은 다음과 같은 목차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차>

1. 개요

- 1.1. 지침의 목적
- 1.2. 관련 사업
- 1.3. 주요 용어
- 1.4. 추상 요약문의 특징
- 1.5. 협력적 대화의 특징
- 1.6. 협력적 대화 요약문 작성 예시

2. 구간 분할 및 소주제 선정

- 2.1. 구간 분할
- 2.2. 소주제 선정

3. 소주제별 요약

- 3.1. 중심 발화 선정
- 3.2. 소주제에 대한 화자별 발화 요약
- 3.3. 주의 사항

4. 전체 요약문 작성

- 4.1. 전체 주제 제시
- 4.2. 화자별 또는 소주제별 요약
- 4.3. 마무리
- 4.4. 주의 사항

3.2.4. 평가 지침 수립 방안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 평가 지침은 협력적 대화 요약문 평가 방안을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림대 연구팀은 지침을 수립하고자 글쓰기 평가 관련 선행 연구를 검토하며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논의하였다. 또한, 샘플 작업으로 실제 요약문을 평가하면서 요약문 평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구분	일자	내용	지침
초안 작성	5. 13. 5. 20. 5. 27. 6.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지침 및 논문 분석 및 문제점 논의 • 샘플 작업(5. 21.~5. 27.) - 14개의 협력적 대화 요약문에 대한 28개의 요약문 평가 마련 • 지침 초안 검토 및 문제점 파악 • 국립국어원 착수보고회(4. 17.) 결과 수렴 및 지침 반영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 평가 지침 _1-0_20250609
1차 수정	6. 24. 7. 1. 7. 8. 7. 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적 대화 요약 평가 배점표 검토 • 협력적 대화 요약 평가 관련 의견 공유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 평가 지침 _1-1_20250722

<표 26>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 평가 지침 작성 회의

다음은 협력적 대화 요약문 평가를 위한 자문 회의 내용이다.

날짜	2025. 9. 19.
자문 위원	인천대학교 박보연 교수님
자문 내용	<p>1. <협력적 대화 요약문 평가 기준표>는 ‘내용, 조직, 표현’의 세 개의 평가 영역과 ‘적절성, 총망라성, 명료성; 긴밀성 및 완결성; 문장 및 어휘’의 다섯 개의 평가 준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평가 준거는 다시 3~7개의 하위 준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평가 기준들이 적절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내용, 조직, 표현’은 일반적인 글쓰기 평가 영역과 동일하여 글을 평가하는 항목</p>

으로 이견이 없을 듯하며, 내용의 평가 준거 비중이 큰 점도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섯 개의 평가 준거 중, ‘내용’ 영역의 ‘명료성’은 ‘내용’의 ‘적절성’ 및 ‘표현’과 구분이 뚜렷하지 않아 실제 요약문 평가 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명료성’의 하위 준거 ‘소주제 선정의 명료성’, ‘정보의 명료성’은 ‘적절성’과 유사하며(‘[붙임4]의 2쪽’, “불필요한 정보 없이 핵심 정보 위주로 명료하게 요약하였는지”), ‘표현의 명료성’은 ‘표현’ 항목과 매우 유사하다. ‘[붙임4]의 19쪽의 배점표’에도 명료성에 “비유적 표현이나 불필요한 수식 어구 등 군더더기 표현”과 같이 ‘표현’이라는 어휘가 사용되고 있다. 또한 ‘명료성’은 ‘적절성, 총망라성; 긴밀성 및 완결성; 문장 및 어휘’의 평가 기준을 종합적으로 잘 갖추었을 때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다른 평가 준거들과 동등하게 제시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군더더기 없는 명료함을 의미한다면 ‘명료성’은 ‘간결성’, ‘경제성’ 등으로 대체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적절성’과 명확한 구분이 요구된다.

2. 협력적 대화 작성자, 그리고 평가자 모두 대화의 구간을 분할하는 것에 차이가 있거나 각 분할한 구간의 소주제에 대한 생각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어의 경우 문어보다 평가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어렵습니다. 조언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간 분할 - 소주제 선정 - 소주제별 중심 발화 선정’의 순서보다는 ‘중심 발화 선정 - 소주제 선정 및 구간 분할’이 더 효과적일 듯하다. 또한 일상 대화의 구간 분할은 내용으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고 작업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어, 객관적인 ‘언어적 표지’를 기준으로 구간을 분할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언어적 표지’가 기준이 되면 구간 분할의 일관성은 더 높아질 것 같다. 따라서 대화의 화제 전환 시점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언어적 표지’를 목록화하여, 해당 ‘언어적 표지’가 나타난 문장 위주로 ‘중심 발화’를 선정하고 구간을 분할하는 식의 작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언어적 표지’는 제안이나 계획이 드러나는 ‘~자, ~을게’ 등의 어미, ‘자’, ‘근데’ ‘아니’, ‘아무튼’ 등 화제가 전환되거나 해당 화제가 마무리되는 담화 표지 등이 있을 듯하다. 이러한 ‘언어적 표지’ 외에도 그‘때 거기’와 같은 시간이나 공간 직시 표현 등이 바뀌는 경우나 한 화자의 발화 길이가 일정 이상 길어지는 경우 등도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3. 올해는 평가 주석 말뭉치도 수집하는데, 평가 기준에 맞게 작성하다 보니, 평가 근거 문장이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다채로운 평가 근거 문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문 사설 요약문 평가’ 2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다채로운 평가 근거 문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필요하기보다 ‘어떻게, 왜’가 드러나게 구체적인 사례가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효과적일 듯하다. 또한 두 개 이상의 평가 기준을 통합한 평가 근거 문장 작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평가 기준을 통

합한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 개의 평가 기준을 나열하거나 합치는 것이 아니라, 각 기준이 서로 미치는 영향과 그 결과를 하나의 평가 근거 문장으로 만든다는 의미이다.

<표 27> 전문가 자문 내용 4

3.2.5. 평가 지침 수립 내용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 평가 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첫째, 지침의 목적을 밝히고 평가 영역 및 하위 준거를 제시하였다.

영역	내용			조직	표현
준거	적절성	총망라성	명료성	긴밀성 및 완결성	문장 및 어휘

둘째, ‘내용’, ‘조직’, ‘표현’의 영역에서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내용

▪ 적절성

‘적절성’에서는 협력적 대화에서 주요 내용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를 판단한다. ‘대화 전체 주제의 적절성’, ‘소주제의 적절성’, ‘소주제에 대한 대화 참여자의 중심 생각의 적절성’, ‘객관성’의 네 가지 하위 준거로 구성된다.

- 대화 전체 주제의 적절성: 요약문에서 대화 참여자들이 이야기하는 다양한 소주제를 아우르는 대화의 전체 주제를 추상화하여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 판단한다.
- 소주제의 적절성: 화자별로 요약할 경우는 해당 소주제에 대한 화자의 중심 생각을 요약문에서 제시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소주제가 요약문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요약문에서 소주제에 대한 요약을 화자별로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를 판단한다. 소주제별로 요약을 할 경우는 소주제를 먼저 언급한 후에 화자의 중심 생각을 제시하는 구조이다. 요약문에서 각각의 소주제를 추상화하여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를 판단한다.
- 소주제에 대한 대화 참여자의 중심 생각(마무리 구간 포함)의 적절성: 요약문에서 대화 참여자들의 소주제에 대한 중심 생각을 추상화하여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 판단한다.
- 객관성: 요약문에 요약문 작성자의 주관적인 생각을 포함하지 않고 대화 내용을 객관적으로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를 판단한다.

- 총망라성

‘총망라성’에서는 협력적 대화에서 대화 참여자들이 이야기하는 소주제에 대한 내용을 요약문에 제시하였는지와 소주제에 대한 화자별 중심 생각을 모두 제시하였는지를 판단한다. ‘총망라성’이라는 평가 준거는 ‘소주제의 총망라성’, ‘소주제에 대한 대화 참여자의 중심 생각의 총망라성’의 두 가지 하위 준거로 구성된다.

- 소주제의 총망라성: 요약문에서 전체 주제를 고려하였을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주요 소주제를 제시하였는지를 판단한다.
- 소주제에 대한 대화 참여자의 중심 생각의 총망라성: 협력적 대화에서 제시된 소주제에 대한 각각의 대화 참여자의 중심 생각을 모두 대화문에 제시하였는지 판단한다.

- 명료성

‘명료성’은 협력적 대화에서 대화 참여자들이 이야기한 중심 내용들이 요약문에서 명료하게 드러나는지를 판단한다. ‘명료성’이라는 평가 준거는 ‘소주제 선정의 명료성’, ‘정보의 명료성’, ‘표현의 명료성’의 세 가지 하위 준거로 구성된다.

- 소주제 선정의 명료성: 협력적 대화에서 대화 참여자들은 전체 주제에 대한 다양한 소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대화 참여자들은 구어의 특성상 앞에서 나누었던 소주제를 다시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런 소주제의 내용을 요약문에 명료하게 재구성하였는지를 판단한다.
- 정보의 명료성: 각각의 소주제 안에서 중요한 정보만을 명료하게 드러내어 요약문을 작성하였는지 판단한다.
- 표현의 명료성: 예를 그대로 작성하지 않고 일반화하여 작성하였는지를 판단한다. 또한 군더더기 표현이나 비유적 표현 없이 명료하게 작성하였는지를 판단한다.

- 조직

‘조직’에서는 요약문을 이루는 문장들을 자연스럽고 긴밀하게 연결하였으며, 하나의 완결된 글로 조직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조직’이라는 영역을 구성하는 평가 준거는 ‘긴밀성 및 완결성’이다.

- 문장 간 긴밀성: ‘문장 간 긴밀성’은 요약문을 구성하는 문장들을 단순 나열하지 않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하였는지 평가하는 준거이다.
- 문장 배열의 적절성: ‘문장 배열의 적절성’은 대화의 내용들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순서로 배열되어 요약문에 작성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준거이다.
- 요약문의 완결성: ‘요약문의 완결성’은 요약문이 하나의 완결된 글로 작성되었는지 평가하는 준거이다.

□ 표현

‘표현’은 요약문의 내용적인 측면이 아닌 형식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영역이다. 즉, 요약문을 문단, 문장, 어휘, 표기 차원에서 평가한다. ‘표현’ 영역의 평가 준거는 ‘문장 및 어휘’이다.

- 글자 수의 적절성: 한 단락의 요약문이 700자 이내로 작성하였는지를 판단한다.
- 인용 표현의 적절성: ‘인용 표현의 적절성’은 요약문에서 대화 참여자의 생각을 정리하여 작성하는 부분에서 각각의 문장을 적절한 인용 표현을 사용하여 작성하였는지 평가하는 준거이다.
- 시제 표현의 적절성: ‘시제 표현의 적절성’은 요약문이 대화 참여자들이 한 대화를 요약하는 것이므로 과거 시제 표현을 사용하여 작성하였는지 평가하는 준거이다.
- 문장의 문법성: ‘문장의 문법성’은 요약문을 구성하는 문장들을 문법적인 문장으로 작성하였는지 평가하는 준거이다. 이때 문법성은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는지, 어순이 적절한지, 서술어의 논항 구조를 적절하게 드러내었는지 등을 통해 판단한다.
- 어휘 사용의 적절성: ‘어휘 사용의 적절성’은 협력적 대화의 주요 문장들을 다시쓰기하면서 사용한 어휘가 적절한지 평가하는 준거이다.
- 직시 표현 환언의 적절성: ‘직시 표현 환언’은 협력적 대화에서 대화 참여자들을 구분하는 ‘화자1’과 ‘화자2’ 등의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였는지 평가하는 준거이다.
- 어문 규범의 정확성: ‘어문 규범 준수’는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준수하여 요약문을 작성하였는지 평가하는 준거이다.

셋째, 평가자가 평가를 수행할 때 점수를 산출하는 방법과 평가 근거를 작성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 영역별 배점 및 점수 산출

- ‘내용’은 ‘적절성’, ‘총망라성’, ‘명료성’ 각 평가 준거당 7점 척도로 평가하여, 내용 영역의 총점은 총 21점이다.
- ‘조직’은 평가 준거가 ‘긴밀성 및 완결성’ 하나로, 조직 영역의 총점은 7점이다.
- ‘표현’은 평가 준거가 ‘문장 및 어휘’ 하나로, 표현 영역의 총점은 7점이다.
- 요약문 평가자는 아래에 제시된 <협력적 대화 요약문 평가 배점표>에 따라 각 평가 준거 당 1~7점의 점수를 부여한다. 요약문 한 건당 3인 이상이 평가하여 인간 평가 점수를 산출한다.

□ 평가 근거 작성

- 평가 항목별로 적절성, 총망라성, 명료성, 긴밀성 및 완결성, 문장 및 어휘에 대한 평가 근거를 작성한다.
- 평가 항목별로 각각 한 문장으로 작성한다.

- 평가 점수가 높더라도 잘한 점을 언급한다.
- 평가 근거문은 잘한 점을 먼저 언급하고 부족한 점을 나중에 제시한다.
- 특히 ‘표현’ 영역인 ‘문장 및 어휘’에 대한 평가에서 점수가 감점된 부분이 있다면 감점 요인에 해당하는 예를 포함하여 기술한다.
- 피동문으로 작성하지 않고 능동문으로 작성한다.

아래는 협력적 대화 요약문 평가의 예이다.

요약문 작성자	A			B		
요약문	<p>이 대화에서 화자1과 화자2는 원자력 에너지를 대체하여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화자1은 원자력 발전소의 초기 단계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긴 했으나 태양열 에너지를 사용할 때 가정이 부담하는 전기세가 인상될 것이고, 산에 있는 나무를 뽑아 발전소를 짓는 풍력 발전소에 비해 원자력 발전소는 자연을 덜 훼손시키며, 앞서 말한 풍력과 태양열 등 재생 에너지의 기술 수준이 타국에 비해 낮고 원자력 에너지를 폐지하고 신재생을 고집하다 결국 원자력으로 돌아온 나라들이 많다고 말했다. 반면 화자2는 재생 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할 때보다 전기세가 인상하는 것은 맞지만 원자력 에너지 발전소의 유지 비용이나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생각하였을 때 지금 폐지하는 것이 경제성이 더 높고, 지구의 환경이 점차 나빠지는 상황에서 원자력 에너지가 아닌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환경오염이 덜 하며, 재생 에너지만을 사용하는 생활이 두렵긴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를 폐지하고 재생 에너지에 몰두하였을 때 원자력 에너지 보다 효율적이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이 대화에서 화자1과 화자2는 원자력 발전소의 존재 여부에 대해 이야기했다. 화자1은 원자력 에너지가 없으면 전기세가 더욱 늘어나게 되고, 원자력 시설 유지 과정에서 우려만큼 자연이 크게 훼손되지 않으며, 대체 에너지를 원자력 대신 주 에너지로 활용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반면 화자2는 원자력 시설을 유지하는 비용이 전기세를 내는 비용보다 크고, 대체 에너지 사용이 환경에 있어 더 도움을 주며, 대체 에너지 활용을 조금씩 늘리다 보면 주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화자2는 화자1의 의견을 통해 당장은 원자력 시설을 폐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체 에너지와 함께 유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p>		
글자 수	546			363		
평가 준거	평가 항 목	점수(1~7)	근거	점수 (1~7)	근거	
내용	적절성	5	요약문을 객관적으로 작성하였으나, 대화 전체 주제의 적절성이 다소 부족하며, 소주제에 대한 대화 참여자의 중심 생각 2개를 추상화하여 적절하게 요약하지 않았다.	6	전체 대화 주제를 적절하게 작성하였고, 요약문을 객관적으로 작성하였으나, 소주제에 대한 대화 참여자의 중심 생각 1개를 적절하게 요약하지 않았다.	
	총망라성	7	대화에서 대화 참여자들이 제시한 소주제와 소주제에 대한 대화 참여자들의 중심 생각을 모두 제시하였다.	7	대화에서 대화 참여자들이 제시한 소주제와 소주제에 대한 대화 참여자들의 중심 생각을 모두 제시하였다.	
	명료성	2	대화 내용을 소주제별로 재구성하였으나, 불필요한 정보와 군더더기 표현을 상당 부분 포함하여 작성하였다.	5	대화 내용을 소주제별로 재구성하였고, 불필요한 내용과 덜 중요한 정보를 다소 포함하여 작성하였다.	
내용 총점		14		18		
조직	긴밀성 및 완결성	3	대화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들을 배열하였으나, 마무리 구간 부분을 요약하지 않아 완결성이 매우 부족하며, 연결 어미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아 절과 절 사이가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는다.	7	대화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들을 배열하였고, 절과 절 사이, 문장과 문장 사이도 긴밀하게 연결되며, 하나의 완결된 글로 작성하였다.	
표현	문장 및 어휘	2	인용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였고, 과거 시제로 요약문을 작성하였으나, 문법적이지 않은 문장이 있고,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이 다수 있다. ('타국에 비해'의 비교 대상이 되는 대상을 작성하지 않았음, 어휘 '몰두하다'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음, 비용->비용, 재생에너지 -> 재생 에너지, 에너지보다-> 에너지보다)	6	인용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였고, 과거시제로 요약문을 작성하였으며, 문법적인 문장들로 요약문을 작성하였으나,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이 1개 있다. (에너지르 -> 에너지를)	
총점		46.76		86.84		

3.2.6. 평가 지침 수립 결과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 평가 지침은 다음과 같은 목차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차>

1. 개요

- 1.1. 지침의 목적
- 1.2. 관련 사업

2. 평가 영역 및 하위 준거

2.1. 내용

- 2.1.1. 적절성
- 2.1.2. 총망라성
- 2.1.3. 명료성

2.2. 조직

2.3. 표현

<협력적 대화 요약문 평가 기준표>

3. 평가 수행 및 점수 산출

3.1. 영역별 배점

3.2. 점수 산출

3.3. 평가 근거 작성

<협력적 대화 요약문 점수 산출 및 평가 근거 작성 예>

<협력적 대화 요약문 평가 배점표>

<협력적 대화 요약문 평가 배점표(요약)>



제 4 장

결 론

4.1. 사업 요약

‘2025년 대화 및 텍스트 요약 말뭉치 연구’ 사업은 국립국어원이 주관하고 기업 데이터(Data.ly)와 한림대학교가 함께 참여하여 약 8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사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원시 말뭉치 ‘국립국어원 신문 말뭉치 2024’를 대상으로 기본 조건에 충족하는 신문 사설 기사 1,008건을 선별하여 사설 기사 1건당 2개의 요약문을 작성했다. ‘국립국어원 일상 대화 말뭉치 2021, 2022’를 대상으로 기본 조건에 충족하는 신문 사설 기사 510건을 선별하여 대화 1건당 2개의 요약문을 작성했다.

둘째, 신문 사설 기사 요약을 위해 기존의 방법론을 보완하여 ‘신문 사설 요약문 작성 지침’을 수립했다. 사설 기사 내 중요 문장 선정에 위한 세부 지침과 추상 요약문 작성 지침을 보완하고 작업자들이 한국어 어문 규범을 준수할 수 있도록 기술했다. 협력적 대화 요약을 위한 방법론을 구축하고 ‘협력적 대화 요약문 작성 지침’을 수립했다. 소주제별 요약문 작성과 전체 요약문 작성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작업자들이 한국어 어문 규범을 준수할 수 있도록 기술했다.

셋째, 요약 결과물을 대상으로 인간 평가를 위한 평가 방법론을 수립·보완하고 평가를 수행했다. 대화 및 텍스트 요약문을 평가하기 위한 준거와 세부 평가 항목을 체계화하여 수립하고, 이를 기준으로 문서 1건당 전문 인력 3인 이상이 평가를 수행했다.

4.2. 한계 및 향후 연구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여러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위한 학습 데이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본 사업의 결과물인 요약 말뭉치는 논증적 글뿐만 아니라 구어인 협력적 대화도 대상으로 삼고 있어 각종 요약 서비스 개발과 요약문 평가 서비스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본 사업에서는 요약 말뭉치를 구축하면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향후에 유사한 사업을 수행할 때는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첫째, 추상 요약문 작성에 적합한 신문 사설 주제의 편향성이 존재하였다. 대상 말뭉치는 총 9개의 주제별 균등 추출 및 완성도 평가(95% 이상 기준)를 거쳐 선별되었다. 그러나 이후 작업 관리자가 수동 검수 과정에서 원문에 2개 이상의 주제가 존재하거나 원문과 제목이 불일치하는 사설 등을 제외하면서, 스포츠, 문화, 연예 문서가 다수 제외되었다. 그 결과, 최종 말뭉치가 ‘경제’, ‘사회’, ‘정치’ 분야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주제별 구문 구조 및 담화 방식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평가자 간 편차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금년도에는 평가 기준을 세분화하고 근거 작성 방식을 구체화하는 등의 지침 보완을 통해 전년도 대비 편차가 다소 완화되었다. 하지만 평가자의 요약문 해석 차이와 세부 평가 항목 간 중요도 판단 차이 등으로 인해 동일 문서에 대한 평가 점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였으며, 이는 평가 결과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구축 도구의 기능적 제약 및 안정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추출 요약문 비교 검증 기능, 국립국어원 사전 및 맞춤법 검사 도구 연동 기능 등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능 안정화 및 오류 수정에 여러 차례 재점검이 필요했다. 특히 맞춤법 검사의 공개 API 확보 지연으로 기능 추가가 예상보다 지연되기도 하였다. 작업 전, 구축 도구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 추가로 인한 도구 처리 속도 저하와 작업 중 오류가 발생하며 초기 구축 말뭉치에서 일부 품질 문제가 확인되었다. 또한, 협력적 대화 요약은 소주제 분할 및 전체 요약문 작성이라는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추출 요약 기반 검증이 적용되지 않아 사실성 및 논리적 일관성 평가 기능이 부족한 한계가 있었다.

위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고 말뭉치 구축 및 검증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향후 다음과 같은 연구 및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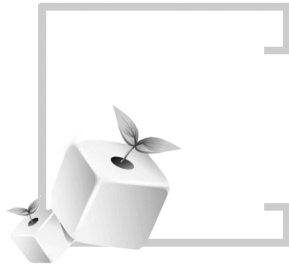
첫째, 요약 말뭉치 대상 텍스트 및 담화 유형을 확장하는 것이다. 본 사업에서는 신문 사설과 협력적 대화를 중심으로 비교적 짧고 정형화된 텍스트의 말뭉치를 구축하였다. 향후 정책 문서, 기술 문서, 학술 텍스트 등 구조적 다양성이 높은 비정형 자료를 포함한 다층적 한국어 요약 말뭉치를 구축이 필요하다. 구어 담화의 경우에도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합의를 도출하는 ‘회의, 미팅’, 정보 전달에 초점을 둔 ‘강의, 강연, 인터뷰’ 등 다양한 유형을 대상으로 요약문을 작성하는 과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 말뭉치 대상 문서의 유형을 확장한다면 한국어 특화 모델의 일반화 성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정답 말뭉치 기반의 반자동 평가 체계를 발전시키는 연구가 필요하다. 전년도부터 제기되어 온 평가의 주관성 문제는 금년도에 일부 완화되었으나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다. 정답 말뭉치와 실제 평가 결과 간 편차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보정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를 평가 도구에 도입한다면 평가자의 가중치 판단 차이를 줄이고 대규모 평가 말뭉치 구축 시 평가 효율성과 품질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다양한 유형의 글에 대한 요약문 평가를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평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구 기능 확장 및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의 자동 검증 기능 도입이 필요하다. 도구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오류 신고 자동 분류, 인터페이스 개선 등 운영 효율 향상을 위한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금년도 구축 도구에 추가된 추출 요약문과의 비교 검증 시스템의 기준 점수를 점차 상향하여 추상 요약문의 정보 압축 및 재구성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의 사실성 검증, 발화 간 논리적 연결성 평가 등 구조적 특성에 적합한 자동 검증 기능을 도입한다면, 보다 정교하고 검증 가능한 추상 요약 말뭉치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문헌

- 국립국어원(2021), 『회의록 요약 말뭉치 연구 분석 최종 보고서』,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22), 『회의록 요약 분석 최종 보고서』,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23), 『2023년 국민의 글쓰기 능력 진단 체계 개발 최종 보고서』,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23), 『2023년 국어능력 진단 체계 활용 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23), 『대화 요약 말뭉치 연구 분석 최종 보고서』,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24), 『말뭉치 요약 연구 분석 최종 보고서』, 국립국어원.
- 권희선(2001), “텍스트 요약하기 전략연구”, 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종화(2003), 『미디어와 취재 방법론』, 한울아카데미.
- 김혜영·강범모(2011), “신문 사설의 어휘적 특징”, 『담화와 인지』 제18권 3호.
- 김정민(2021),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 활용 가이드라인-14-22. 요약문 및 레포트 생성 데이터”, AIHUB.
- 홍수안(2021),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 활용 가이드라인-도서자료 요약 데이터”, AIHUB.



붙임 1

소주제 분할 작업 방법



소주제 분할 작업 방법

[소주제 분할 작업 방법]

1. 작업 도구에서 작업할 문서를 ‘json 불러오기로’ 확인
2. 왼쪽 상단의 문서 번호와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 주제를 확인한 후 ‘소주제 분할 결과_관리자’ 시트에 문서 번호와 문서 대주제 작성
※ 문서 대주제로 구분이 어려운 문서의 경우, 대주제 작성란에 ‘보류’로 작성
3. 대화 전체를 읽으며 ‘소주제 분할 결과_관리자’ 시트에 소주제로 분리가 가능한 내용을 명사 혹은 명사구 형태로 작성
※ 소주제로 적합한 명사/명사구가 대화 안에 있는 경우, 해당 단어로 작성이 우선
※ 3~6개의 소주제로 분할(4~6개의 소주제가 가장 좋음), 3번 작업 중 소주제 수정 가능

27	소주제 번호	소주제
	SDRW2200000644	패션/뷰티(추천하는 패션과 패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점)
	1	신발 추천
	2	모자 추천
	3	상의 추천
	4	하의 추천
	5	정장 추천
	6	향후 구매할 의류에 대한 논의

▲ 구글 시트에 문서 번호, 대분류, 소주제를 작성한 모습

4. 위 소주제를 바탕으로, 각각의 소주제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발화들을 하나의 구간(sentence_set)으로 지정 > sub_topic에 ‘소주제1~6’ 정보 부착
5. 각 소주제 번호(sub_topic)에 맞게 나눈 구간 중 가장 첫 번째 구간에만 소주제명(keyword) 작성

문서 ID: SDRW2200000630.1

ID	Speaker_id	form	Sentence_set	keyword	Sub_topic
111	SD2200761	나는 어디 아픈지 모르겠는 증상 물어보고 싶어.			
112	SD2200761	뭔가 배고플 때는 항상			
113	SD2200761	밥 시간에 맞춰서 그냥 밥을 주면 되겠지만 아픈 거는 말을 하지 못하니까			
114	SD2200761	흔히 공복대고 있을까 봐 항상 물어보고 싶어.			
115	SD2200760				
116	SD2200760				
117	SD2200760	사람들이 항상 그런 얘기하더라고. 서로는 괜찮은지 물어보고 싶다고.			
118	SD2200760				
119	SD2200760	다른 플랫폼 사이트에서 동물 관련된 영상 영상의 자주 봐?			
120	SD2200761	응 나는 되게 자주 보			
121	SD2200761	아니면 아니면은 그 유튜브에 강행록			
122	SD2200761	산성성의 이제 강아지 훈련 방법 이런 거 되게 많이 보는데			
123	SD2200761	그러니까 그 영상들도 되게 특목하고			
124	SD2200761	강도 알리고 되게			
125	SD2200761	준경스러워			
126	SD2200760	영상에서 본대로 키우는 강아지한테 훈련 한번 시켜 본 적 있어?			
127	SD2200761	어릴 때 이제 조금			
128	SD2200761	간단한 교육을 해 봤는데 진짜 어렵더라고.			
129	SD2200761	나는 근데 유기묘나 유기견 어떤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130	SD2200760				
131	SD2200760	솔직히 경제적인 능력이 되고 있고 있는 시간이 많다면			
132	SD2200760	몇 마리의든 상관없이 데려와서 키우고는 싶은데			
133	SD2200760	아까 말했듯이			
134	SD2200760	사는 시간이 만년에 못 배로 짧다 보니까			
135	SD2200761	말아			
136	SD2200761	나는 뭔가 유기묘나 유기견을 보면 정말 안타깝더라고.			
137	SD2200761	뭔가 사람들이 왜			

문서 1 / 1

미완성 문서로 표시
미완성 문서만 보기

JSON 불러오기 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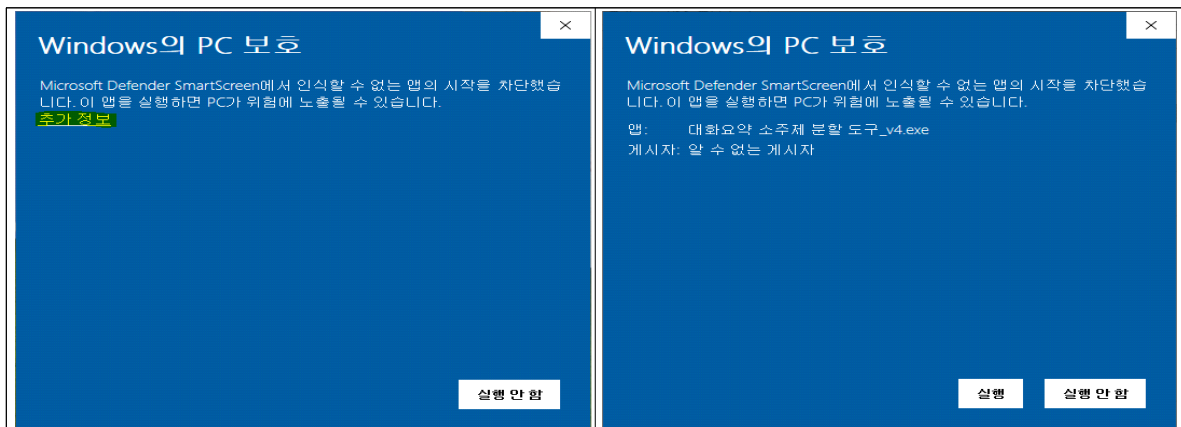
▲ 소주제 분할을 완료한 모습

[※소주제 분할 시 유의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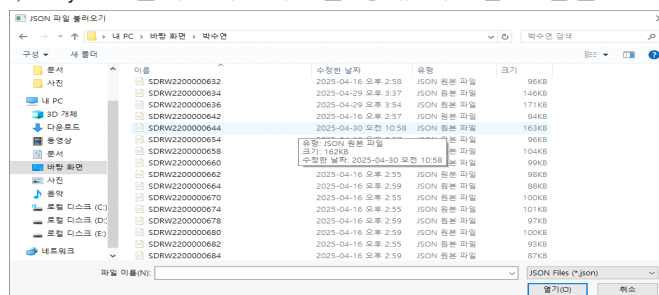
1. 발화자 전환에 상관없이, 소주제에 포함되는 모든 발화를 하나의 sentence_set으로 지정한다.
2. 소주제는 해당하는 발화를 아우르는 큰 주제로 선정하되, 큰 주제 속 한두 문장 정도 다른 주제의 말들은 포함한다. (예를 들어 영화 얘기 중 드라마 얘기 1~2문장 정도)
3. 이때, 분할 중인 소주제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정도의 내용은 포함하되, 다른 소주제 번호에 포함되는 내용이라면 sentence_set을 분리하여 지정한다.
4. 전반적인 소주제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난 주제에 관련된 발화의 경우 어떠한 소주제에도 포함시키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영화 얘기 중 갑자기 책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경우)
5. 응, 그래 등의 대답, 짧은 발화는 소주제에 포함한다.
6. 중간에 발화가 비어있을 경우(아예 칸 자체가 빈 경우)는 포함하지 않고 sentence_set를 나누어 분할한다.
7. 한 가지 소주제가 너무 적은 발화로만 구성된 경우 요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8. 3~4인 대화의 경우 한 가지 소주제에서 모든 발화자가 발화하지 않아도 소주제 분할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4인 대화에서 하나의 소주제에 3인만 대화해도 소주제 분할이 가능함)

[소주제 분할 도구 사용 방법]

1. 소주제 분할 도구 다운로드 후 파일을 실행한다.(추가 정보 > 실행 버튼 클릭)



2. 작업 도구에 입장 후, 'json 불러오기' 버튼을 통해 작업할 파일을 선택한다.



▲ 작업 대상 json 파일 선택

3. 공유받은 ‘협력적 대화 소주제 분할 결과_관리자’ 파일에 문서 번호와 문서 대주제를 입력한다.

4. 문서의 form 내용을 확인하며 ‘협력적 대화 소주제 분할 결과_관리자’ 시트에 3~6개의 소주제명을 작성한다.

ID	Speaker_id	form
1	SD2200202	name1아 내가 이번에 옷을 샀는데
2	SD2200202	자 좀 잘못 산 거 같더라고
3	SD2200202	상의도 그렇고 하의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쿠랑에서 샀는데
4	SD2200202	이건 좀 아닌 것 같더라. 혹시 추천해 줄 만한
5	SD2200202	플랫폼이나 매장 같은 데 있을까?
6	SD2200203	음 가장 좋은 거는 직접 사는 거
7	SD2200203	보고 입어 보고 사는 게 가장 좋겠지만은 요새는
8	SD2200203	무신사 같은
9	SD2200203	중개 플랫폼들이 매우 매우 잘돼 있기 때문에
10	SD2200203	거기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네요
11	SD2200203	어느 부 어느 부위가 가장 급하고 궁금하신 거예요?
12	SD2200202	나는 일단은 신발이 가장 좀 급해.
13	SD2200202	최근에 신발을 하나 샀는데
14	SD2200202	두 달 만에 다 닳아버렸더라고.
15	SD2200202	내가 그 신발로
16	SD2200202	일상생활에서도 그 신발을 신고
17	SD2200202	그리고 운동할 때도 그 신발을 신고 특히 러닝할 때도 계속 그 신발을 신다 보니까
18	SD2200202	더 빨리 닳은 거 같아.
19	SD2200202	혹시 추천해 줄 만한 러닝화나
20	SD2200202	뭐 다른 브랜드 요런 거 있을까?
21	SD2200203	이게 러닝화나 사람들이 볼 때 보는 요소들이 크게 몇 가지 있거든요
22	SD2200203	뭐 가격도 있을 수 있고
23	SD2200203	내구성도 중요하고 아니면 탄성이라든지 착화감 이런 것도
24	SD2200203	사람들이 많이 보긴 하는데 형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25	SD2200202	어 나는 내구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26	SD2200202	내가 신발을 자주 신고 또 1번 닳힐 때 오래 달린다
27	SD2200202	오래 달린다 보니까

5. 소주제 작성 완료 후 해당 소주제에 맞춰 sentence_set(분할 구간), sub_topic(소주제 번호), keyword(소주제 명)를 차례대로 기입한다.

Sentence_set	keyword	Sub_topic
--------------	---------	-----------

5-1) sentence_set(분할 구간) 지정 방법

- 소주제로 분할하고 싶은 구간의 셀을 좌클릭한 상태로 드래그 시 지정 상황이 확인 가능하다.
- 분할 구간을 지정하려면 마우스를 ‘우클릭’ 한 상태로 셀을 드래그하면 분할 구간이 지정되며, 오른쪽상으로 sentence_set 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form	Sentence_set	form	Sentence_set
신발이 좀 혼돈돼요 오래 신을 수 있겠더라고요 혹시 내구도 좋은 신발 알고 있어요?		일상생활에서도 그 신발을 신고 그리고 운동할 때도 그 신발을 신고 특히 러닝할 때도 계속 그 신발을 신다 보니까 더 빨리 닳은 거 같아. 혹시 추천해 줄 만한 러닝화나 뭐 다른 브랜드 요런 거 있을까?	
아 근데 저자는 내구도가 좋은 신발은 말로 근데 좀 단점이 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편지자를 달리 쓰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지거든요. 한 20만 원 10만 원 하도 10만 원대일 텐데 어떻게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이게 러닝화나 사람들이 볼 때 보는 요소들이 크게 몇 가지 있거든요 뭐 가격도 있을 수 있고 내구성도 중요하고 아니면 탄성이라든지 착화감 이런 것도 사람들이 많이 보긴 하는데 형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아 저기 형지 말네. 하지만 요즘에 알베트 하고 있고 공정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거 같아. 혹시 10만 원대에서 추천해 줄 만한 거 하나 있을까?		어 나는 내구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내가 신발을 자주 신고 또 1번 닳힐 때 오래 달린다 오래 달린다 보니까 신발이 좀 혼돈돼요 오래 신을 수 있겠더라고요 혹시 내구도 좋은 신발 알고 있어요?	1
아 10만 원대는 뭐 나이가 러닝화 제품도 괜찮은 게 많이 있고요. 아니면 포카에로에나 아니면은 아직은 제품도 러닝화로 굉장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나중에 저랑 같이 가서 신어 보고 비교하고 하는 게 가장 나을 거 같네요.		아 근데 저자는 내구도가 좋은 신발은 말로 근데 좀 단점이 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편지자를 달리 쓰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지거든요. 한 20만 원 10만 원 하도 10만 원대일 텐데 어떻게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 마우스를 좌클릭한 모습

▲ 마우스 우클릭으로 분할 구간을 지정한 모습

- 지정한 분할 구간을 해제하고 싶을 때는 분할 구간을 좌클릭 후 키보드의 ‘delete’ 를 이용해 삭제한다.

5-2) sub_topic(소주제 번호) 지정 방법

- 앞서 지정한 sentence_set(분할 구간)의 소주제와 미리 작성해 둔 구글 시트 내 소주제를 비교하여 몇 번 소주제인지 파악한다. *아래 이미지는 4번 소주제이다.(1p 소주제 분할 목록 참고)
- 분할 구간에 해당하는 sub_topic 구간을 **더블클릭**하면 소주제 번호가 나타난다.
- **sub_topic** 구간에 **마우스를 대고 ‘스크롤’**하면 소주제 번호 지정이 가능하다.
- 모든 sentence_set(분할 구간)에 맞는 sub_topic(소주제 번호)를 지정한다.
- 소주제 번호는 수정이 가능하며, sentence_set(분할 구간)을 삭제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

form	Sentence_set	keyword	Sub_topic
아 두말하면 청바지죠 당연히 청바지고 활동도 면에서 그리고 편한 것도 그렇고 슬랙스는 우리가 항상 어느 상황에서나 입기보다는 중요한 자리나 아니면 데이트하거나 그런 단정한 옷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청바지는 어느 상황에서든 가능하기 때문에 청바지 추천드릴게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최소한 1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잡는 거를 추천드리니까 혹시 청바지도 여러 종류 있는데 어떤 색깔 원하세요? 어 나는 청바지를 원래 원했던 색은 흑색 청바지를 좀 원했는데 사실상 이제 좀 검은색을 벗어나야 될 거 같아서 청색 청바지면 좋겠어.	5	하의 추천	소주제4

▲ 소주제 번호 지정 모습

5-3) keyword(소주제 명) 입력 방법

- 우측 상단의 ‘전체, 1~6 체크박스’ 는 각각의 소주제별 발화만을 확인하는 기능이다.
- 관리자는 분할 완료 후, 소주제별 발화 보기 기능을 활용하여 분리된 소주제별 담화를 확인하고 **첫 번째 sentence_set 구간에 해당하는 keyword 구간에 소주제 명을 수기로 입력한다.**
- 아래 이미지는 4번 소주제의 분할, 소주제 번호, 소주제 명 입력이 완료된 상태이다.

문서 ID: SDRW220000064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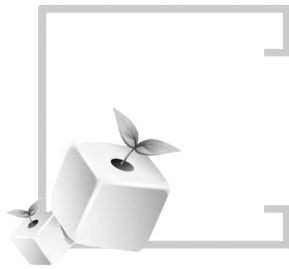
ID	Speaker_id	form	Sentence_set	keyword	Sub_topic
145	SD22002002	청색 청바지 중에서도 좀 밝은 거 말고 어두운색 계열이면 좋겠는데	4	하의 추천	소주제4
146	SD22002002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리베이스밖에 모르겠는데 혹시 다른 거 또 유명한 거나 추천해 줄 만한 거 또 있나?			
147	SD22002003	아 리베이스가			
148	SD22002003	가장 좋은 대안이긴 하죠. 형이 말씀하신 거 들어 보니까 연장이 아니라			
149	SD22002003	중형 청바지를 원하는 거 같으니까			
150	SD22002003	거로수질에 있는 리베이스 매장 가서 사도 좋을 거 같고			
151	SD22002003	국내 브랜드 중에서도			
152	SD22002003	중형으로 해서			
153	SD22002003	10만 원대에도 좋은 제품 많이 나와 있으니까			
154	SD22002003	그것도 알아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155	SD22002003	음			

▲ keyword까지 입력된 도구 모습

6. 모든 소주제 분할 작업 완료 후 오른쪽 하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해 저장한다.

※ ‘저장’ 버튼을 클릭하지 않은 채 새로운 문서를 불러올 경우, 작업 결과물이 삭제될 수 있으니 주의

7. 작업 완료 > 저장 후 다시 2번 단계로 돌아가 다음 작업 문서를 선택한다.



붙임 2

신문 사설 요약문 작성 지침



신문 사설 요약문 작성 지침

ver. 1.1

2025.6.16.

한림대

목 차

1. 개요	1
1.1. 지침의 목적	1
1.2. 관련 사업	1
1.3. 주요 용어	1
1.4. 추상 요약문의 특징	1
1.5. 신문 사설의 특징	2
1.6. 신문 사설 요약문 작성 예시	4
2. 신문 사설 요약문 작성	5
2.1. 중요 문장 선정	5
2.1.1. 문제 상황	5
2.1.2. 주장	7
2.1.3. 논거 또는 실천 방안	12
2.2. 추상 요약문 작성	16
2.2.1. 내용	17
2.2.1.1. 문제 상황	17
2.2.1.2. 주장	18
2.2.1.3. 논거 또는 실천 방안	20
2.2.2. 조직	22
2.2.3. 표현	24

1. 개요

1.1. 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신문 사설 요약 말뭉치를 구축하는 방안을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는 중요 문장을 선정하는 방법과 추상 요약문을 작성하는 방안을 기술한다. 추상 요약문을 작성할 때에는 신문 사설에서 핵심적인 정보를 담은 중요 문장을 바탕으로 요약문을 작성하되, 중요 문장 안에 부가적인 정보가 들어가 있으면 이를 삭제하고, 중요 문장으로 선정하지 않은 문장에 핵심적인 정보가 들어가 있으면 이를 포함하여 추상 요약문을 작성한다.

1.2. 관련 사업

이 지침은 국립국어원의 '2025년 대화 및 텍스트 요약 말뭉치 구축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서 신문 사설 요약 말뭉치를 구축하기 위한 지침이다.

1.3. 주요 용어

요약문 작성에 사용되는 주요 용어는 아래와 같다.

- 원문: 요약의 대상이 되는 글
- 요약문: 글의 요점을 간추려 다시 쓴 글
- 중요 문장: 글의 요점을 담은 문장
- 추상 요약문: 글의 내용과 주요 정보를 파악한 후, 원문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표현을 달리하여 요약한 글

1.4. 추상 요약문의 특징

요약문은 원문으로부터 요약문을 작성하는 방법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추출 요약문은 원문에서 중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을 추출한 후 이를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여 작성하고, 추상 요약문은 원문에서 중요 내용을 파악한 후 원문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표현을 달리하여 요약한다.

추상 요약문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한다.

- 고유명사는 그대로 사용하되 정식 명칭이 따로 있으면 그것을 사용한다.
- 주요 어휘는 가능한 한 그대로 유지한다.
- 원문의 문장을 요약문에 그대로 작성하지 않도록 한다.
- 주요 어휘가 아닌 어휘는 의미를 유지하는 선에서 다른 어휘로 교체할 수 있다.
- 직시 표현은 메타 정보에 의존하지 않아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환언하여 제시한다.
- 둘 이상의 문장에 나뉘어 있는 내용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 수 있다. 단, 이때 적절한 어미를 사용한다.
- 요약문은 한 편의 완결된 글이 되도록 작성한다.
- 요약문에서 논지 전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중요 내용을 제시할 때 원문에서 제시한 순서와 다르게 제시할 수 있다.

1.5. 신문 사설의 특징

(1) 신문 사설의 내용

신문 사설은 사회, 정치, 경제, 생활, 미용 및 건강, IT 및 과학, 스포츠, 문화 연예 등의 전반에 걸쳐 신문사의 의견과 주장을 내세우는 글이다. 각종 현상 및 사건에 대해 현실적이고 다급한 요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시의성을 특징으로 한다.

(2) 신문 사설의 구성 요소

- 문제 상황
 - ◆ 현시점에서 문제가 되는 사건이나 현상을 기술한다.
 - ◆ ‘문제 상황’에는 문제가 되는 상황, 주장의 배경, 주장의 전제가 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꼭 문제 상황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나 현상을 기술하는 경우도 있다.
- 주장
 - ◆ 문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어떤 주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술한다.
- 논거
 - ◆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제시한다.
- 실천 방안
 - ◆ 어떤 사설에서는 주장에 대한 논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주요한 주장에 대해 그 주장의 내용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제시되는 경우가 있다.

(3) 신문 사설의 구조

- 신문 사설에서는 문제 상황, 논자(혹은 신문사)의 주장, 주장에 대한 논거가 다양한 구조로 전개된다. 즉, 상황-주장-논거, 상황-논거-주장, 상황-구체화-주장, 상황-주장-방안 등 다양한 유형의 사설이 존재한다.

(4) 신문 사설의 문체적 특징

- 신문 사설은 각종 현상 및 사건에 대한 해당 언론사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기에 사설을 쓴 사람의 이름을 남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본문에서도 '필자는', '논자는'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신문 사설은 각종 현상 및 사건에 대한 의견이나 주장을 내세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표현들을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예) 의무를 나타내는 서법 표지 '~어야 하다', 당위적 진술 '옳다, 마땅하다' 등, 강조를 나타내는 부사 표현 '제대로, 결코, 물론, 더구나' 등
- 신문 사설은 그 당시의 사정이나 사회적 요구를 내용에 담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이나 요구에 대한 내용은 현재형으로 표현한다.

1.6. 신문 사설 요약문 작성 예시

원문
<p style="text-align: center;">민생 챙긴다더니, 취약계층 예산 1조원 집행 안 한 정부</p> <p>정부가 지난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책정한 예산 중 집행하지 않은 금액이 1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향신문이 기획재정부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내용을 보면, 지난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가운데 하나인 의료급여의 불용액 규모가 7000억원에 달했다. 불용액이란 국회를 통해 확정된 예산 중 정부가 쓰지 않은 돈을 말한다. 고령층에 지급되는 기초연금 지원 예산 불용액도 3306억원에 달해 두 항목만 합쳐도 1조원이 넘는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사용되지 않은 것이다.</p> <p>정부는 책정된 예산에 비해 수요가 적어 불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의료급여와 기초연금은 의무지출 성격이 강한 데도 이처럼 불용액이 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경기침체, 감세와 긴축재정 기조 때문에 각 부처가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막대한 '예산 불용'을 초래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가 "방만한 재정운용에서 벗어나 건전재정 기조하에 약자 보호 등 연대와 공정의 가치 확립에 집중"한다더니 그 결과가 취약계층 예산 불용인지 묻고 싶다.</p> <p>지난해 한국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를 겪으며 그 어느 때보다 서민들의 고통이 컸다. 경기가 위축되거나 소비가 부진할 때는 정부가 적극적 재정을 통해 이를 방어하는 게 재정운용의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기업 감세 드라이브를 이어갔고, 재정도 긴축기조를 풀지 않았다.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펀크'는 예견된 참사였다. '부자 감세'에 따른 재원 부족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의 발목을 잡았고, 결국 정부 재정이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이나 당장 눈으로 드러나지 않는 환경 분야에 대한 예산부터 영향을 받는 악순환으로 이어진 것이다.</p> <p>윤석열 대통령은 4월 총선을 앞두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 등 전보다 강한 감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서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제대로 주목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전세사기 피해 여파로 초소형 오피스텔 월세가 치솟으며 청년들의 주거난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고, 가계빚은 서민들을 여전히 괴롭히고 있다. 정부는 재정운용의 획기적 변화와 함께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p>
요약문
<p>2023년 정부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집행하지 않은 금액이 1조 원이 넘는다. 경기가 위축되거나 소비가 부진할 때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 이를 방어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과 기업에 대해 감세를 하고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하지 않아 취약계층이나 환경 분야에 대한 예산부터 줄어들게 되었다. 정부는 재정 운용 방향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p>

2. 신문 사설 요약문 작성

2.1. 중요 문장 선정

- 중요 어휘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들 가운데 중요 문장을 선정한다.
- 신문 사설 제목과 유사도가 높은 문장을 중요 문장으로 선정한다.
- '문제 상황, 주장, 논거 또는 실천 방안'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문장을 선정한다.
- 너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문장은 중요 문장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 중요 문장은 문장 단위로 선정한다.
- 중요 문장은 3~6문장 내외로 선정한다. 선정된 중요 문장은 대체로 문제 상황 1문장, 주장 1문장, 논거 또는 실천 방안 2~4문장으로 구성된다.

2.1.1. 문제 상황

(1) 문제 상황 제시 유형

문제 상황은 현시점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을 기술하는 경우가 많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주장의 배경 혹은 전제를 기술하기도 한다.

- 현시점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 기술

내년 최저임금 9,620원, 누구를 위한 금액인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5.0%(460원)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을 제외하고 23명 중 찬성은 12명, 기권은 10명, 반대는 1명이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이 무산된 노동계는 5%는 실제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으로 결국 임금 인상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저임금 노동자 삶의 불평등, 더 나아가 노동 개악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당장 2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도 낮은 최저임금 인상을 등을 성토했다는 목소리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지불 능력인데 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됐으며 이의제기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노사 모두 이번 결과에 반발하면서 집권 첫해부터 후폭풍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의 기준 역할도 한다. 따라서 노동자 가구의 표준생계비를 우선 고려한 상태에서 소득분배와 경제상황을 중심으로 결정돼야 한다. 다만 최소한 물가 상승률과 노동생산성 증가율만큼은 인상돼야 실질소득을 지킬 수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사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저임금안은 저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의 말처럼 노사 불만의 균형을 잘 잡아주고 타협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부는 앞으로 최저임금 정책을 되돌아보고 공동이익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주장의 배경 혹은 전제가 되는 상황 제시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이제부터 속도 내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의 연내 완료에 원주지방환경청이 사실상 합의했다. 2015년 연말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된 이후 6년6개월 만에 가장 강력한 족쇄가 풀린 셈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양양군은 내년 초 내려던 재보완서를 최대한 서둘러 빠르면 올 9월 중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조기 착공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당초 2025년 착공, 2027년 운영을 목표로 해 왔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사업 착공 및 운영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겨 2026년 이전 운영 개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환경영향평가 이후에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백두대간개발행위 사전 협의, 국유림 사용 허가 등 11개 행정절차가 남아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데다 김진태 지사도 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이 사업을 국비 반영 1호 과제로 건의할 방침이고 임기 내 완료 의지를 갖고 있어 신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각종 인허가와 소송 등을 통해 사업의 당위성과 적법성, 공익성이 담보된 사업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권의 성향에 따라 우여곡절을 겪었다. 전국에 케이블카가 속속 설치되고 있지만 오색케이블카에 대해서만큼은 ‘국립공원’이라는 명분으로 과도한 잣대가 적용돼 왔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더 이상 지체돼선 곤란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150만 강원도민의 40년 된 숙원사업이다. 케이블카 설치의 결코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아니라 환경을 훼손할 위험이 가장 적은 친환경 개발 방식으로 선진국에서도 많이 활용된다”며 찬성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케이블카가 건설되면 노약자와 장애인까지 천혜의 경관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모든 국민이 국립공원에 대한 접근 향유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경제 살리기가 공존하는 귀중한 사례가 될 것이다. 설악산을 온전히 보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찾으면서 신음하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적인 케이블카를 설치해 설악산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의 공생 철학을 실현하는 길이다. 설악산의 관광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자연경관과 잘 어우러지는 케이블카는 설악산 환경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한민국 관광의 효자가 될 것이다.

(2) 문제 상황 선정 요령

- 신문 사설의 첫 문장은 ‘문제 상황’을 기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중요 문장을 선정한다.

내년 최저임금 9,620원, 누구를 위한 금액인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5.0%(460원)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을 제외하고 23명 중 찬성은 12명, 기권은 10명, 반대는 1명이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이 무산된 노동계는 5%는 실제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으로 결국 임금 인상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저임금 노동자 삶의 불평등, 더 나아가 노동 개악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당장 2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도 낮은 최저임금 인상을 등을 성토했다는 목소리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지불 능력인데 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며 이의제기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노사 모두 이번 결과에 반발하면서 집권 첫해부터 후폭풍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의 기준 역할도 한다. 따라서 노동자 가구의 표준생계비를 우선 고려한 상태에서 소득분배와 경제 상황을 중심으로 결정돼야 한다. 다만 최소한 물가 상승률과 노동생산성 증가율만큼은 인상돼야 실질소득을 지킬 수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사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저임금안은 저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의 말처럼 노사 불만의 균형을 잘 잡아주고 타협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부는 앞으로 최저임금 정책을 되돌아보고 공동이익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해설] 원문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른 상황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최저임금 정책을 되돌아보고 공동 이익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한 ‘문제 상황’은 첫 번째 단락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 정책에 대해 누가, 얼마나 찬성했는가 또는 언제부터 시행되는가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이 내용을 모두 아우를 수 있고 주장에 어울릴 수 있는 문장을 중요 문장으로 선정한다. 즉,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졌다’를 중요 문장으로 선정한다.

- 경우에 따라서는 사설의 앞부분에 배경이 길게 제시된 후 ‘문제 상황’을 기술하는 문장이 나올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배경이 아닌 문제 상황을 기술한 문장을 중요 문장으로 선정한다.

동해안 해수욕장 개장, 코로나19 차단 철저해야

동해안 해수욕장이 8일 강릉·양양을 시작으로 9일 속초, 13일 동해·삼척, 15일 고성 순으로 차례로 개장한다. 피서객 2,000만명이 몰려올 전망이다. 도내 해수욕장은 2019년 1,898만7,000명의 피서객이 찾았다. 그러나 2021년에는 502만5,000명이 방문하는 데 그쳤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노마스크’ 해수욕장 개장이다. 해수욕장 완전 개장 소식만으로도 움츠렸던 지역경제가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손님맞이를 위한 준비에 분주한 동해안 지역 상인들도 ‘피서철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을 찾는 피서객들을 위한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마련했다. 비치비어축제, 주말 버스킹 상설 공연, 해양스포츠타치, 씬머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방문객 급증에 따른 코로나19 재유행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도내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5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피서철을 맞아 방문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본보 분석 결과 도내에서는 올 6월 한 달간 1,853만5,680건의 이동량이 집계돼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간 6월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도 이동량 증가율이 가장 높다. 또 도내에서의 이동량 증가율은 22.7%인 데 비해 타 지역과 도 사이 이동량 증가율은 32.3%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도내를 찾는 외지 관광객들의 증가 추이가 뚜렷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사회 전반적 분위기 역시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졌다. 노마스크의 해방감을 즐기는 사례가 급증할 경우 집단감염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 안심관광지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 안 된다. 붓물 터지듯 걷잡을 수 없이 감염자가 늘어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간다.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다. 많은 인파가 몰릴 때 효율적인 방역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피서객이 붐비면 밀접접촉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최소한의 방역수칙을 지키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특히 해변은 광범위한 만큼 개인방역이 중요하다. 불별·찜통더위를 피해 즐기 위한 휴가가 또 다른 재앙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다중의 안전을 위해 철저하는 마음가짐이 요구된다. 또한 철저한 코로나 방역과 함께 안전사고 대책도 소홀함이 없어야겠다.

2.1.2. 주장

(1) 주장 제시 유형

- 신문 사설의 마지막 문장은 ‘주장’을 기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중요 문장을 선정한다.

내년 최저임금 9,620원, 누구를 위한 금액인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5.0%(460원)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을 제외하고 23명 중 찬성은 12명, 기권은 10명, 반대는 1명이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이 무산된 노동계는 5%는 실제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으로 결국 임금 인상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저임금 노동자 삶의 불평등, 더 나아가 노동 개악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당장 2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도 낮은 최저임금 인상을 등을 성토했다는 목소리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 역시 제1의 중요한 것은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지불 능력인데 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됐으며 이의제기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노사 모두 이번 결과에 반발하면서 집권 첫해부터 후폭풍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의 기준 역할도 한다. 따라서 노동자 가구의 표준생계비를 우선 고려한 상태에서 소득분배와 경제 상황을 중심으로 결정돼야 한다. 다만 최소한 물가 상승률과 노동생산성 증가율만큼은 인상돼야 실질소득을 지킬 수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사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저임금안은 저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의 말처럼 노사 불만의 균형을 잘 잡아주고 타협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부는 앞으로 최저임금 정책을 되돌아보고 공동이익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드물게 사설의 첫 문장이 '주장'인 경우가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완성 위해 '지원위' 설치돼야

강원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 지난 수십년간 강원도는 군사, 산림, 환경 등 모든 부문에서 각종 규제로 인해 발전은 더디고 점점 살기 어려운 곳이 돼 가고 있다. 주변이 온통 산림으로 뒤덮여 있는 강원도는 그나마 평지도 대부분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 보호임지로 묶여 있어 대규모 개발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는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새 출발을 위한 디딤돌인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지원 없이는 제대로 된 출범이 힘들다는 데 있다.

정부 지원위가 없다면 강원도는 각종 특례조항을 관련 부처와 일일이 협의를 거쳐야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규제 완화 등에 대해 소관부처가 반대할 경우 이를 조정할 장치도 없다. 자칫 허울뿐인 강원특별자치도로 전락할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허영(춘천갑)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노용호(비례) 국회의원이 지원위 설치 규정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역 정치권은 여야와 정파를 초월해 이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법령에 근거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지원위가 공식 기구로 운영 중이지만 강원특별자치도는 아직 정부 지원위 구성을 강제할 근거가 없다. 제주와 세종은 국무총리를 위원장, 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지원위를 꾸려 정부와 특례조항 발굴과 법 개정 등에 대해 지원과 건설성을 받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후속 조치인 법률 개정을 통해 지원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 지원위 설치의 합리적 논리로 정부를 움직여야 할 때다. 강원도는 오랫동안 열악한 여건 속에서 살아왔다. 강원인들은 그 원인을 두고 대체적으로 국가로부터 소외와 배제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해 왔다. 산업화가 시작된 이래 정부의 국가발전정책에 있어 강원도는 여러 자원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개발돼 그 현실이 크게 왜곡돼 버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간의 희생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상을 이끌어내는 것이 강원도에 하나의 중요한 생존전략이었다. 우리의 눈은 항상 중앙정부가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는 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런 전략은 자존심 문제를 제쳐두고서라도 강원인들의 목마름을 결코 해소할 수 없었던 것이 우리의 경험이다. 이제는 치밀한 강원도적 논리로 무장해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또한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강원인들에게 진정한 발상의 전환과 그 실천 의지의 결집이 요구된다. 지금의 열악한 강원도 현실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이라는 인식으로 뛰어넘어야 한다. 그리고 당당하게 경쟁하고 강원도의 역량을 키워 나갈 때 지역이 발전한다.

(2) 주장 선정 요령

- 사설의 제목에 '주장'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제목을 참고하여 '주장'을 담은 문장을 선정한다.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이제부터 속도 내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의 연내 완료에 원주지방환경청이 사실상 합의했다. 2015년 연말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된 이후 6년6개월 만에 가장 강력한 족쇄가 풀린 셈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양양군은 내년 초 내려던 재보완서를 최대한 서둘러 빠르면 올 9월 중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조기 착공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당초 2025년 착공, 2027년 운영을 목표로 해 왔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사업 착공 및 운영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겨 2026년 이전 운영 개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환경영향평가 이후에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백두대간개발행위 사전 협의, 국유림 사용 허가 등 11개 행정절차가 남아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데다 김진태 지사도 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이 사업을 국비 반영 1호 과제로 건의할 방침이고 임기 내 완료 의지를 갖고 있어 신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각종 인허가와 소송 등을 통해 사업의 당위성과 적법성, 공익성이 담보된 사업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권의 성향에 따라 우여곡절을 겪었다. 전국에 케이블카가 속속 설치되고 있지만 오색케이블카에 대해서만큼은 '국립공원'이라는 명분으로 과도한 잣대가 적용돼 왔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더 이상 지체돼선 곤란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150만 강원도민의 40년 된 숙원사업이다. 케이블카 설치의 결코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아니라 환경을 훼손할 위험이 가장 적은 친환경 개발 방식으로 선진국에서도 많이 활용된다"며 찬성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케이블카가 건설되면 노약자와 장애인까지 천혜의 경관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모든 국민이 국립공원에 대한 접근 향유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경제 살리기가 공존하는 귀중한 사례가 될 것이다. 설악산을 온전히 보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찾으려다 신음하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적인 케이블카를 설치해 설악산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의 공생 철학을 실현하는 길이다. 설악산의 관광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자연경관과 잘 어우러지는 케이블카는 설악산 환경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한민국 관광의 효자가 될 것이다.

- 주장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제목을 참고하여 주장을 추론하고 그 주장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내용을 담은 문장을 중요 문장으로 선정한다.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이제부터 속도 내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의 연내 완료에 원주지방환경청이 사실상 합의했다. 2015년 연말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된 이후 6년6개월 만에 가장 강력한 족쇄가 풀린 셈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양양군은 내년 초 내려던 재보완서를 최대한 서둘러 빠르면 올 9월 중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조기 착공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당초 2025년 착공, 2027년 운영을 목표로 해 왔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사업 착공 및 운영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겨 2026년 이전 운영 개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환경영향평가 이후에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백두대간개발행위 사전 협의, 국유림 사용 허가 등 11개 행정절차가 남아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데다 김진태 지사도 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이 사업을 국비 반영 1호 과제로 건의할 방침이고 임기 내 완료 의지를 갖고 있어 신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각종 인허가와 소송 등을 통해 사업의 당위성과 적법성, 공익성이 담보된 사업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권의 성향에 따라 우여곡절을 겪었다. 전국에 케이블카가 속속 설치되고 있지만 오색케이블카에 대해서만큼은 '국립공원'이라는 명분으로 과도한 잣대가 적용돼 왔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더 이상 지체돼선 곤란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150만 강원도민의 40년 된 숙원사업이다. 케이블카 설치의 결코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아니라 환경을 훼손할 위험이 가장 적은 친환경 개발 방식으로 선진국에서도 많이 활용된다"며 찬성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케이블카가 건설되면 노약자와 장애인까지 천혜의 경관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모든 국민이 국립공원에 대한 접근 향유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공존하는 귀중한 사례가 될 것이다. 설악산을 온전히 보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찾으면서 신음하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적인 케이블카를 설치해 설악산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의 공생 철학을 실현하는 길이다. 설악산의 관광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자연경관과 잘 어우러지는 케이블카는 설악산 환경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한민국 관광의 효자가 될 것이다.

[해설] 위 사실에서는 주장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이러한 경우, 제목을 참고하여 중요 문장을 선정하고 주장을 추론할 수 있다. 주장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요약문에서는 주장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와 같이 다시쓰기하여 작성해야 한다.

- 원문에 논자의 주장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데, 제목을 통해서도 주장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원문의 내용을 파악하고 논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인 중심 생각을 파악하여 최대한 주장에 가까운 내용을 담은 문장을 중요 문장으로 선정한다.

서해 국지전 노린 北 도발, 다음은 핵실험인가

북한이 어제 새벽을 틈타 서해에서 의도적이고 중차대한 도발을 했다. 북한 상선 '무포호'가 새벽 3시 42분쯤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3.3km 지점까지 침범하고는 우리 군의 두 차례 경고통신조차 무시하다 경고사격을 받고서야 NLL 밖으로 나갔다. 일련의 정황들은 이 북한 배의 침범이 결코 의도하지 않은 월선이나 조난이 아니라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NLL 침범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태세를 떠보고 국지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기획한 도발인 것이다.

군은 두 차례에 걸쳐 북한 상선에 대해 M60 기관총 총 20발을 NLL 이남 해상으로 경고사격했다. 하지만 북한은 적반하장격으로 남한 군함이 그들이 주장하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상해 사격을 가해 왔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말하는 군사분계선은 그들이 일방적으로 서해 수역에 그어 놓은 것으로 국제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선이다. 북한은 이어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으로 10발의 방사포탄을 쏘았다. 전형적인 북한의 치고 빠지기식 도발인 것이다.

어제의 도발은 지난달 발표한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 이후 계속되고 있는 일련의 중강도 도발의 연장선에 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군용기 군사분계선(MDL) 위협 비행, 서해와 동해 해상완충구역을 겨누는 포사격 등을 이어 왔다. 하루 걸러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대며 유엔 제재를 조롱하고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분야 합의마저 휴지장처럼 구겨 버린 행위다.

북한의 목적은 명확하다. 7차 핵실험과 핵보유국 인정이 목표이며, 그제 중국 당대회가 끝남으로써 김정은이 핵 버튼을 언제 눌러도 이상하지 않은 국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또한 도발 상황을 서해 5도와 인접 수역에서 벌여 2010년 연평도 포격전 시론2를 만들고 북한이 집요하게 시도해 온 NLL 무력화 효과도 얻겠다는 뜻일 터다.

북한의 핵무력 증강은 동북아의 핵 도미노를 부를 뿐이다. 북한의 비핵화가 불투명할수록 한국은 물론 일본과 대만에서까지 핵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비대칭적 핵전력으로 열세를 극복하려는 북한에겐 최악의 시나리오다.** 또한 핵 이외의 어떤 대남 국지적 도발 또한 과거처럼 용납될 수 없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중국의 시진핑 3기 정권이 대북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시기가 왔다.

[해설] 위 사실에서는 주장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제목을 참고하여도 주장이 행동을 촉구하는 일반적인 사실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이럴 경우, 논자가 문제 삼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서 논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비대칭적 핵전력으로 열세를 극복하려는 북한에겐 최악의 시나리오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을 중요 문장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요약문에서 주장은 '북한은 스스로 위기로 몰고 있는 허튼 도발을 멈춰야 할 것이다.'와 같이 다시쓰기하여 작성해야 한다.

- 같은 주장이 여러 번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사설을 통해 궁극적으로 내세우고자 하는 바를 담은 문장을 주장을 나타내는 중요 문장으로 선정한다.

코로나 재유행 조짐, 방역·의료체계 재정비해야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던 강원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 집계 기준 도 내 주간 확진자 수가 증가 추이로 돌아선 것은 16주 만이다. 3년 만에 맞는 노마스크 여름 휴가가 재유행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6월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도내 코로나19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281.1명으로, 6월21일부터 27일까지 252.6명에 비해 약 10%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를 나타내는 '주간 발생률'도 18.3명을 기록, 전국 평균 18.1명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 경고음이 울리고 있지만 올해 초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때와 같은 위기 국면을 전망하는 전문가들 많지 않다. 위중증 환자 수는 물론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재유행 조짐을 보이는 지금이 방역체계의 재정비가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난 2년 반 동안 수많은 변이가 출현하는 등 큰 변화가 있었다. 앞으로 또 어떤 변이가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나 자연 감염으로 생긴 면역력도 떨어졌다. 여기에 휴가철의 시작으로 인구 이동이 많아지고 에어컨을 가동한 밀폐공간에서의 활동, 무더위로 인한 면역력이 저하되는 시기여서 언제든지 확진자가 폭증할 위험을 안고 있다. 우리는 이미 지난해 여름 휴가철 이동량이 늘면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코로나 4차 유행'을 경험했다. 우려되는 상황에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또 한 차례의 코로나 고비를 맞고 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한계에 도달한 상황으로 보고 당분간 다소간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흐름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다. 불안한 현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역과 의료체계의 재정검이 필요하다.** 검사와 진료, 처방의 원스톱 진료기관 확충을 착실히 하고, 백신 정책도 가다듬어야 한다. 철저한 대응으로 이전과 같은 교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전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나 해외 입국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확진자 수, 감염 재생산지수 등 데이터를 근거로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한 방역체계를 정비하고 속도감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개개인도 코로나에 대한 느슨해진 경각심을 높이고 개인 방역 태세를 다시 추슬려야 한다.

[해설] 위 사설을 살펴보면 주장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난 상황'에서 재유행에 대한 논자의 염려가 바탕에 깔려 있다. 따라서 논자가 궁극적으로 내세우고자 하는 바인 첫 번째 문장을 중요 문장으로 선정한다.

- 주요 주장이 둘 이상의 문장에 나뉘어 기술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도 모두 중요 문장으로 선정한다.

무역수지 6개월 내리 적자... 한국 경제 초비상 사태

지난달 한국의 무역수지가 37억7,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4월부터 6개월 연속 적자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받은 최악의 성적표이다.

연속 적자의 가장 큰 이유는 에너지 수입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원유, 가스, 석탄 수입액은 18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81%나 증가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원화 가치 하락이 겹치며 수입액 증가폭을 더욱 키우는 양상이다. 지난달까지 연간 누적 적자는 288억7,600만 달러로 이미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연간 최대적자 기록을 훌쩍 넘겼으며, 연간 무역수지 적자가 480억 달러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물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무역적자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공통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 수출 품목의 부진이 이어져 상황이 더 심각하다. 특히 한국 경제를 지탱해 온 반도체 수출이 2개월 연속 하락했다는 점이 뼈아프다. 반도체 최대 수요처인 IT 제품 판매가 줄어드는 데다, 낸드플래시와 DRAM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며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의 부진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수출 부진과 한국 경제 위기는 맞물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다. 여기에 철강·석유화학 등 15대 주요 수출 품목 중 10개 품목이 전년 동월보다 수출이 줄었다. 지역적으로는 한국 최대 시장인 중국 수출 감소가 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금의 무역수지 적자는 수입 물가 상승과 해외 시장 전반의 수요 부진 때문이라 단기간 내 회복되기 힘들어 보인다. **점점 커지는 경제 위기의 경고음에 대비하려면 에너지 절약 등 사회 전반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이다. 또 정부는 해외자원 개발 활성화 등 공급망 안전 강화에 나서야 한다. 국내 기업의 해외 유보자산을 국내로 들여오도록 유도하고, 통하스와프 추진 등 환율 안정 정책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해설] 위 사설에서 무역 수지가 6개월 이상 적자인 상황에서 사회 전반에서,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주장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두 가지 주장을 나타내는 중요 문장을 각각 찾아야 한다.

- ‘주장’은 ‘따라서, 그러므로’와 같은 접속 부사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중요 문장을 선정한다.

道, 예기치 않은 위기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나

강원도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재난관리평가 결과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 33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지난 한 해 추진한 재난관리 업무 실적에 대해 ‘재난관리평가’를 진행하고, 지난 6일 결과를 발표했다. 강원도는 전라남도 등과 함께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재난관리에서 하위권으로 추락한 결과는 어떤 이유로도 자위(自慰)되거나 이해될 수 없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지에 대한 진지한 자성과 함께 세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최근의 재난사례를 볼 때 각종 규제,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음에도 재난의 규모는 줄지 않고 있다. 각종 시스템과 관련된 안전방재기술이 증가함에도 절대적 피해 규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10년(2005~2014년)간 강원도 재난 재해 피해액은 1조9,255억원으로 이는 전국 평균의 4.5배, 전국 대비 28% 수준이다. 많은 재원이 투입됐지만 근본적인 대형재난 방지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위험 항상성이 지속되는 현대사회가 위험 사회로 정의되는 이유다. 보다 안전한 강원도를 위해 재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그나마 기초자치단체별 평가에서 춘천 강릉 동해 홍천 인제가 ‘우수’, 원주 태백 속초 삼척 횡성 영월 평창 철원 양구 고성 양양이 ‘보통’으로 분류됐다. 정선 화천은 ‘미흡’ 등급이었다. 미흡 등급을 받은 강원도와 정선, 화천군은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취약 분야 안전관리 등 예방 및 대비 분야에서 추진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사회의 재난안전 대책은 시스템의 한계를 직시해야 한다. 적용된 기술의 에러가 아니라도 설계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시스템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오히려 복잡성과 연계성 때문에 견잡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 최근 재난환경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위험성이 상존하고, 시설 노후화, 인구 고령화 등 위험 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화·도시화·기술화 등에 의한 신종재난 증가 및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 증대 등 최근 재난안전 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강원도 재난안전 정책은 안전혁신 패러다임의 변화와 중앙정부 정책 등과 연계해 강원도 특성이 반영된 선제·전략적 재난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원도 맞춤형 재난안전관리, 안전이 생활화된 도민 안전의식 수준 향상, 안전을 우선시하는 지역 안전문화 정착이 중요하다. 또한 강원도 재난안전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민관 합동 통합 컨트롤타워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여기에서 재난안전 전문인력육성, 재난안전 투자, 재난안전 담당자들에 대한 사기 진작 및 인센티브 확대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 ‘주장’은 ‘~어야 한다, ~어야 할 것이다, ~어야 하겠다, ~이 필요하다, ~ㄴ 필요가 있다, ~이 마땅하다, ~는 ~기를 바란다/기대한다’와 같은 표현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중요 문장으로 선정한다.

‘충남 고향사랑 준비단’이 추진할 것

‘충남 고향사랑 준비단’이 출범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기반 구축과 체계적인 사전 준비 등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기구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의 고향이나 희망하는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이 제공되는 제도다. 인구 감소 등으로 경제 여건이 날로 침체되고 있는 지자체로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준비단은 충남도 소속 19개 관련 부서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며, 기획·홍보, 재정, 답례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고 한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출향인과의 교류체계를 강화하는 등 차별화된 맞춤형 홍보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다. 도내 각 시·군의 특산물과 백제문화투어, K-순례길 등 관광지를 결합해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답례품 개발에 나서겠다는 것이 충남도의 구상이다.

이른바 ‘고향세’로도 불리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인지도는 낮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제를 알고 있는 도시민은 6.3%에 그쳤다. 다만 제도 시행 때 기부금을 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55.5%가 참여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낮지만 참여 가능성은 높게 나온 것이다.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상품’이 준비된다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가능성을 보인 대목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도시에 비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재정 여건에 숨통을 트이게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 있다. 기부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 개발 등 지자체와 농업계가 뭉쳐 최적의 운영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단순히 출향인의 애향심에 기대는 환경에서는 일회성 기부에 그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답례품 제공이나 관광지 투어 등에 더해 ‘뿌리 찾기’ 운동을 통해 출향인의 애향심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한다.

2.1.3. 논거 또는 실천 방안

(1) 논거 또는 실천 방안 제시 유형

사설에서는 문제 상황을 기술하고 주장을 제시하는데,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함께 제시한다. 논거는 두 가지 이상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 상황을 기술한 후 ‘논거’를 나열하고 마지막에 주장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내년 최저임금 9,620원, 누구를 위한 금액인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5.0%(460원)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을 제외하고 23명 중 찬성은 12명, 기권은 10명, 반대는 1명이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이 무산된 노동계는 5%는 실제 물가 인상을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으로 결국 임금 인상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저임금 노동자 삶의 불평등, 더 나아가 노동 계약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당장 2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도 낮은 최저임금 인상을 등을 성토했다는 목소리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지불 능력인데 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됐으며 이의제기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노사 모두 이번 결과에 반발하면서 집권 첫해부터 후폭풍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의 기준 역할도 한다. 따라서 노동자 가구의 표준생계비를 우선 고려한 상태에서 소득분배와 경제 상황을 중심으로 결정돼야 한다. 다만 최소한 물가 상승률과 노동생산성 증가율만큼은 인상돼야 실질소득을 지킬 수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사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저임금안은 저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의 말처럼 노사 불만의 균형을 잘 잡아주고 타협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부는 앞으로 최저임금 정책을 되돌아보고 공동이익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상황을 기술한 후 주장을 먼저 제시하고 그 뒤에 ‘논거’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코로나 재유행 조짐, 방역·의료체계 재정비해야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던 강원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 집계 기준 도내 주간 확진자 수가 증가 추이로 돌아선 것은 16주 만이다. 3년 만에 맞는 노마스크 여름 휴가가 재유행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6월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도내 코로나19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281.1명으로, 6월21일부터 27일까지 252.6명에 비해 약 10%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를 나타내는 ‘주간 발생률’도 18.3명을 기록, 전국 평균 18.1명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 경고음이 울리고 있지만 올해 초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때와 같은 위기 국면을 전망하는 전문가들 많지 않다. 위중증 환자 수는 물론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재유행 조짐을 보이는 지금이 방역체계의 재정비가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난 2년 반 동안 수많은 변이가 출현하는 등 큰 변화가 있었다. 앞으로 또 어떤 변이가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나 자연 감염으로 생긴 면역력도 떨어졌다. 여기에 휴가철의 시작으로 인구 이동이 많아지고 에어컨을 가동한 밀폐공간에서의 활동, 무더위로 인한 면역력이 저하되는 시기여서 언제든 확진자가 폭증할 위험을 안고 있다. 우리는 이미 지난해 여름 휴가철 이동량이 늘면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코로나 4차 유행’을 경험했다. 우려되는 상황에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또 한 차례의 코로나 고비를 맞고 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한계에 도달한 상황으로 보고 당분간 다소간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흐름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다. 불안한 현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역과 의료체계의 재정검이 필요하다. 검사와 진료, 처방의 원스톱 진료기관 확충을 착실히 하고, 백신 정책도 가다듬어야 한다. 철저한 대응으로 이전과 같은 고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전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나 해외 입국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확진자 수, 감염 재생산지수 등 데이터를 근거로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한 방역체계를 정비하고 속도감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개개인과 코로나에 대한 느슨해진 경각심을 높이고 개인 방역 태세를 다시 추슬려야 한다.

- 경우에 따라서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제시하는 대신,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기술하는 경우가 있다.

고향세, 답례품 경쟁 아니라 사업으로 승부 걸어야

‘고향사랑기부세’(이하 **고향세**)가 내년 1월 도입된다. 강원도는 행정안전부의 시행령이 공포되는 대로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와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고향세** 시행에 따른 강원도의 세수 확대 효과 전망치는 연 최대 2,000억원대에서 최소 400억원대로 천차만별이다. 이제는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와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심의 위원회는 지역과 세대, 계층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꾸려져야 한다.

고향세가 시행되면 **고향세를 유치해 지역활성화를 달성하고자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고향세를 매개로 많은 사람을 지역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인연 만들기**가 중요하다. **즉, 단순 상품성 답례품 제공이 아니라 ‘체험형 프로그램’을 발굴해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테마파크 및 관광지 입장권, 래프팅 및 농업 체험, 지역의 케이블카, 곤돌라, 레일바이크 등의 시설 이용권 등 기부자가 기부 자치단체를 방문해 직접 참가, 체험하면서 즐길 수 있는 형태의 답례품을 제공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세를 도입해 알아서 시행하도록 하는 것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 고향세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고향세** 기부자가 자치 단체를 방문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숙박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티켓(숙박쿠폰) 발부도 검토해야 한다. 특히 고성, 속초, 강릉 옥계와 동해 망상 등 동해안 산불이 발생한 재난지역과 **고향세를 연계한 숙박시설 쿠폰 발행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가 그 지역에 기부하고 싶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에 합당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 기부자를 대상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지, 사업은 어떻게 펼쳐 나가며, 기부한 돈은 무슨 사업에 어떻게 집행할지 등 이러한 사항들을 시행 전에 충분히 고민해야 **고향세가 정착될 수 있다.** **고향세는 답례품의 경쟁이 아니라 정책과 사업으로 경쟁해야 한다.** 여기에도 **고향세는 주민의 참여 속에 진행돼야 한다.** 아무리 명분 있는 사업이라도 주민이 반기지 않고 참여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즉, 고향세 도입 시 기부자들에게 제공될 양질의 특산물 개발은 주민 참여가 필수다.** 이는 지역 농수축산물의 판로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값싸고 질 좋은 지역상품의 특화와 발굴은 지역경제 회생에도 이바지하게 된다. 감사 표시로 제공한 양질의 지역특산물은 향후 택배 및 인터넷 주문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촉매로 작용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세 도입을 앞두고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면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힘들게 도입한 **고향세 제도의 신뢰가 자칫 손상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드물게, 논거와 실천 방안이 함께 제시된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논거를 우선하여 중요 문장으로 선정한다.

수축 경영 속 고용 불안...노사정 원팀이 돌파구다

한국 경제에 전례 없는 이상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0%대에 그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수출 엔진마저 급속히 식고 있다. 수출은 최근 두 달 연속 후진했다. 10월 수출액이 1년 전보다 5.7% 줄어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 이어 11월에는 14.0%나 급감했다. 수출 위기의 여파로 제조업 전반의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10월 전 분야 산업생산지수(115.4)는 전월 대비 1.5% 줄어 3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경기 하강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기업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축 경영'에 돌입했다. SK 하이닉스는 내년 투자액을 올해 대비 절반 이상 줄이기로 했고 현대자동차는 올해 투자 규모를 당초 계획한 9조 2000억 원에서 8조 900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국내 최대 해운사 HMM은 오래 근무한 육상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기업들이 움츠리면서 고용 시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취업자가 올해보다 8만 명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한 2020년 이후 3년 만에 최소 규모다. 최근 일자리 포털 벼룩시장이 직장인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77.3%가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고용 불안을 호소했다.

경제 호황기를 넘기고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부와 노사, 여야 정치권이 '원팀 정신'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부는 '신발 속 돌멩이' '모래주머니'에 비유되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 개혁에 속도를 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들은 이번 위기를 초격차 기술로 무장하는 기회로 삼고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 노조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민생을 볼 모로 잡는 '떼법' 행태를 접고 고통 분담에 동참해야 한다. 그래야 기존 일자리를 지키고 새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거대 야당도 뭉치를 멈추고 법인세인하법과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한국 경제에 전례 없는 이상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0%대에 그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수출 엔진마저 급속히 식고 있다. 수출은 최근 두 달 연속 후진했다. 10월 수출액이 1년 전보다 5.7% 줄어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 이어 11월에는 14.0%나 급감했다. 수출 위기의 여파로 제조업 전반의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10월 전 분야 산업생산지수(115.4)는 전월 대비 1.5% 줄어 3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경기 하강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기업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축 경영'에 돌입했다. SK 하이닉스는 내년 투자액을 올해 대비 절반 이상 줄이기로 했고 현대자동차는 올해 투자 규모를 당초 계획한 9조 2000억 원에서 8조 900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국내 최대 해운사 HMM은 오래 근무한 육상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기업들이 움츠리면서 고용 시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취업자가 올해보다 8만 명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한 2020년 이후 3년 만에 최소 규모다. 최근 일자리 포털 벼룩시장이 직장인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77.3%가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고용 불안을 호소했다.

경제 호황기를 넘기고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부와 노사, 여야 정치권이 '원팀 정신'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부는 '신발 속 돌멩이' '모래주머니'에 비유되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 개혁에 속도를 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들은 이번 위기를 초격차 기술로 무장하는 기회로 삼고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 노조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민생을 볼 모로 잡는 '떼법' 행태를 접고 고통 분담에 동참해야 한다. 그래야 기존 일자리를 지키고 새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거대 야당도 뭉치를 멈추고 법인세인하법과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해설] 두 예문은 각기 다르게 중요 문장을 선정한 것이다. 첫 번째 예문은 문제 상황과 '논거', 주장을 중요 문장으로 선정하였고, 두 번째 예문은 문제 상황과 주장, '실천 방안'을 중요 문장으로 선정하였다. 이럴 경우, 첫 번째 예문과 같이 '논거'를 중요 문장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2) 논거 또는 실천 방안 선정 요령

-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가 여러 가지 나올 경우 이를 모두 중요 문장으로 선정한다.

벼랑 끝 '한전 적자' 회사채 확대로 막을 일 아나

한국전력의 올해 적자가 3분기까지 21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을 올렸지만, 에너지 가격 강세로 올해 누적 적자는 30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이를 방치하고 있다.

한전은 적자를 회사채 발행으로 메꿔왔다. 올해 발행 규모가 최근까지 25조4,500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발행액의 2.5배에 달한다. 한전채는 신용등급이 최우량이라 국내 회사채 자금을 빨아들이며, 다른 기업들 자금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 발행 한도가 꼭 차기 직전이다. 한전채 발행은 한전 자본금과 적립금의 최대 2배로 법에 정해져 있다. 한전이 발전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날짜는 3~10일 단위로 돌아오는데, 정해진 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다음 날부터 전력 거래가 정지된다. 최악의 전력 부족 사태가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다급해진 정부와 여당은 한전채 발행 한도를 최대 10배까지 늘리는 법 개정엔 나서려 한다. 야당도 8배 확대 법안을 내놓았다. 이를 두고 금융계는 불안한 채권시장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미 국내 공사채 발행액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 한전채 발행을 늘릴 여지도 적다. 만에 하나 무리하게 발행해 대량 유찰 사태가 빚어진다면 국가신용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려는 정부 의도는 이해가 된다. 하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단기간 내 하락할 것이란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발행 한도 확대는 소탐대실일 될 수 있다. 남은 대안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인데, 2008년 정부가 추경으로 한전 적자 일부를 메워준 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 적자는 재정으로 메울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

결국 요금 인상밖에 남은 카드가 없다. 물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바꿔야 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확대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할 것이다.

- 논거 대신 실천 방안이 나오는 경우 각 주체별 또는 대상별로 실천해야 할 방안을 기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주체별 또는 대상별로 실천 방안을 기술한 문장을 선정한다.

죽도시장, 소중한 관광자원 인식 갖고 가꿔야

포항 죽도시장 쓰레기 약취 등 환경·위생 문제가 개선된다는 소식이다. 지역민들의 자랑인 죽도시장의 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 포항시와 수협 등에 따르면 죽도시장 곳곳에 쌓여 있던 스티로폼 쓰레기와 각종 적치물을 수거, 정리하고, 보다 근원적인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시와 수협, 상인회가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용객의 불편과 화재 위험이 있었던 어판장 내부 엘리베이터 출입문 좌우에 쌓여 있던 스티로폼들은 이미 전부 치워졌다고 한다. 또 외부에 쌓아 놓아 악취를 유발하던 스티로폼도 절반 이상이 치워졌거나 깨끗이 세척해 수거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같은 조치만으로도 죽도시장을 찾는 고객들은 물론 죽도시장 상인들이 모두 반기고 있다는 소식이다.

시와 수협, 상인회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서로 협의해 정기적인 관리는 물론 상인을 상대로 한 시장 청결 교육, 서비스 개선 교육 등을 펼쳐 죽도시장이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최대의 어시장 명성을 이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

포항 죽도시장에서 발생하는 스티로폼 쓰레기량은 주당 50kg 정도라고 한다. 어획물 유통량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양도 아니다. 1년 발생하는 양도 2.4t에 불과하다. 포항시의 연간 전체 스티로폼 쓰레기 발생량이 29t 정도라는데 상인과 수협 등이 마음만 먹으면 죽도시장 스티로폼 수거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이다.

우선 상인들 스스로가 자신의 가게에서 발생한 스티로폼이나 쓰레기를 확실하게 처리해야 한다. 시와 수협, 상인회가 명확한 관리 주체와 관리 범위를 정하겠지만 상인 스스로가 쓰레기 발생 즉시 처리하는 청결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죽도시장은 포항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이 꼭 찾는 필수 관광 코스다. 죽도시장 어판장은 단순히 시장이나 수협뿐 아니라 포항시의 이미지와 직결된다. 죽도시장은 포항시와 경북의 중요한 관광자원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비위생과 불친절한 시장은 관광객들이 외면할 것이다. 시설 개선과 청결 유지, 상인들의 서비스 정신 향상을 위해 포항시와 수협, 상인단체가 노력해야 한다. 죽도시장은 포항은 물론 경북의 소중한 관광 자원이다.

2.2. 추상 요약문 작성

- 원문에서 요점을 담은 중요 문장을 추출하여 요약하는 것을 추출 요약이라 하고, 원문의 요점을 바탕으로 요약문을 새로 쓰는 것을 추상 요약이라 한다.
- 이 사업에서는 추상 요약문을 작성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추출 요약을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고유 명사, 주요 어휘, 논자의 논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다시쓰기를 해야 한다.
- 추상 요약문은 중요 문장을 기반으로 작성하되, 원문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표현을 달리하여 작성한다. 단, 중요 문장 안에 부가적인 정보가 들어가 있으면 이를 삭제하고, 중요 문장으로 선정하지 않은 문장에 핵심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추상 요약문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원문
<p style="text-align: center;">코로나 재유행 조짐, 방역·의료체계 재정비해야</p> <p>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던 강원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 집계 기준 도 내 주간 확진자 수가 증가 추이로 돌아선 것은 16주 만이다. 3년 만에 맞는 노마스크 여름 휴가가 재유행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6월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도내 코로나19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281.1명으로, 6월21일부터 27일까지 252.6명에 비해 약 10%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를 나타내는 '주간 발생률'도 18.3명을 기록, 전국 평균 18.1명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 경고음이 울리고 있지만 올해 초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때와 같은 위기 국면을 전망하는 전문가들 많지 않다. 위중증 환자 수는 물론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p> <p>그러나 재유행 조짐을 보이는 지금이 방역체계의 재정비가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난 2년 반 동안 수많은 변이가 출현하는 등 큰 변화가 있었다. 앞으로 또 어떤 변이가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나 자연 감염으로 생긴 면역력도 떨어졌다. 여기에 휴가철의 시작으로 인구 이동이 많아지고 에어컨을 가동한 밀폐공간에서의 활동, 무더위로 인한 면역력이 저하되는 시기여서 언제든 확진자가 폭증할 위험을 안고 있다. 우리는 이미 지난해 여름 휴가철 이동량이 늘면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코로나 4차 유행'을 경험했다. 우려되는 상황에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p> <p>또 한 차례의 코로나 고비를 맞고 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한계에 도달한 상황으로 보고 당분간 다소간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흐름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다. 불안한 현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역과 의료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검사와 진료, 처방의 원스톱 진료기관 확충을 착실히 하고, 백신 정책도 가다듬어야 한다. 철저한 대응으로 이전과 같은 고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전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나 해외 입국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확진자 수, 감염 재생산지수 등 데이터를 근거로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한 방역체계를 정비하고 속도감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개개인과 코로나에 대한 느슨해진 경각심을 높이고 개인 방역 태세를 다시 추슬러야 한다.</p>
요약문
<p>강원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난 2년 반 동안 수많은 변이가 출현한바, 앞으로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나 자연 감염으로 생긴 면역력이 저하되는 마당에 인구 이동이 많아지고 에어컨 가동이 본격화되는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어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 재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방역과 의료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p>

<주의사항>

- 추출 요약문이 아닌 추상 요약문을 작성하는 것이므로 요약 대상인 문장을 그대로 쓰는 것을 가 능하면 피한다.
- 원문에 없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원문의 내용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2.2.1. 내용

- 문제 상황, 주장, 논거 또는 실천 방안의 세 가지 구성 요소가 고루 들어가도록 한다.

2.2.1.1. 문제 상황

- 사설에서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을 기술한다.
- 상황이 길게 기술되어 있더라도 주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 상황만을 추려서 기술한다.
- 문제 상황을 명료하게 한 문장으로 기술한다.
- 부가적인 정보는 삭제한다.

원문
<p>코로나 재유행 조짐, 방역·의료체계 재정비해야</p> <p>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던 강원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 집계 기준 도 내 주간 확진자 수가 증가 추이로 돌아선 것은 16주 만이다. 3년 만에 맞는 노마스크 여름 휴가가 재유행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6월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도내 코로나19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281.1명으로, 6월21일부터 27일까지 252.6명에 비해 약 10%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를 나타내는 '주간 발생률'도 18.3명을 기록, 전국 평균 18.1명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 경고음이 울리고 있지만 올해 초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때와 같은 위기 국면을 전망하는 전문가가 많지 않다. 위중증 환자 수는 물론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p> <p>그러나 재유행 조짐을 보이는 지금이 방역체계의 재정비가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난 2년 반 동안 수많은 변이가 출현하는 등 큰 변화가 있었다. 앞으로 또 어떤 변이가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나 자연 감염으로 생긴 면역력도 떨어졌다. 여기에 휴가철의 시작으로 인구 이동이 많아지고 에어컨을 가동한 밀폐공간에서의 활동, 무더위로 인한 면역력이 저하되는 시기여서 언제든 확진자가 폭증할 위험을 안고 있다. 우리는 이미 지난해 여름 휴가철 이동량이 늘면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코로나 4차 유행'을 경험했다. 우려되는 상황에도 정부와 지자체에 서는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p> <p>또 한 차례의 코로나 고비를 맞고 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한계에 도달한 상황으로 보고 당분간 다소간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흐름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다. 불안한 현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역과 의료체계의 재점검이 필요하다. 검사와 진료, 처방의 원스톱 진료기관 확충을 착실히 하고, 백신 정책도 가다듬어야 한다. 철저한 대응으로 이전과 같은 고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전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나 해외 입국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확진자 수, 감염 재생산지수 등 데이터를 근거로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한 방역체계를 정비하고 속도감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개개인과 코로나에 대한 느슨해진 경각심을 높이고 개인 방역 태세를 다시 추슬러야 한다.</p>
요약문
<p>강원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난 2년 반 동안 수많은 변이가 출현한바, 앞으로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나 자연 감염으로 생긴 면역력이 저하되는 마당에 인구 이동이 많아지고 에어컨 가동이 본격화되는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어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 재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방역과 의료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p>
<p>[해설] 원문에서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늘고 있다'라는 내용이다. 따라서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감소세를 지속해 왔다'라는 내용과 같은 부가적인 정보는 삭제하고 주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황만을 추려서 기술한다.</p>

2.2.1.2. 주장

- 논자의 주장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한다.
- 주장이 사실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는 것인지 확인한다.
- 주요 주장과 그에 따른 세부 주장이 있을 때, 주요 주장을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 논자의 논조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즉, 강경한 어조인데 온건한 어조로 바꾼다든지, 온건한 어조인데 강경한 어조로 바꾸지 않도록 한다.
- '~어야 한다, ~어야 할 것이다, ~어야 하겠다, ~이 필요하다, ~ㄴ 필요가 있다, ~이 마땅하다, ~는 ~기를 바란다/기대한다'와 같은 표현을 활용하여 주장을 기술한다.

원문
<p>코로나 재유행 조짐, 방역·의료체계 재정비해야</p> <p>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던 강원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 집계 기준 도 내 주간 확진자 수가 증가 추이로 돌아선 것은 16주 만이다. 3년 만에 맞는 노마스크 여름 휴가가 재유행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6월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도내 코로나19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281.1명으로, 6월21일부터 27일까지 252.6명에 비해 약 10%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를 나타내는 '주간 발생률'도 18.3명을 기록, 전국 평균 18.1명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 경고음이 울리고 있지만 올해 초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때와 같은 위기 국면을 전망하는 전문가들 많지 않다. 위중증 환자 수는 물론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p> <p>그러나 재유행 조짐을 보이는 지금이 방역체계의 재정비가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난 2년 반 동안 수많은 변이가 출현하는 등 큰 변화가 있었다. 앞으로 또 어떤 변이가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나 자연 감염으로 생긴 면역력이 떨어졌다. 여기에 휴가철의 시작으로 인구 이동이 많아지고 에어컨을 가동한 밀폐공간에서의 활동, 무더위로 인한 면역력이 저하되는 시기여서 언제든 확진자가 폭증할 위험을 안고 있다. 우리는 이미 지난해 여름 휴가철 이동량이 늘면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코로나 4차 유행'을 경험했다. 우려되는 상황에도 정부와 지자체에 서는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p> <p>또 한 차례의 코로나 고비를 맞고 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한계에 도달한 상황으로 보고 당분간 다소간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흐름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다. 불안한 현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역과 의료체계의 재정검이 필요하다. 검사와 진료, 처방의 원스톱 진료기관 확충을 착실히 하고, 백신 정책도 가다듬어야 한다. 철저한 대응으로 이전과 같은 고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전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나 해외 입국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확진자 수, 감염 재생산지수 등 데이터를 근거로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한 방역체계를 정비하고 속도감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개개인도 코로나에 대한 느슨해진 경각심을 높이고 개인 방역 태세를 다시 추슬러야 한다.</p>
요약문
<p>강원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난 2년 반 동안 수많은 변이가 출현한바, 앞으로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나 자연 감염으로 생긴 면역력이 저하되는 마당에 인구 이동이 많아지고 에어컨 가동이 본격화되는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어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 재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방역과 의료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p>
<p>[해설] 논자의 주장이 명료하게 드러나야 하며, 논자의 논조 강도가 원문과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기술한다.</p>

- 주장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실이 있다. 이럴 경우, 논자의 중심 생각을 파악하여 주장을 추론하여 작성한다.

원문
<p>서해 국지전 노린 北 도발, 다음은 핵실험인가</p> <p>북한이 어제 새벽을 틈타 서해에서 의도적이고 중차대한 도발을 했다. 북한 상선 ‘무포호’가 새벽 3시 42분쯤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3.3km 지점까지 침범하고는 우리 군의 두 차례 경고통신조차 무시하다 경고사격을 받고서야 NLL 밖으로 나갔다. 일련의 정황들은 이 북한 배의 침범이 결코 의도하지 않은 월선이나 조난이 아니라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NLL 침범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태세를 떠보고 국지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기획한 도발인 것이다.</p> <p>군은 두 차례에 걸쳐 북한 상선에 대해 M60 기관총 총 20발을 NLL 이남 해상으로 경고사격했다. 하지만 북한은 적반하장격으로 남한 군함이 그들이 주장하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상해 사격을 가해 왔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말하는 군사분계선은 그들이 일방적으로 서해 수역에 그어 놓은 것으로 국제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선이다. 북한은 이어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으로 10발의 방사포탄을 쏘았다. 전형적인 북한의 치고 빠지기식 도발인 것이다.</p> <p>어제의 도발은 지난달 발표한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 이후 계속되고 있는 일련의 중강도 도발의 연장선에 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군용기 군사분계선(MDL) 위협 비행, 서해와 동해 해상완충구역을 거는 포사격 등을 이어 왔다. 하루 걸러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대며 유엔 제재를 조롱하고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분야 합의마저 휴지장처럼 구겨 버린 행위다.</p> <p>북한의 목적은 명확하다. 7차 핵실험과 핵보유국 인정이 목표이며, 그제 중국 당대회가 끝남으로써 김정은이 핵 버튼을 언제 눌러도 이상하지 않은 국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또한 도발 상황을 서해 5도와 인접 수역에서 벌여 2010년 연평도 포격전 시준2를 만들고 북한이 집요하게 시도해 온 NLL 무력화 효과도 얻겠다는 뜻일 터다.</p> <p>북한의 핵무력 증강은 동북아의 핵 도미노를 부를 뿐이다. 북한의 비핵화가 불투명할수록 한국은 물론 일본과 대만에서까지 핵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비대칭적 핵전력으로 열세를 극복하려는 북한에겐 최악의 시나리오다. 또한 핵 이외의 어떤 대남 국지적 도발 또한 과거처럼 용납될 수 없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중국의 시진핑 3기 정권이 대북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시기가 왔다.</p>
요약문
<p>2022년 10월 24일 새벽, 북한이 서해에서 의도적인 도발을 했다. 북한은 이에 남한 군함이 북상을 하여 사격을 했다고 도발을 남한의 잘못으로 돌렸지만 북한의 도발은 유엔의 제재와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 분야 협의를 무시한 행동이다. 또한 이러한 북한의 행동은 한국은 물론 동북아시아에 핵 무력 증강을 부추길 뿐이다. 따라서 북한은 스스로 위기로 몰고 있는 허튼 도발을 멈춰야 할 것이다.</p>
<p>[해설] 논자의 중심 생각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주장을 추론하여 작성하도록 한다.</p>

2.2.1.3. 논거 또는 실천 방안

-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작성한다.
-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주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만 추린다.
- 논자가 사설에서 제시한 주요 논거는 빠짐없이 요약문에 담도록 한다.

원문
<p style="text-align: center;">내년 최저임금 9,620원, 누구를 위한 금액인가</p> <p>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5.0%(460원)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을 제외하고 23명 중 찬성은 12명, 기권은 10명, 반대는 1명이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p> <p>하지만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이 무산된 노동계는 5%는 실제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으로 결국 임금 인상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저임금 노동자 삶의 불평등, 더 나아가 노동 개악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당장 2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도 낮은 최저임금 인상을 등을 성토했다는 목소리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지불 능력인데 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됐으며 이의제기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노사 모두 이번 결과에 반발하면서 집권 첫해부터 후폭풍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p> <p>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의 기준 역할도 한다. 따라서 노동자 가구의 표준생계비를 우선 고려한 상태에서 소득분배와 경제 상황을 중심으로 결정돼야 한다. 다만 최소한 물가 상승률과 노동생산성 증가율만큼은 인상돼야 실질소득을 지킬 수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사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저임금안은 저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의 말처럼 노사 불만의 균형을 잘 잡아주고 타협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부는 앞으로 최저임금 정책을 되돌아보고 공동이익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p>
요약문
<p>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23년 최저임금을 2022년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했다. 노동계에서는 실제 물가 인상률에 비해 낮아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문제를 삼았다. 따라서 정부는 최저임금 정책을 점검하여 공동이익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p>
<p>[해설] 원문에서 주장에 대한 '논거'는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이의를 제기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주장에 대한 주요 논거는 모두 선정하여 요약문에 담아야 한다.</p> <p>* 원문에서 문제 상황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결정'이다. 중요 문장으로 선정하지 않았지만 결정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를 원문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경우 주체인 '최저임금위원회'를 요약문에 담아 작성한다.</p>

- 드물게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제시하는 대신,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나열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사실에 제시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기술한다.

원문
<p style="text-align: center;">고향세, 답례품 경쟁 아니라 사업으로 승부 걸어야</p> <p>‘고향사랑기부세’(이하 고향세)가 내년 1월 도입된다. 강원도는 행정안전부의 시행령이 공포되는 대로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와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고향세 시행에 따른 강원도의 세수 확대 효과 전망치는 연 최대 2,000억원대에서 최소 400억원대로 천차만별이다. 이제는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와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심의 위원회는 지역과 세대, 계층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꾸려져야 한다.</p> <p>고향세가 시행되면 고향세를 유지해 지역활성화를 달성하고자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고향세를 매개로 많은 사람을 지역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인연 만들기가 중요하다. 즉, 단순 상품성 답례품 제공이 아니라 ‘체험형 프로그램’을 발굴해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테마파크 및 관광지 입장권, 래프팅 및 농업 체험, 지역의 케이블카, 곤돌라, 레일바이크 등의 시설 이용권 등 기부자가 기부 자치단체를 방문해 직접 참가, 체험하면서 즐길 수 있는 형태의 답례품을 제공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세를 도입해 알아서 시행하도록 하는 것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 고향세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고향세 기부자가 자치단체를 방문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숙박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티켓(숙박쿠폰) 발부도 검토해야 한다. 특히 고성, 속초, 강릉 옥계와 동해 망상 등 동해안 산불이 발생한 재난지역과 고향세를 연계한 숙박시설 쿠폰 발행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p> <p>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가 그 지역에 기부하고 싶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에 합당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 기부자를 대상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지, 사업은 어떻게 펼쳐 나가며, 기부한 돈은 무슨 사업에 어떻게 집행할지 등 이러한 사항들을 시행 전에 충분히 고민해야 고향세가 정착될 수 있다. 고향세는 답례품의 경쟁이 아니라 정책과 사업으로 경쟁해야 한다. 여기에는 주민의 참여 속에 진행돼야 한다. 아무리 명분 있는 사업이라도 주민이 반기지 않고 참여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즉, 고향세 도입 시 기부자들에게 제공될 양질의 특산물 개발은 주민 참여가 필수다. 이는 지역 농수축산물의 판로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값싸고 질 좋은 지역상품의 특화와 발굴은 지역경제 회생에도 이바지하게 된다. 감사 표시로 제공한 양질의 지역특산물은 향후 택배 및 인터넷 주문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촉매로 작용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세 도입을 앞두고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면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힘들게 도입한 고향세 제도의 신뢰가 자칫 손상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p>
요약문
<p>고향사랑기부세(이하 고향세)가 2023년 1월부터 도입된다. 이에 고향세는 답례품 경쟁이 아닌 정책과 사업으로 경쟁해야 할 것이다. 우선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계를 통해 적극적인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부자가 해당 지역에 기부하고 싶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개발해야 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p>
<p>[해설] 원문에서 논자가 제시한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내용을 빠짐없이 요약문에 담아야 한다.</p>

2.2.2. 조직

- 문장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작성한다.
- 요약문을 이루는 문장들이 시간적, 논리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작성한다.
- 사실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배열한다.
- 신문 사실 원문이 정연한 구조로 전개되지 않았더라도 요약문은 잘 조직된 한 편의 완결된 글로 작성해야 한다.

원문
<p style="text-align: center;">교육 제 1목표, 학력 증진에 있는 것은 당연하다</p> <p>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지난 1일 도교육청에서 취임 간담회를 열고 “학력 신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교사가 학생 개개인을 잘 알지 못하는 ‘학력 감감미’ 상황에서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신 교육감의 교육 정책 방향은 옳다. 무엇보다도 교육의 제1목표는 학력 신장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함께 교육에는 좌도, 우도 없다. 진보도, 보수도 없다. 오직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에 온 정열을 쏟아야 한다고도 했다.</p> <p>학력 신장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평가를 제대로 해야 한다. 문제는 우리가 시험에 대해 평소 갖고 있던 알레르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대학입시가 수험생의 일생을 좌우하는 시험으로 인식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학생들이 치르는 모든 시험이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초학력 평가를 바탕으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보안을 통해 평균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하며, 기초학력이 우월한 학생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기초학력 평가를 놓고 일부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가 초등학교까지 점수 경쟁에 몰아넣는 입시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반대를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간 우리의 교육정책이나 제도는 수없이 바뀌어 왔다. 그러나 어떤 교육정책이나 제도도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학벌주의 가치관의 벽을 넘지 못했다. 기초학력 진단 평가에 대한 일부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의 반응은 이 같은 교육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들이 주장하는 인성 교육과 창의성 교육은 대단히 중요하다. 교육의 한 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학생들 개개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학력 향상을 위한 처방이 가능하다.</p> <p>여기에도 교사들에게도 긍지와 자부심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교사들은 교육현장에 있어서 2세 교육을 담당하는 소중한 자산이다. 신 교육감은 이들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돼 학력 신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타성에 젖은 인사를 지양해 교육현장에 새바람을 불어넣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p> <p>장기적인 안목에서 인사를 통해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 교육계는 자칫 유능한 인사는 좌절에 빠지기 쉽고, 무능한 사람은 안주할 수 있는 함정이 있다. 후세 교육을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교사와 하루하루 건성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교사가 갈을 수 없다. 그 기준도 정밀하게 세워 나갈 때 학력이 신장될 수 있다. 신 교육감은 학부모와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교육정책의 방향과 틀을 바꾸고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용해야 한다. 교육제도는 절대적으로 옳거나 그른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고 또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달려 있다.</p>
요약문
<p>2022년 7월 1일,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취임 간담회에서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 교육감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교육 정책의 방향과 틀을 바꾸고 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용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평가를 제대로 해야 한다. 교사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p> <p>2022년 7월 1일,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취임 간담회에서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학력 신장이 목표라면, 신 교육감은 교육 정책의 방향과 틀을 바꾸고 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용해야 할 것이다. 먼저 학생들 개개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학생들의 기초학력 평가를 제대로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교사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그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p>[해설] 첫 번째 요약문은 주장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전개하고, 주장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떠한 접속 부사나 연결 어미 없이 바로 제시하고 있어 문장 사이에 긴밀성이 떨어진다. 또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두 가지 나열하는 부분에서도 문장들 사이가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는다. 반면 두 번째 요약문은 ‘학생들의 학력 신장이 목표라면’, ‘먼저’, ‘이와 더불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문장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다.</p>

- 요약문이 독립된 글로서 완결성을 가지도록 작성한다.

원문
<p style="text-align: center;">강원특별자치도 완성 위해 ‘지원위’ 설치돼야</p> <p>강원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 지난 수십년간 강원도는 군사, 산림, 환경 등 모든 부문에서 각종 규제로 인해 발전은 더디고 점점 살기 어려운 곳이 돼 가고 있다. 주변이 온통 산림으로 뒤덮여 있는 강원도는 그나마 평지도 대부분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 보호임지로 묶여 있어 대규모 개발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는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새 출발을 위한 디딤돌인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지원 없이는 제대로 된 출범이 힘들다는 데 있다.</p> <p>정부 지원위가 없다면 강원도는 각종 특례조항을 관련 부처와 일일이 협의를 거쳐야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규제 완화 등에 대해 소관부처가 반대할 경우 이를 조정할 장치도 없다. 자칫 허울뿐인 강원특별자치도로 전락할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허영(춘천갑)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노용호(비례) 국회의원이 지원위 설치 규정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역 정치권은 여야와 정파를 초월해 이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법령에 근거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지원위가 공식 기구로 운영 중이지만 강원특별자치도는 아직 정부 지원위 구성을 강제할 근거가 없다. 제주와 세종은 국무총리를 위원장, 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지원위를 꾸려 정부와 특례조항 발굴과 법 개정 등에 대해 지원과 컨설팅을 받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 <p>강원특별자치도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후속 조치인 법률 개정을 통해 지원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 지원위 설치의 합리적 논리로 정부를 움직여야 할 때다. 강원도는 오랫동안 열악한 여건 속에서 살아왔다. 강원인들은 그 원인을 두고 대체적으로 국가로부터 소외와 배제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해 왔다. 산업화가 시작된 이래 정부의 국가발전정책에 있어 강원도는 여러 자원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개발돼 그 현실이 크게 왜곡돼 버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간의 희생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상을 이끌어내는 것이 강원도에 하나의 중요한 생존전략이었다. 우리의 눈은 항상 중앙정부가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는 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런 전략은 자존심 문제를 제쳐두고서라도 강원인들의 목마름을 결코 해소할 수 없었던 것이 우리의 경험이다. 이제는 치밀한 강원도적 논리로 무장해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또한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강원인들에게 진정한 발상의 전환과 그 실천 의지의 결집이 요구된다. 지금의 열악한 강원도 현실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이라는 인식으로 뛰어야 한다. 그리고 당당하게 경쟁하고 강원도의 역량을 키워 나갈 때 지역이 발전한다.</p>
요약문
<p>강원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지난 수십 년간 강원도는 군사, 산림, 환경 등 모든 부문에서 각종 규제로 인해 발전을 더디고 살기 어려운 곳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새출발을 위해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으나 문제는 정부의 지원 없이는 제대로 된 출범이 힘들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위가 없다면 강원도는 각종 특례조항을 관련 부처와 일일이 협의를 거쳐야 하며, 더욱 심각한 것은 규제 완화 등에 대해 소관 부처가 반대할 경우 이를 조정할 장치도 없기 때문이다.</p> <p style="text-align: center;">↓</p> <p>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로의 출범을 앞두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제대로 된 출범이 어렵다. 강원도는 정부 지원위원회가 없어 각종 특례 조항을 관련 부처와 일일이 협의를 거쳐야 하며, 규제 완화 등에 소관 부처가 반대한다면 조정할 장치가 없다. 따라서 새로운 강원자치도로의 출범을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p>
<p>[해설] 첫 번째 요약문은 마지막 문장이 ‘-기 때문이다’라는 이유 표현이다. 즉, 주장에 대한 근거 제시로 글이 마무리되었다. 요약문도 하나의 완전한 글임을 감안할 때, 주장에 대한 근거로 글의 결론을 구성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요약문이 완결되지 않고 미완인 인상을 주게 된다. 반면, 두 번째 요약문은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요약문을 마무리하고 있어 하나의 완전한 글로 읽힌다.</p>

2.2.3. 표현

(1) 문단

- 요약문은 한 문단으로 작성한다.
- 요약문은 3~4문장으로 작성한다. 되도록 문제 상황 한 문장, 논거 또는 실천 방안 두 문장, 주장 한 문장으로 작성한다.
- 요약문의 전체 글자 수가 300자 이내가 되도록 작성한다.

(2) 문장

- 한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따라서 향후 강원도의 특성이 반영된 전략적 재난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고, 도민의 안전 인식과 안전문화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전략적으로 수립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강원도는 중앙정부 정책 등과 연계하여 강원도 특성이 반영된 재난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해설] '주장'을 요약한 부분이다. 첫 번째 문장은 논자의 주장이 잘 드러나도록 압축하여 제시하지 않아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졌다. 반면 두 번째 문장은 논자의 주장을 압축하여 잘 제시하였다.

- 자연스러운 한국어 문장으로 작성한다.
- 요약문은 간결하게 작성한다. 불필요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요약문을 작성할 때 비유적인 표현은 반드시 수정하여 작성한다.

정당들은 성폭력 근절을 하지 않고는 정당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고 강력한 처벌로 경종을 울리기 바란다.



정당들은 성폭력 근절을 하지 않고는 정당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고 강력한 처벌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

- 요약문을 작성할 때 번역 투의 말은 반드시 수정하여 작성한다.

한국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2년 2월 1일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 동원의 역사가 있는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을 신청했다.



2022년 2월 1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반대를 무시하고 조선인 강제 동원의 역사가 있는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을 신청했다.

- 원문에 직접 인용이 되어 있는 경우, 되도록 간접 인용을 하여 작성한다. 주요 내용을 꼭 직접 인용해야 하는 경우 조사 '라고, 라는' 등을 정확하게 사용하여 작성한다.

카카오가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마비로 피해를 입은 모든 이용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2022년 10월 19일 밝혔다.



카카오가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마비로 피해를 입은 모든 이용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2022년 10월 19일 밝혔다.

[해설] 원문에서 " "와 같이 강조 또는 인용 표시를 하여 제시할 경우, 이를 요약문에 그대로 작성하지 않고 간접 인용을 하여 작성한다.

- 요약문에서 각 문장의 주술 관계가 정확해야 한다. 즉, 문장의 주요 성분이 생략되지 않아야 하며, 복합문에서 주술 관계가 혼동되도록 작성하지 않는다.
- 중요 문장을 그대로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원문
<p style="text-align: center;">오미크론 감소세에 조정되는 의료대응체계</p> <p>오미크론 대유행이 정점을 지나 완만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의료대응체계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 탓에 일일 확진자 수가 한때 60만 명대까지 치솟았지만 현재는 10만 명대로 떨어지면서 조정 필요성이 커졌다. 또한 대부분 경증이었던 오미크론의 특성 상 재택치료와 일반 병상에서 치료 받는 형태로 전환하면서 의료 시스템도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여전히 고령자를 중심으로 사망자는 많지만 중증 병상이나 생활치료센터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변화다.</p> <p>이에 방역당국은 중등증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조정계획을 밝혔다. 중등증 병상 가동률이 30%대여서 일반진료 수요와 한정된 의료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으로 코로나 병상을 감축하려는 것이다. 이로 인한 여유자원은 일반진료 등 더 긴급하고 중요한 부분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그간 일반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이 악화되는 등 피해가 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다. 일단 한시적으로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 병상은 운영된다고 하니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한 신속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p> <p>또한 생활치료센터도 가동률, 병상 현황, 입소 수요 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사실상 재택치료를 전면 확대한 2월 중순 이후 가동률이 20%대로 떨어져 효율성이 떨어진 상황이다. 가동률에 비해 유지비용과 투입자원 대비 효율성이 저하되는 점도 고려됐다. 중등증 입원병상과 생활치료센터의 여유가 너무 커져 이를 조정한다는 말이 한편으로 매우 반가우면서도 만에 하나 신중 변이 바이러스 변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정해야 할 것이다.</p> <p>확진자 감소세와 방역완화 기조에 따라 일상으로의 복귀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오랜 방역에 지친 시민들의 발길이 만개한 벚꽃길로 혹은 공연장과 경기장으로 몰리고 있다. 공연장에서는 시간제한이 사라지고 띄어 앉기도 자율시행으로 변경되는 등 정상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시민들의 반응이 폭발적이다. 국민 내 사람 중 한 사람이 감염되었을 정도지만 여전히 감염 위험성은 남아 있다. 그러다보니 확진되었다가 완치된 사람들은 자유롭게 활동하고 비확진자가 조심스런 기묘한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워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지나친 자신감이 재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인 방역수칙 준수는 필수 요건이다. 이미 재확산 국가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방심은 금물이다.</p>
요약문
<p>오미크론 대유행이 정점을 지나 완만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의료대응체계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에 방역 당국은 중등증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조정 계획을 밝혔다. 중등증 병상 및 생활 치료센터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인력의 효율성과 여러가지 상황을 반영하여 이를 감축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워드 코로나 시대에 지나친 자신감이 재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재확산 국가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p> <p>오미크론 대유행이 감소세로 들어서면서 의료대응체계도 조정되고 있다. 이에 방역 당국은 일반 진료 수요와 한정된 의료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정 계획을 밝혔다. 중등증 병상을 더 중요한 부분으로 전환하고 생활치료센터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워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 재확산되지 않도록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p>
<p>[해설] 첫 번째 문장은 대부분 원문의 중요 문장을 그대로 기술하였다. 추상 요약문은 원문의 내용을 유지하는 선에서 다시쓰기를 해야 한다. 두 번째 요약문은 원문의 요점을 바탕으로 다시쓰기하며 요약문을 기술하였다.</p>

(3) 어휘 및 표현

- 직시 표현은 환언하여 작성한다.

예) 지난해 → 2022년, 어제 → 3월 4일, 6·1 지방선거'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1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두면서 강원도 권력지도가 새롭게 개편됐다.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하는 지방의회의 자리를 다수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차지하였다.
김진태 지사가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
김진태 지사가 2022년 7월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했다.
[해설] 신문 사설에 포함된 정보를 통해 직시 표현은 환언하여 작성한다.

(4) 표기

- 어문 규범에 맞게 작성한다.

- 사설 원문에 어문 규범에 맞게 작성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어문 규범에 맞게 작성한다.

예) 원자재값 → 원자재값

축하 메세지 → 축하 메시지

- 띄어쓰기 원칙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예) 5년 간 → 5년간

후속조치 → 후속 조치 (<우리말샘> '후속 조치'로 등재)

안전 사고 → 안전사고 (<우리말샘> '안전-사고'로 등재)

안전관리 → 안전 관리 (<우리말샘> '안전^관리'로 등재)

- 문장부호 사용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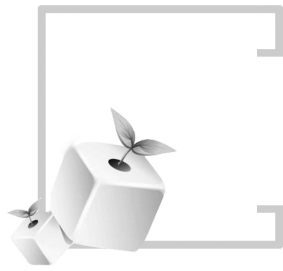
예) 1000명 → 1,000명

- 고유명의 경우, 어문 규범에 맞게 작성한다.

예) 국민의힘 → 국민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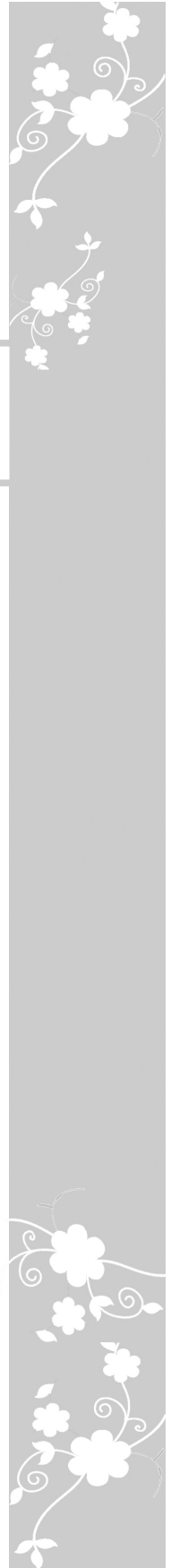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한국 해양 과학 기술원

포항국제불빛축제 → 포항 국제 불빛 축제



붙임 3

협력적 대화 요약문 작성 지침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 구축 지침

ver. 1.1

2025.6.16.

한림대

목차

1. 개요	1
1.1. 지침의 목적	1
1.2. 관련 사업	1
1.3. 주요 용어	1
1.4. 추상 요약문의 특징	1
1.5. 협력적 대화의 특징	2
1.6. 협력적 대화 요약문 작성 예시	3
2. 구간 분할 및 소주제 선정	9
2.1. 구간 분할	9
2.2. 소주제 선정	10
3. 소주제별 요약	12
3.1. 중심 발화 선정	12
3.2. 소주제에 대한 화자별 발화 요약	15
3.3. 주의 사항	17
4. 전체 요약문 작성	18
4.1. 전체 주제 제시	18
4.2. 화자별 또는 소주제별 요약	23
4.3. 마무리	24
4.4. 주의 사항	30

1. 개요

1.1. 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 구축 방안을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는 구간 분할 및 소주제 선정 방법과 소주제에 대한 화자별 요약 방안 및 전체 요약문 작성 방안을 기술한다.

1.2. 관련 사업

이 지침은 국립국어원의 '2025년 대화 및 텍스트 요약 말뭉치 구축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서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를 구축하기 위한 지침이다.

1.3. 주요 용어

협력적 대화 요약문 작성에 사용되는 주요 용어는 아래와 같다.

- 제목: 대화에서 화자들이 이야기하는 대화 전체의 주제
- 원문: 요약의 대상이 되는 대화
- 구간: 단일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연속된 대화의 묶음
- 소주제: 구간별로 대화의 중심이 되는 내용
- 중심 발화: 화자별 소주제에 대한 생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발화
- 화자별 발화 요약: 소주제 구간별 각 화자의 중심 생각을 담은 문장
- 요약문: 대화의 요점을 간추려 쓴 글
- 추상 요약문: 대화의 중심 내용을 파악한 후, 원문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표현을 달리하여 요약한 글

1.4. 추상 요약문의 특징

요약문은 원문으로부터 요약문을 작성하는 방법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추출 요약문은 원문에서 소주제에 대한 화자별 중심 생각을 담고 있는 문장을 선정한 후 이를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여 작

성하고, 추상 요약문은 원문에서 소주제에 대한 화자별 중심 생각을 파악한 후 원문의 의미는 유지하면서 표현을 달리하여 요약한다.

추상 요약문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한다.

- 고유명사는 그대로 사용하되 정식 명칭이 따로 있으면 그것을 사용한다.
- 주요 어휘는 가능한 한 그대로 유지한다.
- 줄임말과 같은 구어적 특징의 어휘들은 맞춤법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한다.
- 주요 어휘가 아닌 어휘는 의미를 유지하는 선에서 다른 어휘로 교체할 수 있다.
- 요약문에서는 대화의 전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원문에서 이야기한 순서와 다르게 제시할 수 있다.

1.5. 협력적 대화의 특징

- 여러 개의 소주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 하나의 소주제에 대해서 화자들이 각각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다.
- 하나의 소주제에 대해 한 화자만 이야기하기도 한다.
- 앞의 소주제에 대해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기도 한다.
- 대화를 시작하는 부분과 마무리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다.

1.6. 협력적 대화 요약문 작성 예시

1> 원문을 읽고 소주제별 내용을 확인한다.

2> 화자별로 소주제에 대한 생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발화를 중심 발화로 선정한다.

화자	원문	구간	소주제 번호	소주제
화자1	<p>몇 년 동안 그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 이제 고통스럽고 그래서 안락사를 선택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는 나도 알고는 있지만 나는 그래도 안락사는 이제 이거를 허락을 하면 안 된다. 국가적으로 이거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야. 왜냐하면 이게</p>	1	소주제1	안락사 허용 여부-신체적 고통
화자2	<p>나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도 그게 안락사는 안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야?</p>			
화자1	<p>어 나는 그렇 그렇다고 생각해 본인이 안락사를 희망한다고 해도 이게 선뜻 오케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p>			
화자2	<p>왜 그렇게 생각해? 본인 의사이고 그러니까 나도 뭐 가 가족이 안락사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 뭐 거기까지는 선뜻 동의하고 있는 거는 아니야 근데 본인이 희망하고 있을 때는 본인이 그 고통을 못 견디겠어서 좀 편해지고 싶다는 거잖아. 그런 경우도 존중을 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p>			
화자1	<p>하지만 그 이유가 자기의 고통을 덜고 싶어서만 그게 이유가 된다면 괜찮은데 국가적으로 그게 허용이 돼서 선택지로 하나가 안락사 해도 돼 가 선택지가 되어버린다면 병실에 누워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계속 가족들이 돈이 쓰이고 가족들이 눈치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그게 자꾸 자존감이 깎이면서 내가 살아서 뭐 하나? 안락사 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p>			
화자2	<p>근데 안락사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안락사 해도 할 수 있는 경우 같은 어떤 기준을 정해두면 되는 거 아닌가? 물론 그러니까 막 그냥 뭐 이제 뭐 조금 뭐 그러니까 충분히 치유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의 병인데 이제 단순히 네가 말했던 것처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가족들의 어떤 눈치가 보여서 안락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사실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은</p>			

	언젠가는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고통을 덜 위해서 암 같은 안락사를 선택하는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			
화자1	안락사를 그렇게 선택하는 게 이제 우리가 구별할 수 없다는 거지. 아무리 고통스럽고 그런 병이라도 본인은 살고 싶어 하는 의지가 있을 수 있는데 단순히 그런 선택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눈치가 보이고 주변에서 또 이제 그런 동정 어린 시선이 있을 거 아니야? 많이 고통스럽지? 안락사 해도 돼. 이것과 많이 고통스럽지 그래도 그래도 살아가야지. 이거는 다르단 말이지.			
화자2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렇게 막 죽음을 앞두거나 뭔가 그렇게 어떤 죽을 병에 걸리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 그냥 내가 지금 아직 나한테는 우린 아직 젊잖아. 아직 나한테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크게 와 닿지 않아서 그렇게 안락사라는 거에 대한 무게가 다를 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좀 어떤 큰 고통 상태가 좀 어떤 그냥 살아 있는 거 자체만으로도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 때 그거를 견디기 힘들 때는 차라리 그냥 편해지고 싶은 이게 사람 마음일 거라고 난 생각하거든.			
화자1	근데 그거는 그렇게 치면 자살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잖아 단지 신체적이나 육체적이나 아니 그 육체적이나 정신적이나의 차이지 이렇게 살아서 진짜 힘든 환경에서 살아서 뭐 하나 그런 그렇게 계속 고통받으면서 살 바에 죽는 게 낫다 하면서 자살하는 건데 그럼 그것도 안락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인가?	2	소주제2	안락사 허용 여부-정신적 고통
화자2	그러니까 이제 안락사라고 하면은 사실 나도 아까 본인 의사라는 걸 강조했듯이 어떻게 보면 안락사가 난 또 하나의 자살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자살이라는 게 그렇게 나쁜 걸까?			
화자1	그거는 이제 병이지 정신적으로 질환이지 정신 질환이 니까 병원에 다니는 거고 우울증에 걸렸을 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그 치료를 받는 거지. 자살 생각하는 것부터가 사실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p>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불치병이어도 남은 기간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가 해 줘야 될 거는 그들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죽어 이것 보다는 행복하게 그 남은 기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마련 하는 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p>			
화자2	<p>나도 그 방향에는 동의해 그 사람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그 나무 기간을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는 어쨌거나 안락사에 나는 본인 선택을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어 그것도 남은 기간이라도 행복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고통 겪지 않고 조금 편하게 이제 그 죽음을 앞당기든가 난 본인 선택을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었어.</p>			
화자1	<p>그 본인 선택은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한테는 그게 선택이 아니야. 내가 내가 우울증에 걸렸을 때도 나는 자살을 생각하고 그거를 선택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정말 선택일까? 그냥 호르몬의 변화인 거지.</p>	4	소주제2	안락사 허용 여부-정신적 고통
화자2	<p>그 기분은 그거는 그렇지. 그 자기 선택 본인 의사 라고 내가 계속 명확하게 짚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본인만의 어떤 선택이나 그런 걸 할 수 없는 상태가 놓일 수도 있지 정신적으로.</p>			
화자1	<p>아마 그 상태가 절망스럽겠지 지금 불치병이라는 게 이게 나올 수 없다는 게. 또는 내가 신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게. 거기에서 이제 기원 되어서 정신적으로 안 이게 좋아지지 않으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게 나는 크다고 보거든.</p>			
화자2	<p>근데 이제 그나마 지금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거는 좀 약간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어쨌든 그럼 신체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어떤 행 남은 여생이라도 행복하게 살자 라고 하는 게 그러면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상태인 거잖아.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어떡하지?</p>	5	소주제3	안락사와 행 복
화자1	<p>그걸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지 그렇게 치면 행복하게 못 살 거 같은 아프리카 빈민국 우리 입장에서는 뭐 재네들은 평생 행복하지 못할 거야 그러면 개네들 안락사 해도 되나 그건 아니잖아. 그걸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냐는 거지 할 수 있냐는 거지.</p>			
화자2	<p>어 그 사람들이 행복하냐 아니냐 이런 건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너무 약간 단편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다 식으로 생각할게 아니라 좀 복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람은</p>			

	<p>일단 신체적으로 상태가 어떤 정상 정상이 아니라 그냥 거동 자체가 되게 불편할 거고 이 사람이 남은 여생을 어떻게 행복을 좀 누리기 힘든 상태에서 거기서 본인도 희망이 좀 들어간다면 본인의 희망 의사가 들어간다면 허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p>			
화자1	<p>그게 일반인들이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해. 그게 육체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다면 당연히 뭔가 다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 행복을 느끼는데 육체적인 그게 기여를 하긴 하지만 크게 그렇게 행복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행복을 못 느낄 거야 이렇게 판단 내리는 거는 좀 제 3자 입장에서 너무 성급한 판단 아닌가 싶어.</p>			
화자2	<p>내가 지금 육체적으로 힘 거동이 힘든 상태를 어느 정도를 지금 우리가 지금 서로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건지 난 지금 잘은 모르겠는데 그걸로 이제 우리가 행복을 판단 할 순 없지 저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당연히 그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난 지금 계속 계속 어떤 시한부 인생 그 어떤 말기 암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남은 사람 그 사람들 그냥 내 주변에 암으로 죽으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굉장히 그냥 내내 고통스러워만 하다가 가서서 후회하고 자꾸</p>	6	소주제1	안락사 허용 여부-신체적 고통
화자1	<p>그 고통스러워 하는 거에는 이제 원하지 않는 항암 치료를 계속 했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 하거든 이제 강제로 이거를 병을 낫게 하려고 나를 가능성도 없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방 방향을 이거를 계속 퍼센트가 낮은 거를 완치를 하려고 해야 된다고 보다는 지금 있는 고통을 줄여야 되지 않나 줄이면서 선택은 나도 그렇게 이제 치료를 거부하는 거는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지금 죽겠다 이거는 선택 하면 할 하는 선택지로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p>			
화자2	<p>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그거에 대한 부작용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사례는 나도 접해 봤어 근데 항암 치료를 안 받아도 고통을 받는 거는 마찬가지로일 텐데 그럼 그 고통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p>			
화자1	<p>방법이 있지. 그 꼭 병원에 그렇게 입원하지 않더라도 이제 주치의이나 이런 걸 두면서 이제 계속 그 진통제</p>			

	랑 이제 모르핀이나 이런 이런 마약 마약 같은 성분들이 그래서 있는 거거든. 진짜 고통이 많을 때 그거를 줄여 줄 수 있는			
화자2	그러니까 나는 계속 안락사에 초점을 받는 거는 이 사람이 앞으로 살아갈 남은 날들이 정말 고통 뿐이라면 오히려 안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인 거거든. 그래서 내가 자살 얘기도 아까 그런 쪽으로 꺼냈던 거고.			
화자1	그러니까			
화자2	곧			
화자1	이제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는 거지 지금 바로 죽을 필요가 죽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화자2	그 만약에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나도 굳이 안락사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죽음 이라는 걸 안겨 주고 싶진 않아.			

3> 소주제에 대한 화자별 발화 요약을 작성한다.

소주제 번호	소주제	화자1 발화 요약	화자2 발화 요약
1	신체적 고통에 따른 안락사 허용 여부	치료 방법이 더 이상 없는 시한부 환자나 불 치병 환자들도 남은 기간 행복하게 살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는 시한부 환자들이 스스로 판단했다면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다.
2	정신적 고통에 따른 안락사 허용 여부	우울증에 걸려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는 선택 을 하는 것은 정신적인 문제이므로 치료를 해 야 한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선택은 잘못 된 것일 수 있으므로 안락사를 선택할 수 없 을 수도 있다.
3	안락사와 행복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행복할 것이라는 판단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함부로 판 단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불편하고 행복을 누리기 힘들어 본인이 스스로 안락사 를 선택한다면 안락사를 허용할 수도 있다.

4> 전체 요약문을 작성한다.

전체 요약문
<p>이 대화에서 화자1과 화자2는 안락사의 허용 여부에 대해 이야기했다. 화자1은 시한부나 불치병 환자들이 몸이 불편하다고 하여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은 살고 싶은 의지가 있음에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울증에 걸려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는 선택을 하는 것도 정신적인 문제이므로 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화자2는 시한부 환자들이 고통스러운 생활을 계속하여 안락사를 하고자 한다면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본인의 선택 자체가 잘못된 선택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안락사를 희망한다면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p>

2. 구간 분할 및 소주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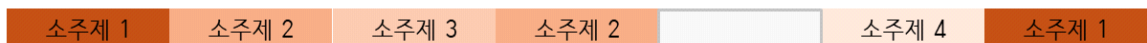
2.1. 구간 분할

- 대화를 읽어 나가면서 소주제를 파악하고, 같은 소주제로 묶을 수 있는 발화들을 하나의 구간으로 묶는다.
- 대화에서 다루고 있는 소주제별로 나누어 소주제 번호를 부여한다.
- 소주제 구간은 3-6개로 분할한다.
- 구어의 특성상 언제나 하나의 소주제에 대한 대화가 완결된 후에 다른 소주제에 대한 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다른 소주제에 대해 대화하다가 다시 앞에서 대화를 나누었던 소주제가 나올 수도 있다.
- 구간 내의 어느 한 발화에서 파생되어 해당 소주제와 무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경우 해당 발화들은 요약 대상 구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앞 구간의 소주제와 전혀 다른 내용의 소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구간은 요약 대상 구간으로 삼지 않는다.
- 대화의 앞부분에 대화 전체의 주제를 언급하는 도입부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이 구간은 소주제별 구간이 아니므로 구간 번호와 소주제 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 대화의 뒷부분에 화자들이 대화를 정리하는 마무리 구간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부분은 구간을 분할하고 구간 번호를 부여한 뒤, 소주제 번호 대신 '마무리'라고 적는다.

< 구간 번호 >



< 소주제 번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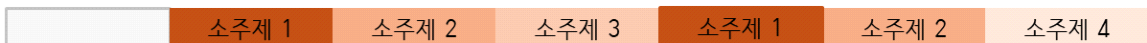
대화 전체 또는 소주제와 무관한 내용이 나오면 구간 번호와 소주제 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구간 분할 및 소주제 번호 부착 그림 1>

< 구간 번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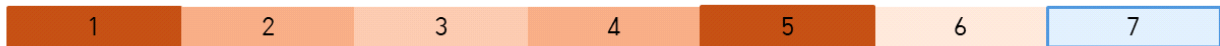
< 소주제 번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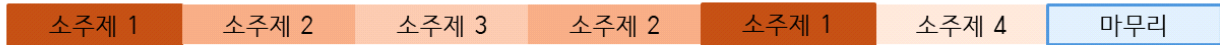
대화 전체의 주제를 언급하는 도입부의 내용이 있는 경우, 구간 번호와 소주제 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구간 분할 및 소주제 번호 부착 그림 2>

< 구간 번호 >



< 소주제 번호 >



화자들이 대화를 정리하는 마무리 구간이 있는 경우, 구간을 분할하고 구간 번호를 부여한 뒤, 소주제 번호 대신 '마무리'라고 적는다.

<구간 분할 및 소주제 번호 부착 그림 3>

2.2. 소주제 선정

- 분할된 구간별로 명사 또는 명사구 형태의 소주제를 적는다.
- 소주제는 해당 구간의 대화를 아우를 수 있도록 추상화하여 표현한다.
- 대화의 마무리 구간이 존재할 경우, 소주제 내용이 아닌 대화 전체 주제에 대한 내용이므로 소주제 선정을 하지 않는다.

❖ 아래의 대화는 '안락사·존엄사 법제화'를 주제로 나눈 대화의 마지막 부분인 17번째 구간이다. 3인의 대화 참여자는 안락사의 시행 조건(소주제 1), 안락사와 자살 간 유사성(소주제 2), 안락사 시행자 보호(소주제 3),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소주제 4)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대화의 마지막 부분인 17번째 구간은 소주제에 대한 대화 내용이 아니며, 대화 전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한 '마무리' 구간이다. 따라서 소주제는 선정하지 않는다.

화자	원문	구간	소주제 번호	소주제
화자2	포기하기 보다 희망을 가지고 계속 싸우는 게 약간 뭐 어린이 만화에서도 그렇고 약간 그게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로는 더 옳 옳은 방향이 아닌가 라고 나는 생각을 해서 난 반대 계속	17	마무리	
화자1	어 너희 말대로 일단 반 안락사를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이제 살려내려고 노력을 방향성을 그쪽으로 정하고 사회가 그렇게 움직여야지 이게 더 그쪽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이게 사람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건데 안락사라는 좀 어떻게 보면은 쉬운 쉬운 선택이 쉬운 방법이지 어떻게 보면은 아픈 사람들			

	<p>고치지 않고 죽이는 거니까 이런 류의 편한 길을 찾아간다는 생각도 드는 거 같아. 사회적으로는 사회적으로도 물론 좋지 않고 특히나 너 말대로 어린 청소년들은 좀 생각이 얕다 보니까 뭐 자살 생각도 가끔씩 할 텐데 안락사가 너무 당연시된다면 그런 자살에 대한 진입장벽도 낮게 생각되는 거에 대해서도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고 사회통념적으로도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안락사는 조금 너희 말대로 안 허용해서는 안돼 안돼야 되는 거 같아.</p>			
--	--	--	--	--

3. 소주제별 요약

3.1. 중심 발화 선정

- 화자별로 소주제에 대한 생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발화를 중심 발화로 선정하여 발화 단위로 하이라이트 표시를 한다.
- 구어의 특성상 문장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소주제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발화를 절 단위로 선정하여 중심 발화가 길어지지 않도록 한다.
- 같은 내용을 반복할 때에는 화자의 생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발화만을 중심 발화로 선정하며, 소주제에 대한 생각이 여러 개의 발화에 나누어져 있으면 모두 중심 발화로 선정한다.

❖ 아래의 대화는 ‘비대면 생활이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나눈 대화의 소주제 2구간이며, 이 구간의 소주제는 ‘비대면 생활 속 교육’이다. 화자별로 소주제에 대한 생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발화를 선정하여 하이라이트 표시를 한다.

화자	원문
<소주제 2> 화자2	아 충분히 이제 그 말은 이해가 가지만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들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를 나가도 어쨌든 마스크를 쓰고 이제 말을 하는데 어쨌든 부모님의 입장에서든 학생의 입장에서든 나가서 이제 선생님과 그런 이제 감정을 교류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는 게 훨씬 낫다고 이제 설문을 봤었고 대신 또 안 좋은 게 어쨌든 수업을 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있고 그 마스크 속에 있는 그 선생님의 입모양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그 단원들이 있는데 그걸 못 배워서 그런 것들은 조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 같긴 해.
화자1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인제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근데 그거는 아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비대면이 좀 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어 충분히 그 안에서든 이제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어떤 감정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보조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그리고 오히려 중 고등학생들처럼 좀 더 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비대면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 원하는 더 부족한 부분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되지 않을까 싶어.
화자2	어 이거는 이제 나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이제 나는 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이 좀 대면 수업보다는 조금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생 느껴져 그래서 뭔가 온라인으로 볼 때는 아 다시 볼 수 있으니까 아니면은 아 아니면 그냥 뭐 질문을 그냥 바로바로 이제

	<p>다르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 대면 수업보다는 좀 덜 집중을 하게 되는 거 같고 이게 또 라이브로 해서 해서 이제 한다고 해도 대면보다는 집중력이 더 떨어지는 그걸 경험을 했었어.</p>
화자1	<p>음 그렇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 뭐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대신에 그런 온라인 대면 수업에 있어서 장점은 제약이 좀 많이 사라지는 부분 이런 생각을 하거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대학교 때 수업을 들으려면 이제 학 교수님이 강의실도 있어야 되고 그 수업 자료들을 같은 거를 다 준비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교수님이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고 학생들은 그걸 볼 수 있는 개인의 장소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 제약이 많이 사라질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나 생각해.</p>

- 소주제에 대해 화자의 태도가 다양한데, 대화 참여자 중 소극적인 태도로 대화에 참여하는 화자가 있더라도 소주제에 대한 생각을 담은 문장이 있다면 이를 중심 발화로 선정한다.
- 간혹, 다른 소주제 구간에서 해당 소주제와 관련된 화자의 중심 생각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해당 소주제 구간으로 선정되지 않은 부분에서 중심 발화를 선정할 수는 없으나 소주제에 대한 화자별 요약할 때 참고할 수 있으니, 대화 전체를 모두 읽어야 한다.

❖ 아래의 대화는 ‘청소년에게 인터넷·스마트폰이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나눈 대화의 소주제 3구간과 소주제 1구간 일부의 대화이다. 소주제 3구간의 소주제는 ‘인터넷·스마트폰의 교육적 활용’이다. 소주제에 대한 화자1의 생각을 잘 보여주는 발화는 소주제 3에서 찾을 수 있으나, 화자2의 생각을 보여주는 발화는 찾을 수 없다. 구어의 특성상 다른 소주제에서 소주제 3의 주제에 관련한 내용이 언급될 수 있다. 소주제 구간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서 화자의 생각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으니, 대화 전체를 모두 읽어야 한다.

화자	원문
<p><소주제 1> 화자2</p>	<p>그러면 너가 그 말한 거에도 내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한 거는 이제 뭐 학습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뭐 모르는 거를 그런 지식을 찾아보고 이런 용도로 인터넷을 사용했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뭐 자신의 오락이나 뭐 에스엔에스 이런 재미를 추구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너가 말한 대로 그거 외에는 사용할 필요가 없지 않나 라고 생각 했는데 그럼 그 용도로는 뭔가 사용을 하게 해 주는 게 좋지 않나.</p>
<p><소주제 2> :</p>	:
<p><소주제 3> 화자1</p>	<p>음. 나는 사실 뭔가 그런 공부나 학습의 용도로써 사용하는 거는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굳이 그걸 학습의 용도로써 쓸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해. 학습은 충분히</p>

	책만 봐도 학교에서 쓰는 교과서 그런 것만 봐도 학습이나 본인의 사고의 발달이 충분히 월등하게 더 잘 가능이 한데 굳이 인터넷을 써야 될 까 라는 생각이 들고
--	--

- 소주제 구간이 짧은 경우 또는 3인 이상의 대화에서 대화 참여자 중 소주제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는 화자가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소주제에 대한 중심 생각을 이야기한 화자의 발화만을 중심 발화로 선정할 수 있다.

❖ 아래의 대화는 'AI의 직업 대체'를 주제로 나눈 대화의 소주제 5구간이며, 이 구간의 소주제는 'AI의 도덕성'이다. 화자1은 'AI의 도덕성'에 대한 생각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은 채, 다른 소주제 구간으로 넘어간다. 이럴 경우, 화자2와 화자3의 소주제에 대한 생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발화를 선정하여 하이라이트 표시를 한다.

화자	원문
<소주제 5> 화자3	내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많이 거두가 되고 있는 게 자율 주행이잖아. 자율 주행 실험을 많이 하면서도 사고가 가정을 하면은 열 명인 사고랑 한 명인 사고 이럴 때 누구 선택해야 되는가 하는 그거에 대한도 문제점이 되게 많더라고. 그런 것처럼 조금 에이아이도 아직 그거에 대한 도덕성이나 문화 아니면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지 않나. 그런 건 어찌 생각해?
화자1	에이아이가 인간의 도덕성이나 윤리를 학습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 생각하고 그거 역시 개발자에 대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
화자2	나는 근데 에이아이는 어쨌든 기술이고 그것이 무슨 생명이 있고 이런 건 아니니까 에이아이 자체한테 도덕성을 판단하는 건 아닌 거 같아. 그 항상 과학 기술이 있는데 그것이 좋은 결과도 있고 나쁜 결과도 있잖아. 근데 그걸 에이한 에이아이도 마찬가지로 그걸 어찌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제지 에이아이 자체에게 도덕성을 부여할 순 없다고 생각해. 판단을 시키는 것도 마찬가지로.

3.2. 소주제에 대한 화자별 발화 요약

- 소주제 구간별로 각 화자의 중심 생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 화자별 발화 요약은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한다.
- 세부적인 사항을 나열하는 것을 지양하고 추상화하여 표현한다.

화자	원문
<소주제 2> 화자2	아 충분히 이제 그 말은 이해가 가지만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들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를 나가도 어쨌든 마스크를 쓰고 이제 말을 하는데 어쨌든 부모님의 입장에서든 학생의 입장에서든 나가서 이제 선생님과의 그런 이제 감정을 교류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는 게 훨씬 낫다라고 이제 설문을 봤었고 대신 또 안 좋은 게 어쨌든 수업을 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있고 그 마스크 속에 있는 그 선생님의 입모양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그 단원들이 있는데 그걸 못 배워서 그런 것들은 조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 같긴 해.
화자1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인제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근데 그거는 아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비대면이 좀 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어 충분히 그 안에서도 이제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어떤 감정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보조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그리고 오히려 중 고등학생들처럼 좀 더 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비대면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 원하는 더 부족한 부분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되지 않을까 싶어.
화자2	어 이거는 이제 나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이제 나는 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이 좀 대면 수업보다는 조금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생 느껴서 그래서 뭔가 온라인으로 볼 때는 아 다시 볼 수 있으니까 아니면은 아 아니면 그냥 뭐 질문을 그냥 바로바로 이제 다르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 대면 수업보다는 좀 덜 집중을 하게 되는 거 같고 이게 또 라이브로 해서 이제 한다고 해도 대면보다는 집중력이 더 떨어지는 그걸 경험을 했었어.
화자1	음 그렇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 뭐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대신에 그런 온라인 대면 수업에 있어서 장점은 제약이 좀 많이 사라지는 부분 이런 생각을 하거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대학교 때 수업을 들으려면 이제 학 교수님이 강의실도 있어야 되고 그 수업 자료들을 같은 거를 다 준비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교수님이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고 학생들은 그걸 볼 수 있는 개인의 장소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 제약이 많이 사라질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나 생각해.
--	--------------------------------------

❖ 아래의 소주제에 대한 화자별 요약은 위의 대화를 읽고 요약한 것이다.

소주제 번호	소주제	화자1 발화 요약	화자2 발화 요약
1	⋮	⋮	⋮
2	비대면 생활 속 교육	비대면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을 더 강화할 수 있으며 수업에 필요한 공간적, 시간적 제약도 없앨 수 있다.	비대면 수업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감정 교류 가 부재하며 대면 교육에 비해 집중력을 유지 하기가 어렵다.
⋮	⋮	⋮	⋮

- 다른 소주제 구간에서 해당 소주제와 관련된 화자의 중심 생각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다른 소주제 구간의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소주제에 관한 화자의 중심 생각을 요약할 수 있다.

화자	원문
<소주제 1> 화자2	그러면 너가 그 말한 거에도 내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한 거는 이제 뭐 학습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뭐 모르는 거를 그런 지식을 찾아보고 이런 용도로 인터넷을 사용했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뭐 자신의 오락이나 뭐 에스엔에스 이런 재미를 추구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너가 말한 대로 그거 외에는 사용할 필요가 없지 않나 라고 생각 했는데 그럼 그 용도로는 뭔가 사용을 하게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소주제 2> ⋮	⋮
<소주제 3> 화자1	음. 나는 사실 뭔가 그런 공부나 학습의 용도로써 사용하는 거는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굳이 그걸 학습의 용도로써 쓸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해. 학습은 충분히 책만 봐도 학교에서 쓰는 교과서 그런 것만 봐도 학습이나 본인의 사고의 발달이 충분히 월등하게 더 잘 가능이 한데 굳이 인터넷을 써야 될 까 라는 생각이 들고

❖ 아래의 소주제에 대한 화자별 요약은 위의 대화를 읽고 요약한 것이다.

소주제 번호	소주제	화자1 발화 요약	화자2 발화 요약
2	⋮	⋮	⋮
3	인터넷·스마트폰 의 교육적 활용	스마트폰을 학습의 용도로 쓸 필요가 없다.	모르는 내용에 대한 지식을 찾아보는 용도로 의 인터넷 사용은 학습에 도움이 된다.
⋮	⋮	⋮	⋮

- 소주제 구간이 짧은 경우 또는 3인 이상의 대화에서 대화 참여자 중 소주제에 대해 의견이 없는 경우, 해당 화자의 소주제별 발화 요약은 생략할 수 있으며 화자별 발화 요약에 '(없음)'으로 작성한다.

화자	원문
<소주제 5> 화자3	내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많이 거두가 되고 있는 게 자율 주행이잖아. 자율 주행 실험을 많이 하면서도 사고가 가정을 하면은 열 명인 사고랑 한 명인 사고 이럴 때 누구 선택해야 되는가 하는 그거에 대한도 문제점이 되게 많더라고. 그런 것처럼 조금 에이아이도 아직 그거에 대한 도덕성이나 문화 아니면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지 않나. 그런 건 어찌 생각해?
화자1	에이아이가 인간의 도덕성이나 윤리를 학습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 생각하고 그거 역시 개발자에 대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
화자2	나는 근데 에이아이는 어쨌든 기술이고 그것이 무슨 생명이 있고 이런 건 아니니까 에이아이 자체한테 도덕성을 판단하는 건 아닌 거 같아. 그 항상 과학 기술이 있는데 그것이 좋은 결과도 있고 나쁜 결과도 있잖아. 근데 그걸 에이한 에이아이도 마찬가지인 건데 그걸 어찌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제지 에이아이 자체에게 도덕성을 부여할 순 없다고 생각해. 판단을 시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 ❖ 아래의 소주제에 대한 화자별 요약은 위의 대화를 읽고 요약한 것이다. 소주제에 대한 의견이 없는 화자1의 소주제 요약 칸에 '(없음)'이라고 작성한다.

소주제 번호	소주제	화자1 발화 요약	화자2 발화 요약	화자3 발화 요약
4	⋮		⋮	⋮
5	AI의 도덕성	(없음)	AI는 생명이 있는 존재가 아닌 기술이기에 도덕성은 인간에게 부여할 문제이지 AI의 몫이 아 니다.	AI가 도덕성을 학습하기에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3.3. 주의 사항

- 소주제에 대한 화자별 발화 요약은 각 화자의 입장에서 기술하고, '화자1은 ~고 말했다'와 같은 인용 표현을 쓰지 않는다.
- '해라체'를 사용하며, 현재 시제로 작성한다.

4. 전체 요약문 작성

4.1. 전체 주제 제시

- 전체 요약문의 첫 번째 문장에서는 대화 참여자와 전체 주제를 제시한다.
- 첫 번째 문장은 다음과 같은 문장 형식으로 제시한다.
“이 대화에서 화자1과 화자2는 ~에 대해 이야기했다.”

화자	원문
<소주제 1> 화자2	요즘에 스마트폰 관련해서 덕에 이슈가 많잖아. 청소년 애들이 되게 무분별하게 오래 사용을 하거나? 좀 이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해?
화자1	난 아무래도 좀 어릴 때부터 이런 기기들이 익숙해지고 이것만 붙잡고 있는 거는 나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해. 이거를 막 법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고 그런 말은 하긴 하지만 법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가정에서 어떻게 규제할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
화자2	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런 것들이
화자1	이런 것들이 중독에 빠지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지대로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거든. 그런게 너도 알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좀 필요한 거 같아. 가속 가족 구성원들 도움 좀 많이 필요한 거 같아.
화자2	그냥 내가 물어본 거는 이 그 스마트폰 규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물어본 거야. 왜 필요하다고 생각해?
<소주제 4> 화자2	나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게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요즘 시대가 그냥 대 1대 1 대면관계 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세계 라든지 그런 네트워크 적으로 이루어진 관계도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 그거 어떻게 보면은 요즘 개인 사회에 대한 이 시점에서 굉장히 또 다른 한 관계 귀한 관계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분별하게 이거를 저 규제만 하고 반대만 한다는 얘기를 해 갖고 물어보는 거야.
<소주제 1> 화자1	이게 아무래도 본인이 알아서 조절을 할 수 있다면은 좋겠지만 아무래도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성인들에 비해서는 이거 자제하는 능력이 라든가? 그런 게 떨어질 수가 있어서 이거를 옆에서 뭔가 규제를 한다기보다 아까도 말했듯이 규 막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아예 못 하게 막고 이런 것보다는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방향을 좀 제 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관계도 물론 중요하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이게 자기가 자제심이 없는데? 이런 관계를 무조건 막 중시하면서 이거를 이거를 아예

	이걸 어떤 규제도 없이 혼자 그냥 자율적으로 맡기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지
화자2	나는 이것을 이제 규제를 해야 된다. 절제가 안 된다 라는 결론 접근을 하는 게 사실은 너무 편협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요즘에 알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적인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잖아. 근데 이게 코로나 에프터 코로나 시대에서도 비대면이란 효율점을 이제 사회에서 알아 버렸으니까 수업 이라든지 출근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다 접목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 스마트폰이 근데 청소년 때부터 사실은 이것 위해서 스마트폰을 가까이 해라 라고 말하는 거는 좀 우습긴 하더라도 이런 사회 흐름 속에서 청소년 때부터 좀 조기 교육 식으로 이 흐름을 좀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
화자1	그런 흐름을 받아들이는 과정 굉장히 중요하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그런 과정을 받아들이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을 막 규제하거나 억지로 통제하거나 그런 말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좋은 쪽으로 좀 그 혐의를 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지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말한 거 였어.
화자2	좋은 쪽으로 간다는 거면은 어쨌든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좀 그 규제 규제 까지는 아니더라도 작은 이제 그 방향성을 제시를 해 가지고 좀 활용을 해보자라는 의견인 거잖아?
화자1	그렇지. 방향을 정해서 그것을 지도를 해주면 애들도 그것을 자기가 이렇게 자재가 안될정도로 빠져들거나 그런 일도 잘 없을 것이고 거기서 자기가 필요한 거를 알아서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취하고 취한 만큼만 취하고 빠질 수 있는 능력도 기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소주제 2> 화자2	그럼 그 반대를 하는 그 이제 뭐 규제 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어느정도 선이라고 생각을 해? 이게 지금 스마트 사회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게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 많아. 청소년들도 뭐 과제나 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활용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앞서 말한 그 스마트폰 안에서의 그 관계망도 무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것을 좀 뭐 시대의 흐름 대로 뭐 스마트 교육에도 활용이 좀 많이 되는 편인데 무조건적인 규제 라든지 무조건적인 뭐 정해진 방향을 잡자 라는 건 너무 두루뭉술해 보여 가지고 어떤 생각인지 좀 궁금해 갖고 물어보는 거.
화자1	글쎄 일단은 뭔가 자기가 뭔가 해야 될 게 있는 시간에는 휴대폰을 만지지 못하게 약간 그 정도 금 그런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아.
화자2	아 필요한 상황인데 그것을 좀 어느 정도인진 사실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어렵기는 해. 근데 어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 지금 시대고 시대고 그 다음에 뭐 코로나 시대고 해서 어 없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누나가 말한 대로 사실은 어느 정도에 규제 점은 필요하겠지 뭐 게임 같은 경우에도 중독 이라든지 그런게 이슈화되면서 셋다문제 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절제력이 많이 없거나 이런 거를 규제할 수 없는 청소년들의 이용시간을 좀 조절 한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 노나 생각도 그런 거 같아.

<p><소주제 1> 화자1</p>	<p>그러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학생들한테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이나 주변 이렇게 어르신들이나 주변 그 아이들이 있는 그런 환경에 가족 다른 가족 구성원들 한테 하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 관련해서 시대가 계속 이렇게 변하고 스마트폰은 필요하고. 근데 이것을 써야 써야 될 때만 쓰면 좋겠는데 이게 자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에 관련해서 좀 나라에서 어른들도 같이 교육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p>
<p><소주제 2> 화자2</p>	<p>그 써야될 때 안 써야 될 때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일상에서 많이 녹아들었어. 스마트기기는 뭐 뭐 빅스비나 클로버 처럼 그거 말 음성 지원으로 좀 이런 다양한 것들 해 주는 것부터 해서 뭐 앞서 말한 지금 청소년이 주제니까 교육에 관련돼서도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일상생활에서 뗄 수 없는 영역까지도 오고 있어. 심지어 아이들이 계속 보고 있는 것도 시계나 교과서가 아니라 스마트폰이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일일이 다 규제 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해서 할 수 있을까 라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나는 있다고 생각을 해.</p>
<p>화자1</p>	<p>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거는 교육을 할 때 뭐가 필요한 시간이나 막 학교 같은 데서는 그런 게 가능하잖아. 뭐가 그 수업 시간이라든가 뭐가 정말 필요할 때 빼고는 다른 시간에는 뭐 와이파이나 그런 데이터 그런 거를 작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아예 장치로 규 규제를 한단가. 약간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p>
<p>화자2</p>	<p>군대에서 하고 있는 그 보안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청소년들의 이용시간에 좀 제한을 하자라는 거지?</p>
<p>화자1</p>	<p>그렇게 되겠네? 말이 근데 그래도 그게. 그게 어느 정도 선에서는 필요한 게 아닌가. 좀 군대 보다는 좀 완화가 된 형태로 가겠지? 근데 그걸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기에는 좀 그렇고.</p>
<p>화자2</p>	<p>근데 지금 스마트폰 그런 그 유불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규제만 해 두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 자유 침해 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 친구들이 뭐 지금 시간에 수업이라서 필요하고 지금 시간에 무슨 과제 라서 필요하고 이럴 때만 꺼내서 보고 이러는 기가 이제는 아니잖아 예전처럼 모 초등학교에서 핸드폰을 뭐 반납하고 이런 시대는 아니니까.</p>
<p>화자1</p>	<p>어 근데 학교에서는 뭐 그렇게 뭔가 구체적인 막 그런 얘기가 많겠지만. 그거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쳐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일단은 내가 생각했던 거는 그냥 가정에서 그 지도하는 것을 뭐가 국가에서 좀 이렇게 교육을 하고 그런 것들 좀 정보를 좀 여기저기 노출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관련해서</p>
<p>화자2</p>	<p>사실 그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노출이 되는 부분이지만. 그 정책적으로 나 아니면 실효성이 굉장히 없잖아. 알다시피 뭐 담배도 머 노담 막 이런 것들 캠페인 하는데 사실상 사람들이 아 해시태그에서 내 친한 친구들 다는 그런 생각만 하지 뭐 실효성있게 아 내가 이 노담 캠페인을 보니까</p>

	이 흡연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좀 안 하게 되는 것처럼 나도 그래 걱정이 되는 거지.
<p><소주제 3> 화자1</p>	<p>그런데 그거를 자재를 시키지 않으면은 이게 스스로 왜 아까도 말했지만 청소년기에는 좀 뇌가 좀 성인보다는 그 자제력 이라는 게 조금 부족한 상태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옆에 기기를 계속 두고 계속 그렇게 중독 이게 강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이게 뇌 발달이라든지 그런데 영향이 있다 보니까 그 주변 어른들의 그냥 관여가 없 없으면은 이게 스스로 그게 잘 조절이 안 되는 친구들이 많은 말이야. 항 청소년기에는. 어쩔 수 없이</p>
화자2	<p>사실 뇌 발달이나 이런 것들은 청소년기 이전에 거의 완성이 된다고는 얘기는 들었어. 이제 거기서 뭐 그런 건 이제 자세히 뭐 파고 들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어 어떻게 좀 이렇게 슬기롭게 운동하자 라는 내용은 좀 겹치는 내용이지는 한데 너무 규제 쪽에만 집중이 돼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어 이거를 좀 왜 반대를 구체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어. 그냥 해결 그 반대를 어떻게 하자가 아니라 왜 어떤 의견에서 반대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은 거야. 나는</p>
화자1	<p>내가 아까도 말했듯이 뇌발달에도 저해가 되지만 약간 사람 사회생활이나 나중에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 살 때 우리가 핸드폰 하고만 살 게 아니잖아. 기기랑만 살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상호 작용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핸드폰에 집중이 돼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문자로만 대화하는 게 뭔가 편해진다는 게 사회성 기르는 데 그렇게 뭔가 100프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 얼굴을 마주 보고 얘기해야 될 때도 있는 거고 근데 요즘에는 막 배달 전화도 직접 전화 거는 거를 못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전화 뭐 전화 공포증도 생기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휴대폰을 계속 그렇게 만지도록 놔두면은 응 그렇게 되니까</p>
<p><소주제 4> 화자2</p>	<p>반대로 그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맺어지는 관계도 있어. 예를 들어서 뭐 말한 것처럼? 스마트폰이 이제 관계를 단절시킨 다는 좀 단점이 되게 크게 두각이 되기는 하는데 뭐 스마트기기는 오락기기는 스마트폰으로만 맺을 수 있는 관계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도 사실 무시할 수 없기도하고 스마트 시대가 된 상황에서 그런 관계가 더 많아질 거란 말이지 서로 대면 하는 것보다? 근데 청소년기 때부터 막 관계 뭐 이제 서로 떠돌고 서로 이제 관계를 맺는다 라는 것에 그 그런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스마트 기기를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는 게 맞는지 나는 모르겠어.</p>
화자1	<p>근데 그 관계를 관계를 우리가 맺고 하는 이유가 청소년기에는 자기가 즐거울려고 다른 친구들이랑 맺는 그런 게 크잖아. 뭔가 사회적 이유보다는 자기가 본인이 즐겁고 같이 어울리고 그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이 오이시디에서 행복 순위 꼴찌래. 그렇게 기기 활용도가 높은 나라에서 오이시디 기준 꼴찌면은 그게 관계에 뭔가 그거를 그렇게 관계를 지속해서</p>

	좋은 게 많이 있으면은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야.
화자2	어 행복도가 스마트기기를 활용함에 있어서랑은 난 연관성을 못 느끼겠는게 행복도는 알다시피 높은 사교육열 이라든지 경쟁사회에서 청소년들이 느끼는 그 괴리감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거기서 해소할 수 있는 기기로 나는 청소년들이 스마트 기기를 많이 활용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옛날에 나 이제 운동장에서 공 차고 뛰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이나 피시방이나 그런 이제 기기를 운영하는 곳에서 친구들 만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잖아. 요즘엔
화자1	근데 직접 얼굴을 마주 보고 이렇게 상호 작용을 하는 게 그게 요즘에 요즘 세상에는 좀 기계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능력이 될 수 있는 시대잖아? 근데 핸드폰으로 계속 이렇게 뭔가 어떤 참거 옆에서 어떤 참 참견도 없이 그냥 놔두면은 애들이 뭔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그런 능력 같은 게 없어짐 없어짐 없어져 가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있는 거지.
화자2	확실히 그 사람들 간의 관계는 스마트폰 시대가 좀 이렇게 도래했다고 해도 서로 대화를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 사실 두 개를 좀 이게 의견이 좀 접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
화자2	스마트 기기에 유리함은 취하면서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중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어 사전에 예방을 해보자. 청소년 때부터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화자1	그렇지. 청소년기에 좀 그렇게 막 내가 말하는 거 막 그렇게 거창한 규제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변에서 조금씩 더 도와주고 그거를 관련해서 청소년 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분들도 같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지.
화자2	그렇지 어떻게 보면은 좀 유리하게 활용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교육적이나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스마트기기는 사실상 내놓을순 없긴 한데 이 주제도 사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너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나는 있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어. 특히나 청소년 때부터.
화자1	그 아무래도 청소년기엔 또 우리가 좀 사춘기라고 불리는 그런 그런 것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 할 꺼고 그러니까 뭔가 반발심을 살 정도의 규제는 할 수가 없는 거지.
화자2	그래 우리도 그래 왔으니까.
화자1	그래 우리 우리도 그렇게 했으니까. 뭔가 했으니까 이렇게 뭔가
화자2	어. 그 안에서 좀 찾아 보는 걸로 하자고.
화자1	응. 그래.

- ❖ 위의 대화는 ‘스마트폰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화자1과 화자2가 나눈 대화이다. 전체 주제 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전체 요약문
이 대화에서 화자1과 화자2는 스마트폰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4.2. 화자별 또는 소주제별 요약

- 두 번째 문장부터는 화자별 또는 소주제별로 대화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다. 제시된 대화에 따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요약할 수 있다.
- 대화의 흐름에 따라 요약하지 않고 소주제별 흐름에 따라 요약한다.
- 화자별 요약 내용을 참고하되, 화자별 요약을 그대로 옮겨 작성하지 않고 재정리한다.
- 소주제별로 요약할 경우, 소주제에 대한 언급으로 문장을 시작한다.
- 화자별로 요약할 경우, ‘화자1은~’으로 문장을 시작한다.
- 대화에 따라 화자 간 발화의 양이 불균형할 때가 있는데, 이는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특정 화자의 발화 양이 많더라도 너무 압축하지 않는다.
- 소주제에 대한 화자별 발화 요약에 기반하여 내용을 작성하되 추상화하여 작성한다.

- ❖ 아래의 소주제에 대한 화자별 요약은 ‘4.1. 전체 주제 제시’에서 제시된 대화를 읽고 요약한 것이다. 대화와 화자별 요약을 이해하고, 전체 요약문을 작성한다.

소주제 번호	소주제	화자1 발화 요약	화자2 발화 요약
1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지도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을 막기 위해 규제보다는 가족 구성원들의 교육이 필요하다.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사회이므로 오히려 사회적 흐름을 받아들이는 교육이 필요하다.
2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규제 방법	학교나 가정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 침해이다.
3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규제 필요성	청소년기는 자제력이 부족한 시기이므로 스마트폰에 중독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은 뇌 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성을 기르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규제에만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4	스마트폰과 인간 관계	직접 얼굴을 마주 보고 상호 작용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며, 현실에서의 인간관계가 청소년의 행복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스마트폰으로만 맺을 수 있는 관계가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맺어지는 관계는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 ❖ '4.1. 전체 주제 제시'에서 제시된 대화와 위의 소주제에 대한 화자별 요약은 바탕으로 전체 요약문을 작성할 때, 전체 요약문(1)과 같이 소주제별로 요약을 할 수도 있고, 전체 요약문(2)와 같이 화자별로 요약을 할 수도 있다.

전체 요약문(1) - 소주제별 요약
<p>이 대화에서 화자1과 화자2는 스마트폰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규제 필요성에 대해 화자1은 청소년기에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게 되면 뇌 발달, 사회성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가정에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한 반면, 화자2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규제에만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규제 방법 및 사용 지도에 대해서는 화자1은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하며, 지나친 규제보다는 가족 구성원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나, 화자2는 사회적 흐름을 받아들이는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며,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 침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을 통한 인간관계 형성에 대해서 화자1은 대면한 상태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은 하나의 능력이라고 말한 반면, 화자2는 스마트폰만으로 맺을 수 있는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인간관계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p>

전체 요약문(2) - 화자별 요약
<p>이 대화에서 화자1과 화자2는 스마트폰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화자1은 청소년기는 자제력이 부족한 시기이며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은 뇌 발달, 사회성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학교나 가정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화자2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자유 침해이고 스마트폰으로만 맺을 수 있는 인간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점점 증가하고 있으므로 규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사회적 흐름을 받아들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4.3. 마무리

- 대화를 마무리하는 구간이 없는 경우, 화자별 또는 소주제별 요약으로 전체 요약문을 끝낸다.
- 대화를 마무리하는 구간이 있는 경우, 마지막 문장에 대화를 마무리하는 내용을 작성한다.

화자	원문
<p><소주제 2> 화자3</p>	<p>혹시 그 지역 내에 기피 시설 설치에 대해서 또 우리는 많이 생각해 봤잖아. 혹시 그거에 대해 생각하는 게 있어? 이게 뭐 나는 지금은 이사를 한 상태긴 하지만 그 전에 같은 동네에 살았을 때 뭐 주변에 공장도 좀 많았었 몇 개 있었고 그리고 뭐 범죄자 에 대한 관련된 시설물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좀 피해를 봤던 게 일단 공장 쪽으론 하수 냄새 그런거 범죄자에 대한 좀 두려움 이런 거 때문에 안 좋았다 생각을 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p>
<p><소주제 1> 화자1</p>	<p>나는 뭐 딱히 기피 시설을 설치한다 해서 안 좋은 건 없을 거 같아. 이게 만약에 기 기피 시설을 우리 동네에 새로 설치한다 하면</p>

	<p>이 복지 같은 것도 나라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거든. 그 최근에 우리 할머니가 할머니 집에 약간 쓰레기 시설 이런 게 들어왔는데 이 복지를 좀 많이 줬다고 들었어. 그런 거 보면 좀 너그럽게 맘이 열리지 않을까?</p>
화자2	<p>근데 아무리 이런 복지를 해 줘도 약간 네가 아까 말한듯이 쓰레기장 이런 거를 주위에 만들면은 냄새가 좀 많이 올라 올 것 같아.</p>
<소주제 2> 화자2	<p>만약에 한 저녁 7시 쯤에 여름에 더워 가지고 창문 열고 밥을 먹는데 약간 이런 좀 안 좋은 냄새가 흘러 들어온다 그러면 또 짜증 나거든. 이 그냥 좀 좀 사소한 거긴 한데 너무 사람을 약간 스트레스 받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해야 되나 좀 스트레스 인 거 같아. 이런 기피 시설이 내 근처에 있는 거는</p>
<소주제 1> 화자3	<p>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만약 나한테 이득이 됐으면은 좋지. 손해를 보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생각을 하거든 물론 뭐 보상으로 이렇게 채워 준다고 하긴 하는데 나는 그 잠깐의 보상 보 크게 보상을 받는 거 같지도 않아.</p>
<소주제 2> 화자3	<p>잠깐의 보상으로 내가 진짜 만약에 이제 집을 사서 내 여기서 만약에 내 인생의 마지막을 뭐 이렇게 지낸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여기서 쭉 지낸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냄새가 나고 아니면은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집값이 떨어지거나 막 이러면은 좀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좀 정신 건강에 해롭지 않을까?</p>
<소주제 1> 화자1	<p>근데 이 복지를 내가 들어봤는데 그냥 마냥 돈으로만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차후 미래까지 생각을 해서 주더라고 만약에 동네 주변에 기피 시설 하나 설치하면 일단 금융적인 그거는 물론 복지도 물론 들어가고 이 기피 시설 하나 들어갔으니까 이 관광지 관광지 사업 이런 것도 같이 지어가지고 그 주변을 완전히 좀 황폐화 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 같이 발전시켜서 집값 하락도 최대한 막아주고 혹시라도 떨어지면 그거까지 다 보상을 해 주더라고 그리고 요즘 기피 시설 설치가 되도 뭐 소음이나 냄새 약취 이런 거는 최대한 많이 걸러지게 만들더라고 요즘 기술이 많이 발전했잖아. 그래서 나는 오히려 난 좋을 거 같기도 해.</p>
<소주제 2>	<p>이게 요즘 층간 소음 하는 데도</p>

<p>화자2</p>	<p>칼부림 나는 세 세상인데 뭐 집 앞에 군사시설 총소리가 들린다든지 아니면 쓰레기장 냄새가 나고 하수구 처리장 주변에 수질이 안 좋아지고 그냥 이런 것들이 내 집 옆에 있다 그러면은 썸 화날 거 같아 왜 굳이 우리 집 옆에 다 하고 왜 우리 집값이 보상을 해준다 했는데 전 가구들 다 그 떨어진 집값만큼 절대로 보상 안 해줄 거거든. 요즘 또 집값에 예민한데 뭐 복지를 해주면 뭐해 나중에 거기서 평생 살 사람도 아닐 평생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팔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갑자기 기피 시설 들어와서 집값이 떨어져 그러면은 그 엄청난 피해가 막심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극구 반대야.</p>
<p>화자3</p>	<p>근데 또 생각을 해 보면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반에 도움 반 친구가 두 명이나 있었잖아. 이제 그러면서 뭐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굉장히 좀 중간에 도움 반으로 가면서 이렇게 부딪히는 순간이 많이 없었는데도 반 친구들이 굉장히 불편했던 적이 많고 또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던 것도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우리 집 옆에 장애인 복지시설 같은 게 생겨서 그런 사람이 진짜 여러 명이 모여 가지고 막 하다가 이게 뭔가 정신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면은 신체적으로 부족한 사람이면은 좀 괜찮은데 정신적으로 모자란 사람이 만약에 해 뭐 우리를 해코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재산상에 뭐 피해를 입힌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하 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또 뭐 어떻게 하기도 좀 힘들 거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p>
<p>화자1</p>	<p>근데 그건 너무 극 극히 좀 엄청 적은 일이잖아 엄청 발생할 확률이 적은 일이고 일단 우리 집 주변으로 들어오면 우리 집 좀 가까이 하수처리시설이 있거든. 물론 가끔 엄청 가끔 냄새가 조금 조금씩 나긴 해. 근데 그 바로 옆에 하천도 있는데 그 하천이 되게 사람들도 많이 걸어 다니고 오염도 별로 아 오염도 거의 안되고 되게 물고기 같은 것도 많고 철새 같은 것도 많이 날아다닌단 말이야. 그런 걸 보면 뭐 엄청 가끔 나는 악취 같은 것만 조금 참으면</p>

	<p>충분히 뭐 평상시와 다를 거 없이 사람들이 막 살아가는데 딱히 문제가 될 거 같진 않아.</p>
<p><소주제 3> 화자2</p>	<p>근데 나는 그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그 조금이라도 되는 그 문제를 굳이 우리 집 옆에다 생기게 하고 싶지 않거든. 그게 그런 뭐 하수구 처리장이 오겠다 했는데 그게 없었으면 아마 물고기가 더 많이 있고 철새도 더 많이 날아 다니고 간간히 나는 그 냄새도 안 나고 솔직히 그런 거 있으면 좀 건강에도 안 좋을 거 같잖아. 안 좋다는 건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뭐 옆에 안 좋은 냄새가 나고 안 좋은 물 뭐 떠다니고 뭐 그러면은 건강에도 안 좋을 거 같아. 요즘 또 건강이 중요한데 그 아파트에 뭐 우리야 그나마 좀 괜찮은데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라든지 좀 그런 윗분들은 돌아다니기 힘들지 않을까?</p>
<p><소주제 1> 화자3</p>	<p>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안전불감증을 지금 name이 가지고 있는 거 같아. 이게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되게 진짜 겪고 있는 사람들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 본인은 회피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제 진짜로 너에게 네가 재산상에 피해를 입고 만약에 진짜 집값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장애인이 와서 뭐 해를 가한거나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난다거나 그런 상황이 와도 너는 그냥 복지 받으니까 이러면서 살 수 있을 거 같아?</p>
<p>화자1</p>	<p>내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그런 약간 위험시설 같은 게 들어오면 난 오히려 더 보안 같은 게 그 복지에 껴서 보안을 더 쳐 철저히 해준다는가 주변에 막 경찰 이런 사람들 배치를 더 많이 한다는가 순찰 횟수를 늘린다는가 이런 게 더 많아질 거란 말이지. 그래서 나는 안전이 훨씬 더 강화된다 오히려 좋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충분한 보상 받고 안전까지 보장되고 이렇게 복지를 해 주면 나는 안 받아들이 이유가 없다 생각해.</p>
<p>화자2</p>	<p>근데 그 보안을 더 신경 써준다는 뜻이 다른 웬만한 곳보다 더 위험하다는 뜻 아닐까?</p>

	<p>다른 곳은 그냥 아무런 뭐 위협 없이 그냥 잘 다니는데 괜히 안전이 좀 더 좀 유별나게 크게 있고 보안이 더 신경 써 있는 데를 가면은 나는 더 신경 쓰일 거 같아. 조금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야 되나 신경을 더 쓴다고 생각해.</p>
<p><소주제 3> 화자3</p>	<p>만약에 내가 나한테 이런 상황이 온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물론 뭐 이렇게 해서 뭐 찬성하고 반대하고 뭐 따라서 따라서가 아니라 뭐 반대를 한다고 한들 뭐 위에서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이렇게 다 결정해서 하겠지만 뭐 어쩔 수 없이 뭐 받아들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고른다면 이 복지 환경 이런 거 보단 그냥 내가 살기 편하게 정말 이기적인 생각이긴 한데 뭐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 같고 나는 찬성을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p>
<p>화자1</p>	<p>그것도 맞긴 한데 일단 우리나라의 필요해서 짓는 시설일 거 아니야. 이게 불필요하면 왜 짓겠어 기피 시설을 이게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니까 찾다 찾다가 이제 괜찮은 곳 이시 있어서 거기에 이제 제시를 하는 거일 텐데 이걸 무조건적으로 이제 나에게 입는 피해만 생각을 해서 반대를 하게 된다면 이건 너무 이기적인 일일 거 같아. 이게 사람 그 그 사람들이 너희 그냥 이거 다 뒤집어 써라 이렇게 하고 그냥 짓는 것도 아니고 충분한 복지하고 충분한 보상 같은 거를 다 주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동네 주변에 짓는다는 이유가 다 있을 거 아냐 제 제일 괜찮고 지어도 상관없겠다라 생각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니까 나는 약간 음 어차피 필요해서 지어지는 거니까 책임감을 갖고 그냥 하는 것도 좋다 생각해.</p>
<p>화자2</p>	<p>나는 이 지역 내 기피 시설 설치가 복지를 위장한 그냥 뒤집어씌우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냥 뭐 조금 뭐 떼어줄 테니까 그냥 너희 집 옆에다가 그냥 안 좋은 거 몸에 안 좋고 냄새나고 그런 거 이런 거 그냥 짓겠다 난 이렇게 밖에 생각이 들 할 수 없거든.</p>

	<p>그냥 나는 아무런 지장 없이 집에서 조용히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괜히 그냥 갑자기 옆에다가 뭘 짓 뭐 안 좋은 거 시끄럽고 그런 걸 짓는다 하면은 나는 정말 안 좋다 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사람 많이 없는 외진 곳에 좀 짓는다든가 차라리 그냥 좀 땅굴을 파서 뭐 지하 뭐 이런 이런 쪽 이런 데다 그냥 아무도 없이 지으면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공문으로 해 가지고 뭐 일자리도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더 좋을 거 같아.</p>
화자3	<p>어 나도 저 말에 굉장히 찬 찬성을 하는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되게 어 굉장히 놓고 있는 땅 그게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곳예다가 이제 나라가 정말 이게 필요로 하다 하면은 그만큼의 투자를 하고 뭐 복지 혜택으로가 아닌 정말 필요한 곳예다가 이렇게 아니 필요 없는 공간예다가 이렇게 사용을 함으로써 이렇게 하면은 더 좋게 되지 않을까 싶어.</p>
<p><마무리> 화자1</p>	<p>너희 말 들어보니까 나도 생각이 좀 바뀌는 거 같아. 생각해 보니까 나도 기피 시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게 많았고 뭐 소음이나 그런 것 때문에 나 혼자서 이 화가 난 적도 되게 많았거든. 뭐 너희 말 들어보니까 찬성보단 반대가 나은 거 같아.</p>

❖ 아래의 소주제에 대한 화자별 요약은 위의 대화를 읽고 요약한 것이다. 이 대화에는 대화 전체의 주제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정리하는 마무리 구간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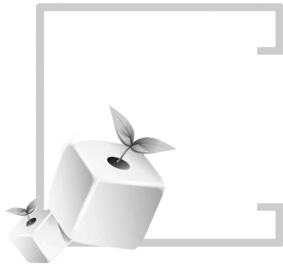
소주제 번호	소주제	화자1 발화 요약	화자2 발화 요약	화자3 발화 요약
1	기피시설 설치에 대한 복지	기피 시설 설치 시 제공되는 복지는 금전적인 측면뿐만 아 니라 지역 계발 계획까지 마 련되어 있어 지역 내 기피 시 설을 수용할 수 있다.	기피 시설 설치 시 복지 차원 으로 지역 내 보안을 해 준다 는 것은 오히려 불안감을 조 성할 수 있다.	기피 시설 설치로 제공되는 보상은 실질적인 피해를 대체 할 수 없다.
2	심리적·재산적 피해	기피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아주 적기 때문에 일 상생활에 문제 될 것이 없다.	기피 시설이 지역 내에 설치 되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 고, 집값이 떨어져 재산적 피 해를 받을 수 있다.	기피 시설이 지역 내에 설치 된다면 악취로 인해 불편을 느낄 수 있으며, 범죄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 을 것이다.
3	기피시설 설치 장소	(없음)	기피 시설은 사람이 적은 외 진 지역이나 지하 등 멀리 떨 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기피 시설은 활용되지 않는 유휴지에 설치해야 한다.

❖ 마무리 구간이 있는 경우, 마지막 문장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전체 요약문
<p>이 대화에서 화자1, 화자2, 화자3은 지역 내 기피 시설 설치에 대해 이야기했다. 화자1은 지역 내 기피 시설 설치 시 제공되는 금전적인 복지뿐만 아니라 지역 계발 계획 마련 등 복지가 충분히 제공되며, 기피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아주 적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화자2는 기피 시설 설치 시 복지 차원으로 지역 내 보안을 해 준다는 것이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으며, 악취, 소음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집값이 떨어져 재산적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화자3 또한 기피 시설 설치로 제공되는 보상은 실질적이 피해를 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악취로 인한 불편함, 범죄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화자2와 화자3의 의견을 통해 화자1은 기피 시설로 인한 불편한 기억이 떠올랐으며, 반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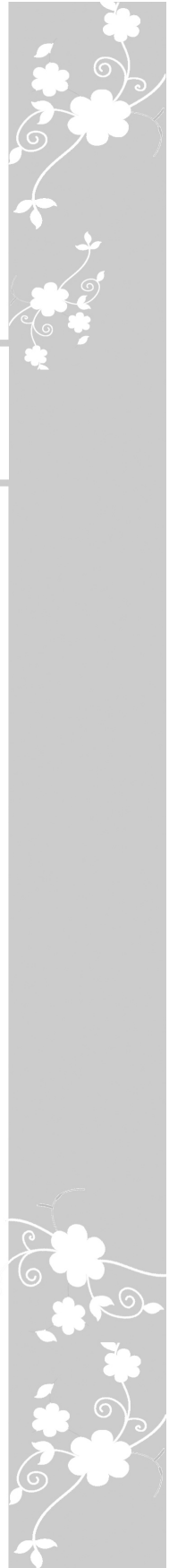
4.4. 주의 사항

- 전체 요약문은 700자 이내로 작성한다.
- 전체 요약문은 요약자의 입장에서 기술하며, 작성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 각 화자의 생각을 간접 인용의 형식으로 기술한다.
- 시제는 과거 시제를 사용한다.
- 어문 규범에 맞게 작성한다.
 - 대화 원문에 어문 규범에 맞게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어문 규범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한다.
 - 예) 폰 → 휴대 전화
 - 대화 원문에 띄어쓰기 오류가 있을 때, 요약문에 작성할 때에는 어문 규범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한다.
 - 예) 몇 년 간 → 몇 년간
 - 반찬가게 → 반찬 가게 (<우리말샘> ‘반찬 가게’로 등재)
 - 학교 생활 → 학교생활 (<우리말샘> ‘학교-생활’로 등재)
 - 학교폭력 → 학교 폭력 (<우리말샘> ‘학교^폭력’으로 등재)
 - 고유명의 경우, 어문 규범에 맞게 작성한다.
 - 예) 서래마을 → 서래 마을
 - 외국 문자의 약어인 경우 대문자로 작성하거나, <우리말샘>에 등재가 되어 있는 경우 등재어로 작성한다.
 - 예) CCTV → CCTV 또는 시시 티브이



붙임 4

신문 사설 요약문 평가 지침



신문 사설 요약문 평가 지침

ver. 1.0

2025.6.9.
한림대

목차

1. 개요	1
1.1. 지침의 목적	1
1.2. 관련 사업	1
2. 평가 영역 및 하위 준거	1
2.1. 내용	2
2.1.1. 문제 상황	2
2.1.2. 주장	3
2.1.3. 논거 또는 실천 방안	4
2.2. 조직	5
2.3. 표현	6
<신문 사설 요약문 평가 기준표>	7
3. 평가 수행 및 점수 산출	8
3.1. 영역별 배점	8
3.2. 하위 준거별 중요도	8
3.3. 점수 산출	9
<신문 사설 요약문 점수 산출 예>	10
3.4. 평가 근거 작성	12
<신문 사설 요약문 평가 배점표>	14
<신문 사설 요약문 평가 배점표(요약)>	16

1. 개요

1.1. 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신문 사설 요약문을 평가하는 방안을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요약문에 신문 사설의 주요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한 편의 완결된 글로서 잘 조직되어 있는지, 표현이 정확하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2. 관련 사업

이 지침은 국립국어원의 '2025년 대화 및 텍스트 요약 말뭉치 구축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서 신문 사설 요약문을 평가하기 위한 지침이다.

2. 평가 영역 및 하위 준거

요약문은 내용, 조직, 표현의 세 가지 영역을 평가한다. 다만 내용, 조직, 표현 영역 중 내용 영역의 가중치를 더 주기 위하여 내용 영역의 평가 준거는 3개, 조직과 표현 영역의 평가 준거는 각 1개로 구성하였다. 요약문의 평가 영역 및 준거는 「2023년 국민의 글쓰기 능력 진단 체계 개발」(국립국어원, 2023)을 참고하였고, 「2024년 말뭉치 요약 연구 분석」(국립국어원, 2024)의 신문 사설 요약문 평가 지침을 수정·보완하였다.

영역	내용			조직	표현
준거	문제 상황	주장	논거 실천 또는 방안	긴밀성 및 완결성	문장 및 어휘

2.1. 내용

‘내용’에서는 신문 사설에서 (1) 논자가 문제 삼고 있는 상황, (2) 주장, (3) 주장에 대한 논거 또는 주장을 실현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적절하게 요약했는지 평가한다. ‘문제 상황’은 다시 세 가지의 하위 준거로, ‘주장’은 네 가지의 하위 준거로, ‘논거 또는 실천 방안’은 네 가지의 하위 준거로 평가한다. 아래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다.

2.1.1. 문제 상황

‘문제 상황’은 논자가 사설을 통해 문제 삼고 있는, 즉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사회적 배경 혹은 상황이다. 신문 사설에서 논자가 논의의 주제로 삼은 문제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요약하였는가를 판단한다. ‘문제 상황’이라는 평가 준거는 ‘문제 상황의 적절성’, ‘문제 상황의 완전성’, ‘문제 상황의 명료성’의 세 가지 하위 준거로 구성된다.

- 문제 상황의 적절성
 - ▷ ‘문제 상황의 적절성’은 신문 사설에서 논자가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사회적 배경 혹은 상황을 요약문에서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준거이다. 이때 요약문에서 제시한 문제 상황은 사설에서의 논자의 주장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이어야 한다.
- 문제 상황의 완전성
 - ▷ ‘문제 상황의 완전성’은 신문 사설에 제시된 문제 상황이 주요 정보의 누락 없이, 정보적으로 완전하게 요약되었는지 평가하는 준거이다. 즉, 신문 사설에 제시된 문제 상황을 구성하는 주요 정보들이 요약문에서도 빠짐없이 제시되어야 한다.
- 문제 상황의 명료성
 - ▷ ‘문제 상황의 명료성’은 신문 사설에서 논자가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사회적 배경 혹은 상황이 요약문에서 명료하게 드러나는지 평가하는 준거이다. 신문 사설에서 여러 문장으로 기술된 문제 상황이 요약문에서 불필요한 정보 없이 핵심 정보 위주로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2.1.2. 주장

‘주장’은 논자가 사설을 통해 궁극적으로 내세우는 의견이다. 신문 사설에서 논자가 중심으로 주장하는 의견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요약하였는가를 판단한다. ‘주장’이라는 평가 준거는 ‘주장의 적절성’, ‘주장의 완전성’, ‘주장의 명료성’, ‘논조 강도의 일관성’의 네 가지 하위 준거로 구성된다.

- 주장의 적절성
 - ▷ ‘주장의 적절성’은 논자의 핵심 주장을 요약문에서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 평가하는 준거이다. 이때 요약문에서 제시한 주장은 신문 사설의 내용 중 일부에 해당되는 주장이 아닌, 사설 전체의 주장으로서 적절해야 한다.
- 주장의 완전성
 - ▷ ‘주장의 완전성’은 신문 사설을 통해 드러나는 논자의 주장이 주요 정보의 누락 없이, 정보적으로 완전하게 요약되었는지 평가하는 준거이다. 즉, 신문 사설에 제시된 주장을 구성하는 주요 정보들이 요약문에서도 빠짐없이 제시되어야 한다.
- 주장의 명료성
 - ▷ ‘주장의 명료성’은 신문 사설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장이 요약문에서 명료하게 드러나는지 평가하는 준거이다. 신문 사설에서 주장이 상위 주장과 하위 주장 등으로 다양하게 기술되어 있어도, 요약문에서는 불필요한 정보 없이 핵심 주장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논조 강도의 일관성
 - ▷ ‘논조 강도의 일관성’은 신문 사설에서 어휘나 양태 표현 등으로 드러나는 논자의 논조 강도가 요약문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는지 평가하는 준거이다. 신문 사설에서는 논자가 주장을 강경한 어조로 드러냈는데 요약문에서 온건한 어조로 바뀌어서는 안 되며, 그 반대가 되어서도 안 된다.

2.1.3. 논거 또는 실천 방안

‘논거 또는 실천 방안’은 논자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주장에 대한 논거 또는 주장을 실현하기 위해 제시한 구체적인 방안이다. 신문 사설에서 논자가 제시한 논거 또는 구체적 실천 방안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충분히 요약하였는가를 판단한다. ‘논거 또는 실천 방안’이라는 평가 준거는 ‘논거 또는 실천 방안의 총망라성’, ‘논거 또는 실천 방안의 적절성’, ‘논거 또는 실천 방안의 완전성’, ‘논거 또는 실천 방안의 명료성’의 네 가지 하위 준거로 구성된다.

- 논거 또는 실천 방안의 총망라성
 - ▷ ‘논거 또는 실천 방안의 총망라성’은 신문 사설에서 논자가 제시한 논거 또는 실천 방안이 양적으로 빠짐없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는 준거이다. 즉 신문 사설에서 논자가 논거 또는 실천 방안을 세 가지 제시하였으면, 요약문에서도 이 세 가지가 다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 논거 또는 실천 방안의 적절성
 - ▷ ‘논거 또는 실천 방안의 적절성’은 신문 사설에서 논자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근거나 구체적 실천 방안을 요약문에서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 평가하는 준거이다. 이때 요약문에서 제시한 논거나 구체적 실천 방안은 신문 사설의 핵심 주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어야 한다.
- 논거 또는 실천 방안의 완전성
 - ▷ ‘논거 또는 실천 방안의 완전성’은 신문 사설에서 논자가 제시한 논거 또는 실천 방안들이 주요 정보의 누락 없이, 정보적으로 완전하게 요약되었는지 평가하는 준거이다. 즉, 신문 사설에 제시된 논거 또는 실천 방안을 구성하는 주요 정보들이 요약문에서도 빠짐없이 제시되어야 한다.
- 논거 또는 실천 방안의 명료성
 - ▷ ‘논거 또는 실천 방안의 명료성’은 신문 사설에서 논자가 제시한 논거 또는 실천 방안들이 요약문에서 명료하게 드러나는지 평가하는 준거이다. 신문 사설에서 논자가 구체적으로 기술한 논거 또는 실천 방안들을 불필요한 정보들은 삭제하고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요약하여 명료하게 드러내야 한다.

[주의] ‘논거 또는 실천 방안의 총망라성’과 ‘논거 또는 실천 방안의 완전성’은 그 평가 대상이 다르다. ‘논거 또는 실천 방안의 총망라성’은 여러 가지 논거 또는 실천 방안이 빠짐없이 요약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인 반면, ‘논거 또는 실천 방안의 완전성’은 각각의 논거 또는 실천 방안을 구성하는 내용적인 요소들, 즉 정보들이 누락 없이 완전하게 요약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2.2. 조직

‘조직’에서는 요약문을 이루는 문장들이 자연스럽게 긴밀하게 연결되며, 하나의 완결된 글로 조직되었는지 평가한다. ‘조직’이라는 영역을 구성하는 평가 준거는 ‘긴밀성 및 완결성’이다.

‘긴밀성 및 완결성’이라는 평가 준거는 요약문이 한 단락의 짧은 글이지만 한 편의 완결된 글로 긴밀하게 조직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신문 사설에서 논자가 제시한 문제 상황, 주장, 논거 또는 실천 방안 등을 담은 문장들이 요약문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며, 신문 사설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배열되었는지,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글로 읽힐 수 있도록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한다. ‘긴밀성 및 완결성’이라는 평가 준거는 ‘문장 간 긴밀성’, ‘문장 배열의 적절성’, ‘요약문의 완결성’의 세 가지 하위 준거로 구성된다.

- 문장 간 긴밀성

- ▷ ‘문장 간 긴밀성’은 ‘문제 상황’, ‘주장’, ‘논거 또는 실천 방안’ 등 요약문을 구성하는 문장들이 단순 나열되지 않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었는지 평가하는 준거이다. 중요 문장들을 단순 나열하지 않고 접속부사나 연결어미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였는지 판단한다.

- 문장 배열의 적절성

- ▷ ‘문장 배열의 적절성’은 ‘문제 상황’, ‘주장’, ‘논거 또는 실천 방안’ 등 요약문을 구성하는 문장들이 신문 사설에서 논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순서로 배열되었는지 평가하는 준거이다. 이때 신문 사설의 논지 전개 순서를 그대로 따랐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주요 내용들을 요약문에서 적절하게 재구조화하였는지 판단한다.

- 요약문의 완결성

- ▷ ‘요약문의 완결성’은 요약문이 하나의 완결된 글로 작성되었는지 평가하는 준거이다. 요약문이 미완의 인상을 주지 않는지, 요약문의 마무리가 잘 되었는지를 판단한다.

2.3. 표현

‘표현’은 요약문의 내용적인 측면이 아닌 형식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영역이다. 즉, 요약문을 문단, 문장, 어휘, 표기 차원에서 평가한다. ‘표현’ 영역의 평가 준거는 ‘문장 및 어휘’이다.

‘문장 및 어휘’에서는 요약문이 적절한 길이로 작성되었는지, 요약문을 구성하는 문장들이 문법적인지,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여 다시쓰기하였는지, 직시 표현을 적절하게 환언하였는지, 어문 규범을 준수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문장 및 어휘’라는 평가 준거는 ‘문단 형식의 적절성’, ‘문장의 문법성’, ‘어휘 사용의 적절성’, ‘직시 표현 환언’, ‘어문 규범 준수’의 다섯 가지 하위 준거로 구성된다.

- 문단 형식의 적절성
 - ▷ ‘문단 형식의 적절성’은 요약문이 한 문단으로 작성되었는지, 3~4개의 문장으로 작성되었는지 평가하는 준거이다. 이때 문장 수의 기준만을 충족해서는 안 되며, 3~4개의 문장이 300자 이내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글자 수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 문장의 문법성
 - ▷ ‘문장의 문법성’은 요약문을 구성하는 문장들을 문법적인 문장으로 작성하였는지 평가하는 준거이다. 이때 문법성은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는지, 어순이 적절한지, 서술어의 논항 구조가 적절하게 드러나는지 등을 통해 판단한다.
- 어휘 사용의 적절성
 - ▷ ‘어휘 사용의 적절성’은 신문 사설의 주요 문장들을 다시쓰기하면서 사용한 어휘가 적절한지 평가하는 준거이다. 어휘 사용의 적절성은 다시쓰기할 때 같은 의미를 가진 어휘를 적절하게 사용하였는지, 바꿔 쓴 어휘로 인해 초점이 흐려지지 않았는지 등을 통해 판단한다.
- 직시 표현 환언의 적절성
 - ▷ ‘직시 표현 환언의 적절성’은 신문 사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직시 표현을 적절하게 바꾸어 썼는지 평가하는 준거이다. 일반적으로 신문 사설에서는 지난해, 올해, 이달, 어제 등의 직시 표현이 자주 쓰이는데, 직시 표현들을 적절하게 환언하여 신문 사설의 메타정보가 없어도 요약문을 독립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되었는지 판단한다.
- 어문 규범의 정확성
 - ▷ ‘어문 규범의 정확성’은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준수하여 요약문을 작성하였는지 평가하는 준거이다. 사설 원문에 띄어쓰기 등의 오류가 있어도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어문 규범에 맞게 수정하였는지 평가해야 한다. 오탈자의 유무, 적절한 기호 사용 등도 어문 규범 준수의 평가에 포함된다.

이상의 평가 준거들을 정리한 신문 사설 요약문 평가 기준표는 아래와 같다.

<신문 사설 요약문 평가 기준표>

영역 / 준거	내용			조직	표현
	문제 상황	주장	논거 또는 실천 방안	긴밀성 및 완결성	문장 및 어휘
하위 준거	<p>▶ 문제 상황의 적절성 : 요약문에서 제시한 문제 상황이 논자의 주장과 밀접하게 관련되는가?</p> <p>▶ 문제 상황의 완전성 : 문제 상황의 주요 정보가 빠짐없이 들어 있어 정보적으로 완전한가?</p> <p>▶ 문제 상황의 명료성 : 요약문에서 논자가 제시한 문제 상황이 불필요한 정보 없이 명료하게 드러나는가?</p>	<p>▶ 주장의 적절성 : 요약한 주장이 사실 전체의 주장으로 적절한가?</p> <p>▶ 주장의 완전성 : 주장의 주요 정보가 빠짐없이 들어 있어 정보적으로 완전한가?</p> <p>▶ 주장의 명료성 : 요약문에서 논자의 주장이 불필요한 정보 없이 명료하게 드러나는가?</p> <p>▶ 논조 강도의 일관성 : 요약문에서 주장에 대한 논자의 논조 강도가 원문과 일관되게 유지되는가?</p>	<p>▶ 논거 또는 실천 방안의 총망라성 : 논자가 사실에서 제시한 여러 항목의 논거 또는 실천 방안들을 모두 담았는가?</p> <p>▶ 논거 또는 실천 방안의 적절성 : 요약한 논거 또는 실천 방안이 사실의 주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가?</p> <p>▶ 논거 또는 실천 방안의 완전성 : 각 논거 또는 각 실천 방안의 주요 정보가 빠짐없이 들어 있어 정보적으로 완전한가?</p> <p>▶ 논거 또는 실천 방안의 명료성 : 논거 또는 실천 방안이 불필요한 정보 없이 명료하게 드러나는가?</p>	<p>▶ 문장 간 긴밀성 : 요약문을 이루는 문장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는가? (접속 부사, 연결 어미의 사용)</p> <p>▶ 문장 배열의 적절성 : 요약문을 이루는 문장들이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열되었는가?</p> <p>▶ 요약문의 완결성 : 요약문이 하나의 완결된 글로 작성되었는가?</p>	<p>▶ 문단 형식의 적절성 : 한 문단, 3~4문장, 300자 이하의 길이로 요약문을 작성하였는가?</p> <p>▶ 문장의 문법성 : 요약문을 구성하는 문장들을 문법적인 문장으로 작성하였는가? (주술 호응 등)</p> <p>▶ 어휘 사용의 적절성 : 다시쓰기를 하며 사용한 어휘가 적절한가?</p> <p>▶ 직시 표현 환언의 적절성 : 직시 표현을 적절하게 환언하였는가?</p> <p>▶ 어문 규범의 정확성 :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준수하였는가? (오탈자 유무 포함)</p>

3. 평가 수행 및 점수 산출

3.1. 영역별 배점

요약문은 '내용', '조직', '표현'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세 영역의 각 평가 준거는 7점 척도로 평가하는데, 7점 척도는 7점이 100점, 1점이 0점에 해당된다.

- '내용'은 '문제 상황', '주장', '논거 또는 실천 방안' 각 평가 준거당 7점 척도로 평가하여, 내용 영역의 총점은 총 21점이다.
- '조직'은 평가 준거가 '긴밀성 및 완결성' 하나로, 조직 영역의 총점은 7점이다.
- '표현'은 평가 준거가 '문장 및 어휘' 하나로, 표현 영역의 총점은 7점이다.

3.2. 하위 준거별 중요도

내용 영역의 각 하위 준거와 조직 영역의 각 하위 준거에는 위계가 있다. 내용 영역의 '문제 상황', '주장', '논거 또는 실천 방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하위 준거는 '적절성', '완전성', '명료성'인데 이들 중 '적절성'의 가중치를 가장 크게 두었으며, 명료성의 가중치는 가장 작게 두었다. 이는 적절성은 부족 한데 명료성과 완전성은 갖춘 요약문이 높은 점수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내용 영역의 '문제 상황', '주장', '논거 또는 실천 방안', 조직 영역의 '긴밀성 및 완결성' 각 하위 준거별 중요도는 아래와 같다.

내용	문제 상황		적절성	완전성	명료성	
	주장		적절성	완전성	명료성	논조 강도의 일관성
	논거 또는 실천 방안	총망라성	적절성	완전성	명료성	
조직	긴밀성 및 완결성		문장 간 긴밀성	문장 배열의 적절성	요약문의 완결성	



3.3. 점수 산출

요약문 평가자는 아래에 제시된 <신문 사설 요약문 평가 배점표>에 따라 각 평가 준거당 1~7점의 점수를 부여한다. 요약문 한 건당 3인 이상이 평가하여 인간 평가 점수를 산출한다.

<주의 사항>

- 주장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사설
 - ▷ 간혹 신문 사설 원문에서 주장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주장이 담겨 있는 문장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신문 사설 요약문 작성 지침>에 따르면 그러한 경우에도 최대한 주장에 가까운 문장을 중요 문장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설 본문에 주장이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 제목을 참고하여 주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설에 주장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요약문에는 주장이 반드시 제시되어 있어야 하며, 주장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표에 따라 1점을 부여해야 한다. 요약문에 주장이 제시되었다면, 주장의 적절성을 평가함과 동시에 논조 강도가 일관되게 유지되는지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 논거 또는 실천 방안에 주제와의 관련성이 떨어지는 논거 또는 실천 방안이 포함된 사설
 - ▷ 논거 또는 실천 방안은 보통 사설의 전체 주제, 혹은 주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나, 간혹 관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논거 또는 실천 방안이 사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신문 사설 요약문 작성 지침>에서는 이러한 사설을 요약할 때, 사설의 주장을 파악하고 제목을 참고하여 주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 위주로 요약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주제와의 관련성이 떨어지는 논거 또는 실천 방안이 포함된 사설의 요약문을 평가할 때에는 사설 원문에 제시된 모든 논거 또는 실천 방안이 다 요약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설 전체의 주제, 주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논거 또는 실천 방안 위주로 재구성하였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즉, 주장과 밀접하게,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은 논거 또는 실천 방안을 잘 삭제하였는지, 주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논거 또는 실천 방안만을 총망라하여 명확하게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신문 사실 요약문 점수 산출 예>

문서번호	NWRW2300000007.16729	
제목	[사설] 커지는 '부동산PF 부실화' 위험, 정부 경각심 가져야	
원문	<p>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부실화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최근 몇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부동산 피에프 대출이 급증했던 만큼 금융당국이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p> <p>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부동산 피에프 대출 잔액은 112조2천억원이다. 2014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이 14.9%에 이른다. 은행권이 6조9천억원 증가에 그친 반면, 제2금융권은 70조1천억원 급증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개발사업을 기초자산으로 증권사가 발행한 유동화 증권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가 152조원으로 증가하며, 한은 통계에 잡히지 않은 농협·수협, 새마을금고 등을 포함할 경우 총규모는 2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p> <p>부동산 피에프는 건설업체가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 개발사업을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받는 대출을 말한다. 금융사는 직접 대출 또는 채무보증을 제공하고 수수료와 이자를 받는다. 그러나 미분양 등으로 개발사업의 수익성이 악화하면 금융사는 대출금을 때일 위험에 노출된다.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이 겹치며 전국 주택 미분양은 지난해 12월 1만7710가구에서 올해 7월 3만1284가구로 늘었다. 그러자 은행권에선 최근 부동산 피에프 대출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고, 제2금융권에선 연 10% 이상의 초고금리를 요구한다고 한다. 강원도가 지난달 말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 사업을 하던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해 법원에 회생 신청 방침을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p> <p>부동산 피에프는 부동산 활황기에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불리지만 불황기에 접어들면 부실에 빠질 위험이 매우 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저축은행들이 부실화해 예금자들이 큰 손실을 본 저축은행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무엇보다도 잠재적인 부실 대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규제가 느슨하고 불투명한 '그림자 금융'의 특성상 위기 발생 때 불신이 팽배하면서 위기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유동화 증권의 만기가 대부분 3개월 이하여서 채권시장이 경색되면 건설사·금융사가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농협 등 상호금융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데 금융당국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한다.</p>	
요약문 작성자	A	B
요약문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화 위험이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피에프 대출 총규모는 한국은행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까지 합하면 2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피에프는 건설업체가 개발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받는 대출인데, 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하면 금융사는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부동산 피에프는 부동산 시장 불황기에 부실화 위험이 매우 크므로 금융 당국은 잠재적 부실 대출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 위험 관리에 나서야 한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다. 이 때문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부실화할 위험이 커졌다. 제2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이 급증했고 전국적으로 주택 미분양도 급증하였다. 부동산 피에프는 불황기에 부실에 빠질 위험이 매우 크다. 또한 그림자 금융의 특성상 위기가 발생하면 불신이 커질 수 있다. 금융당국과 정부는 상호 협조하여 정확한 실태 파악과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
요약문 글자 수	284	233

평가 준 거	평가 항 목	점수 (1~7)	근거	점수 (1~7)	근거
내용	문제 상 황	7	논자의 주장과 관련되는 적절한 문제 상황을 완전하고 명료하게 제시하였다.	6	논자의 주장과 관련되는 적절한 문제 상황을 제시하였으나, 명료성이 다소 부족하다.
	주장	7	사설 전체의 주장으로 적절한 주장을 완전하고 명료하게 제시하였으며, 원문과 논조 강도가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요약하였다.	7	사설 전체의 주장으로 적절한 주장을 완전하고 명료하게 제시하였으며, 원문과 논조 강도가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요약하였다.
	논거 또는 실천 방안	3	사설에서 논자가 제시한 여러 개의 논거 또는 실천 방안 중 하나는 적절하게 요약하였으나, 하나를 누락하여 충망라성이 다소 부족하다.	3	사설에서 논자가 제시한 여러 개의 논거 또는 실천 방안을 적절하게 제시하였으나, 주요 정보를 다수 누락하여 완전성이 매우 부족하다.
내용 총점		17		16	
조직	긴밀성 및 완결 성	5	사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들을 배열하였으며, 하나의 완결된 글로 작성하였으나, 접속 부사, 연결 어미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아 일부 문장이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는다.	4	하나의 완결된 글로 요약문을 작성하였으나, 문제 상황의 조직이 적절하지 않으며, 접속 부사, 연결 어미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아 일부 문장이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는다.
표현	문장 및 어휘	7	어문 규범을 준수하고 문법적인 문장들로 요약문을 작성하였으며, 요약문을 구성하는 문장 수와 전체 요약문의 분량이 적절하다.	2	어문 규범을 준수하고 문법적인 문장들로 요약문을 작성하였으나, 기준 문장 수를 초과하여 요약문을 구성하는 문장 수가 적절하지 않다.
총점		80.16		56.78	

3.4. 평가 근거 작성

평가자는 요약문에 평가 점수를 부여한 후 ‘내용’, ‘조직’, ‘표현’의 세 가지 영역별로 왜 해당 점수를 부여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근거를 작성한다.

- 평가 항목별로 문제 상황, 주장, 논거 또는 실천 방안, 긴밀성 및 완결성, 문장 및 어휘에 대한 평가 근거를 작성한다.
- 평가 항목별로 각각 한 문장으로 작성한다.
- 평가 점수가 높더라도 잘한 점을 언급한다.
예) 사실 전체의 주장으로 적절한 주장을 완전하고 명료하게 제시하였으며, 원문과 논조 강도가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요약하였다. (7점 평가 근거의 예)
- 평가 근거문은 잘한 점을 먼저 언급하고 부족한 점을 나중에 제시한다.
예) 하나의 완결된 글로 요약문을 작성하였으나, 문제 상황의 조직이 적절하지 않으며, 접속 부사, 연결 어미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아 일부 문장이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는다.
- 특히, ‘표현’ 영역인 ‘문장 및 어휘’에 대한 평가에서 점수가 감점된 부분이 있다면 감점 요인에 해당하는 예를 포함하여 기술한다.
예) 요약문을 구성하는 문장 수와 전체 요약문의 분량이 적절하나,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과 문법적이지 않은 문장이 일부 있다. (정부는~풀었다 → 보사연은 정부가 ~고 지적했다, 단기적 → 단기적으로, 거리두기 → 거리 두기)
- 피동문으로 작성하지 않고 능동문으로 작성한다.
예1) 논자의 주장과 관련되는 적절한 문제 상황이 명료하게 제시되었으나, 주요 정보가 일부 누락되어 완전성이 다소 부족하다. (×)
예2) 논자의 주장과 관련되는 적절한 문제 상황을 명료하게 제시하였으나, 주요 정보를 일부 누락하여 완전성이 다소 부족하다. (○)

<신문 사설 요약문 평가 근거 작성 예>

문서번호	NWRW2300000001.115		
제목	[사설] 보사연의 방역 비판과 자영업자 지원 촉구, 정부는 새겨야		
원문	<p>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코로나19 일상회복 실패가 정부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느슨한 지침과 불충분한 민생지원 때문에 방역이 뒷걸음쳤다고 단기적으로 37조~38조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라고 권고했다. 코로나19 사태 2주년을 앞두고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에 근본적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손실보상 확대 병행 없이는 이달 말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어렵다. 여당이 추진 중인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30조원 편성을 놓고 고심 중인 정부는 새겨들어야 한다.</p> <p>10일 보사연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민생 병행전략' 세미나에서 지적한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 실패 요인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백신 효과를 과신하다가 중증환자 발생 및 사망률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나치게 빨리, 또 너무 많이 풀었다. 방역 성과에 취해 자만했다는 분석이다. 셋째, 피해보상이 불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직접 재정지원을 꺼려서 거리 두기 완화로 소비진작을 하려다 코로나19 재확산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넷째로는 방역과 민생을 조율할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했다. 정부와 청와대가 뼈아프게 들어야 할 대목이다.</p> <p>그러면서 보사연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한편 향후 1~2개월은 현 수준의 물리적 거리 두기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계층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인데, 대상과 예산을 모두 늘려야 한다. 김부겸 총리는 일부 업종·시설에만 적용해온 손실보상률 80%를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사연의 제안처럼 일반·특수 업종별 방역조치로 영향을 받은 '모든 업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 소득 감소분을 매워주고, 폐업 자영업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지원하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정부가 이들의 빚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오는 3월 만기가 돌아오는 소상공인 대출을 최대 15년에 걸쳐 상환하도록 하거나, 정부 재정으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대대적 구조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p> <p>새해 첫주 12.5%를 기록한 오미크론 변이 감염 비중은 설연후를 기점으로 폭발할 수 있다. 겨울 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자영업자 희생을 강요하는 방역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정부가 이번주 내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욱 과감하고 두껍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나서야 한다.</p>		
요약문	<p>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코로나19 일상 회복 실패를 정부의 책임으로 보고 단기적 대규모 예산 투입을 권고했다. 정부는 백신 효과를 과신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나치게 빨리 풀었다. 또 정부의 피해 보상이 불충분했고 방역과 민생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안처럼 모든 업종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정부가 빚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p>		
영역	준거	점수	평가 근거
내용	문제 상황	5	논자의 주장과 관련되는 적절한 문제 상황을 명료하게 제시하였으나, 주요 정보를 일부 누락하여 완전성이 다소 부족하다.
	주장	4	주장을 명료하게 제시하였으나, 사설 전체의 주장으로 보기에 적절성이 다소 부족하다.
	논거 또는 실천 방안	3	사설에서 논자가 제시한 여러 개의 논거 또는 실천 방안 중 하나는 적절하게 요약하였으나, 하나를 누락하여 총망라성이 다소 부족하며, 주요 정보를 일부 누락하여 완전성이 다소 부족하다.
조직	긴밀성 및 완결성	5	사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들을 배열하였으며, 하나의 완결된 글로 작성하였으나, 접속 부사, 연결 어미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아 일부 문장이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는다.
표현	문장 및 어휘	4	요약문을 구성하는 문장 수와 전체 요약문의 분량이 적절하나,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과 문법적이지 않은 문장이 일부 있다. (정부는~풀었다 → 보사연은 정부가 ~고 지적했다, 단기적 → 단기적으로, 거리두기 → 거리 두기)
점수	73.48		

<신문 사설 요약문 평가 배점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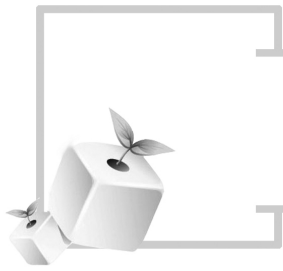
준거 / 점수	내용			조직	표현
	문제 상황	주장	논거 또는 실천 방안	긴밀성 및 완결성	문장 및 어휘
7	논자의 주장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적절한 문제 상황을 주요 정보의 누락 없이 명료하게 제시하였음.	사설 전체의 주장으로서 적절한 주장을 논조 강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요약하였고, 주요 정보의 누락 없이 명료하게 제시하였음.	사설에서 논자가 제시한 여러 개의 논거 또는 실천 방안들을 총망라하여 적절하게 요약하였으며, 각 논거 또는 각 실천 방안을 주요 정보의 누락 없이 명료하게 제시하였음.	접속 부사, 연결 어미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문장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하였고, 사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들을 배열하였으며, 하나의 완결된 글로 작성하였음.	한 문단, 3~4문장, 300자 이하의 길이로 작성하였음. 문장들이 문법적이며, 다시쓰기를 하며 사용한 어휘가 적절함. 직시 표현들을 적절하게 환언하였으며, 어문 규범을 매우 정확히 준수하였음.
6	논자의 주장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적절한 문제 상황을 주요 정보의 누락 없이 제시하였으나, 군더더기 표현이나 비유적 표현이 다소 포함됨.	사설 전체의 주장으로서 적절한 주장을 논조 강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요약하였고, 주요 정보의 누락 없이 제시하였으나, 군더더기 표현이나 비유적 표현이 다소 포함됨. 또는 사설 전체의 주장으로서 적절한 주장을 주요 정보의 누락 없이 명료하게 제시하였으나, 논조의 강도가 다소 달라짐.	사설에서 논자가 제시한 여러 개의 논거 또는 실천 방안들을 총망라하여 적절하게 요약하였으며, 각 논거 또는 각 실천 방안을 주요 정보의 누락 없이 제시하였으나, 군더더기 표현이나 비유적 표현이 다소 포함됨.	접속 부사, 연결 어미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문장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하였고, 사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들을 배열하였으나, 요약문의 완결성이 다소 부족함.	문장의 문법성, 어휘 사용의 적절성, 직시 표현 환언의 적절성, 어문 규범의 정확성 항목 중에서 1개의 위반이 나타남.
5	논자의 주장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적절한 문제 상황을 명료하게 제시하였으나, 주요 정보가 다소 누락됨.	사설 전체의 주장으로서 적절한 주장을 논조 강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명료하게 요약하였으나, 주요 정보가 다소 누락됨.	사설에서 논자가 제시한 여러 개의 논거 또는 실천 방안들을 총망라하여 적절하게 요약하였으며, 명료하게 제시하였으나, 각 논거 또는 각 실천 방안의 주요 정보가 다소 누락됨.	접속 부사, 연결 어미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문장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하였고, 하나의 완결된 글로 작성하였으나, 문장들의 배열이 다소 적절하지 않음. 또는 문장 간 긴밀성이 다소 부족함.	문장의 문법성, 어휘 사용의 적절성, 직시 표현 환언의 적절성, 어문 규범의 정확성 항목 중에서 2개의 위반이 나타남. 또는 글자 수 301~310자.
4	문제 상황을 주요 정보의 누락 없이 명료하게 제시하였으나, 적절성이 다소 부족함. 논자의 주장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적절한 문제 상황을 제시하였으나, 완전성과 명료성이 다소 부족함.	주장을 논조 강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주요 정보의 누락 없이 명료하게 제시하였으나, 사설 전체의 주장과 다소 어긋남. 또는 완전성, 명료성, 논조 강도의 일관성 중 2가지가 다소 부족함.	논거 또는 실천 방안 중 하나가 다소 적절하지 않음. 또는 각각의 논거 또는 실천 방안들의 완전성과 명료성이 다소 부족함.	문장 간 긴밀성, 문장 배열의 적절성, 요약문의 완결성 중 2가지가 다소 부족함.	문장의 문법성, 어휘 사용의 적절성, 직시 표현 환언의 적절성, 어문 규범의 정확성 항목 중에서 3개의 위반이 나타남. 또는 문장 수가 5문장이거나 2문장.

3	<p>문제 상황의 완전성이 매우 부족함.</p> <p>또는 문제 상황의 명료성이 매우 부족함.</p> <p>* 다른 준거를 모두 충족하였어도 이 두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면 3점을 부여함.</p>	<p>주장의 완전성이 매우 부족함.</p> <p>또는 주장의 명료성이 매우 부족함.</p> <p>또는 주장의 완전성, 명료성, 논조 강도의 일관성이 다소 부족함.</p> <p>* 다른 준거를 모두 충족하였어도 이 세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면 3점을 부여함.</p>	<p>논거 또는 실천 방안 중 하나를 누락함.</p> <p>또는 논거 또는 실천 방안의 완전성이 매우 부족함.</p> <p>또는 논거 또는 실천 방안의 명료성이 매우 부족함.</p> <p>또는 적절성, 완전성, 명료성이 다소 부족함.</p> <p>* 다른 준거를 모두 충족하였어도 이 네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면 3점을 부여함.</p>	<p>문장 간 긴밀성이 매우 부족함.</p> <p>또는 문장 배열의 적절성이 매우 부족함.</p> <p>또는 요약문의 완결성이 매우 부족하여 미완의 인상을 줌.</p> <p>* 다른 준거를 모두 충족하였어도 이 세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면 3점을 부여함.</p>	<p>문장의 문법성, 어휘 사용의 적절성, 직시 표현 환언의 적절성, 어문 규범의 정확성 항목 중에서 4개의 위반이 나타남.</p> <p>또는 글자 수 311~320자.</p>
2	<p>문제 상황의 적절성이 매우 부족함.</p> <p>또는 제시된 문제 상황이 적절성, 완전성, 명료성 모두에서 부족함.</p>	<p>주장의 적절성이 매우 부족함.</p> <p>또는 제시된 주장이 적절성, 명료성, 완전성, 논조 강도의 일관성 모두에서 부족함.</p>	<p>제시된 논거 또는 실천 방안이 적절성, 총망라성, 명료성, 완전성 모두에서 부족함.</p>	<p>문장 간 긴밀성, 문장 배열의 적절성, 요약문의 완결성 중 2가지가 매우 부족함.</p>	<p>문장의 문법성, 어휘 사용의 적절성, 직시 표현 환언의 적절성, 어문 규범의 정확성 항목 중에서 5개의 위반이 나타남.</p> <p>또는 글자 수 321~330자.</p> <p>또는 문장 수가 6문장이거나 1문장.</p>
1	<p>제시된 문제 상황이 전혀 적절하지 않음.</p> <p>또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지 않음.</p> <p>* 다른 준거를 모두 충족하였어도 이 두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점을 부여함.</p>	<p>제시된 주장이 전혀 적절하지 않음.</p> <p>또는 주장을 제시하지 않음.</p> <p>* 다른 준거를 모두 충족하였어도 이 두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점을 부여함.</p>	<p>제시된 논거 또는 실천 방안이 모두 적절하지 않음.</p> <p>또는 사실에서 논자가 제시한 논거 또는 방안 중 둘 이상을 누락함.</p> <p>* 다른 준거를 모두 충족하였어도 이 두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점을 부여함.</p>	<p>문장 간 긴밀성, 문장 배열의 적절성, 요약문의 완결성을 모두 갖추지 못함.</p>	<p>문장의 문법성, 어휘 사용의 적절성, 직시 표현 환언의 적절성, 어문 규범의 정확성 항목 중에서 6개 이상의 위반이 나타남.</p> <p>또는 글자 수 331자 이상.</p> <p>또는 문장 수 7문장 이상.</p> <p>또는 두 문단 이상.</p> <p>* 다시쓰기를 하지 않고 사실 원문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온 문장이 2문장 이상인 경우 5점 미만(4.9점 이하)의 점수를 부여함.</p> <p>* '또는'으로 기술된 각 항목을 합산하여 감점하지 않음. 예를 들어 글자 수와 어문 규범 점수 모두에 감점이 있다면 이 둘을 합산하지 않고 둘 중 더 낮은 점수를 표현 영역의 점수로 부여함.</p>

<신문 사설 요약문 평가 배점표(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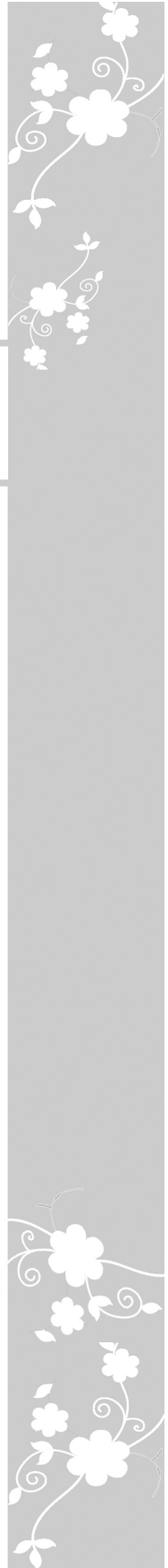
준거 / 점수	내용			조직	표현
	문제 상황	주장	논거 또는 실천 방안	긴밀성 및 완결성	문장 및 어휘
7	적절성 0 완전성 0 명료성 0	적절성 0 완전성 0 명료성 0 논조 강도의 일관성 0	총망라성 0 적절성 0 완전성 0 명료성 0	문장 간 긴밀성 0 문장 배열의 적절성 0 요약문의 완결성 0	① 문단 형식의 적절성 0 ② 문장의 문법성 0 ③ 어휘 사용의 적절성 0 ④ 직시 표현 환언의 적절성 0 ⑤ 어문 규범의 정확성 0
6	명료성 다소 부족 (군더더기 표현, 비유적 표현 등 다소 포함)	명료성 다소 부족 (군더더기 표현, 비유적 표현 등 다소 포함) / 논조 강도의 일관성 다소 부족	명료성 다소 부족 (군더더기 표현, 비유적 표현 등 다소 포함)	요약문의 완결성 다소 부족	②~⑤ 중 1개 위반
5	완전성 다소 부족 (주요 정보 다소 누락)	완전성 다소 부족 (주요 정보 다소 누락)	완전성 다소 부족 (주요 정보 다소 누락)	문장 배열의 적절성 다소 부족 / 문장 간 긴밀성 다소 부족 /	②~⑤ 중 2개 위반 / 글자 수 301~310자
4	적절성 다소 부족 / 완전성과 명료성 다소 부족	적절성 다소 부족 / 완전성, 명료성, 논조 강도의 일관성 중 2가지가 다소 부족	적절성 다소 부족 (논거 또는 실천 방안 중 하나 적절하지 않음) / 완전성과 명료성 다소 부족	문장 간 긴밀성, 문장 배열의 적절성, 요약문의 완결성 중 2가지가 다소 부족	②~⑤ 중 3개 위반 / 문장 수가 5문장이거나 2문장 * 다시쓰기를 하지 않은 문장이 2문장 이상인 경우 4.9점 이하 부여
3	완전성 매우 부족 / 명료성 매우 부족	완전성 매우 부족 / 명료성 매우 부족 / 완전성, 명료성, 논조 강도의 일관성 다소 부족	총망라성 다소 부족(논거 또는 방안 중 하나 누락) / 완전성 매우 부족 / 명료성 매우 부족 / 적절성, 완전성, 명료성 다소 부족	문장 간 긴밀성 매우 부족 (문장들이 단순 나열됨) / 문장 배열의 적절성 매우 부족 (비논리적 배열) / 요약문의 완결성 매우 부족 (미완의 인상)	②~⑤ 중 4개 위반 / 글자 수 311~320자
2	적절성 매우 부족 / 적절성, 완전성, 명료성 모두 부족	적절성 매우 부족 / 적절성, 명료성, 완전성, 논조 강도의 일관성 모두 부족	총망라성, 적절성, 완전성, 명료성 모두 부족	문장 간 긴밀성, 문장 배열의 적절성, 요약문의 완결성 중 2가지가 매우 부족	②~⑤ 중 5개 위반 / 글자 수 321~330자 / 문장 수가 6문장이거나 1문장
1	제시된 문제 상황이 전혀 적절하지 않음. / 문제 상황을 제시하지 않음.	제시된 주장이 전혀 적절하지 않음. / 주장을 제시하지 않음.	제시된 논거 또는 실천 방안이 모두 적절하지 않음. / 논거 또는 실천 방안 중 둘 이상을 누락함.	문장 간 긴밀성, 문장 배열의 적절성, 요약문의 완결성 모두 매우 부족	②~⑤ 중 6개 이상 위반 / 글자 수 331자 이상 / 문장 수 7문장 이상 / 문단 수 두 문단 이상

* 위 표의 '/' 표시는 '또는'을 의미함.



붙임 5

협력적 대화 요약문 평가 지침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 평가 지침

ver. 1.1

2025.7.22.
한림대

목차

1. 개요	1
1.1. 지침의 목적	1
1.2. 관련 사업	1
2. 평가 영역 및 하위 준거	1
2.1. 내용	2
2.1.1. 적절성	2
2.1.2. 총망라성	4
2.1.3. 명료성	5
2.2. 조직	6
2.3. 표현	7
<협력적 대화 요약문 평가 기준표>	8
3. 평가 수행 및 점수 산출	9
3.1. 영역별 배점	9
3.2. 점수 산출	9
3.3. 평가 근거 작성	9
<협력적 대화 요약문 점수 산출 및 평가 근거 작성 예>	11
<협력적 대화 요약문 평가 배점표>	18
<협력적 대화 요약문 평가 배점표(요약)>	20

1. 개요

1.1. 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 평가 방안을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요약문에 협력적 대화의 전체 주제와 소주제별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 편의 완결된 글로서 잘 조직되어 있는지, 표현이 정확하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2. 관련 사업

이 지침은 국립국어원의 '2025년 대화 및 텍스트 요약 말뭉치 구축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서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를 평가하기 위한 지침이다.

2. 평가 영역 및 하위 준거

요약문은 내용, 조직, 표현의 세 가지 영역을 평가한다. 다만 내용, 조직, 표현 영역 중 내용 영역의 가중치를 더 주기 위하여 내용 영역의 평가 준거는 3개, 조직과 표현 영역의 평가 준거는 각 1개로 구성하였다. 요약문의 평가 영역 및 준거는 「2024년 말뭉치 요약 연구 분석」(국립국어원, 2024)을 참고하여 개발하되, 협력적 대화 요약문의 평가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영역	내용			조직	표현
준거	적절성	총망라성	명료성	긴밀성 및 완결성	문장 및 어휘

2.1. 내용

‘내용’에서는 협력적 대화에서 대화 참여자가 이야기하는 전체 주제와 소주제에 대한 화자의 중심 생각을 추상화하여 적절하게 요약하였는지, 소주제에 대한 화자의 중심 생각을 빠짐없이 요약하였는지, 또 불필요한 정보 없이 핵심 정보 위주로 명료하게 요약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내용’이라는 영역을 구성하는 평가 준거는 ‘적절성’, ‘총망라성’, ‘명료성’이다.

2.1.1. 적절성

‘적절성’에서는 협력적 대화에서 주요 내용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를 판단한다. 즉, 협력적 대화에서 대화 참여자가 이야기하는 전체 주제와 소주제에 대한 대화 참여자의 중심 생각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추상화하여 적절하게 요약하였는지, 요약문 작성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적절하게 요약하였는지를 판단한다. ‘적절성’이라는 평가 준거는 ‘대화 전체 주제의 적절성’, ‘소주제의 적절성’, ‘소주제에 대한 대화 참여자의 중심 생각의 적절성’, ‘객관성’의 네 가지 하위 준거로 구성된다.

- 대화 전체 주제의 적절성
 - ▷ 협력적 대화에서 대화 참여자들은 정해진 주제에 대한 다양한 소주제들을 언급하며 대화를 한다. 요약문에서 대화 참여자들이 이야기하는 다양한 소주제를 아우르는 대화의 전체 주제를 추상화하여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 판단한다.
- 소주제의 적절성
 - ▷ 협력적 대화에서 대화 참여자들은 전체 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소주제에 대해 대화를 한다. 이런 대화의 전체 요약문은 화자별로 요약을 할 수도 있고, 소주제별로 요약을 할 수도 있다. 화자별로 요약을 할 경우는 해당 소주제에 대한 화자의 중심 생각을 요약문에서 제시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소주제가 요약문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요약문에서 소주제에 대한 요약을 화자별로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를 판단한다. 소주제별로 요약을 할 경우는 소주제를 먼저 언급한 후에 화자의 중심 생각을 제시하는 구조이다. 요약문에서 각각의 소주제를 추상화하여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를 판단한다.
- 소주제에 대한 대화 참여자의 중심 생각(마무리 구간 포함)의 적절성
 - ▷ 협력적 대화에서 대화 참여자들은 다양한 소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요약문에서 대화 참여자들의 소주제에 대한 중심 생각을 추상화하여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 판단한다. 단, 대화에 따라 어떤 소주제에 대해 일부 화자가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그 일부 화자의 지엽적인 발화 내용이 요약문에 들어가서는 안 되며, 이를 제외하고 다른 화자들의 중심 생각을 요약문에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 협력적 대화에서 대화의 마무리 구간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마무리 구간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요약문에 작성해야 하는데, 작성 여부는 조직 영역에서 평가하되, 마무리 구간의 적절성 여부는 내용 영역에서 평가한다.
- 객관성

- ▷ '객관성'은 협력적 대화를 읽고 요약문을 작성할 때, 요약문 작성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갔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준거이다. 요약문에 요약문 작성자의 주관적인 생각을 포함하지 않고 대화 내용을 객관적으로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를 판단한다.

2.1.2. 총망라성

‘총망라성’에서는 협력적 대화에서 대화 참여자들이 이야기하는 소주제에 대한 내용을 요약문에 제시하였는지와 소주제에 대한 화자별 중심 생각을 모두 제시하였는지를 판단한다. ‘총망라성’이라는 평가 준거는 ‘소주제의 총망라성’, ‘소주제에 대한 대화 참여자의 중심 생각의 총망라성’의 두 가지 하위 준거로 구성된다.

- 소주제의 총망라성

- ▷ 협력적 대화에서 대화 참여자들은 정해진 주제에 대한 다양한 소주제들을 언급하며 이야기하는데, 각각의 대화에서 적게는 3개, 많게는 6개 정도의 소주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요약문에서 전체 주제를 고려하였을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주요 소주제를 제시하였는지를 판단한다. 협력적 대화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주제가 병렬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 대등한 관계로 주요 내용이 되지 않고 일부의 소주제가 다른 소주제에 포함이 되는 등 주요 내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요약자에 따라 일부의 소주제를 다른 소주제의 내용에 포함시켜 요약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 소주제에 대한 대화 참여자의 중심 생각의 총망라성

- ▷ 협력적 대화에서 제시된 소주제에 대한 각각의 대화 참여자의 중심 생각을 모두 대화문에 제시하였는지 판단한다. 협력적 대화에서 대화 참여자들은 각각의 소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일부 화자들은 어떤 소주제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은 채, 다른 소주제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즉 모든 소주제에 대한 모든 화자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요약문에도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럴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의 소주제에 대해 대화 참여자들의 중심 생각들을 요약문에 제시하였는지를 판단한다.

2.1.3. 명료성

‘명료성’은 협력적 대화에서 대화 참여자들이 이야기한 중심 내용들이 요약문에서 명료하게 드러나는지를 판단한다. 즉, 불필요한 내용들은 삭제하고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명료하게 작성하였는지를 판단한다. ‘명료성’이라는 평가 준거는 ‘소주제 선정의 명료성’, ‘정보의 명료성’, ‘표현의 명료성’의 세 가지 하위 준거로 구성된다.

- 소주제 선정의 명료성

- ▷ 협력적 대화에서 대화 참여자들은 전체 주제에 대한 다양한 소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대화 참여자들은 구어의 특성상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요약자들은 대화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소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요약해야 한다. 즉, 요약문에 대화의 내용을 명료하게 재구성하였는지를 판단한다.

- 정보의 명료성

- ▷ 협력적 대화 내용을 보면 소주제 안에서 더 중요한 정보와 덜 중요한 정보들이 혼재되어 있다. 각각의 소주제 안에서 이것들을 구분하여 중요한 정보만을 명료하게 드러내어 요약문을 작성하였는지 판단한다.

- 표현의 명료성

- ▷ 요약문을 작성할 때 각 문장 내에 대화 참여자가 제시한 구체적인 상황이나 예를 그대로 작성하지 않고 일반화하여 작성하였는지를 판단한다. 또한 군더더기 표현이나 비유적 표현 없이 명료하게 작성하였는지를 판단한다.

[주의] 같은 협력적 대화 요약문을 작성하는 2명의 요약문 작성자는 동일한 구간 분할과 소주제를 부여받은 상태에서 요약문을 작성하나 소주제는 수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동일한 소주제를 그대로 두고 요약문을 작성할 수도 있고, 더 적절한 소주제를 선정하여 요약문을 작성할 수도 있다. ‘소주제 선정의 명료성’을 바탕으로 평가할 때,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여 대화 내용을 명료하게 재구성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주의] 내용 영역에서 적절성과 명료성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한다. ‘적절성’은 요약문에 주요 정보들이 빠짐없이 제시되어 적절한지를 판단한다. ‘명료성’은 요약문에 불필요한 정보가 없이 명확하게 제시하였는지를 판단한다.

2.2. 조직

‘조직’에서는 요약문을 이루는 문장들을 자연스럽게 긴밀하게 연결하였으며, 하나의 완결된 글로 조직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조직’이라는 영역을 구성하는 평가 준거는 ‘긴밀성 및 완결성’이다.

‘긴밀성 및 완결성’이라는 평가 준거는 요약문이 한 단락의 짧은 글이지만 한 편의 완결된 글로 긴밀하게 조직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협력적 대화에서 대화 참여자가 이야기한 대화 내용의 주제와 소주제에 대한 화자별 중심 생각을 담은 문장들을 요약문에서 긴밀하게 연결하였으며, 대화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배열하였는지,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글로 읽힐 수 있도록 작성하였는지를 평가한다. ‘긴밀성 및 완결성’이라는 평가 준거는 ‘문장 간 긴밀성’, ‘문장 배열의 적절성’, ‘요약문의 완결성’의 세 가지 하위 준거로 구성된다.

- 문장 간 긴밀성

- ▷ ‘문장 간 긴밀성’은 요약문을 구성하는 문장들을 단순 나열하지 않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하였는지 평가하는 준거이다. 중요 문장들을 단순 나열하지 않고 접속 부사나 연결 어미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였는지 판단한다. 협력적 대화 요약문의 경우, 대화 참여자가 말한 내용을 문장으로 작성하고 있기에 절과 절 사이의 연결 어미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였는지에 더 주의를 기울여 판단한다.

- 문장 배열의 적절성

- ▷ ‘문장 배열의 적절성’은 대화의 내용들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순서로 배열되어 요약문에 작성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준거이다. 이때 협력적 대화의 소주제 순서를 그대로 따랐는지는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요약문에 적절하게 재구조화하였는지 판단한다.

- 요약문의 완결성

- ▷ ‘요약문의 완결성’은 요약문이 하나의 완결된 글로 작성되었는지 평가하는 준거이다. 요약문이 미완의 인상을 주지 않는지, 요약문의 마무리가 잘 되었는지를 판단한다.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 구축 지침’에서 협력적 대화의 전체 요약문 작성은 ‘소주제별’로 요약 또는 ‘화자별’ 요약으로 하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 요약문은 모두 요약문 작성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반영되지 않았고, 대화 자체를 요약한 글임을 유의하며, ‘소주제별’로 또는 ‘화자별’로 요약하였는지에 대해 유의하며 평가한다. 또한 협력적 대화에서 대화의 마무리 구간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대화의 마무리 구간을 요약문의 마지막 문장에 요약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주의] ‘명료성’의 하위 준거인 ‘소주제 선정의 명료성’과 ‘문장 배열의 적절성’은 그 평가 대상이 다를 수 유의해야 한다. ‘소주제 선정의 명료성’은 대화 내용을 이야기의 흐름이 아닌 소주제에 따라 재구성을 명료하게 하였는지에 대해 평가하며, ‘문장 배열의 적절성’은 요약문의 문장 배열을 적절하게 재구조화하였는지를 평가한다.

2.3. 표현

‘표현’은 요약문의 내용적인 측면이 아닌 형식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영역이다. 즉, 요약문을 문단, 문장, 어휘, 표기 차원에서 평가한다. ‘표현’ 영역의 평가 준거는 ‘문장 및 어휘’이다.

‘문장 및 어휘’에서는 요약문을 구성하는 문장들에 적절한 인용 표현을 하였는지, 과거 시제를 사용하였는지, 요약문을 구성하는 문장들이 문법적인지,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여 다시쓰기하였는지, 또한 구어적 말투를 적절하게 수정하였는지, 어문 규범을 준수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문장 및 어휘’라는 평가 준거는 ‘인용 표현의 적절성’, ‘시제 표현의 적절성’, ‘문장의 문법성’, ‘어휘 사용의 적절성’, ‘직시 표현 환언의 적절성’, ‘어문 규범의 정확성’의 여섯 가지 하위 준거로 구성된다.

- 글자 수의 적절성
 - ▷ 한 단락의 요약문이 700자 이내로 작성하였는지를 판단한다.
- 인용 표현의 적절성
 - ▷ ‘인용 표현의 적절성’은 요약문에서 대화 참여자의 생각을 정리하여 작성하는 부분에서 각각의 문장을 적절한 인용 표현을 사용하여 작성하였는지 평가하는 준거이다. 이때 직접 인용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면 간접 인용의 표현을 알맞게 작성하였는지를 판단한다.
- 시제 표현의 적절성
 - ▷ ‘시제 표현의 적절성’은 요약문이 대화 참여자들이 한 대화를 요약하는 것이므로 과거 시제 표현을 사용하여 작성하였는지 평가하는 준거이다.
- 문장의 문법성
 - ▷ ‘문장의 문법성’은 요약문을 구성하는 문장들을 문법적인 문장으로 작성하였는지 평가하는 준거이다. 이때 문법성은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는지, 어순이 적절한지, 서술어의 논항 구조를 적절하게 드러내었는지 등을 통해 판단한다.
- 어휘 사용의 적절성
 - ▷ ‘어휘 사용의 적절성’은 협력적 대화의 주요 문장들을 다시쓰기하면서 사용한 어휘가 적절한지 평가하는 준거이다. 어휘 사용의 적절성은 다시쓰기할 때 같은 의미를 가진 어휘를 적절하게 사용하였는지, 바꿔 쓴 어휘로 인해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는지 등을 통해 판단한다. 또한 구어적 특징의 어휘들을 적절하게 수정하였는지 판단한다.
- 직시 표현 환언의 적절성
 - ▷ ‘직시 표현 환언’은 협력적 대화에서 대화 참여자들을 구분하는 ‘화자1’과 ‘화자2’ 등의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였는지 평가하는 준거이다. 각각의 대화 참여자들의 말을 정리할 때, 어떤 대화 참여자가 말하였는지 구분하는 ‘화자1’과 ‘화자2’ 등의 표현을 알맞게 사용하였는지 판단한다.
- 어문 규범의 정확성
 - ▷ ‘어문 규범 준수’는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준수하여 요약문을 작성하였는지 평가하는 준거이다. 협력적 대화의 원문에 띄어쓰기 등의 오류가 있어도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어문 규범에 맞게 수정하였는지 평가해야 한다. 오탈자의 유무, 적절한 기호 사용 등도 어문 규범 준수의 평가에 포함된다.

이상의 평가 준거들을 정리한 신문 사설 요약문 평가 기준표는 아래와 같다.

<협력적 대화 요약문 평가 기준표>

영역 / 준거	내용			조직	표현
	적절성	총망라성	명료성	긴밀성 및 완결성	문장 및 어휘
하위 준거	<p>▶ 대화 전체 주제의 적절성 : 요약문에서 대화 참여자들의 대화 전체 주제를 적절하게 제시하였는가?</p> <p>▶ 소주제의 적절성 : 요약문에서 소주제를 추상화하여 적절하게 제시하였는가?</p> <p>▶ 소주제에 대한 대화 참여자의 중심 생각(마무리 구간 포함)의 적절성 : 요약문에서 소주제에 대한 대화 참여자의 중심 생각을 추상화하여 적절하게 제시하였는가?</p> <p>▶ 객관성 : 요약문에서 대화 참여자들의 생각들을 요약문 작성자의 없이 주관적인 생각이 없이 적절하게 제시하였는가?</p>	<p>▶ 소주제의 총망라성 : 요약문에서 대화에 나온 소주제들을 모두 제시하였는가?</p> <p>▶ 소주제에 대한 대화 참여자의 중심 생각의 총망라성 : 요약문에서 대화 참여자들의 소주제에 대한 중심 생각을 모두 제시하였는가?</p>	<p>▶ 소주제 선정의 명료성 : 요약문에서 소주제에 대한 내용을 재구성하여 명료하게 제시하였는가?</p> <p>▶ 정보의 명료성 : 요약문에서 각각의 소주제에 대한 더 중요한 정보와 덜 중요한 정보를 구분하여 중요한 정보만을 명료하게 드러내었는가?</p> <p>▶ 표현의 명료성 : 요약문의 각각의 문장 내에 구체적인 상황이나 예를 그대로 작성하지 않고 일반화하여 작성하였는가?</p>	<p>▶ 문장 간 긴밀성 : 요약문을 이루는 문장들을 서로 긴밀하게 연결하였는가? : 절과 절 사이의 연결 어미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였는가?</p> <p>▶ 문장 배열의 적절성 : 요약문을 이루는 문장들을 협력적 대화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열하였는가?</p> <p>▶ 요약문의 완결성 : 요약문을 하나의 완결된 글로 작성하였는가? : 대화의 마무리 구가 있는 경우 마무리 구간을 요약하여 작성하였는가?</p>	<p>▶ 글자 수의 적절성 : 700자 이내로 작성하였는가?</p> <p>▶ 인용 표현의 적절성 : 화자의 생각을 요약하는 문장에 인용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였는가?</p> <p>▶ 시제 표현의 적절성 : 요약문을 구성하는 문장들을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작성하였는가?</p> <p>▶ 문장의 문법성 : 요약문을 구성하는 문장들을 문법적으로 문장으로 작성하였는가? (주술 호응 등)</p> <p>▶ 어휘 사용의 적절성 : 다시 쓰기를 하며 사용한 어휘가 적절하며, 구어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어휘를 적절하게 수정하여 작성하였는가?</p> <p>▶ 직시 표현 환언의 적절성 : 요약문에서 대화 참여자들을 구분하는 '화자1' 등의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였는가?</p> <p>▶ 어문 규범의 정확성 :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준수하였는가? (오타자 유무 포함)</p>

3. 평가 수행 및 점수 산출

3.1. 영역별 배점

요약문은 '내용', '조직', '표현'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세 영역의 각 평가 준거는 7점 척도로 평가하는데, 7점 척도는 7점이 100점, 1점이 0점에 해당된다.

- '내용'은 '적절성', '총망라성', '명료성' 각 평가 준거당 7점 척도로 평가하여, 내용 영역의 총점은 총 21점이다.
- '조직'은 평가 준거가 '긴밀성 및 완결성' 하나로, 조직 영역의 총점은 7점이다.
- '표현'은 평가 준거가 '문장 및 어휘' 하나로, 표현 영역의 총점은 7점이다.

3.2. 점수 산출

요약문 평가자는 아래에 제시된 <협력적 대화 요약문 평가 배점표>에 따라 각 평가 준거당 1~7점의 점수를 부여한다. 요약문 한 건당 3인 이상이 평가하여 인간 평가 점수를 산출한다. 구체적인 점수 산출 방법과 점수 산출 시 주의 사항 아래의 <협력적 대화 요약문 평가 배점표>와 <협력적 대화 요약문 평가 배점표(요약)>을 참고한다.

3.3. 평가 근거 작성

요약문 평가자는 요약문에 평가 점수를 부여한 후 '내용', '조직', '표현'의 세 가지 영역별로 왜 해당 점수를 부여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근거를 작성한다.

- 평가 항목별로 적절성, 총망라성, 명료성, 긴밀성 및 완결성, 문장 및 어휘에 대한 평가 근거를 작성한다.
- 평가 항목별로 각각 한 문장으로 작성한다.

- 평가 점수가 높더라도 잘한 점을 언급한다.

예) 대화에서 대화 참여자들이 제시한 소주제와 소주제에 대한 대화 참여자들의 중심 생각을 모두 제시하였다. (7점 평가 근거의 예)

- 평가 근거문은 잘한 점을 먼저 언급하고 부족한 점을 나중에 제시한다.

예) 대화 내용을 소주제별로 재구성하였으나, 지엽적인 내용이나 반복적인 내용을 작성하는 등 불필요한 정보를 다소 포함하여 작성하였다.

- 특히 '표현' 영역인 '문장 및 어휘'에 대한 평가에서 점수가 감점된 부분이 있다면 감점 요인에 해당하는 예를 포함하여 기술한다.

예) 인용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였고, 과거시제로 요약문을 작성하였으며, 문법적인 문장들로 요약문을 작성하였으나,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이 5개 있다. (CCTV설치 -> CCTV 설치, 시간 동안 -> 시간 동안, 한해 -> 한 해, 안전 사고 -> 안전사고, 가능 할 -> 가능할)

- 피동문으로 작성하지 않고 능동문으로 작성한다.

예1) 하나의 완결된 글로 작성되었으나 문장 간 긴밀성과, 문장 배열의 적절성이 다소 부족하게 작성되었다. (X)

예2) 하나의 완결된 글로 작성하였으나 문장 간 긴밀성과, 문장 배열의 적절성이 다소 부족하게 작성하였다. (0)

〈협력적 대화 요약문 점수 산출 및 평가 근거 작성 예〉

화자	원문	구간	소주제 번호	소주제
화자2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도 탈 원전 정책이 나왔잖아. 그러면서 원자력 발전소가 과연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던 거 같은데 일단은 원자력 발전소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후쿠시마 그 방사능 사건 있잖아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던 거 그걸로 지금 아직까지도 그 방사능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너무 많고 그 주변 해역들은 방사능으로 다 오염이 되어있고 아직도 그 방사능을 지금 뭐 바다에다 버린다 만다 이런 것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위기가 많고			
화자2	그러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굳이 그렇게까지 그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유지를 해야하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걸 유지를 꼭 해야 된다고 또 세금도 많이 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일 하시는 분들도 방사능에 너무 많이 그 노출되다 보니까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많고	1	소주제1	원자력 발전소의 경제성
		2	소주제1	
화자1	어 엄마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아 원자력이 안 좋구나 그래서 인제 태양열 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구나 인제 생각을 했지 해서 어 인제 좋 진짜 좋게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인제 기다려서 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엄마가 어떤 생각을 했냐하면 원자력 발전소 짓는다고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에 우리나라 그 국민 세금으로 그 원자력 발전소 처음에 초기 단계에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인제 그 지을 때 돈을 많이 넣었던 말이야. 그쪽에 투입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짓고 있는 거 짓고 있는 중인데 중단된 것도 몇 개나 있어. 그래서 아예 그냥 멈춰져 있는 거지 짓다가 인제 그런 상태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원자력 보다 태양열로 인제 하게 되면 각 가정에서 전기세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야.	3	소주제1	
화자2	전기세가 많이 들순 있지만			
화자2	지금 지구환경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잖아. 중국에서도 미세먼지가 계속 날아오고 있고 남극에서는 계속 얼음이 녹고 있는데 뭔가 이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유지하면은 어쨌든 석유 석탄 이런 그 한정적인 자원들도 고갈될 게 분명하고 우리 지구도 어쨌든 환경이 점차 오염될 건데 차라리 대체에너지를 사용해서 태양에너지나	5	소주제2	환경 문제

	혹은 이런 바람 에너지를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화자2	아예 원자력 발전소를 달아버리고 그런 대체에너지를 이용하면은 환경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세금을 조금 더 많이 내고 지구를 살린다고 생각을 하면 더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6	소주제2	
화자1	근데 어 그거를 지금 보면은 풍력발전소 같은 경우도 어 산에 나무를 다 뽑아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지금 얼마나 많은 그 발전소를 짓고 있는지 몰라	7	소주제2	
화자1	네가 그런 그 진짜 현 상황을 몰라서 그러는데 사진에 안 그래도 보고 엄마 너무 충격이었거든 어 저게 도대체 저거 정말 저게 환경 환경을 생각한다는 건가?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	8	소주제2	
화자1	그러니까 최대한 사람이 사는 곳과 멀리 인제 그것도 시골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 그 만큼의 풍력발전소 짓 짓듯이 어 그만큼의 인제 막 자연을 훼손해가면서 하진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어디에 기반해서	9	소주제2	
화자1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건지 엄마는 이해가 안돼 솔직히	10	소주제2	
화자2	아마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활용하다 보니까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우리도 아직 초기 단계다 보니까 잘 몰라서 그런 오류를 범한 거 같은데 오히려 이게 보완되고 발전되다 보면은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간 그런 돈과 나오는 에너지보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방사능이 너무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같은 걸 보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고 지금도 집 근처에 원자력 발전소 들어온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반대하잖아. 오히려 아예 그 사람들과 또 정부기관의 갈등을 없앨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발전소 폐 지를 하는 게	11	소주제3	재생 에너지
화자1	그거는 맞아 네 말이 맞는데	12	소주제3	
화자1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기술은 정말 세계적인거든.	13	소주제1	
화자1	그래서 인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한테서 인제 수입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술자들이 거기 가서 인제 지어주고 이랬었는데 그러면 그때는 원자력이 좋다고	14	소주제1	

화자1	<p>막 그렇게 인제 많은 그 지원을 해주고 기술자들도 인제 양성을 했었는데 지금 그 기술자들 자체도 그렇고 어 이게 막 쇠락하고 있는 거 자체가 엄마가 보면 참 마음이 아파.</p>	15	소주제1	
화자1 화자1	<p>그러면서 이제 풍력이라든지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지금 뭐 선진국 따라가려면 사실은 많이 멀었어.</p>	16	소주제3	
화자2	<p>많이 멀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도 지금 아예 원자력 발전소를 다 닫고 재생에너지를 시작하는 거보다</p>	17	소주제3	
화자2	<p>30프로 50프로 이렇게 줄여가면서 재생에너지를 대체에너지로 같이 사용하면서 하다 보면은 그렇게 점차 원자력 발전소가 없어지고 지구 환경을 위한 대체에너지를 우리가 정말 주 에너지로 활용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p>	18	소주제3	
화자2	<p>그리고 그 원자력 발전소가 폐지되고 난 그 폐지되고 나면은 우리가 더 이상 방사능이나 이런 위험에 노출될 일이 적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한편으로는 더 안전한 그런 지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p>			
화자1	<p>아니 그것이 태양열 한게 지금 벌써 한 10 한 5년 전 20년 가까이 되거든 태양열도 근데 막상 태양열 쓰고 있는 집들이</p>	19	소주제3	
화자1	<p>생각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아 태양열도 그래 그래서 우리집만 해도 그렇고 아파트에 이게 태양열이 적용이 되기가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풍력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는지는 엄마가 잘 몰라 아직 한데 그것이 과연 어 모르겠어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단독 주택이 많아서 뭐 그것이 인제 현실적으로 이제 적용이 가능하겠지. 근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이게 뭐 정부에서 마땅한 크게 인제 원자력이 처음에 이제 부응할 때처럼 뭐</p>	20	소주제3	
화자1	<p>다른 신재생에너지도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그 선제적인 그런 그 계획이라든지 미래가 그렇게 밝지는 않다고 엄마가 들었거든.</p>	21	소주제3	
화자2	<p>그렇긴 하지만 이 원자력 발전소는 어쨌든 나중에는 곧 이 에너지가 고갈될 게 뻔하잖아. 그러니까 그 고갈되기 전에 일단 지금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뭔가 전 세계가 그 에너지 대신해서 다른 에너지를 사용하다 보면은 지구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그 그 화석</p>			

	이런 거에서 나오는 석유 석탄 에너지를 뭔가 재생산해낼 어떤 그런 회복의 시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화자1	그러면 외국에서는 이렇게 인제 네가 얘기했듯이 신재생에너지에 막 이렇게 저거 하다가 어 몇 개국 지금 원자력으로 다시 돌아선 데가 꽤 있거든. 그러면 그 나라들은 왜 그럴까?	22	소주제3	
화자2	어 일단 지금으로서는 그 외국은 특히나 우리나라보다 국민들이 많은 나라들이 꽤 많잖아.			
화자2	그 사람들을 지금 원자력 발전소 말고 재생에너지로 감당하기에는 지금의 기술로는 무리가 있어. 하지만 그 기술에 매달려서 오히려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 폐지하고 아예 재생에너지에 매달리다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재생에너지 밖에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는 이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인간은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폐지하고 재생에너지에 몰두하다 보면은 오히려 재생에너지를 원자력 발전소 보다 더 효율적이게 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	23	소주제3	
화자1	그것이 그거에 이유라는 게 엄마가 좀 잘 이해가 안돼. 왜 그런지 그러니까 그런 뉴스들을 접하면 어 솔직히 뭐가 맞는지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거든 혼란스럽기만 한 거는 맞거든. 근데 인제 엄마는 주부잖아			
화자1	주부으로써 인제 엄마가 생각을 했을 때는 어 물론 인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네 말이 다 맞아. 어 신재생 에너지가 친환경적이고 그것이 맞는데 과연 그렇게 됐을 때 어 그 정말로 이제 엄마가 아까 문제점을 짚었잖아. 정말로 이게 자연을 훼손 안하고 그러면 훼손을 좀 덜 하고	24	소주제1	
화자1	원자력은 이만큼 저거 하는데 어 이 에너지들은 그렇게 인제 그 설비를 할 때 원자력 보다는 덜 훼손한다 이런 게 이런 거라도 있으면	25	소주제1	
화자1	엄마가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텐데 그것도 아니고 전기세는 전기세 대로 더 비싸지니까 그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26	소주제1	
화자2	전기세 물론 이제 재생에너지를 하게 되면 전기세가 비싸지는 거 맞는데 현재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드는 돈이 아마 나중에 내는 전기세 보다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요새 방사능 폐기물 처리하는 데도 그 마을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다 보니까 그 매립지 찾는 것도 어렵고			
화자2	그 폐기물 자체도 방사능 위험 노출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도 막대하다고 들어.	27	소주제1	
화자2	아예 그 그 그 원인인 원자력 발전소를 폐지해버리면은 나중에 전기세를 많이 내게 된다하더라도 지금 드는 비용보다는 오히려 절약하게 되는 게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	28	소주제1	
화자1	음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각 그 가정이나 개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막상 받아들이기가 처음에 받아들이기가 되게 좀 힘이 들지 어떻게 보면 전기세가 우리나라가 석유 한 방울 안 나왔지만 어쨌든 전기세는 어 많이 저렴한 편이었는데 그것이	29	소주제1	
화자1	어 언뜻 듣기로는 진짜 최소한 대여섯 배 이상은 비싸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지금처럼 막 뭐 덩다고 에어컨을 막 이렇게 뭐 편하게 틀 수 있고 티브이를 안 봐도 그냥 켜 놓고 이거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어 그 정책인 건지	30	소주제1	
화자2	일단 내가 지금 경제 활동을 안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세금에 관해서는 생각을 못 한 게 있는 거 같기는 해. 엄마가 나보다 그 전기세 내는 거는 더 고수니까 어떤 나중에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게 됐을 때 세금을 더 내지만 오히려 옛날에 원자력 발전소 운영할 때 만큼의 전기를 못쓰거나 그런 에너지를 못쓰게 되면 사실 억울한 느낌이 좀 더 들거 같아. 국가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구한테는 좋은 환경이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폐지를 하는 게 뭔가 우리들한테 더 도움이 될지 약간 생각해 보게 된 거 같아.			
화자1	어 맞는 말인 거 같아 그러니까 엄마도 어 생각을 해보면 그 재 신재생 에너지로 돌아서면서 전기세도 뭐 그만큼은 아니고 좀 낮춰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면 엄마도 그런 걸 당연히 찬성하지. 근데 인제	31	소주제3	
화자1	네가 이제 자연 훼손된 그런 사진을 안봐서 그런데 이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정도야 솔직히	32	소주제3	

	그러니까 뭐 그냥 거기에 그냥 돈을 쓰고 싶어서 돈을 쓰는 것 처럼만 보였거든. 해서 진짜 정부가 정부를 믿어야 되지만 이게 어 잘 모르겠어 아직은			
화자2	잘 이 어쨌든 지금까지 재생에너지로 생활을 해 본 적이 많이 없어서 뭔가 우리가 두려움이 있는 건 맞긴 한 거 같아. 그냥 일단은 이 재생에너지가 어쨌든 나중에는 결국에는 고갈된 에너지니까 재생에너지 자체를 활용을 지금 같이 하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점차 줄여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거 같아.			
화자1	음 그 인제 뭐라고 해야 되지 다른 나라 사례를 많이 보고			
화자1	왜 다른 나라들이 원자력을 어 폐지를 하고 신재생을 고집을 하다가 다시 원자력으로 하나 둘 돌아서는지 그걸 제대로 인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인제 이야기를 해주고 같이 인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정부는 뭐 때문인지 몰라도 계속 신재생만 고집을 하는 거야 그러니 인제 반대 세력들이 엄마처럼 생각하는 더 인제 공부 많이 한 전문가들이 많을 거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할 수밖에 뭐 뭐 때문에 그런지 제대로 납득이 되어야 우리가 다 설득을 뭐 설득을 당해서 어떻게 협조를 하든지 그리로 따라갈 텐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지.	33	소주제3	
화자2	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어쨌든 발전소를 폐지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기후나 어떤 환경오염에 좋은 거고 그리고 방사능이나 이런 위험을 다 막을 수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바로 폐지한다는 게 어쨌든 경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죽이는 경우도 있는 거 같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전기세를 더 많이 내면서 지금 쓰는 에너지 만큼 잘 못 쓰는 것도 되게 억울하면서도 뭔가 생활이 불편해질 확률이 높은 거 같아. 그리고 아까 그 풍력 발전소 하면서 환경을 더 오염하게 된다는 게 오히려 발전소 폐지를 아예 하는 거보다는 뭔가 점차 줄여나가면서 같이 대체 에너지랑 어떤 공생을 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거 같아.	34	마무리	

요약문 작성자	A	B
요약문	<p>이 대화에서 화자1과 화자2는 원자력 에너지를 대체하여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화자1은 원자력 발전소의 초기 단계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긴 했으나 태양열 에너지를 사용할 때 가정이 부담하는 전기세가 인상될 것이고, 산에 있는 나무를 뽑아 발전소를 짓는 풍력 발전소에 비해 원자력 발전소는 자연을 덜 훼손시키며, 앞서 말한 풍력과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의 기술 수준이 타국에 비해 낮고 원자력 에너지를 폐지하고 신재생을 고집하다 결국 원자력으로 돌아온 나라들이 많다고 말했다. 반면 화자2는 재생 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할 때보다 전기세가 인상하는 것은 맞지만 원자력 에너지 발전소의 유지 비용이나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생각하였을 때 지금 폐지하는 것이 경제성이 더 높고, 지구의 환경이 점차 나빠지는 상황에서 원자력 에너지가 아닌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환경오염이 덜 하며, 재생 에너지만을 사용하는 생활이 두렵긴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를 폐지하고 재생 에너지에 몰두하였을 때 원자력 에너지 보다 효율적이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이 대화에서 화자1과 화자2는 원자력 발전소의 존폐 여부에 대해 이야기했다. 화자1은 원자력 에너지가 없으면 전기세가 더욱 늘어나게 되고, 원자력 시설 유지 과정에서 우려만큼 자연이 크게 훼손되지 않으며, 대체 에너지를 원자력 대신 주 에너지로 활용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반면 화자2는 원자력 시설을 유지하는 비용이 전기세를 내는 비용보다 크고, 대체 에너지 사용이 환경에 있어 더 도움을 주며, 대체 에너지 활용을 조금씩 늘리다 보면 주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화자2는 화자1의 의견을 통해 당장은 원자력 시설을 폐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대체 에너지와 함께 유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p>
요약문 글자 수	546	363

평가 준거	평가 항목	점수(1~7)	근거	점수(1~7)	근거
내용	적절성	5	요약문을 객관적으로 작성하였으나, 대화 전체 주제의 적절성이 다소 부족하며, 소주제에 대한 대화 참여자의 중심 생각 2개를 추상화하여 적절하게 요약하지 않았다.	6	전체 대화 주제를 적절하게 작성하였고, 요약문을 객관적으로 작성하였으나, 소주제에 대한 대화 참여자의 중심 생각 1개를 적절하게 요약하지 않았다.
	총망라성	7	대화에서 대화 참여자들이 제시한 소주제와 소주제에 대한 대화 참여자들의 중심 생각을 모두 제시하였다.	7	대화에서 대화 참여자들이 제시한 소주제와 소주제에 대한 대화 참여자들의 중심 생각을 모두 제시하였다.
	명료성	2	대화 내용을 소주제별로 재구성하였으나, 불필요한 정보와 군더더기 표현을 상당 부분 포함하여 작성하였다.	5	대화 내용을 소주제별로 재구성하였고, 불필요한 내용과 덜 중요한 정보를 다소 포함하여 작성하였다.
내용 총점		14		18	
조직	긴밀성 및 완결성	3	대화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들을 배열하였으나, 마무리 구간 부분을 요약하지 않아 완결성이 매우 부족하며, 연결 어미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아 절과 절 사이가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는다.	7	대화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들을 배열하였고, 절과 절 사이, 문장과 문장 사이도 긴밀하게 연결되며, 하나의 완결된 글로 작성하였다.
표현	문장 및 어휘	2	인용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였고, 과거 시제로 요약문을 작성하였으나, 문법적이지 않은 문장이 있고,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이 다수 있다. ('타국에 비해'의 비교 대상이 되는 대상을 작성하지 않았음, 어휘 '몰두하다'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음, 비용-> 비용, 재생에너지 -> 재생 에너지, 에너지 보다-> 에너지보다)	6	인용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였고, 과거시제로 요약문을 작성하였으며, 문법적인 문장들로 요약문을 작성하였으나,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이 1개 있다. (에너지르 -> 에너지를)
총점		46.76		86.84	

〈협력적 대화 요약문 평가 배점표〉

준거 / 점수	내용			조직	표현
	적절성	총망라성	명료성	긴밀성 및 완결성	문장 및 어휘
7	대화 전체 주제와 소주제, 소주제에 대한 대화 참여자의 중심 생각(마무리 구간 포함)을 충실하게 요약하였으며, 요약문 작성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적절하게 요약함.	대화에서 제시된 소주제와 소주제에 대한 대화 참여자의 중심 생각을 모두 요약문에 작성함. ※ (3쪽 참고) 대화의 모든 소주제가 변별적이거나 중심이 되지 않음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생략할 수 있음.	대화 참여자들이 이야기하는 중심 내용들이 명료하게 드러나며, 대화 내용을 소주제별로 재구성함.	적속 부사, 연결 어미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문장들이 서술되도록 연결되도록 하였으며, 대화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들을 배열하였으나, 하나의 완결된 글로 작성함.	700자 이내로 작성하였음. 인용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였으며, 관거 시제 문법적이며, 다시쓰기를 하며 사용된 어휘가 적절함. 어문 규범을 매우 정확히 준수하였음.
6	소주제, 소주제에 대한 대화 참여자의 중심 생각(마무리 구간 포함)을 충실하게 요약하였으며, 요약문 작성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적절하게 요약하였으나, 전체 주제의 적절성이 다소 부족함.	대화에서 제시된 소주제를 모두 요약문에 작성하였으나, 소주제에 대한 대화 참여자의 중심 생각을 1개 작성하지 않음.	대화 내용을 중요한 정보만을 명료하게 드러내며, 소주제별로 재구성하였으나, 비유적 표현이나 불필요한 수식 어구 등이 더더기 표현이 다소 포함됨.	적속 부사, 연결 어미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문장들이 서술되도록 연결되도록 하였으며, 대화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들을 배열하였으나, 요약문의 완결성이 다소 부족함.	문장의 문법성, 어휘 사용의 적절성, 어문 규범의 정확성 항목 중에서 1개의 위반이 나타남.
5	대화 전체 주제, 소주제에 대한 대화 참여자의 중심 생각을 충실하게 요약하였으며, 요약문 작성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적절하게 요약하였으나, 소주제의 적절성이 다소 부족함. 또는 소주제에 대한 대화 참여자의 중심 생각(마무리 구간 포함)이 다소 부족함.	대화에서 제시된 소주제를 모두 요약문에 작성하였으나, 소주제에 대한 대화 참여자의 중심 생각을 2개 작성하지 않음.	대화 내용은 중요한 정보만을 명료하게 드러내며, 소주제별로 재구성하였으나, 비유적 표현이나 불필요한 수식 어구 등이 더더기 표현이 다소 포함되고, 불필요한 수식 어구 등이 포함되고, 발화 내용을 일반화하지 않고, 작성한 부분이 다소 포함됨.	적속 부사, 연결 어미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문장들이 서술되도록 연결되도록 하였으며, 하나의 완결된 글로 작성하였으나, 문장들의 배열이 다소 적절하지 않음. 또는 문장 간 긴밀성이 다소 부족함.	문장의 문법성, 어휘 사용의 적절성, 어문 규범의 정확성 항목 중에서 2개의 위반이 나타남.
4	대화 전체 주제의 적절성, 소주제의 적절성, 소주제에 대한 대화 참여자의 중심 생각(마무리 구간 포함)의 적절성 중 2가지가 다소 부족함. 또는 요약문 작성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간 부분이 1개 존재함.	소주제에 대한 대화 참여자의 중심 생각을 3개 작성하지 않음. 또는 대화에서 제시된 소주제 중 1개를 작성하지 않음.	대화 내용을 중요한 정보만을 명료하게 드러내며, 소주제별로 재구성하였으나, 비유적 표현이나 불필요한 수식 어구 등이 더더기 표현이 다소 포함되고, 불필요한 수식 어구 등이 포함되고, 발화 내용을 일반화하지 않고, 작성한 부분이 다소 포함됨. 또한 불필요한 정보를 1회 작성함.	문장 간 긴밀성, 문장 배열의 적절성, 요약문의 완결성 중 2가지가 다소 부족함.	문장의 문법성, 어휘 사용의 적절성, 어문 규범의 정확성 항목 중에서 3개의 위반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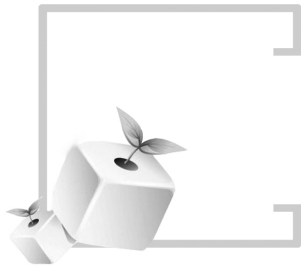
3	<p>대화 전체 주제의 적절성이 매우 부족함.</p> <p>또는 소주제의 적절성이 매우 부족함.</p> <p>또는 소주제에 대한 대화 참여자의 중심 생각(마무리 구간 포함)의 적절성이 매우 부족함.</p> <p>또는 요약문 작성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간 부분이 2개 존재함.</p>	<p>소주제에 대한 대화 참여자의 중심 생각을 4개 작성하지 않음.</p> <p>또는 대화에서 제시된 소주제 중 2개를 작성하지 않음.</p>	<p>대화 내용을 중요한 정보만을 명료하게 드러내며 소주제별로 재구성하였으나, 비유적 표현이나 불필요한 수식 어구 등이 드러나거나 불필요한 수식 어구 등이 드러나고, 발화 내용을 일반화하지 않고 작성한 부분이 다소 포함됨. 또한 불필요한 정보를 2회 작성함.</p> <p>또는 대화 내용을 소주제별로 재구성하지 않은 부분이 다소 존재함.</p>	<p>문장 간 긴밀성이 매우 부족함.</p> <p>또는 문장 배열의 적절성이 매우 부족함.</p> <p>또는 요약문의 완결성이 매우 부족하여 미완의 인상을 줌.</p> <p>또는 대화에 마무리 구간이 있든 없든 대화 마무리 구간에 해당 요약 내용이 있는지 평가해야 할 마무리 구간이 없는 경우, 3점.</p>	<p>문장의 문법성, 어휘 사용의 적절성, 어문 규범의 정확성 항목 중에서 4개의 위반이 나타남.</p> <p>또는 인용 표현 적절성, 시제 표현의 적절성, 직시 표현 환언의 적절성 중 1개의 위반이 나타남.</p>
2	<p>대화 전체 주제의 적절성, 소주제의 적절성, 소주제에 대한 대화 참여자의 중심 생각(마무리 구간 포함)의 적절성 중 2가지가 매우 부족함.</p> <p>또는 요약문 작성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간 부분이 상당 부분 존재함.</p>	<p>소주제에 대한 대화 참여자의 중심 생각을 5개 작성하지 않음.</p> <p>또는 대화에서 제시된 소주제 중 3개를 작성하지 않음.</p>	<p>대화 내용을 중요한 정보만을 명료하게 드러내며 소주제별로 재구성하였으나, 비유적 표현이나 불필요한 수식 어구 등이 드러나거나 불필요한 수식 어구 등이 드러나고, 발화 내용을 일반화하지 않고 작성한 부분이 상당 부분 포함됨. 또한 불필요한 정보를 매우 많이 작성함.</p> <p>또는 대화 내용을 대부분 소주제별로 재구성하지 않음.</p>	<p>문장 간 긴밀성, 문장 배열의 적절성, 요약문의 완결성 중 2가지가 매우 부족함.</p>	<p>문장의 문법성, 어휘 사용의 적절성, 어문 규범의 정확성 항목 중에서 5개의 위반이 나타남.</p> <p>또는 인용 표현 적절성, 시제 표현의 적절성, 직시 표현 환언의 적절성 중 2개의 위반이 나타남.</p>
1	<p>대화 전체 주제의 적절성, 소주제의 적절성, 소주제에 대한 대화 참여자의 중심 생각(마무리 구간 포함)을 모두 갖추지 못함.</p> <p>또는 요약문 전체를 요약문 작성자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작성함.</p>	<p>대화에서 제시된 소주제와 소주제에 대한 대화 참여자의 중심 생각을 대부분 작성하지 않음.</p>	<p>대화 내용을 소주제별로 재구성하지 않고, 불필요한 정보 일반화하지 않은 표현이 다수 포함됨.</p>	<p>문장 간 긴밀성, 문장 배열의 적절성, 요약문의 완결성을 모두 갖추지 못함.</p>	<p>문장의 문법성, 어휘 사용의 적절성, 어문 규범의 정확성 항목 중에서 6개 이상의 위반이 나타남.</p> <p>또는 인용 표현 적절성, 시제 표현의 적절성, 직시 표현 환언의 적절성 모두에서 위반이 나타남.</p> <p>또는 두 문단 이상.</p> <p>* ‘또는’으로 기술된 각 항목을 합산하여 감점하지 않음. 예를 들어 글자 수와 어문 규범 수 모두에 감점이 있다면 이 둘을 합산하지 않고 둘 중 더 낮은 점수를 표현 영역의 점수로 부여함.</p>

* ‘또는’이 포함된 부분: ‘또는’으로 이어진 두 개 또는 세 개의 준거에서 다른 준거를 모두 충족하였어도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점수를 부여함.

<협력적 대화 요약문 평가 배점표(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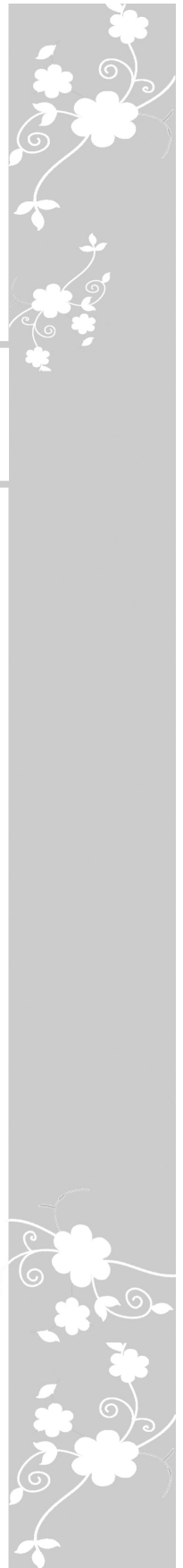
준거 / 점수	내용			조직	표현
	적절성	총망라성	명료성	긴밀성 및 완결성	문장 및 어휘
7	대화 전체 주제의 적절성 0 소주제의 적절성 0 소주제에 대한 대화 참여자의 중심 생각(마무리 구간 포함)의 적절성 0 객관성 0	소주제 모두 제시함. 소주제에 대한 대화 참여자의 중심 생각 모두 제시함.	소주제 선정의 명료성 0 정보의 명료성 0 표현의 명료성 0	문장 간 긴밀성 0 문장 배열의 적절성 0 요약문의 완결성 0	① 문장의 문법성 0 ② 어휘 사용의 적절성 0 ③ 어문 규범의 정확성 0 ④ 인용 표현의 적절성 0 ⑤ 시제 표현의 적절성 0 ⑥ 직시 표현 환언의 적절성 0
6	대화 전체 주제의 적절성 다소 부족	대화 참여자의 중심 생각 중 1개를 제시하지 않음.	표현의 명료성 다소 부족 (비유적 표 현, 군더더기 표현 등 다소 포함)	요약문의 완결성 다소 부족	①~③ 중 1개 위반
5	소주제의 적절성 다소 부족/ 소주제에 대한 대화 참여자의 중심 생각(마무리 구간 포함)의 적절성 다 소 부족	대화 참여자의 중심 생각 중 2개를 제시하지 않음.	표현의 명료성 다소 부족 (비유적 표 현, 군더더기 표현 등 다소 포함, 일 반화하지 않은 부분 다소 포함)	문장 배열의 적절성 다소 부족/ 문장 간 긴밀성 다소 부족 /	①~③ 중 2개 위반 / 글자 수 701-710자
4	대화 전체 주제의 적절성, 소주제의 적절성, 소주제에 대한 대화 참여자 의 중심 생각(마무리 구간 포함)의 적 절성 중 2가지가 다소 부족/ 요약문 작성자의 주관적인 생각 들어 간 부분 1개	대화 참여자의 중심 생각 중 3개를 제시하지 않음. / 소주제 1개를 제시하지 않음.	표현의 명료성 다소 부족 (비유적 표 현, 군더더기 표현 등 다소 포함, 일 반화하지 않은 부분 다소 포함) 또한 불필요한 정보 1회 포함.	문장 간 긴밀성, 문장 배열의 적절성, 요약문의 완결성 중 2가지가 다소 부 족	①~③ 중 3개 위반 / 글자 수 711-720자
3	대화 전체 주제의 적절성 매우 부족/ 소주제의 적절성 매우 부족/ 소주제에 대한 대화 참여자의 중심 생각(마무리 구간 포함)의 적절성 매 우 부족/ 요약문 작성자의 주관적인 생각 들어 간 부분 2개	대화 참여자의 중심 생각 중 4개를 제시하지 않음. / 소주제 2개를 제시하지 않음.	표현의 명료성 부족 (비유적 표현, 군 더더기 표현 등 상당 부분 포함, 일 반화하지 않은 부분 다소 포함) 또한 불필요한 정보 2회 포함. / 소주제별로 재구성하지 않은 부분 다 소 존재	문장 간 긴밀성 매우 부족 (문장들이 단순 나열됨) / 문장 배열의 적절성 매우 부족 (비논 리적 배열) / 요약문의 완결성 매우 부족 (미완의 인상)	①~③ 중 4개 위반 / ④~⑥ 중 1개 위반 / 글자 수 721-730자
2	대화 전체 주제의 적절성, 소주제의 적절성, 소주제에 대한 대화 참여자 의 중심 생각(마무리 구간 포함)의 적 절성 중 2가지가 매우 부족/ 요약문 작성자의 주관적인 생각 들어 간 부분 상당 부분 존재	대화 참여자의 중심 생각 중 5개를 제시하지 않음. / 소주제 3개를 제시하지 않음.	표현의 명료성 부족 (비유적 표현, 군 더더기 표현 등 상당 부분 포함, 일 반화하지 않은 부분 상당 부분 포함) 또한 불필요한 정보 매우 많음. / 소주제별로 재구성하지 않은 부분 대 부분 존재	문장 간 긴밀성, 문장 배열의 적절성, 요약문의 완결성 중 2가지가 매우 부 족	①~③ 중 5개 위반 / ④~⑥ 중 2개 위반 / 글자 수 731- 740자
1	대화 전체 주제의 적절성, 소주제의 적절성, 소주제에 대한 대화 참여자 의 중심 생각(마무리 구간 포함)의 적 절성 모두 매우 부족/ 요약문 전체를 요약문 작성자의 주관 적인 생각으로 작성함.	소주제, 소주제에 대한 대화 참여자 의 중심 생각을 대부분 제시하지 않 음.	소주제별 재구성 하지 않음. 정보의 명료성 매우 부족 표현의 명료성 매우 부족	문장 간 긴밀성, 문장 배열의 적절성, 요약문의 완결성 모두 매우 부족	①~③ 중 6개 위반 / ④~⑥ 모두 위반 / 문단 수 두 문단 이상 / 글자 수 741자 이상

* 위 표의 '/' 표시는 '또는'을 의미함.



붙임 6

작업자 관리 지침



**2025년 대화 및 텍스트 말뭉치
요약 연구 분석
작업자 관리 지침 버전 1.0**

2025. 12. 05.

목 차

제1장 작업자 관리 지침 개요

- 1.1. 목적 2
- 1.2. 필요성 2
- 1.3. 용어의 정의 4

제2장 작업자 선정

- 2.1. 작업자 역할 7
- 2.2. 작업자 모집 기준 및 방법 8

제3장 작업 수행

- 3.1. 작업자 교육 훈련 19
- 3.2. 작업 내용 21
- 3.3. 작업 환경 24
- 3.4. 작업 관리 31

제4장 작업 평가

- 4.1. 작업자 작업 결과 33
- 4.2. 성과 평가 방법 35

제1장

작업자 관리 지침 개요

1. 작업자 관리 지침 개요

1.1. 목적

작업자 관리 지침은 대화 및 텍스트 요약 말뭉치 구축 및 평가 작업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작업자들에게는 주요 업무 내용과 역할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명확한 작업 방향을 제공하여 작업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또, 작업 시 유의 사항과 규칙을 명시하여 작업자가 규칙을 지키며 성실하게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 선정 기준과 교육 훈련 계획 및 내용, 작업 방법 등을 기술하여 참여 자격이 있고 교육을 이수한 작업자들이 요약 구축 및 평가 작업을 수행하였음을 증명한다.

마지막으로는 작업자들의 결과물과 성과 평가 방법을 기술하여 작업자 관리 전 과정을 완전하게 정의한다.

본 사업에서 작성된 작업자 관리 지침은 구축 및 평가가 요구되는 유사 사업의 작업자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침으로서 사업 초반 작업자 선정, 작업 진행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1.2. 필요성

1.2.1. 작업자 선정

- 요약 구축 말뭉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작업자 자격 요건을 파악하고 작업자 선정 기준을 명시한 후, 모집된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할 테스트 문항 작성에 도움을 줌.
- 논증적 글 요약 구축 작업의 경우, 신문 사설 구조 및 특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요약문 작성에 필요한 국어학적 지식이 있는 자를 작업자 선정 기준으로 함.
- 대화 및 텍스트 요약 구축 작업의 경우, 대화 맥락 및 특징에 대한

분석 능력이 높고, 소주제별 요약문과 전체 요약문 작성에 필요한 국어학적 지식이 있는 자를 선정 기준으로 함.

- 대화 및 텍스트 요약 평가 작업의 경우, 신문 사설과 대화 맥락의 특징뿐만 아니라 추상 요약문에 대한 이해가 높은 국어학 관련 전공 석·박사 출신의 전문가 혹은 국립국어원 말뭉치 요약 평가 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자를 선정 기준으로 함.
- 작업 진행 중 구축 및 평가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작업자, 혹은 예기치 못한 작업자 이탈 등과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테스트를 통해 선정된 작업자 외 후보 작업자를 상시 배치함.
- 작업자의 역할을 명시하여 작업자의 업무 이해도 및 책임감, 중요성을 인지하며 작업 마무리까지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함.

1.2.2. 작업 관리

- 작업자 선정 이전에는 테스트 문항을 준비하고, 선정 이후에는 체계적인 교육 훈련 일정을 수립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함.
- 작업 중 작업물 제출 지연 및 누락, 피드백 미반영 등의 문제가 1개월 내 2회 이상 발생하면 경고를 부여하고, 경고가 3회 누적되면 작업 제외 및 작업자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하여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함.

1.2.3. 작업 결과물

- 작업 결과물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를 목록화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작업자에게 제공하여, 고품질의 요약문을 구축하도록 함.

1.3. 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 “논증적 글 요약 구축”은 작업자가 “신문 사설 요약문 작성 지침”을 기반으로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원시 말뭉치 ‘국립국어원 신문 말뭉치 2024’ 중 기본 조건에 충족하는 신문 사설 기사에 대한 요약문을 작성하는 작업임.
- “협력적 대화 요약 구축”은 작업자가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 구축 지침”을 기반으로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원시 말뭉치 ‘국립국어원 일상 대화 말뭉치 2021, 2022’ 중 기본 조건에 충족하는 대화에 대한 요약문을 작성하는 작업임.
- “논증적 글 요약 구축 작업자”는 구축 작업을 진행하며 A, B 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각 팀은 7명으로 구성하였으며 A, B 팀은 동일한 신문 사설 기사를 대상으로 요약 결과물을 구축하며 구축 과정에서 팀 간 의견 교환이 불가능함.
- “협력적 대화 요약 구축 작업자”는 구축 작업을 진행하며 A, B 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각 팀은 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A, B 팀은 동일한 대화를 대상으로 요약 결과물을 구축하며 구축 과정에서 팀 간 의견 교환이 불가능함.
- “논증적 글 요약 평가 작업”은 구축 작업 이후 진행하며, 작업자가 ‘신문 사설 요약문 평가 지침’을 기반으로 구축된 2건의 요약 결과물을 비교 평가하여 세부 평가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고 그 근거를 작성하는 작업임.
- “협력적 대화 요약 평가 작업”은 구축 작업 이후 진행하며, 작업자가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 평가 지침’을 기반으로 구축된 2건의 요약 결과물을 비교 평가하여 세부 평가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고 그 근거를 작성하는 작업임.

- “대화 및 텍스트 요약 평가 작업자” 는 평가 작업을 진행하며, A, B, C 총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각 팀은 1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A, B, C 팀은 동일한 요약 결과물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과정에서 팀 간 의견 교환이 불가능함.

제2장

작업자 선정

2. 작업자 선정

2.1. 작업자 역할

2.1.1. 논증적 글 요약 구축 작업자

- 작업자는 신문 사설 기사 전문을 정독하고 중요 문장을 선정함.
- 작업자는 선택한 중요 문장을 중심으로 신문 사설 기사 전체 내용을 3~4개 내외 문장, 300자 이내로 추상 요약문을 작성함.
- 요약문은 어문 규범을 준수해야 함.
- 작업자는 ‘2025년 신문 사설 요약문 작성 지침’을 숙지해야 함.
- 작업은 총 1주 간격으로 진행되며, 1인이 1주 동안 약 18건의 문서에 요약문을 작성함.
- 구축 집단은 두 팀으로, 팀당 7명의 작업자로 구성함.
- 동일한 논증적 글 요약 결과물을 공유할 수 없도록 팀별로 작업물을 배포하고 질의응답을 분리하여 관리함.

2.1.2. 협력적 대화 요약 구축 작업자

- 작업자는 대화 전문과 소주제 구간, 소주제명을 정독함.
- 작업자는 소주제 구간별로 한 문장의 간결한 요약문을 작성함. 이때, 소주제별 요약문을 작성하며 참고한 요약문의 근거가 되는 발화는 모두 중심 발화로 선정함.
- 작업자는 소주제별 요약문을 중심으로 대화 전체 내용을 포괄하도록 700자 이내의 추상 요약문을 작성함.
- 요약문은 어문 규범을 준수해야 함.
- 작업자는 ‘2025년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 구축 지침’을 숙지해야 함.
- 작업은 총 1주 간격으로 진행되며, 1인이 1주 동안 약 17건의 문서에 요약문을 작성함.
- 구축 집단은 두 팀으로, 팀당 5명의 작업자로 구성함.
- 동일한 협력적 대화 요약 결과물을 공유할 수 없도록 팀별로 작업물

을 배포하고 질의응답을 분리하여 관리함.

2.1.3. 대화 및 텍스트 요약 평가 작업자

- 평가자는 하나의 신문 사설과 대화를 기준으로 작성된 2건의 요약 결과물을 동시에 검토하며 비교 평가를 진행함.
- 평가자는 ‘논증적 글 요약 평가’의 경우 5개의 세부 평가 항목(문제 상황, 주장, 논거 또는 실천 방안, 긴밀성 및 완결성, 문장 및 어휘)에 대하여 최대 7점 만점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평가 근거를 작성함.
- 평가자는 ‘협력적 대화 요약 평가’의 경우 5개의 세부 평가 항목(적절성, 총망라성, 명료성, 긴밀성 및 완결성, 문장 및 어휘)에 대하여 최대 7점 만점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평가 근거를 작성함.
- 평가 근거는 요약문과 관련 있어야 하며, 정해진 형식에 맞추어 작성해야 함. 특히, ‘표현’ 영역의 경우 1점과 7점 외의 점수를 부여할 경우 점수 부여의 근거 예시를 작성해야 함.
- 평가자는 ‘2025년 신문 사설 요약문 평가 지침’과 ‘2025년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 평가 지침’을 숙지해야 함.
- 평가 집단은 총 3개의 팀으로 나누고, 팀당 6명의 평가자로 구성하여 작업을 진행함.
- 평가 작업은 1주 간격으로 진행되며, 1인이 1주 동안 약 17건의 요약 결과물을 평가함.
- 각 팀의 평가자들은 동일한 작업물을 평가하여 3건의 평가 결과물을 생성하므로, 평가 작업 결과는 서로 공유할 수 없도록 팀별로 작업물과 질의응답을 관리함.

2.2. 작업자 모집 기준 및 방법

2.2.1. 작업자 모집 기준

- 각 작업자 모집은 작업 단계에 따라 모집 내용을 다르게 하여 작업

진행에 적합한 인원을 작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함.

단계	구분	내용
1차 모집 (구축 작업 전)	논증적 글 요약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집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증적 글 요약 구축 : 14명 협력적 대화 요약 구축 : 10명 모집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국어원 말뭉치 요약 사업 참여 경험자 국어학 관련 전공 학사 이상 사전 테스트 결과가 우수한 자 구축 작업자 교육 훈련 참여가 가능한 자 구축 작업 전체 일정 진행이 가능한 자
	협력적 대화 요약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집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 혹은 협력사의 국어학 관련 전공자 추천 목록 사업주가 보유 중인 인력 풀 활용 다양한 구인/구직 사이트 활용
	평가 작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집 인원 : 18명 모집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국어원 말뭉치 요약 평가 사업 참여 경험자 국어학 관련 전공 석사 수료 이상 전문가 국어 글쓰기 및 고급 작문 관련 강의 및 사업 경험자 평가 작업자 교육 훈련 참여가 가능한 자 평가 작업 전체 일정 진행이 가능한 자 모집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 혹은 협력사의 국어학 관련 전공자 추천 목록 사업주가 보유 중인 인력 풀 활용 전년도 요약 사업 참여 경험 보유자
	추가 권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업에 사용할 개인용 컴퓨터 소유 말뭉치 관련 클라우드 소싱 작업 이력

<p>추가 모집 (구축 작업 중)</p>	<p>구축/ 평가 작업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 인원 : 상황에 따라 상이함. ※ 구축, 평가 작업자 중 작업 이탈, 낮은 작업 성능 및 미제출로 인한 경고 누적으로 작업 제외된 인원과 작업 진행 상황을 총합하여 필요한 인원으로 모집함. • 모집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모집에서 교육 훈련을 이행하였으나, 테스트 결과 예비 작업자로 구분되어 있던 인원 - 신규 모집자의 경우 즉시, 교육 훈련 이행 및 작업 진행이 가능한 인원 • 모집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가 보유 중인 인력 풀 활용 - 다양한 구인/구직 사이트 활용
----------------------------	---------------------------	---

[표 1] 작업자 모집 단계 및 내용

2.2.2. 작업자 모집 방안

- 구축 작업자 모집 이전에는 테스트 문항을 배포하여 결과에 따라 작업에 바로 투입할 인원과 예비 작업자로 구분함. 작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작업 관련 테스트는 아래의 문항들로 구성됨.

2.2.3. 테스트 문항 예시

- 분석 및 논리적 추론 능력

- 신문 사설을 읽고, 글의 논리 구조(문제 상황, 주장, 논거 또는 실천 방안)을 파악하여 글의 핵심 정보인 중요 문장을 선정하는 문제를 출제함.

예) 다음 신문 사설의 중요 문장을 선정하여 기입하시오. (단, 중요 문장은 3~6문장 내외로 선정, 선정된 중요 문장은 대체로 문제 상황 1문장, 주장 1문장, 논거 또는 실천 방안 2~4문장으로 구성하시오.)

- 대화를 읽고, 글의 논리 구조(화자별 중심 생각)를 파악하여 중심 발화를 선정하는 문제를 출제함.

예) 다음 대화의 화자별 중심 발화를 선정하여 기입하시오. (단, 중심 발화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한 문장 단위로 합하여 기입하시오.)

- 추상 요약 및 작문 능력

- 원문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문장을 재구성하고, 지정된 분량 내에서 유려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작문 능력과 표현력을 평가하는 문제를 출제함.

예) 위에서 선택한 중요 문장을 토대로 신문 사설 내용 전체를 3~4문장으로 요약하시오. (요약문 작성 시, 원문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날짜와 관련된 직시 표현의 경우 원문 하단의 date 정보를 참고하여 환언하시오.)

예) 위에서 선택한 중요 문장을 토대로 화자별 요약문을 1문장 작성하고, 화자별 요약문을 참고하여 최종 요약문을 작성하시오.

- 어문 규범 지식 확인(공통 문항)

- 잘못된 문장을 어문 규범에 맞게 수정하는 문제를 출제하여 어문 규범 지식 평가
- 예) 다음 문장을 읽고, 불필요한 수식어구와 표현법을 삭제하고 수정하세요. 또, 어문 규범에 맞게 수정하세요.

- 지원자는 ‘구글 폼’을 통해 답변을 제출하며, 답변은 관리자가 직접 확인하여 점수 산출

2.2.4. 논증적 글 요약 구축 실제 테스트 문항

1. 다음 신문 사설을 읽고, 다음 문제에 답하시오.

1) 다음 신문 사설의 중요 문장을 선정하여 기입하시오. (단, 중요 문장은 3~6문장 내외로 선정한다. 선정된 중요 문장은 대체로 문제 상황 1문장, 주장 1문장, 논거 또는 실천 방안 2~4문장으로 구성하시오.)

사설 기사 메타 데이터	title 한국일보 2022 기사 date 20221003 topic 경제 original_topic 경제>무역, 경제>자원, 경제>반도체
제목	[사설] 무역수지 6개월 내리 적자... 한국 경제 초비상 사태
원문	<p>지난달 한국의 무역수지가 37억7,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4월부터 6개월 연속 적자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받은 최악의 성적표이다.</p> <p>연속 적자의 가장 큰 이유는 에너지 수입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원유, 가스, 석탄 수입액은 18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81%나 증가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원화 가치 하락이 겹치며 수입액 증가폭을 더욱 키우는 양상이다. 지난달까지 연간 누적 적자는 288억7,600만 달러로 이미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연간 최대적자 기록을 훌쩍 넘겼으며, 연간 무역수지 적자가 480억 달러까지 늘어날 전망이다.</p> <p>물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무역적자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공통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 수출 품목의 부진이 이어져 상황이 더 심각하다. 특히 한국 경제를 지탱해 온 반도체 수출이 2개월 연속 하락했다는 점이 뼈아프다. 반도체 최대 수요처인 IT 제품 판매가 줄어드는 데다, 낸드플래시와 DRAM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며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의 부진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수출 부진과 한국 경제 위기는 맞물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다. 여기에 철강·석유화학 등 15대 주요 수출 품목 중 10개 품목이 전년 동월보다 수출이 줄었다. 지역적으로는 한국 최대 시장인 중국 수출 감소가 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p> <p>지금의 무역수지 적자는 수입 물가 상승과 해외 시장 전반의 수요 부진 때문이라 단기간 내 회복되기 힘들어 보인다. 점점 커지는 경제 위기의 경고음에 대비하려면 에너지 절약 등 사회 전반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이다. 또 정부는 해외자원 개발 활성화 등 공급망 안전 강화에 나서야 한다. 국내 기업의 해외 유보자산을 국내로 들여오도록 유도하고, 통화스와프 추진 등 환율 안정 정책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p>

2) 위에서 선택한 중요 문장을 토대로 신문 사설 내용 전체를 3~4문장으로 요약하시오. (요약문 작성 시, 원문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날짜와 관련된 직시 표현의 경우 원문 하단의 date 정보를 참고하여 환언하시오.)

2. 다음 신문 사설을 읽고, 다음 문제에 답하십시오.

1) 다음 신문 사설의 중요 문장을 선정하여 기입하십시오. (단, 중요 문장은 3~6문장 내외로 선정한다. 선정된 중요 문장은 대체로 문제 상황 1문장, 주장 1문장, 논거 또는 실천 방안 2~4문장으로 구성하십시오.)

사설 기사 메타 데이터	title 경향신문 2022 기사 date 20220714 topic 사회 original_topic 오피니언^사설
제목	[사설] 고향세, 답례품 경쟁 아니라 사업으로 승부 걸어야
원문	<p>'<u>고향사랑기부세</u>'(이하 <u>고향세</u>)가 내년 1월 도입된다. 강원도는 행정안전부의 시행령이 공포되는 대로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와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u>고향세</u> 시행에 따른 강원도의 세수 확대 효과 전망치는 연 최대 2,000억원대에서 최소 400억원대로 천차만별이다. 이제는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와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심의위원회는 지역과 세대, 계층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꾸려져야 한다.</p> <p><u>고향세</u>가 시행되면 <u>고향세</u>를 유치해 <u>지역활성화</u>를 달성하고자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u>고향세</u>를 매개로 많은 사람을 지역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인연 만들기가 중요하다. 즉, 단순 상품성 답례품 제공이 아니라 '체험형 프로그램'을 발굴해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테마파크 및 관광지 입장권, 래프팅 및 농업 체험, 지역의 케이블카, 곤돌라, 레일바이크 등의 시설 이용권 등 기부자가 기부 자치단체를 방문해 직접 참가, 체험하면서 즐길 수 있는 형태의 답례품을 제공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u>고향세</u>를 도입해 알아서 시행하도록 하는 것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 <u>고향세</u>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u>고향세</u> 기부자가 자치단체를 방문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u>숙박비</u>의 일부를 지원하는 <u>티켓(숙박쿠폰)</u> 발부도 검토해야 한다. 특히 고성, 속초, 강릉 육계와 동해 망상 등 동해안 산불이 발생한 재난지역과 <u>고향세</u>를 연계한 <u>숙박시설</u> 쿠폰 발행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p> <p>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가 그 지역에 기부하고 싶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에 합당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 기부자를 대상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지, 사업은 어떻게 펼쳐 나가며, 기부한 돈은 무슨 사업에 어떻게 집행할지 등 이러한 사항들을 시행 전에 충분히 고민해야 <u>고향세</u>가 정착될 수 있다. <u>고향세</u>는 답례품의 경쟁이 아니라 정책과 사업으로 경쟁해야 한다. 여기에서 <u>고향세</u>는 주민의 참여 속에 진행돼야 한다. 아무리 명분 있는 사업이라도 주민이 반기지 않고 참여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즉, <u>고향세</u> 도입 시 기부자들에게 제공될 양질의 특산물 개발은 주민 참여가 필수다. 이는 지역 농수축산물의 판로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값싸고 질 좋은 <u>지역상품</u>의 특화와 발굴은 지역경제 회생에도 이바지하게 된다. 감사 표시로 제공한 양질의 지역특산물은 향후 택배 및 인터넷 주문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촉매로 작용한다. 지방자치단체는 <u>고향세</u> 도입을 앞두고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면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힘들게 도입한 <u>고향세</u> 제도의 신뢰가 자칫 손상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p>

2) 위에서 선택한 중요 문장을 토대로 신문 사설 내용 전체를 3~4문장으로 요약하십시오. (요약문 작성 시, 원문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날짜와 관련된 직시 표현의 경우 원문 하단의 date 정보를 참고하여 환언하십시오.)

3. 다음 신문 사설을 읽고, 다음 문제에 답하시오.

1) 다음 신문 사설의 중요 문장을 선정하여 기입하시오. (단, 중요 문장은 3~6문장 내외로 선정한다. 선정된 중요 문장은 대체로 문제 상황 1문장, 주장 1문장, 논거 또는 실천 방안 2~4문장으로 구성하시오.)

사설	title	강원일보 2022 기사
기사	date	20220701
메타	topic	사회
데이터	original_topic	사회>노동_복지, 사회>여성
제목	[사설] 내년 최저임금 9,620원, 누구를 위한 금액인가	
원문	<p>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5.0%(460원)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을 제외하고 23명 중 찬성은 12명, 기권은 10명, 반대는 1명이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p> <p>하지만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이 무산된 노동계는 5%는 실제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으로 결국 임금 인상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저임금 노동자 삶의 불평등, 더 나아가 노동 개악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당장 2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도 낮은 최저임금 인상을 등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지불 능력인데 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됐으며 이의제기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노사 모두 이번 결과에 반발하면서 집권 첫해부터 후폭풍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p> <p>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의 기준 역할도 한다. 따라서 노동자 가구의 표준생계비를 우선 고려한 상태에서 소득분배와 경제 상황을 중심으로 결정돼야 한다. 다만 최소한 물가 상승률과 노동생산성 증가율만큼은 인상돼야 실질소득을 지킬 수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사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저임금안은 저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의 말처럼 노사 불만의 균형을 잘 잡아주고 타협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부는 앞으로 최저임금 정책을 되돌아보고 공동이익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p>	

2) 위에서 선택한 중요 문장을 토대로 신문 사설 내용 전체를 3~4문장으로 요약하시오. (요약문 작성 시, 원문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날짜와 관련된 직시 표현의 경우 원문 하단의 date 정보를 참고하여 환언하시오.)

3. 다음 문장을 읽고, 불필요한 수식어구와 표현법을 삭제하고 수정하세요. 또, 어문 규범에 맞게 수정하세요.

예시) 1. 나의 작은 아들은 큰 아들에 비해 먹어본 음식 종류가 적다.

- 1) 나의 작은 아들은 큰 아들에 비해 먹어본 음식이 많지 않다.
- 2) 틈새라면은 라면 중 매운 맛을 가진 라면으로 유명하다.
- 3) 국민지원금의 경우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사용이 제한된다.
- 4) 내 친구는 직장 동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다.
- 5) 숲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다양한 동식물이 살아가고 있다.
그 곳에는 시원한 공기가 가득하여 우리의 마음을 맑게 만들어 준다.
- 6) 올해 1주택자 총부세 과세 기준을 14억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 7) 그는 “이번 법 제정에 힘써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 8) 화자1는 명이나물과 삼겹살이 잘 어울린다는 화자2의 의견에 동의했다.

2.2.5. 협력적 대화 요약 구축 실제 테스트 문항

1. 다음 대화를 읽고, 다음 문제에 답하시오.

1) 다음 대화의 화자별 중심 발화를 선정하여 기입하시오.

단, 중심 발화가 분리되어있는 경우 한 문장 단위로 합하여 기입하시오. 예시) 화자1 :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배달 음식을~. 화자2 : 하지만 해결책과 방안이 나왔다고 해도 지금 제대로 ~.

원문

구분	발화
화자1	나는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는 입장으로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배달 음식을 먹는 상황은 밥을 차리기 곤란한 상황이거나
	혹은 먹고 싶은 특정 음식이 있어서 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배달 음식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
	나는 근데 배달 음식을 반대하는 이유가 어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화자2	배달 음식 자체가 뭘 뭘뭘일 순 있겠지.
	근데 사실상 찾아보면 거기다 행방이 아니거나 질 낮은 사탕사탕
	칼로리 같은 경우가 상당히 높잖아.
	그래서 나는 첫 번째로 건강이 별로
	좋지 않다. 왜냐하면 사람의 움직임이 떨어지고
화자1	칼로리 소모가 적어지면서 기초 대사량에 의존을 하게 되잖아.
	그거 이상의 칼로리를 더 섭취할 거고 사탕들이.
	그로 인해 건강이 좀 안 좋아질 거 같고. 그래서 실제로 내가
	그런 경험에 있고.
	내가 그 제인 자리에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화자1	사람들이 먹고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거는 사실
	노동에서 내세울 만한 어떤 거 같고
	배달 음식이라고 해서 뭘
	치킨 피자 같은 고칼로리 음식뿐만이 아니라
화자2	건강한 뭘 음식도 많잖아.
	그래서 그거는 확대해석을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내가 말했던 건 움직이지 않는다고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아니라
	그 맥 주 안에서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이 더 이상
화자1	음식을 먹기 전에 움직이는 칼로리 소모가 생기지 않는다
	라는 얘기였던 말이야.
	그리고 뭘 음식은 충분히 많이 찾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 배달에만 들어가 봐도
	인스턴트나 피자 치킨 폭발
	내지는 그런 음식들이 뭘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잖아.
화자2	주요한데 더 그렇고. 뭘을 시켜 먹는 사람들도 좀 있겠지만
	사실상 뭘을 우리가
	대체우기에는 사실상 주문왕이나
	기자의 수가 확실히 너무 적지 않을까?
	음. 요즘
화자1	한진 회근은 아니더라도 요 근래에
	그 혹시 생리드 가게나
	그런 거 많이 생긴 거 봤어?
	근데 그렇게 요즘 건강한 음식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
	글쎄.
화자1	같이 칼로리가 높고
	그런 음식들이 많다고 해서
	반대할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생각
	아. 그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거라
	나쁘다고 보진 않아.
화자2	음.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내가 주위에서 봐 왔고 겪은 바로는
	배달 음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 게으러지는 건 확실한 거 같아.
	음. 음식을 주문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누워있었으니깐?
화자1	사실상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다
	하는 행위에는 가서 뭐 사 먹는다는 움직임도 포함 되고
	소파를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칼로리 소모하고
	내지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칼로리 소모하고
	다 그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적지 않은 칼로리란 말이야. 하루 3시 5개를 포함하면
화자2	근데 배달 음식이라는 손가락만 움직이면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칼로리 소모들의 부족이 확실히 느껴지는 거지.
	음.
	음.

2) 위에서 선택한 중요 문장을 토대로 화자별 요약문을 1문장으로 작성하시오.

(화자별 요약문은 “화자1은~” 으로 작성하시오. 화자1과 화자2 각 화자별 요약문 1건씩, 총 2건 작성)

2. 다음 대화를 읽고, 다음 문제에 답하시오.

1) 다음 대화의 화자별 중심 발화를 선정하여 기입하시오.

단, 중심 발화가 분리되어있는 경우 한 문장 단위로 합하여 기입하시오. 예시) 화자1 :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배달 음식을~. 화자2 : 하지만 해결책과 방안이 나왔다고 해도 지금 제대로 ~.

원문	구분	발화
	화자2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배달 음식을
		하으로 쓰레기도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이 부분에서는 되게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화자1	근 3년 4년 동안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고
		해결책은 나왔어. 이미, 사람들이 제로 웨이스트라고
		그 자기가 사용하는 냄비?
		뭐 이런 걸 반찬통을 챙겨와서 거기서 담아 오고
		그래서 그 배달 용기나 포장지나 그런 거를 조금 줄이는 식으로
		운동을 하 스스로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그걸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문제인 거지
		해결책이나 방안은 지금
	화자2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걸로 알아.
		하지만 해결책과 방안이 나왔다고 해도 지금
		새대로 상황이 안 된 거잖아?
		그런 상황에서 배달 음식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음식 쓰레기는 늘어날 거고
		사실상 우리가 예를 들어 떡볶이 하날 시키는데도
		뭐 커다란 떡볶이 용기 그 옆에 다른 반찬 용기
	화자1	젓가락 일회용 젓가락 커다란 비닐봉지 숟가락
		까지 다 하면은 사실상 떡볶이 하나를 먹자고 쓰레길 그만큼 만들어 낸 거잖아.
	화자2	그러면은 배달 음식에
		따라오는 쓰레기가 많다고 해서 배달 음식을 반대한다는 입장인 거지?
	화자1	아니지. 그 배달 음식을 반대한 이유 중 하나가 그런 문제가 생긴다
		라는 거지.
	화자2	그러면 쓰레기가 나오지 않으면 년 배달 음식에 찬성할 수 있어?
		내가 여태까지 말했던 것들이 다 문제점이야.
	화자1	이거 하나만 해결한다고 배달 음식이
		좋아지진 않는 거지.

2) 위에서 선택한 중요 문장을 토대로 화자별 요약문을 1문장으로 작성하시오.

(화자별 요약문은 “화자1은~” 으로 작성하시오. 화자1과 화자2 각 화자별 요약문 1건씩, 총 2건 작성)

3. 화자별 요약문(1-2, 2-2 답변)을 참고하여 최종 요약문을 작성하시오. (최종 요약문의 첫 번째 문장에서는 대화 참여자와 전체 주제를 제시하고, “이 대화에서 화자1과 화자2는 ~에 대해 이야기했다.” 라는 형식으로 작성하시오.

4. 다음 문장을 읽고, 불필요한 수식어구와 표현법을 삭제하고 수정하세요. 또, 어문 규범에 맞게 수정하세요.

예시) 나의 작은 아들은 큰 아들에 비해 먹어본 음식 종류가 적다.

- 1) 나의 작은 아들은 큰 아들에 비해 먹어본 음식이 많지 않다.
- 2) 틈새라면은 라면 중 매운 맛을 가진 라면으로 유명하다.
- 3) 국민지원금의 경우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사용이 제한된다.
- 4) 내 친구는 직장 동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다.
- 5) 숲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다양한 동식물이 살아가고 있다. 그 곳에는 시원한 공기가 가득하여 우리의 마음을 맑게 만들어 준다.
- 6) 올해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4억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 7) 그는 “이번 법 제정에 힘써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 8) 화자1는 명이나물과 삼겹살이 잘 어울린다는 화자2의 의견에 동의했다.

제3장

작업 수행

3. 작업 수행

구축 및 평가자의 교육 및 테스트는 국립국어원 요약 사업에 경험이 있는 작업 관리자와 국어학 관련 전공 대학원생 이상인 지침 팀이 담당하며, 작업 피드백은 작업 관리자가 담당함.

3.1. 작업자 교육 훈련

3.1.1. 준비 단계

- 1차 작업자 교육
 - 논증적 글 요약 및 협력적 대화 요약 지침 교육
 - 작업 도구 사용법 안내
 - 작업 실습 진행
 - 작업 일정 및 유의 사항 안내
- 2차 작업자 교육
 - 지침 수정 사항 안내
 - 작업 도구 수정 및 유의 사항 안내
 - 작업물 분석 및 피드백
 - 자주 발생하는 오류 공유

3.1.2. 구축 단계

- 상시
 - 구축 작업자 질의응답 확인 및 지침 팀 답변
 - 자주 발생하는 오류 전체 공지
- 매주
 - 작업 관리자의 주 차별 작업물 검토 후 피드백 전달
 - 피드백 반영한 수정 결과물 제출

3.1.3. 평가 단계

- 협력적 대화 요약 평가자 교육
 - 협력적 대화 요약문 평가 지침 교육
 - 평가 도구 내 점수 및 근거 문장 작성 방법 안내
 - 실습 진행
 - 협력적 대화 요약 평가 일정 및 유의 사항 안내
- 논증적 글 요약 평가자 교육
 - 논증적 글 요약문 평가 지침 교육
 - 평가 도구 내 점수 및 근거 문장 작성 방법 안내
 - 실습 진행
 - 논증적 글 요약 평가 일정 및 유의 사항 안내
 - 자주 발생하는 오류 공유(피동문 작성, 점수 누락 등)
- 매주
 - 작업 관리자가 주 차별 작업물 확인
 - 평가 점수 및 근거 문장 누락 확인
 - 매주 발생하는 오류 정리 및 작업자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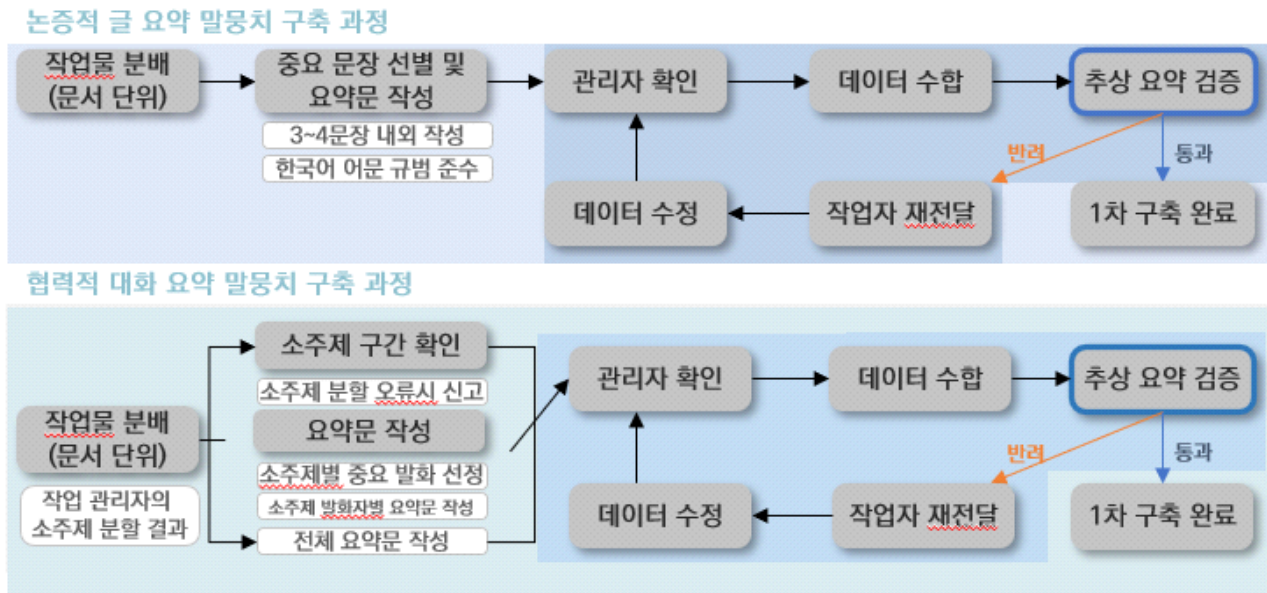
3.1.4. 교육 일정

2025년																									
구 분	내 용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작업자 모집																								
2	-구축 작업자 교육																								
3	-구축 질의응답, 피드백																								
4	-평가 작업자 교육																								
5	-평가 오류 피드백																								

[표 8] 작업자 교육 일정

3.2. 작업 내용

3.2.1. 대화 및 텍스트 요약 말뭉치 구축



[그림 1] 요약 말뭉치 구축 과정

3.2.1.1. 구축 작업 내용

- 논증적 글 요약은 작업자 모집 조건에 부합하는 작업자 14명을 7명씩 총 2개의 팀으로 나누어 진행함.
- 구축A 팀과 구축B 팀은 8주간 동일한 문서 1,008건에 대한 요약문을 구축함.
- 작업자는 배포된 문서를 작업 도구로 확인하고, 숙지한 지침 내용을 바탕으로 중요 문장 선정 및 요약문 작성 작업을 진행함.
- 협력적 대화 요약은 작업자 모집 조건에 부합하는 작업자 10명을 5명씩 총 2개의 팀으로 나누어 진행함.
- 구축A 팀과 구축B 팀은 7주간 동일한 문서 510건에 대한 요약문을 구축함.
- 작업자는 배포된 문서를 작업 도구로 확인하고, 숙지한 지침 내용을 바탕으로 중심 발화 선정 및 소주제별 요약문, 전체 요약문 작성 작업을 진행함.

- 구축 작업 관련 질의 사항 발생 시 작업별, 팀별로 구분된 질의응답 시트를 활용하여 지킴팀 답변을 확인하고 작업물을 수정함. 시트는 [그림 2]와 같음.

A	B	C	D	E	F
날짜	질문자	문서 id	신문 사실 제목과 원문	질문	답변
			인타넷이란 말 그대로 컴퓨터 통신망을 그물처럼 연결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인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으며, 방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어떤 인터넷의 공정한 연구 부장적인 연을 제대로 알고 정보화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2025.06.16	A		인타넷은 그동안 생각만으로 그친 집합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아바타, 대리현상 등의 다양한 정체성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익명성을 통해 국적이나 신분, 계급, 연령, 남녀 등의 현실사회의 불리한 관계를 극복하고 자유와 평등의 신장을 가져왔다. 또한 다양한 정보의 공유를 통하여 개인인의 역할이 강화되었으며, 표준화 문제를 가져서 소중함의 함,	영어 단어 표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소리는대로 SG-SA, LCD-알피디. 상단 FC-장남 예프시, SK 하이닉스, 에스케이 하이닉스, SOC 부자-에스오씨 부지, IT 백화점-아이티 백화점, CES 2030-씨이에스 2030 등으로 표기하면 되나요?	언어팀) 외국 문자의 약자인 경우 대문자로 작성하나, <우리말샘>에 등재가 되어 있는 경우 등재어로 작성하여도 됩니다.
2025.06.25	D				
2025.06.27	D			담당자님 통화 내용대로 영문 발문 그대로 작성하겠습니다. 원록 요약문 중 집값 이 띄어쓰기 오류라고 지적하셨는데, 우리말샘에 검색해 본 결과 붙여쓰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언어팀) '집값'은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소홀> 이 <소홀히> 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06.30	D		전세 사기로 인한 청년들의 빚마련 극단적 선택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태는 정부로부터 오는 집값 전세 대출 정책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증가, 급증, 급상, 보유 기간, 관리, 감독, 소홀 이 낱문 제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위기 중진국 함께 국제 개발과 지원 정책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해 발아하는 지원 서비스를 마련해라고 관계 장관에게 지시했다. 앞으로 전세 사기는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더 이상 소중함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25.07.02	F		상동	소홀히 가 아니라 소홀 이 맞지 않나요?	언어팀) '소홀히'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07.07	H		상동	그게 아니고요... 문맥을 잘 읽어 보시면, 관리 감독 소홀이 주어입니다. 부사로서의 소홀히가 아니라 소홀이 명시됩니다..	언어팀)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2025.07.07	E		아파트 거래량이 5개월 연속 1,000만 미만에 그치는 추세의 거래 절벽 속에서 정부는 1·3 부동산 규약 완화책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서울시는 아파트 35층 초과 제한 제도로 제2차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분양가 기동 속도도 대폭 완화, 임대 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 해제 등은 1주택자의 임대차기회를 유도하고 분양 시장 위축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집값 급등의 재발 우려 주장은데, 우리말샘에 집값 은 붙여쓰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의 6번에서도 같은 절벽 을 썼고, 그렇게 장정해 주셨습니까.	1. [위 문제]기 오류... 거품 된 집값 을 지지하거나, 해산 된 원디)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말샘에 집값 은 붙여쓰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의 6번에서도 같은 절벽 을 썼고, 그렇게 장정해 주셨습니까.	언어팀) '집값'은 우리말샘에 '집값'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표현입니다. 1. 지문 표현 관련 오류가 전일되어 올 때, 지문에 따라 올바른 표현이었던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림 2] 논증적 글 요약 A 팀 질의응답 화면

3.2.1.2. 1차 검수

- 작업물 검수와 피드백은 국립국어원의 요약 사업에 참여 경험이 있는 작업 관리자가 진행함.
- 작업 관리자가 매주 수합된 결과물에 대해 작성한 피드백을 작업자에게 전달하면 작업자들은 피드백을 확인 후 이전 작업물을 수정함.
- 작업자는 주 차별 요약문 구축과 기존의 구축 결과물 수정을 동시에 진행하고 작업 기한 내에 결과물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함. 검수 도구는 구글 시트를 활용하였으며, 실제 사용된 피드백 화면은 [그림 3], [그림 4]와 같음.)

Index	step	작업자 id	DATE	문서번호	제목	원문	중요 문장	요약문	요약문 글자수	피드백
1	07	W06	20230414	NWRW24000 00001.13946	[사실] '대통령 지지율 27%'에 담긴 민심의 경고	2.1: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7%로 급락해 다시 20%대로 내려앉았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2.2: 지난해 11월 30%대를 회복한 지 5개월 만이다. 2.3: 지난해 9월 기록한 최저 지지율 24%에 근접하는 참담한 수치다. 2.4: 윤 대통령과 여당은 지지율 27%에 담긴 민심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려 한다. 3.1: 여론조사에서 눈에 띄는 건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기반인 대구·경북(K)에서도 부정평가(53%)가 긍정평가(44%)를 웃돌았다는 점이다. 3.2: 여론이 공을 들이는 MZ세대를 포함한 젊은층(20~40대)의 지지율도 모두 10%대에 머물렀다. 3.3: '주 69시간 노동시간' 등 시대착오적인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4.1: 국정수행 부정평가 이유로 '외교'(28%)가 압도적인 것은 미국의 국가안보실 도정에 대한 정부의 납득하기 어려운 대응 때문이다. 4.2: 미국 정부기관이 한국 정부를 도정한 기밀문건이 유출되는 주권 침해가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한·미 동맹'만을 되뇌며 자자세로 일관했다. 4.3: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국이 역의를 가지고 (도정)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 반박을 시도. 4.4: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양보한 데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도 소극적으로 일하는 등 총체적 부실·무능회고에 대한 불신이 조사결과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4.5: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한편으로 각국이 실리외교에 나서고 있는 전환기에 가치외교만 앞세우는 윤석열 정부가 과연 국익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4.6: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외교정책 전반을 재검토한다. 5.1: 다음달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는 만만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5.2: 경제는 수출이 10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부동산·부자 감세로 세수적자도 심화되고 있다. 5.3: 하지만 민생을 최우선으로 돌봐야 할 정치권에서 참치는 실종됐고, 그 책임이 여당에 여당이다. 5.4: 윤 대통령은 양국관계법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고, 최장기간 야당대표를	1.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7%로 급락해 다시 20%대로 내려앉았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2. 윤 대통령과 여당은 지지율 27%에 담긴 민심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려 한다. 3. 국정수행 부정평가 이유로 '외교'(28%)가 압도적인 것은 미국의 국가안보실 도정에 대한 정부의 납득하기 어려운 대응 때문이다. 4.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양보한 데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도 소극적으로 일하는 등 총체적 부실·무능회고에 대한 불신이 조사결과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5. 하지만 민생을 최우선으로 돌려야 할 정치권에서 참치는 실종됐고, 그 책임이 여당에 있다. 6.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경허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야당과의 협치에 나서야 한다.	여권의 핵심 지지층인 대구·경북과 젊은 층의 이탈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7%로 추락하며 민심의 심각한 경고가 나타났다. 이는 미국에 도정 사태에 대한 지지세 대응과 강제 동원 배상 양보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등 총체적인 외교 실책이 지지세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경제는 침체 하고 세수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당의 합치는 실종됐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경허 민심을 수용하고 야당과의 협치로 소수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247	[표현 수정] '강제 동원 배상 양보'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은 일본과의 문제이기에 앞서 '일본민'을 추가하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러울 듯함. 경기는 침체하고 있다는 경기 문맥과 호수정하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러울 듯함]

[그림 3] 논증적 글 요약 피드백 화면

- 1) 검수 및 수정 작업은 대화 및 텍스트 요약 말뭉치의 주 차별 결과물을 1주 동안 작업 관리자가 검수한 후, 3주차부터 작업자에게 배포함. 작업자는 3주차부터 작업 도구에서 해당 주차의 새로운 작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기존 결과물의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출함. 즉, 한 주차에 수행된 작업은 3주에 걸쳐 관리자의 검토와 작업자의 수정을 통해 완료됨.

인역 스	작업자 id	문서번 호	제목	소주제 번호	소주제	화자1 발화 요약	화자2 발화 요약	화자3 발화 요약	화자4 발화 요약	전체 요약문	전체 요약문 글자 수	피드백
4	W17	SDRW2 100004 090.1	지역 내 기피시설 설치	1	경제적, 건강적 피해	적절한 보상을 통해 피해를 감할 수 있다.	경제적, 건강적 피해를 본 사실을 밝히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 대화에서 화자1과 화자2는 기피 시설 설치에 대해 이야기했다. 경제적, 건강적 피해에 대해 화자1은 적절한 보상을 통해 피해를 감할 수 있다고 했고, 화자2는 경제적, 건강적 피해를 본 사실을 밝히 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다. 기피 시설 설치 선정 기준으로 화자1은 기피 시설 근처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건강에 해가 되는 시설은 인적이 없는 곳에 설치하면 된다고 했고, 화자2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도 자신의 집 앞은 안 된다고 했다. 피해 보상 전문가 집단의 필요성에 대해 화자1은 피해 보상을 처리하기 어려운 점을 말하였고 화자2는	362	[건강과 경제적 피해를 받은 사실을 밝히기 때문에 반대한다.(최종 요약문에도 반영) 2. 띄어쓰기 오류]
				2	기피 시설 설치 선정 기준	기피 시설 근처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건강에 해가 되는 시설은 인적이 없는 곳에 설치하면 된다.	꼭 필요한 시설이라도 자신의 집 앞은 안 된다.					
				3	피해 보상 전문가 집단의 필요성	피해 보상을 처리하기 어렵다.	피해 보상 전문가를 발전시켜 집 앞에 기피 시설을 설치해도 반대의 목소리가 없게 해야 한다.					

[그림 4] 협력적 대화 요약 피드백 화면

3.2.1.3. 오류 목록 관리

- 관리자는 작업자의 수정 결과물 확인 및 해당 오류를 목록화하여 관리함.
- 자주 발생하는 오류는 목록화하고 자주 작업물 배포 시 작업자들에게 안내하여 동일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자주 발생하는 오류 목록은 [그림 5]와 같음.

문서번호	제목	원문	중요 문장	요약문	요약문 글 자수	오류	해결 방안
NLRW2400 000008 220	[사설]가변화된 지방 의회의 책임과 무게	2.1: 지방위원의 일탈 사고. 2.2: 잊을만하면 한 번씩, 끊임없이 터지는 사고다. 3.1: 지난 지방선거에서 총 42명의 청주시의원 당선자 중 절반이 넘는게 조선 의원이다. 3.2: 그만큼 청당은 인적쇄신을 통해 세롭고 참신한 인물들로, 주민들 또한 정치의 새로운 바람을 기대하며 조선의원에게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3.3: 민의가 반영된 결과다. 4.1: 하지만 지방위원들의 무게감은 그만큼 낮아졌다. 4.2: 조선 의원들의 일탈은 끊이지 않았다. 4.3: 박지현 충북도의원은 항공기 내 소란 혐의로 의회에서 징계까지 받았고, 청주시의원 중 일부는 이전 한 단체의 재주 워크숍 일정을 소화하다 과한 음주 추태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5.1: 더욱 우려되는 것은 개인적 일탈로 인한 사퇴까지 이어지고 있는 점이다. 5.2: 최근 민주당 한재학 청주시의원의 갑작스런 사퇴로 시민들을 비롯해 정당, 의회 모두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5.3: 지방의원 개개인에 대한 분노를 넘어 지방의회 존재 이유에 대해 근본적 회의를 품고 있는 지경이다.	1. 지방위원의 일탈 사고. 2. 더욱 우려되는 것은 개인적 일탈로 인한 사퇴까지 이어지고 있는 점이다. 3. 지방의원 개개인에 대한 분노를 넘어 지방의원 존재 이유에 대해 근본적 회의를 품고 있는 지경이다. 4. 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다. 5. 지방의원들이 의원직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개인적 일탈과 스캔들, 도적으로 인한 모든 피해는 시민과 도민이 짊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6. 자신의 자리를 가볍게 생각하는 지방의원, 당선만 시켜놓고 책임도 지지 않는 각 정당은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의 무게감을 되뇌어야 한다.	일부 지방 의원들의 개인적인 몰질로 인한 문제가 불거져 지방 의회 존재 이유에 대한 회심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일탈이 사퇴까지 가게 만든다는 것이다. 결국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한 보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며, 이러한 피해는 시민과 도민이 짊어져야 할을 앞두어야 한다. 또한 지방 의원들은 자신의 자리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각 정당은 유권자의 선택에 대한 무게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47	[잘못으로 비어 있는 직위, 의 의미라면 불어쓰기함]	작업자에게 같은 내용의 피드백을 제공하고 직접 수정하여 제출하게 함.

[그림 5] 자주 발생하는 오류 목록

3.2.2. 대화 및 텍스트 요약 말뭉치 평가

3.2.2.1. 평가 점수 부여 및 근거 문장 작성

- 평가는 작업자 모집 조건에 부합하는 평가자 총 18명을 A, B, C 3개 팀으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 평가, 논증적 글 요약 말뭉치 평가 순으로 진행함.
- 협력적 대화 요약 평가는 평가A 팀, 평가B 팀, 평가C 팀이 5주간 동일한 문서 510건에 대해 구축A, 구축B 팀이 구축한 각 2건의 요약문을 평가함.

- 논증적 글 요약 평가는 평가A 팀, 평가B 팀, 평가C 팀이 10주간 동일한 문서 1,008건에 대해 구축A, 구축B 팀이 구축한 각 2건의 요약문을 평가함.
- 평가자는 협력적 대화 요약 및 논증적 글 요약 평가 대상 문서를 작업 도구로 확인하고, 평가 지침을 바탕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근거 문장을 작성함.
- 평가 작업 중 질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팀별로 구분된 질의응답 시트에서 해당 내용을 질의하여 지침 팀의 답변을 받은 후 작업물을 평가함.

3.2.2.2. 2차 점수

- 작업 관리자는 3.2.2.1.의 평가 결과물을 수합하여 인간 평가 목표 수치(3인의 총점이 4.9점 이하, 표현 총점이 만점의 70점 미만) 이하인 문서를 수정 작업물로 분류하여 수정 후 최종 결과물을 생성함.

3.3. 작업 환경

- 대화 및 텍스트 요약 말뭉치 구축, 평가 작업자는 작업 환경에 제한이 없으며, 개인용 컴퓨터로 개별 작업 도구에 접속하여 언제 어디서든 작업이 가능함.
- 작업자는 교육 훈련을 받아 작업에 사용할 작업 도구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작업 도구는 논증적 글 요약 구축, 협력적 대화 요약 구축 작업용과 논증적 글 요약 평가, 협력적 대화 요약 평가 작업용으로 분리함.
- 작업 도구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오류를 수정한 작업 도구를 재배포하여 작업 지연이 없도록 관리함.
- 작업자가 사용할 말뭉치 구축 작업 도구와 말뭉치 평가 작업 도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함.

3.3.1. 논증적 글 요약 말뭉치 구축 작업 도구

논증적 글 요약 작업 도구는 논증적 글 요약 작업에 적합한 형태의 도구로, 작업자의 신문 사설 전문 확인과 중요 문장 선택, 요약문 작성에 대한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임.



[그림 6] 논증적 글 요약 구축 도구 전체 화면

논증적 글 요약 구축 도구로 작업 문서 파일을 열면 [그림 6]과 같은 화면이 표시됨. [그림 6]의 1번 부분은 문서의 사설 기사 본문이 나타나는 곳이며, 작업자는 사설 기사의 내용을 정독함. 이때 원문 표시 창은 작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복사나 붙여넣기 기능을 제한함. 사설 원문 확인 후에는 문장을 더블클릭하여 중요 문장을 선정함. 선정된 중요 문장은 오름차순으로 자동 정렬되어 2번 부분인 중요 문장 칸 위에 등장함. 이후 작업자는 선정한 중요 문장을 기반으로 3번 부분에 300자 이내의 추상 요약문을 작성한다. 추상 요약문은 작성 칸에 직접 입력해야 하며, 작성과 동시에 글자 수 확인이 가능함. 또한 작업자는 4번 부분의 문서별로 자동 생성된 추출 요약문 창을 참고할 수 있는데, 추출 요약문과 추상 요약문의 일치도가 60% 이상이라면 결과물 제출이 제한됨. 300자 이하의 추상 요약문 작성이 완료되면 6번 부분의 문서 넘김 버튼을 통해 다음 문서로 이동함.

3.3.2.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 구축 작업 도구

협력적 대화 요약 작업 도구는 협력적 대화 요약 작업에 적합한 형태의 도구로, 작업자의 대화 맥락 전문 확인과 중심 발화 선택, 소주제별 요약문, 전체 요약문에 대한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임.

[그림 7] 협력적 대화 요약 구축 도구 전체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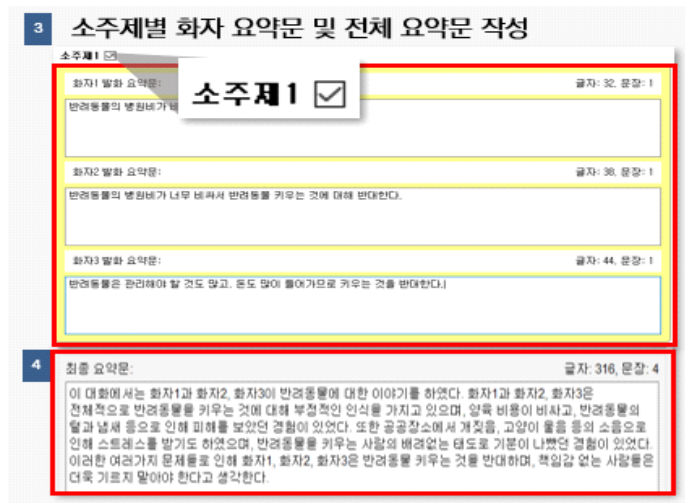
협력적 대화 요약 구축 도구로 작업 문서 파일을 열면 [그림 7]과 같은 화면이 표시됨. 작업자는 작업 도구에서 문서를 연 후 주어진 대화를 정독함. 이때 작업 문서에서 오류를 발견할 경우 오류 문서로 등록이 가능하며, 오류 문서 등록 시 작업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음. [그림 7]의 대화 표시 창에서 소주제별로 분리된 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2~4인으로 구성된 화자 정보와 3~6개로 분할된 소주제 구간은 본문 셀의 색깔로 구분됨. 작업자가 미리 분할된 소주제 구간을 확인할 때 소주제명이 소주제 분할 구간과 이질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직접 수정이 가능함.

작업자는 요약문을 작성하며 화자별로 소주제에 대한 생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발화를 중심 발화로 선정함. 해당 문장을 더블클릭하면 중심 발화 선정이 가능하며, 소주제에 대한 중심 생각이 여러 발화에 나누어진 경우 모든 문장을 중심 발화로 선정함. 선정한 중심 발화는 대화 창에 빨간색 글씨로 표시되며, 문장을 한 번 더 더블클릭하면 중심 발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림 8] 소주제 구간 확인 및 중심 발화 선정



[그림 9] 협력적 대화 요약문 작성

다음으로 [그림 9]는 소주제별 화자 요약문과 전체 요약문 작성 방법임. 작업자는 [그림 9]의 3번 부분에 3~6개로 지정된 소주제 구간별로 각 발화자의 중심 생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함. 이때 대화 참여자 중 소주제에 대해 의견이 없는 화자의 경우 화자별 발화 요약문 창에 ‘(없음)’ 이라고 작성함. 소주제 작성 칸은 구간별로 대화 확인 창의 소주제 구간과 색이 동일하게 표시되어 있고, 소주제별 요약문 작성 창 왼쪽 상단의 체크박스를 통해 대화 확인 창에서 선택한 소주제의 구간만 확인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그림 9]의 4번 부분은 전체 요약문 작성 칸임. 협력적 대화 요약 작업자는 작성한 소주제 요약문을 기반으로 화자별

혹은 소주제별로 대화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을 700자 이내로 작성함. 이때 전체 요약문 작성 창 오른쪽 상단에서 요약문 작성과 동시에 글자수를 확인할 수 있음. 작업자는 소주제별 화자 요약문과 700자 이내의 추상 요약문 작성이 완료되면 문서 넘김 버튼으로 다음 문서로 이동함.

3.3.3.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 평가 작업 도구

논증적 글 요약 평가 작업 도구는 평가 대상인 대화와 2건의 전체 요약문, 참고용 소주제별 요약문 등의 다양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화면으로 구성하여 평가자의 작업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임.

The screenshot displays the '협력적 대화 요약 평가 도구' (Cooperative Dialogue Summary Evaluation Tool) interface. It is organized into four numbered panels:

- Panel 1: 대화 및 소주제 구간 확인** (Dialogue and Sub-theme Confirmation). This panel contains a table with columns: ID, speaker, form, desc., keyword, and Sub_topic. It lists various dialogue items and their corresponding sub-topics.
- Panel 2: 소주제별 요약문 확인** (Sub-theme Summary Confirmation). This panel shows a table with columns: ID, sub-theme, and summary. It lists sub-theme summaries and their corresponding summaries.
- Panel 3: 대화 요약문 확인** (Dialogue Summary Confirmation). This panel shows a table with columns: ID, dialogue, and summary. It lists dialogue summaries and their corresponding summaries.
- Panel 4: 평가 점수 부여 및 근거 문장 작성** (Evaluation Score Assignment and Sentence Confirmation). This panel shows a table with columns: item, evaluation item, score, and evaluation result. It lists evaluation items and their corresponding scores and evaluation results.

[그림 10] 협력적 대화 요약 평가 도구 전체 화면

[그림 10]은 협력적 대화 요약 평가 작업 도구 화면임. 1번 부분은 대상 문서와 소주제 구간이 나타나는 곳이며, 2번 부분은 협력적 대화 요약 구축 작업자가 작성한 소주제 요약문이 나타나는 곳임. 소주제 요약문 창을 스크롤 하면 구축 팀의 A, B 작업자가 작성한 소주제 요약문을 모두 확인할 수 있음. 3번 부분은 구축 팀의 A, B 작업자가 작성한 전체 요약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창이며, 오른쪽 상단에서 각 요약문의 글자 수를 확인할 수 있음. 4번 부분은 평가 점수 부여 및 근거 문장 작성 창으로, 평가 항목별(적절성, 총망라성, 명료성, 긴밀성 및 완결성, 문장 및 어휘)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별 칸으로 구성함. 또한 협력적 대화

요약 평가자가 2개의 협력적 대화 요약문을 비교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 점수 부여 시 내용 총점과 전체 총점을 자동 산정하는 기능을 추가함. 만약 평가 과정에서 해당 요약문이 생성 AI를 활용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평가 작성 창 오른쪽 상단에 있는 체크박스 기능을 활용하여 관리자에게 신고함.

3.3.4. 논증적 글 요약 말뭉치 평가 작업 도구

[그림 11] 논증적 글 요약 평가 도구 전체 화면

[그림 11]은 논증적 글 요약 평가 도구 화면임. 논증적 글 요약 말뭉치 평가 도구는 평가 대상인 신문 사설 원문, 2개의 요약문, 작성 일자 및 주제 등의 사실 정보, 평가표 등 다양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형식으로 구현함. [그림 11]의 1번 부분은 논증적 글 요약 평가 대상 문서인 신문 사설 기사, 2개의 논증적 글 요약문이 나타나는 곳이며, 2번은 평가 점수 부여 및 근거 문장을 작성하는 곳임. 논증적 글 요약 평가자는 협력적 대화 평가 작업과 마찬가지로 평가 과정에서 해당 요약문이 생성 AI를 활용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관리자에게 신고하는 기능을 사용함. 3번 부분은 신문 사설 기사의 메타 정보가 나타나는 곳으로 기사 작성자, 작성 일자, 주제 등이 표시되며, 평가자는 이를 참고하여 평가를 진행함. 신문 사설 메타 정보의 예는 아래와 같음.

title	대경일보 2023년 기사
author	대경일보
publisher	대경일보
date	20230206
topic	미용/건강
original_topic	사설

[그림 12] 신문 사설 기사 메타 정보 표시 창

3.4. 작업 관리

3.4.1. 작업자 관리 담당자의 단계별 관리 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작업 진행에 어려움 및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단계	관리 방안
사전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작업물과 유사한 테스트 작업 일정을 구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스트 작업 결과는 국립국어원에 제출하고, 지침팀에서 결과를 검토하여 피드백을 제공하여 실제 작업물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 • 작업에 사용되는 작업 도구의 환경을 점검함. • 배포 예정 문서를 수동으로 검수하여 오류 유무를 파악하고 오류 문서가 발견될 경우 예비 문서로 교체함. •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을 진행한 후 작업 지침 및 교육 훈련 자료를 작업자들에게 미리 배포함.
구축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자가 작업 문서를 확인하고 지침을 기반으로 작업 기한 내에 작업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문서를 배포함. • 작업 중 작업 도구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오류를 수정한 작업 도구를 재배포함. • 작업자의 작업 상황을 상시 확인하고 작업 결과물 누락, 작업물 제출 지연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 경고 조치함. • 주 차별 수합한 작업 결과물을 검토하고 오류 및 피드백을 제공함. • 작업 결과물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 및 해결 방안을 기록함. • 작업자의 질의응답을 수시로 확인하고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함.
수정 (구축 및 평가 결과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 작업은 구축, 평가를 구분하여 진행함. • 구축 결과물 수정은 평가 결과물을 토대로 기준 점수 이하 문서 즉, 구축 수정 작업물을 모두 추출하고 수정함. • 평가 결과물 수정은 평가 근거 문장의 형식적 오류(맞춤법, 띄어쓰기, 피동문 작성, 근거 문장과 상이한 평가 점수 부여 등)를 작업 관리자가 수정함.

※ 작업자는 사업주의 관리에 따라야 하며, 사업주는 작업 관리 중 작업자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보다 작업에 편리한 환경을 제공해야 함.

제4장

작업 평가

4. 작업 평가

4.1. 작업자 작업 결과

4.1.1. 논증적 글 요약 말뭉치 구축

- 논증적 글 요약 말뭉치 구축 작업자는 교육 훈련을 이수한 5월부터 약 8주 동안 구축 작업을 진행함.
- 구축 작업자의 작업 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작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작업자 ID는 임의로 지정되어 있음.

순번	작업자	작업그룹	5월(단위:건)	6월(단위:건)	7월(단위:건)	총합
1	A	A팀	36	72	36	144
2	B		36	72	36	144
3	C		36	72	36	144
4	D		36	72	36	144
5	E		36	72	36	144
6	F		36	72	36	144
7	G		36	72	36	144
8	A	B팀	36	72	36	144
9	B		36	72	36	144
10	C		36	72	36	144
11	D		36	72	36	144
12	E		36	72	36	144
13	F		36	72	36	144
14	G		36	72	36	144
합계			504	1,008	504	2,016

<표 3> 논증적 글 요약 말뭉치 구축 작업량

4.1.2.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 구축

-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 구축 작업자는 교육 훈련을 이수한 5월부터 약 7주 동안 구축 작업을 진행함.
- 구축 작업자의 작업 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작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작업자 ID는 임의로 지정되어 있음.

순번	작업자	작업그룹	5월(단위:건)	6월(단위:건)	7월(단위:건)	총합
1	A	A팀	34	68	0	102
2	B		34	68	0	102
3	C		34	68	0	102
4	D		34	68	0	102
5	E		34	68	0	102
6	A	B팀	34	68	4	106
7	B		34	68	4	106
8	C		34	68	4	106
9	D		34	68	4	106
10	E		34	47	5	86
합계			340	659	21	1,020

<표 4>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 구축 작업량

4.1.3. 대화 및 텍스트 요약 말뭉치 평가

- 대화 및 텍스트 요약 말뭉치 평가자는 교육 훈련을 이수한 7월부터 평가 작업을 시작하여 추석 연휴 1주를 제외하고 총 15주 동안 평가를 진행함.
- 평가자의 작업 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평가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평가자 ID는 임의로 지정되어 있음.

작업 구분			협력적 대화 평가	논증적 글 요약 평가			
순번	작업자	작업그룹	7월 (단위:건)	8월 (단위:건)	9월 (단위:건)	10월 (단위:건)	총합
1	A	A	85	51	85	32	253
2	B		85	51	85	32	253
3	C		85	51	85	32	253
4	D		85	51	85	32	253
5	E		85	51	85	32	253
6	F		85	51	85	32	253
7	G	B	85	51	85	32	253
8	H		85	51	85	32	253
9	I		85	51	85	32	253
10	J		85	51	85	32	253
11	K		85	51	85	32	253
12	L		85	51	85	32	253
13	M	C	85	51	85	32	253
14	N		85	51	85	32	253
15	O		85	51	85	32	253
16	P		85	51	85	32	253
17	Q		85	51	85	32	253
18	R		85	51	85	32	253
합계			1,530	918	1,530	576	4,554

<표 5> 평가자 작업량

4.2. 성과 평가 방법

4.2.1. 추상 요약 품질 평가

- 논증적 글 요약 말뭉치 구축은 신문 사설 기사를 작업 문서로 하여 중요 문장을 선정하고 추상 요약문을 작성하는 과제이며, 협력적 대화 요약 말뭉치는 협력적 대화를 작업 문서로 하여 중심 발화를 선정하고 소주제별 요약문과 전체 요약문을 작성하는 과제임. 따라서 구축된 요약문이 추상 요약 방법으로 작성되었는지 추출 요약문과 비교 검증해야 함.
-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구축한 검증용 추출 요약 데이터와 작업자가 구축한 추상 요약 최종 결과물을 비교 검증했으며, 요약문과 검증용 데이터의 유사도를 기록한 비교 검증 결과지는 사업 결과물로 함께 제출함.

<기획·연구>

국립국어원 이현주 언어정보과장

국립국어원 이유원 학예연구사

국립국어원 김예영 연구원

<연구 참여자>

연구 책임자 차정원(데이터리)

공동 연구원 신서인(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보조원 최윤진, 이민희, 서민지, 박수연, 유승빈, 전광훈(데이터리)

이한범, 이수현, 박진현, 전상호, 김나현

윤호진, 정민교(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발행인: 국립국어원장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27

인쇄일: 25년 12월 12일

발행일: 25년 12월 12일

인 쇄: 서경기획

※ 이 보고서는 국립국어원의 용역비로 수행한 ‘2025년 대화 및 텍스트 요약
말뭉치 구축 연구’ 사업의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